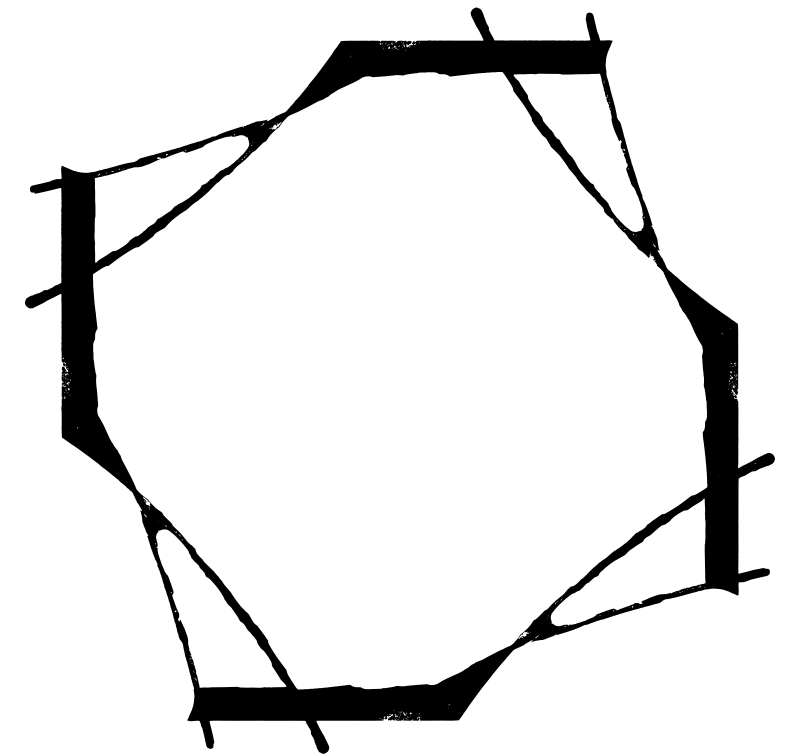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21
INTERNATIONAL COMPETITION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21
International Competition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표이사 인사말

주요수상작

입선작

심사평

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주요수상작

주요수상작	
다리엔 아리코스키 존슨	024
쭈오 밉쑤	028
주세균	032
수잔 베이너	036
오제성	040
장 카이	044
입선작 (아시아)	
모드 알-쿠지리 빈 알리	058
아오키 타케후미	060
춘 링	062
이도 페르베르	066
페이메 헤이다리	068
지앙 옌저	070
아이르 르비	072
디아 레트노	074
사카이 토모야	076
크눔	078
장 카이	082
입선작 (한국)	
안중호	084
홍근영	088
황재원	090
김지호	092
김태은	094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주요수상작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Main Prizes	
Darien Arikoski-Johnson	024
Ming-Shun Cho	028
Sekyun Ju	032
Susan Beiner	036
Jeisung Oh	040
Kai Zhang	044
Honorable Mentions (Asia)	
Mohd Al-khuzairie Bin Ali	058
Takefumi Aoki	060
Ling Chun	062
Ido Ferber	066
Fahimeh Heydari	068
Yanze Jiang	070
Yair Levi	072
Dyah Retno	074
Tomoya Sakai	076
KHNUM	078
Kai Zhang	082
Honorable Mentions (Korea)	
Jungho Ahn	084
Geunyoung Hong	088
Jae-Won Hwang	090
Ji Ho Kim	092
Tea eun Kim	094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주요수상작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주요수상작

주요수상작	
김연지	096
이진휘	098
이종민	100
이준	102
이근우	104
박정민	106
라기태	108
서해민	110
윤지용	112
윤주철	114
입선작 (유럽)	
마리아 알리피에바	116
엘리시아 아타나토스	118
헬미 브루그만	120
앤 버틀러	122
세르주 두	124
수잔 드럼멘	126
파블로 벨롯 가르시아	128
미할 그닥크	130
피터 하임스트라	132
세실 캠퍼링크	134
나탈리아 흐레츠비치	136
안드리 키야니츠아	140
케이트 랭리쉬-스미스	142
린다 안손 로데	144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주요수상작

Main Prizes	
Yeonji Kim	096
Jinhwi Lee	098
Jong Min Lee	100
June Lee	102
Keun Woo Lee	104
Jung Min Park	106
Kee-Tea Rha	108
Hyemin Seo	110
Ji Yong Yoon	112
Juchul Yoon	114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주요수상작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주요수상작	
나탈리아 만타	146
알레산드로 네레티	148
밀란 피카	150
파올로 포렐리	152
이오나 로무레	154
카미유 사바티에	156
라나 티크베사	158
안젤리카 투리미에로	160
산드라 발	162
티나 블라스폴로스	164
로테 웨스트파엘	166
입선작 (아메리카)	
제이슨 브릭스	168
제시카 에드가	170
레이첼 엔지	172
존 가르가노	174
마크 가우디	176
제니 저지	178
산드라 레딩햄	180
니콜라스 렌커	182
팅 콕 리웅	184
존 알버트 머피	186
아만다 살로프	188
토마스 슈미트	190
데이저 퀘자다 우레냐	194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주요수상작

Main Prizes	
Natalia Manta	146
Alessandro Neretti	148
Milan Pekar	150
Paolo Porelli	152
Ilona Romule	154
Camille Sabatier	156
Lana Tikvesa	158
Angelica Tulimiero	160
Sandra Val	162
Tina Vlassopoulos	164
Lotte Westphael	166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평

2021 경기국제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소개

알려두기

- 본 도록은 경기도자미술관에서 개최된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 작품의 수록 순서는 주요 수상작과 입선작을 구분하여 안배하되, 대륙별로 구분하여 작가 영문이를 성의 알파벳 순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 한글 외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으며, 실제 독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작가와 작품의 모든 정보는 작가가 제공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다.
- 작품의 규격 단위는 cm로 하고, 가로(W), 세로(D), 높이(H) 순으로 표기하였다.
- 작품의 개수와 크기가 다양한 경우, 작품을 진열하였을 때의 전체 면적을 표기하였다.
- 도록에 수록되는 언어는 국문과 영문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작가명과 기관명에 한하여 해당 현지 언어로 병기하였다.
- 도록에 사용한 작품 사진은 재단에서 일괄 촬영하였다.
- 제11회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온라인 심사위원과 2차 실물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수록되었다. 1차 온라인 심사평은 1차 온라인 접수에 대한 전체 심사평이다. 2차 실물심사평은 최종 입선작 76점에 대한 총평과 주요 수상작 6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수록되었다.

Editor's Note

- This catalogue wa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21 held at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 Work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prize winners and honorable mentions and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of artist's family name.
- Foreign language names given in Korean alphabet followed the rules of foreign language orthography of the Korean government.
- Text about the artist and work of this catalogue, and artist's statements were edited based on the information given by artists.
- The unit of dimension of the work is 'cm'. The indication of size follows width(W), depth(D), height(H).
- In case a work which is composed of many pieces and has various sizes, the displayed size is given.
- Korean and English are used as official language, except for name of artists and institutions.
- The photographs are taken by the foundation.
- In the catalogue of 11th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re are commentaries by the jurors of Online Screening and On-site Screening. The commentaries of Online Screening is about the online screening procedures and the whole participated works of 2,503. The commentaries of On-site Screening is about 76 selected artworks and 6 main prize winners.

대표이사 인사말

올해로 열 한 번째를 맞이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주제는 ‘다시 쓰다 Re:Start’ 입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시도와 제작 과정을 표현하고 작품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비엔날레는 과거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자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보고, 예술적 기여를 통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비엔날레 전시는 이천, 여주, 광주 3개 지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도 개최하여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현대도예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온라인플랫폼(www.kicb.or.kr)을 통해 도자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켜, 도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이어져온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앞으로도 도자예술문화를 선도하며 도자문화의 생활화, 세계화, 혁신화를 이룰 것 입니다.

힘든 시기 많은 분들에게 도자문화예술이 위로가 되길 바라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각국의 모든 작가분들과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Message from President

It is a great pleasure to host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which marks its eleventh anniversary this year.

The theme of the 2021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s *Re: Start*. It presents new experimentation and production process, and shows the will to break the boundaries of genre.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Biennale, we aims to examine the role and meaning of ceramics after the post-corona period, and to deliver a message of healing and hope through artists' contributions.

This year, the exhibitions, related to the Biennale, will be held in Icheon, Yeosu, and Gwangju as well as Online to demonstrate the contemporary ceramics to people around the world. We make the Covid-19 pandemic as an opportunity to expend the field of ceramic art and suggest the way that ceramics should take by providing Online Platform(www.kicb.or.kr)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which had been held since 2001, will continue to lead ceramic culture and achieve ceramics in everyday life, globalizing, and innovative ceramic art. I hope that ceramic art could be a hope for everyone during this difficult time. We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in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st gratitude to all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all the person in charge who tried hard to open the international event.

Yun Choi

President

Korea Ceramic Foundation





한국 Rep. I
한국 공예의 전통

- 청동기 시대
- 고대
- 삼국 시대
- 고구려
- 백제
- 신라
- 통일 신라
- 고려
- 조선
- 근대
- 현대

백자,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Main Prizes

금상 Gold Prize

다리엔 아리코스키 존슨 Darien Arikoski-Johnson
쭈오 밉쑤 밉 Shun Cho

은상 Silver Prize

주세균 Sekyun Ju

동상 Bronze Prize

수잔 베이너 Susan Beiner

KICB레지던시상 KICB Residency Prize

오제성 Jeisung Oh

KICB젊은작가상 KICB Emerging Artist Prize

장 카이 Kai Zhang

다리엔 아리코스키 존슨 Darien Arikoski-Johnson

금상 Gold Prize 미국 USA

이 작품은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아온 현대인들의 의식 상태를 나타낸다.

컴퓨터로 조작된 이미지가 작품의 표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분명하지만 왠지 낯익은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손으로 그리거나 디지털로 그린 이미지를 스캔한 후, 포토샵을 사용하여 새롭게 창조된다. 일련의 과정은 나의 의도를 표방하여 디지털 마크로서 재창조되는데, 이것은 가상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도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제작된 이미지는 인쇄하여 기물에 부착한 후, 소성 과정을 통해 표면과 융합하여 완성된다.

This work represents the consciousness of modern people who have been influenc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Images manipulated by computer adorn the surface, and raise unclear but somewhat familiar memories. The images in the work are created anew with Photoshop after being drawn by hand or digitally. This process is recreated as a digital mark following my intention, which cannot exist in virtual digital space without provided tools. The images produced are attached to the article and completed through the burning process to converge them with the surface.

나의 작업은 현대인 인간의 지각과 디지털 프로세스의 복잡한 관계를 표현한다. 최근 카메라폰 사용이 확산되며 우리는 즉흥적인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때로는, 순간을 포착하고 저장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방해한다. 보통 촬영된 이미지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지각하는 경험 대신 2차원 이미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흩어지고 파편화된다. 내 작품은 이러한 파편들을 분석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지각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 이는 시각의 인지과정과 관련하여 현대의 경험이 변화하는 문제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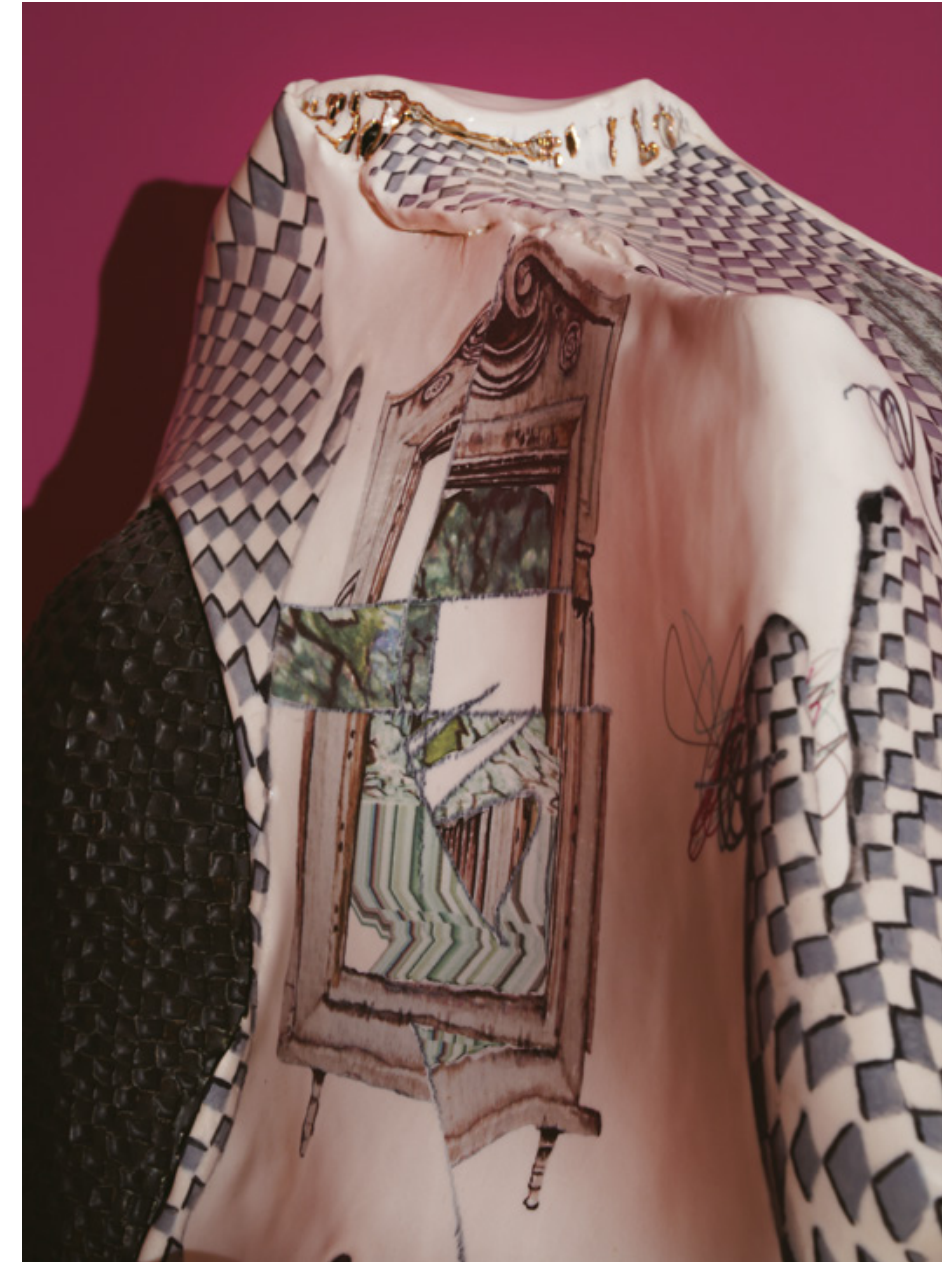
My work represents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perception of the contemporary era and the digital process. In modern times, a spontaneous photograph is available with the widespread use of camera phones. However, grasping and saving the moment sometimes hampers our real experience. In general, photographed images are used for evoking memories. But as time goes by, we rely on these two-dimensional images instead of actual perception, and accordingly, our memory is scattered and fragmented. My work encourages our recognition of the visual and sensible state that continuously changes by analyzing and changing such fragments. It tells the experiential changes in the contemporary era with regard to the visual recognition process.



파편화된 틀, 2019
자기점토, 석기점토, 투명안료, 흑유, 콘6(1222°C)

Fragmented Framing, 2019
porcelain, stoneware, clear satin, black glaze, Cone 6(1222°C)
66 x 69 x 170

학력	2009	에리조나주립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에리조나, 미국
	2003	캔자스예술학교 도자전공 비전문 과정, 미주리, 미국
전시	2020	《현대도에: 이미지와 형태》, 세인트 태머니 아트센터, 루이지애나, 미국
	2019	《파편을 통한 발견》, 알렌 에이버리 아트 컴퍼니, 조지아, 미국
수상	2018	파이널리스트, 허드젠 어워드, 허드젠 예술 & 교육센터, 조지아, 미국
	2017	최고전시상, 미주리웨스턴주립대학교, 웨스턴주립대학교, 미주리, 미국
소장	-	조지아 기술청, 조지아, 미국
	-	부셔빌드 페니아트센터, 뉴욕, 미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15	아티스트 레지던시, C.R.E.T.A., 로마, 이탈리아
	2014	아티스트 레지던시, 워터셰드 도자센터, 메인, 미국
Education	2009	M.F.A., Ceramics, Arizona State University, Arizona, USA
	2003	Post Bachelor, Ceramics, Kansas City Art Institute, Missouri, USA
Exhibitions	2020	Contemporary Clay: Image and Form, St. Tammany Art Center, Louisiana, USA
	2019	Found Through Fragmentation, Alan Avery Art Company, Georgia, USA
Awards	2018	Finalist, Hudgen's Award, Hudgens Center for the Art & Learning, Georgia, USA
	2017	Best of Show, Missouri Western State University, Western State University, Missouri, USA
Collections	-	Georgia Technology Authority, Georgia, USA
	-	Burchfield Penny Art Center, New York, USA
Residency / Workshop	2015	Artist-in-Residence C.R.E.T.A., Rome, Italy
	2014	Artist-in-Residence, Watershed Center for the Ceramic Arts, Maine, USA



쭈오 밉쑤 Ming-Shun Cho (卓銘順)

금상 Gold Prize 대만 Taiwan

쭈주전자는 본래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조용히 탁자 위에 놓여있는 '기능적인' 물건이다. 하지만, 나는 인간과 공예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별한 감정적 요소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기물과 무기물로 대변되는 인간과 공예의 관계성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이는 '공생체'의 쭈주전자로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계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The teapot is a functional object which is quietly placed on the table for use. However, I believe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artifacts may trigger particular emotions. In this con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craft represented between organic and inorganic matter further enriches the mutual existence. This symbiotic teapot implies a new relationship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people.

나에게 도자예술 창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료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상호작용의 과정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예술 창작은 원래 도자의 목적인 '쓰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사용'의 과정에서 '상호 작용', '재미', 그리고 '게임' 또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호작용하는 물체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이것이 곧 도자 예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작품에는 그 나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

For me, the process of creating ceramic art leads to value beyond simply creating a physical object. Therefore, the creation of ceramic art should return to its original purpose: use. After all, interaction, fun, and even games can be creat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something useful. People tend to feel something with interactive objects, and they are the basis of ceramic art. Accordingly, I believe each work has its own life.



학력	2009 국립대만예술대학교 공예디자인 전공 석사, 타이베이, 대만
전시	2019 <공생>, 현대도자갤러리, 마오리, 대만 2014 (2014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잉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수상	2014 금상, 제5회 대만 국제 골드 티팟 프라이즈, 대만도자협회, 타이중, 대만 2012 금상, 제4회 대만 국제 골드 티팟 프라이즈, 대만도자협회, 타이중, 대만
소장	- 신베이시 잉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 한국도자재단, 인천, 한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15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시아퍼시픽 대학교, 마오리, 대만 2005 호청 세라믹 워크샵, 신베이시 잉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Education Exhibitions	2009 M.F.A., Craft and Design,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Arts, Taipei, Taiwan 2019 <i>Symbiont</i> , Contemporary Ceramics Gallery, Miaoli, Taiwan
Awards	2014 <i>TAIWAN Ceramics Biennale</i> ,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City, Taiwan 2014 Gold Prize, 5th Taiwan International Gold Teapot Prize, Taiwan Ceramics Alliance, Taichung, Taiwan 2012 Gold Prize, 4th Taiwan International Gold Teapot Prize, Taiwan Ceramics Alliance, Taichung, Taiwan
Collections	-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City, Taiwan -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Residency / Workshop	2015 Artist-in-Residence, Asia-Pacific Institute of Creativity, Miaoli, Taiwan 2005 HOCHENG Ceramic Workshop,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City, Taiwan

호문쿨루스-LR(쭈주전자), 2020
점토, 저밀도 유약, 1230°C

Homunculus-LR(teapot), 2020
clay, slurry glaze, 1230°C
12 x 12 x 15



호문클러스-LR Homunculus-LR 00:04

호문클러스-LR Homunculus-LR 00:20



호문클러스-LR Homunculus-LR 00:29

호문클러스-LR Homunculus-LR 00:35

주세균 Sekyun Ju
은상 Silver Prize 한국 Korea

나는 과거 자료 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쓰는 한국 도자기의 형태를 수집했다. 그리고 수집된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원형을 복제한 후, 도자기를 절단하고 붙이면서 다시 도자기들을 이종 결합 시킨다. 이번 작품은 하얀색 분필을 이용하여 구멍 난 진열장에 설치된 도자기에 색을 칠하는 과정이 있다. **古** 백자의 영롱한 백색을 흉내내고, 떨어지는 백색 가루들은 원의 모양을 이루며 하얀 그림자를 만든다. 구멍 아래로 떨어지는 분필 가루는 아래 진열장의 도자기 위에 쌓이게 된다. 진열장 안의 백자들은 수집, 재조합, 재배열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통이 된다.

While researching materials from the past, I collected the most widely-used shapes of Korean pots. I reinterpreted the images I had collected and produced replicas of pots. I cut the replicas into pieces and pasted them together to produce pots that were combinations of different pots. **Tracing Drawing Series #2021-1** involves the process of applying colors to pots displayed on open shelves with holes with white chalk, which intends to imitate the subtle white of ancient white porcelain. The white chalk dust falling down to the ground through holes forms a circle and creates a white shadow. The dust falling through holes piles up on pots on the shelf below. White porcelain jars displayed on the shelves become a new tradition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on, recombination, and rearrangement.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회적 규칙과 기준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불안정함 위에 세운 사회적 구조와 형식들 또한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라고 본다. 나는 사회적 인식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요소들에 시각적 변형과 왜곡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모래, 분필, 가루 등 가변적인 재료들로 시각과 촉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브제와 공간을 만들었다. <트레이싱 드로잉> 시리즈로 시작한 도자기 작품은 고정된 의미로서의 전통이라는 신화에 도전한다. 나는 다양한 재현 방식을 통해 전통의 비판적 수용과 현대성을 실험해 가고 있다.

I think that our social rules and standards in which we believe are imperfect. I also regard the social structure and the forms built on such imperfect system as ephemeral and fluid. I work on a project that brings visual deformity and distortion to elements of social perception, which is believed to be immutable. Using variable materials such as sand, chalk, and dust, I have worked on objets and space that allows for the viewers to have visual and tactile experiences. The pots of Series #2021-1 challenge the myth called tradition as a stereotypical meaning. Employing various reproduction methods, I experiment with critical acceptance and modernization of tradition.



학력	2019 중앙대학교 예술학전공 박사 수료, 서울, 한국
	2011 국민대학교 입체미술전공 석사, 서울, 한국
전시	2020 《Notional Flag #5-B》, 갤러리투이드, 서울, 한국
	2020 《화이트랩소디》, 우란문화재단, 서울, 한국
수상	2014 입선, 2015 OCI YOUNG CREATIVES, OCI미술관, 서울, 한국
	2011 입선, 제33회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 한국
소장	- 우란문화재단, 서울, 한국
	-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16 아티스트 레지던시, 유러피안세라믹워크센터, 오이스터빅, 네덜란드
	2016 아티스트 레지던시, 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Education	2019 Ph. D. Candidate, Art Science,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1 M.F.A., Sculpture,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2020 <i>Notional Flag #5-B</i> , Chapter II Yard, Seoul, Korea
	2020 <i>White Rhapsody</i> , Wooran Foundation, Seoul, Korea
Awards	2014 Selected, 2015 OCI YOUNG CREATIVES,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1 Selected, 33rd Joongang Finearts Prize, Korea Joongang Daily, Seoul, Korea
Collections	- Wooran Foundation, Seoul, Korea
	-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Residency / Workshop	2016 Artist-in-Residence, European Ceramic Work Center, Oisterwijk, Netherlands
	2016 Artist-in-Residence, SeMA Nanji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트레이싱 드로잉 시리즈 #2021-1, 2020
도자, 분필, 철, 나무, 무유소성, 1150°C

Tracing Drawing Series #2021-1, 2020
ceramics, chalk, steel, wood, none-glazed firing, 1150°C
115 x 30 x 215



수잔 베이너 Susan Beiner
 동상 Bronze Prize 미국 USA

이 도자 작품은 우리 지구의 취약성을 경고한다. 표면은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양탄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양인 식물군과 동물군이 배치되어 있다. 중심부에 있는 무성한 *아티초크는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아티초크를 다양한 꽃으로 패턴화하여 뽀뽀한 야생화 문양을 형성한다. 강렬하고 풍성한 색감은 힘의 상징이며, 금색 러스터는 태양 빛을 묘사한다. 양탄자의 모서리에는 공예의 역사를 의미하고 아우르는 바느질 자국이 수놓아져 있다.

This ceramic piece warns of the fragility of our planet. Flora and fauna, one of the most common patterns found in rugs from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are allocated on the surface. The thick artichoke* in the middle represents the hope for a prosperous future. The dense wildflower patterns are formed by patterning the artichoke in various kinds of flowers. While the intense and rich colors symbolize power, the golden luster describes the sunlight. Stitches representing and encompassing the history of crafts are embroidered at the corners of the rug.

*아티초크: 국화와 식물. 엉겅퀴 꽃같이 생긴 꽃봉오리를 가짐.
 *Artichoke belongs to the chrysanthemum family with a thistle-like bud.

나의 작품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질에서 영향받았다. 작품은 현재의 풍경을 참고하되, 내가 어떻게 다양한 생활 환경과 문화에 영향받았는지를 반영한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다. 나는 부분들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하여 공간을 확장하는 설치 방식을 좋아한다. 내 설치작품은 실제 공간에 맞게 대규모로 형태와 속성, 품질과 양을 재조립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나의 흥미는 중층화, 파편화, 증식, 병치, 복잡함의 요소들로 더욱 고조된다. 강렬하고 뚜렷한 색채는 이 작품이 명백히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현실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My artwork is influenced by the observable qualities in nature. It refers to the current landscape reflecting how I have been influenced by various types of lifestyles and cultures. Environment is one of the most pressing concerns we have today. I prefer to install the parts by geometrically allocating them to expand a space. Reassembling in large scale the forms, attributes, quality, and quantity up to actual space is possible in my installation work. Layering, fragmentation, multiplication, juxtaposition, and complexity fuel my interest further. Intense and brilliant colors stress that this work is an artificial reality clearly created by human hands.



학력	1993 미시간대학교-앤아버 도예전공 석사, 미시간, 미국
	1985 멧거스주립대학교 도예전공 학사, 뉴저지, 미국
전시	2021 《Susan Beiner》, 신베이시 일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2020 《3중혼합》, 노던 클레이 센터, 미네소타, 미국
수상	2020 대상,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일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2018 입선, 아티스트 어워드, 인그렘 아트센터, 테네시, 미국
소장	- 신베이시 일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 현대 도기 갤러리, 상하이, 중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실험적인 도자 워크샵, 장시, 중국
	2017 아티스트 레지던시, C.R.E.T.A., 로마, 이탈리아
Education	1993 M.F.A., Ceramics,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USA
	1985 B.F.A., Ceramics, Rutgers University, New Jersey, USA
Exhibitions	2021 Susan Beiner,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20 Triaxial Blends, Northern Clay Center, Minnesota, USA
Awards	2020 Grand Prize,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18 Selected, Artist Award, Ingram Arts Center, Tennessee, USA
Collections	-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 Modern Pot Art Gallery, Shanghai, China
Residency / Workshop	2019 Experimental Pottery Workshop, Jiangxi, China
	2017 Artist-in-Residence, C.R.E.T.A., Rome, Italy

취약함의 한계, 2021
 자기점토, 콘06산화소성, 러스터, 1120°C(유약), 715°C(러스터)
Bounded Fragility, 2021
 porcelain, cone 6 oxidation, lustre, 1120°C(glaze), 715°C(lustre)
 292 x 292 x 81



오제성 Jeisung Oh

레지던시상 KICB Residency Prize 한국 Korea

과거 개인 수집창고로 여겨진 서양의 호기심 캐비닛(Cabinet of curiosities)은 청나라에 수입되어 다보각경도(多寶閣景圖)로 변형되었고 이후 책가도(冊架圖)의 형태로 조선 후기 민화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호기심 캐비닛은 분류학과 박물관의 원형이었다. 나는 이질적인 두 문화의 접점과 서로의 문화에 젖어 들고 흡수되어가는 과정에 흥미를 느꼈다. 이 작업은 김수로왕, 성모, 산신, 포대화상, 삼두일족응, 도철이, 발형다층석탑, 와불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대 민간 신들을 동서양의 접합을 다보각에 모아보는 시도이다.

Cabinet of curiosities was a private collection of objects from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urope. Introduced to Qing China, a cabinet of curiosities was called duobao ge (“cabinet of many treasures”) and was used as a subject of painting. Chinese painting of the cabinet of many treasures was in turn introduced to Joseon Korea. Called chaekgado (shelves of books and things) in Korean, this new subject of folk painting breathed fresh life into folk painting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cabinet of curiosities was the predecessor of the modern museum and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classification. I was intrigued by the different cultures of the West and the East becoming connected, absorbed, and merged into each other. I attempted to show how the East and the West join each other by bringing local gods of religions of the ancient world together in a cabinet of many treasures, including King Kim Su-ro (42-199), legendary founder of the ancient kingdom of Gaya, Saint Mary, Buddhist monk Budai, the three-headed and one-legged hawk, ancient one-foot Chinese mythological creatures called Taotie, a rice-bowl-shaped multi-storied stone pagoda, and a reclining Buddha.

2019년부터 나는 전국 각지의 오래된 기도 터, 사찰, 교회, 성당 등에 답사를 다녔다. 식민지배와 전쟁 등 굴곡 있는 근현대사를 겪어오며 한국의 토속 신앙은 다양한 문화와 세계 각지의 신들과 융화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특히하게도 이렇게 한국에 모인 다양한 신들은 서로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고 무속, 사찰, 전통 문화에 스며들어 공존한다. 화합을 중심으로 모인 신들의 역할은 생각보다 소박하다. 세계를 제패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기적을 행하는 신들이 아니라 소박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자잘한 일들을 보살피며 주며 생활 깊숙이 관여한다. 아마도 신들이 그렇게 지역민들의 따뜻하고 소박한 마음을 닮아간 결과일 것이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신화, 전설, 민담, 설화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을 통해 발견한 이야기들을 다시 새로운 조형 언어로 창조함으로써 한국이 겪어온 식민지, 전쟁, 압축 성장 과정에서 유실된 한국의 전통성,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만의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잠시 기원에 본다.

Since 2019, I have gone on historical pilgrimages to sites of worship, Buddhist temples, churches, and cathedrals all around Korea. During the upheaval and suffer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War, native folk religions accommodated diverse cultures and gods from different regions the world over. These native folk religions became what we see today. Interestingly enough, however, the different gods do not conflict with or compete against each other when assembled in one place. Instead, they are instilled into shamanism, Buddhism, and traditional culture and peacefully coexist. Gathered together in harmony, the gods are far less august or almighty than we otherwise believe. These gods seek neither to conquer the world nor to do miracles to attract attention to themselves. Instead, they mingle with the people and deeply involve themselves in everyday life to take care of small things of the kind that happen every day in the local community. And in doing so, the gods have essentially assimilated into simple, warm-hearted local people. I intend to recreate myths, legends, and folktales of such contemporary meanings through my sculptures. By telling stories I heard on my journeys anew with visual formal language, I hope to rediscover the Korean cultural identity that has been lost as a result of the Japanese occupation, the Korean War, and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further, to determine how Northeast Asia is unique.



학력	2019	국민대학교 미술학전공 석사, 서울, 한국
전시	2016	오티스 갤러리 오브 아트 앤 디자인, 석사, 캘리포니아, 미국
	2020	《INDEX-XP2》, 평창무이예술관, 평창, 한국
소장	2020	《집속》, 클레이마크 김혜미술관, 김해, 한국
	-	평창무이예술관, 평창, 한국
레지던시 / 워크샵	-	누루미술관, 밀양, 한국
	2021	아티스트 레지던시, K'ARTS 미술원 창작스튜디오,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한국
	2020	아티스트 레지던시, 세라믹창작센터, 클레이마크김해, 김해, 한국
Education	2019	M.F.A., Fine Art,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2016	M.F.A., Fine Art,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California, USA
	2020	INDEX-XP2, Moeee Arts Center, Pyeongchang, Korea
Collections	2020	Contact,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Korea
	-	Moeee Arts Center, Pyeongchang, Korea
Residency / Workshop	-	Nuru Museum of Art, Miryang, Korea
	2021	Artist-in-Residence, K'ARTS Studi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2020	Artist-in-Residence, Ceramic Creative Center, Clayarch Gimhae, Gimhae, Korea

다보각경도, 2020
 석기점토, 색유, 투명유, 알루미늄, 아크릴, 1250°C
Cabinet of curiosities, 2020
 stoneware, colored glaze, transparent glaze, aluminium, acrylic, 1250°C
 250 x 50 x 180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장 카이 Kai Zhang (张凯)

젊은작가상 KICB Emerging Artist Prize 중국 China

맹목이라는 말은 곧 시력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컬러풀한 세계에 살면서 과연 구석진 곳의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을 관찰해보았을까? 브라유(Braille)는 시각장애인이 교육을 더 편리하게 받고 지식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범프 점자법을 발명했다. 시각장애인이 문명을 즐기고 예술도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국경 없이 보편적이고 친근한 재료인 점토를 사용해서 친절함을 보이고 싶다. (브라유에 바치는 헌사, 2020)

Blindness means there is no vision. Have we ever observed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in the corner while we are living in a colorful world? Braille invented the Bump Braille method so that the visually impaired could receive education and enjoy the power of knowledge. Also, Braille allowed blind people to enjoy civilization and art. I want to show my kindness with clay, a universal and kind material without borders. (Tribute to Braille, 2020)

나는 1990년 중국 타이위안 태생으로 Tangshan에 사는 현대 도예가 장 카이다. 2014년에 경덕진 도자기 학교에서 도예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8년에는 경덕진 도자기 대학교에서 도예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도예가 Vinod Daroz와 Cheng'Ou Yu의 조수로 레지던시 창작을 도왔다. 현재 나는 북중국과학기술대학교 예술대학 강사로 재직 중이다.

Born in Taiyuan, China in 1990, I am Kai Zhang, a modern potter living in Tangshan. I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ceramics from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in 2014 and earned a master's degree in ceramic design from Jingdezhen Ceramic University in 2018. In 2016 and 2017, I helped the residency work of the potters Vinod Daroz and Cheng'Ou Yu, respectively. Currently, I am a lecturer at the School of Art, North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력	2018 경덕진도자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장시, 중국
	2014 경덕진도자대학교 도자전공 학사, 장시, 중국
전시	2020 《제5회 중국현대도자아트-지에 상》, 산둥박물관, 산둥, 중국
	2018 《제3회 광둥현대도자아트》, 광저우 예술 아카데미 미술관, 광둥, 중국
수상	2019 동상, 지린시도자협회, 지린, 중국
	2016 우수상, 중국도자협회, 저장, 중국
소장	- 경덕진도자대학교, 지린, 중국
	- 허난박물관, 허난, 중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17 어시스턴트, 모드전(Vinod Daroz), 리링도자미술관, 후난, 중국
	2016 어시스턴트, 클래식 리컨스트럭션전(Cheng'Ou Yu), 리링도자미술관, 후난, 중국
Education	2018 M.A., Ceramics,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Jiangxi, China
	2014 B.A., Ceramics,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Jiangxi, China
Exhibitions	2020 5th China Contemporary Ceramic Art-Jie-Shang, Shandong, China
	2018 2018 The 3rd Guangdong Contemporary Ceramic Art, 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Art Museum, Guangdong, China
Awards	2019 Bronze Award, Jilin City Ceramic Industry Association, Jilin, China
	2016 Excellence Award, China Ceramic Industry Association, Zhejiang, China
Collections	-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Jilin, China
	- Henan Museum, Henan, China
Residency / Workshop	2017 Assistant, Mode Exhibition(Vinod Daroz), Liling Ceramic Valley Museum, Hunan, China
	2016 Assistant, Classic Reconstruction Exhibition(Cheng'Ou Yu), Liling Ceramics Valley Museum, Hunan, China

브라유에 바치는 헌사, 2020
자기점토, 1250°C

Tribute to Braille, 2020
porcelain, 1250°C
180 x 35 x 15









Honorable Mentions

아시아 Asia

모드 알-쿠지리 빈 알리 Mohd Al-khuzairie Bin Ali

아오키 타케후미 Takefumi Aoki

춘 링 Ling Chun

이도 페르베르 Ido Ferber

파이메 헤이다리 Fahimeh Heydari

지양 옌저 Yanze Jiang

야이르 르비 Yair Levi

디아 레트노 Dyah Retno

사카이 토모야 Tomoya Sakai

크눔 KHNUM

장 카이 Kai Zhang

한국 Korea

안중호 Junggho Ahn

홍근영 Geunyoung Hong

황재원 Jae-Won Hwang

김지호 Ji Ho Kim

김태은 Tea eun Kim

김연지 Yeonji Kim

이진휘 Jinhwi Lee

이종민 Jong Min Lee

이준 June Lee

이근우 Keun Woo Lee

박정민 Jung Min Park

라기태 Kee-Tea Rha

서혜민 Hyemin Seo

윤지용 Ji Yong Yoon

윤주철 Juchul Yoon

유럽 Europe

마리아 알리피에바 Mariya Alipieva

엘리시아 아타나토스 Elysia Athanatos

헬미 브루그만 Helmie Brugman

앤 버틀러 Anne Butler

세르주 두 Serge Dos

수잔 드럼멘 Suzan Drummen

파블로 벨롯 가르시아 Pablo Bellot Garcia

미할 그닥크 Michal Gdak

피터 하임스트라 Peter Hiemstra

세실 켐페링크 Cecil Kemperink

나탈리아 흐레츠비치 Natalia Khlebtsevich

안드리 키야니차 Andriy Kiyanitsa

케이트 랭리쉬-스미스 Kate Langrish-Smith

린다 얀손 로데 Linda Jansson Lothe

나탈리아 만타 Natalia Manta

알레산드로 네레티 Alessandro Neretti

밀란 피카 Milan Pekar

파올로 포렐리 Paolo Porelli

이요나 로무레 Ilona Romule

카미유 사바티에 Camille Sabatier

라나 티크베사 Lana Tikvesa

안젤리카 투리미에로 Angelica Tulimiero

산드라 발 Sandra Val

티나 블라스폴로스 Tina Vlassopulos

로테 웨스트파엘 Lotte Westphael

아메리카 Americas

제이슨 브릭스 Jason Briggs

제시카 에드가 Jessica Edgar

레이첼 엔지 Rachel Eng

존 가르가노 John Gargano

마크 가우디 Mark Goudy

제니 저지 Jenny Judge

산드라 레딩햄 Sandra Ledingham

니콜라스 렌커 Nicholas Lenker

팅 콕 리영 Ting Kwok Leung

존 알버트 머피 John Albert Murphy

아만다 살로프 Amanda Salov

토마스 슈미트 Thomas Schmidt

데이지 퀘자다 우레냐 Daisy Quezada Urefña

모드 알-쿠지리 빈 알리 Mohd Al-khuzairie Bin Ali

말레이시아 Malaysia

나는 작품을 통해 인류 문명의 발전 속에 나타난 반인류적인 폭력 문제를 말하고

싶었다. 나는 폭력적인 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멸종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며 두려움에 휩싸인 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물들이 멸종했을 때,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매년 일만 종류 이상의 동물들이 전통 약재와 무역, 그리고 패션에 소비되며 죽음을 맞이한다. 나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을 작품에 표현하며, 타자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려 한다.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과 동식물 그리고 기술문명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다.

관찰자- 오늘날 고래의 멸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늘을 나는 고래

I wanted to deal with violence against humanity seen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Stories about the extinction of animal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violent civilizations scare me. We do not know how nature will respond when these animals abruptly go extinct one day. Every year, more than 10,000 species die as we consume them for traditional medicine, trade, and fashion. My work represents this violent situation, and explores the human behavior towards the other to see the connection among humans, flora and fauna, and technology.

Observer - Flying Whale talks about extinctions of whales today.

인류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넘어, 관람객들이 이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매체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나는 내 생체역학적 작품에서 도자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며, 강철과 같은 다른 매체를 혼합했다. 나는 기계적인 기술을 유기체와 결합하는 것을 좋아한다. 생물체와 기계, 자연과 산업을 결합하고 변형시켜, 아름답지만 기묘하게 혼란스런 형태를 만들어낸 다. 나는 석기토, 슬립 캐스팅, 프레스 성형, 손 성형, 코일링 기법, 혼합 유약과 매트유를 사용하여 1210°C에서 소성했다.

I hope that the audience pays attention to the medium used for expressing ideas beyond the theme of the impact of humanity on nature. In my biomechanical work, ceramic was the main medium and is combined with steel and other media. I like combining mechanical technology with organic bodies. I create beautiful but weirdly chaotic figures by combining living things and machines, and nature and industry. I used stoneware, slip casting, press molding, hand building, and coiling and firing at 1210°C with both mixed and matte glaze.



관찰자 - 날아다니는 고래, 2019
 석기점토, 자동차부품, 나무, 철, 체인, 뉴시고리, 낫쇠튜브, 철골, 너트, 볼트, 1210°C
Observer - Flying Whale, 2019
 stoneware, vehicle part, wood, steel, chain, barrel swivel, rof brass tube, steel rod, nut and bolt, 1210°C
 40 x 23 x 67

학력	2009	마라공과대학교 도자전공 학사, 사알람, 말레이시아
	2006	마라공과대학교 도자전공 디플로마, 사알람, 말레이시아
전시	2020	《JARAK-1미터 이야기》, 힝갈 아트스페이스, 슬랑고르, 말레이시아
	2016	《무한 가치》, 림분 다한, 슬랑고르, 말레이시아
수상	2017	2등, 버추얼 아트 핏치(VAP 2), 마이크리에이티브 벤처스, 슬랑고르, 말레이시아
	2016	파이널리스트, 영 컨템포러리스 2016, 국립갤러리,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소장	-	치앙마이시립미술관 & 문화센터, 치앙마이, 태국
	-	신라백산대학교, 양곡, 태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19	제1회 치앙마이국제도에 및 문화, 치앙마이시립미술관 & 문화센터, 치앙마이, 태국
	2016	림분 다한 레지던시, 셀랑고르, 말레이시아
Education	2009	B.A., Ceramics, Universiti Teknologi Mara, Shah Alam, Malaysia
	2006	Diploma, Ceramics, Universiti Teknologi Mara, Shah Alam, Malaysia
Exhibitions	2020	JARAK-Cerita 1 Meter, Hinggap ArtSpace, Selangor, Malaysia
	2016	Priceless, Rimbun Dahan, Selangor, Malaysia
Awards	2017	2nd Winner, Virtual Art Pitch(VAP 2), MyCreative Ventures, Selangor, Malaysia
	2016	Finalist, Young Contemporaries 2016, National Art Gallery, Kuala Lumpur, Malaysia
Collections	-	Chiang Mai City Arts & Cultural Center, Chiang Mai, Thailand
	-	Silpa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Residency / Workshop	2019	1st Chiang Mai International Ceramic Arts and Cult, Chiang Mai City Arts and Cultural Centre, Chiang Mai, Thailand
	2016	Rimbun Dahan Residency, Selangor, Malaysia

아오키 타케후미 Takefumi Aoki (青木岳文)

일본 Japan

슬립 트레일링과 슬립 캐스팅의 어우러짐이 백자 형태의 아름다움과 긴장감을 자아낸다.

The harmony of slip trailing and slip casting techniques creates the beauty and tension in this white porcelain form.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다양한 나의 모습에 자극을 받는다. 그것이 흥미로움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나의 작품은 완성된다.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 자신에게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서 나는 그 작품이 내 자신인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 the process of touching the soil and making a porcelain, I am stimulated by various aspects of myself. I feel interested, and then, my work is done. I have various experiences and I am stimulated by myself. Then, I think I can make the work which seems like myself.



학력 2015 아이치예술대학교 도자전공 학사, 아이치, 일본
Education 2015 B.A., Ceramics, Aichi University of the Arts, Aichi, Japan

실린더, 2020
백색 자기점토, 백색 매트유, 1230°C
Cylinder, 2020
white porcelain, white matt glaze, 1230°C
22.5 x 22.5 x 18, 22.5 x 22.5 x 16, 22.5 x 22.5 x 12

춘 링 Ling Chun (秦玲)

중국/홍콩 China/Hong Kong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현대 도자 예술계는 바뀌었다. 무엇을 '공예'로 보고 무엇을 '순수 미술'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긴장감이 있지만, 우리는 전통 방식들과 새로운 개념들이 상호작용하는 '경계'의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는 공예와 순수미술은 수평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서로서로 채워준다고 생각한다. 도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관점을 공유하고 공예의 본질로서 이해와 존중을 받으면서 순수미술로서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장려하고자 한다. 동서양의 복합도시인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문화적인 '경계의' 창조물이다. 나는 현대 도자와 나의 작업을 같은 시각으로 본다.

In less than a decade, the modern ceramic art world has changed. Though there is tension concerning what should be viewed as crafts and what should be viewed as fine arts, we need to accept the concept of “boundaries” in which traditional methods and new concepts interact. I think crafts and fine arts exist horizontally and complement each other. I would like to share my perspective on what pottery can do and encourage a new way of thinking as fine arts while receiving understanding and respect as the essence of crafts. Born and raised in Hong Kong, a complex city of the East and West, I am a creature of a cultural boundary. I see my work as modern ceramics from the same perspective.

나는 색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문화적 기대는 나의 도자기 형태로 나타나고 '유약의 놀이터'가 되었다. 나는 어떠한 소재가 틀에 박혀 있거나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도로부터 분리되어 그 규칙과 역할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직 뜨거운 작품들을 가마에서 빼내면서, 유약이 불을 때까지 유약을 표면에 바른다. 그러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이것은 여러 번의 소성과 여러 층의 유약으로 나타나는 직관적인 과정이다. 이 작업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넘어지고, 달리고, 올라가고, 기어 오며 탄생한 작품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나의 매체이다. 표면에 털을 붙이고, 특이하고 놀라운 물질들로 넘쳐 나면서 표면들이 형태의 크기를 벗어나며 기대와 인식을 깬다. 나는 현대 도자기가 문화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인식을 보여주는 유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단지 유산으로만 멈춰있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의 도자기는 이제 옛 형식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I have an urge for colors. Long suppressed anger and cultural expectations emerged in the form of my ceramic works and became a "playground for glaze." I like to challenge the rules and roles of a subject, separated from its stereotyped or culturally accepted uses. I still apply the glaze to the surface of the works while I remove hot pieces from the kiln so that the glaze can be applied. Then, the haze rises with a sizzling sound. This is an intuitive process that appears with multiple times of firing and multiple layers of glaze. This work was born out of my natural falling, tumbling, running, climbing, and crawling. And such moves are my medium. By attaching fur on a surface overgrown with unusual and amazing materials, I broke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by deviating from the size of the form. I believe that modern pottery will serve as remains to our current perception on cultural identity. Though closely related to history, it is more than a legacy. Pottery in the new era will no longer be confined to the old form.



학력	2016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도자전공 석사, 로드아일랜드, 미국
전시	2012 시카고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학사, 일리노이, 미국 2021 《색의 질감》, 유택틱갤러리, 오리건, 미국 2020 《어포스트로피 S》, 메소드갤러리, 워싱턴, 미국
수상	2020 선정, NCECA 이머징 아티스트, NCECA 이머징 아티스트 펠로우십, 미국도자교육평의회, 콜로라도, 미국 2019 파이널리스트, Maylis Grand 젊은작가상 2019, Maylis and James 기금, 런던, 영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18- 아티스트 레지던시, 포터리 노스웨스트, 워싱턴, 미국 2020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키 브레이 재단, 몬태나, 미국 2016-2018
Education	2016 M.F.A., Ceramics,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hode Island, USA 2012 B.F.A.,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inois, USA
Exhibitions	2021 <i>Texture of Color</i> , Eutectic Gallery, Oregon, USA 2020 <i>Apostrophe S</i> , Method Gallery, Washington, USA
Awards	2020 Selected, NCECA Emerging Artists, NCECA Emerging Artists Fellowships, National Council for the Education of the Ceramic, Colorado, USA
Residency / Workshop	2019 Finalist, Young Masters Maylis Grand Ceramics Prize 2019, Maylis and James Grand, London, UK 2018- Artist-in-Residence, Pottery Northwest, Washington, USA 2020 Artist-in-Residence, Archie Bray Foundation, Montana, USA 2016-2018

초록색 항아리, 2018 도자, 나무, 머리카락, 메탈, 네온, 털, 콘6 유약, 콘04 유약, 러스터, 콘4a (1160°C), 콘6a(1200°C), 콘018(1500°C)
Green Jar, 2018 ceramics, wood, hair, metal, neon, fur, cone 6 glazes, cone 04 glazes, luster, Cone 4a(1160°C), Cone 6a(1200°C), Cone 018(1500°C) 40.64 x 38.1 x 43.8

춘 링 Ling Chun (秦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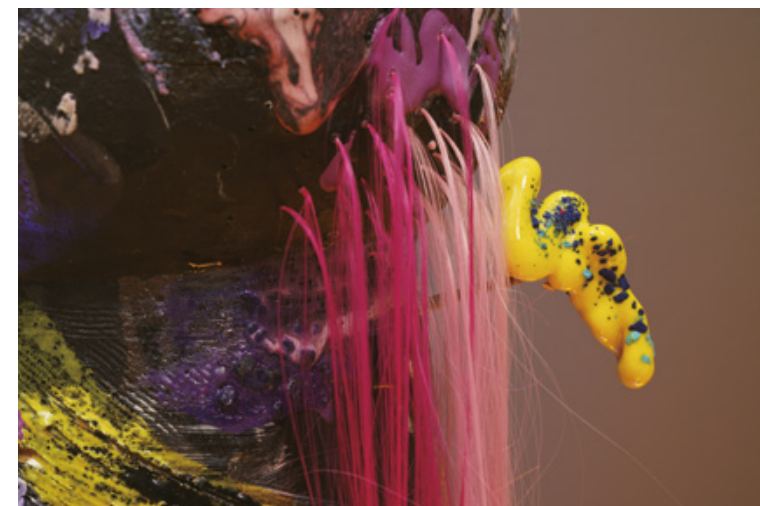
중국/홍콩 China/Hong Kong

<그녀가 기억하는 네온 사인>은 고향 홍콩에 대한 나의 기억을 담아내는 동시에 미국의 이민자로의 소속감을 탐구하게 한다. 정치적인 면에서, 나의 고향 홍콩은 열다섯 달 주기로 빠르게 급변해왔다.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갔던 것은 3년 전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나는 홍콩에 대한 짧은 기억을 담아내고 싶다 - 내가 살았던 도시의 활기를 반영하는 생생한 네온사인과 신호등의 딸깍거리는 소음들을. 관람객이 보는 전기의 색은 수천 볼트를 통해 에너지를 얻은 작은 유리관 속 불활성기체들로부터 나오는 흥미로운 반응이다. 동시에 네온 불빛은 LED의 발명 이후로 사라져가는 홍콩의 문화이기도 하다. 이 네온 도자기 작품을 만들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형태의 예술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예술가의 역할을 맡았다. 나는 홍콩을 사랑했고, 더는 예전 같지 않은 내 고향을 사랑했다. 이것이 고향에 대한 나의 기억이다.

The Neon She Remembered captures my memories of my hometown, Hong Kong. At the same time, it also explores my sense of belonging in the United States as an immigrant. Politically, my home town of Hong Kong has rapidly changed every fifteen months. The last time I went home was three years ago. In this exhibition, I would like to capture a brief memory of Hong Kong—vivid neon signs and clicking noises reflecting the vitality of the city. The color of electricity that visitors see is an interesting reaction from inert gases in small glass tubes that receive thousands of volts of energy. At the same time, neon lights are an aspect of Hong Kong that has disappeared since the invention of LEDs. In creating this neon pottery work, I took on the role of artist to preserve the art and culture of the form I love. I loved Hong Kong, and I loved my hometown, which was no longer the same as it was. This is my memory of my hometown.

나는 색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문화적 기대는 나의 도자기 형태로 나타나고 '유약의 놀이터'가 되었다. 나는 어떠한 소재가 틀에 박혀 있거나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도로부터 분리되어 그 규칙과 역할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직 뜨거운 작품들을 가마에서 빼내면서, 유약이 붙을 때까지 유약을 표면에 바른다. 그러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이것은 여러 번의 소성과 여러 층의 유약으로 나타나는 직관적인 과정이다. 이 작업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넘어지고, 달리고, 올라가고, 기어 오며 탄생한 작품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나의 매체이다. 표면에 털을 붙이고, 특이하고 놀라운 물질들로 넘쳐 나면서 표면들이 형태의 크기를 벗어나며 기대와 인식을 깬다. 나는 현대 도자가 문화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인식을 보여주는 유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단지 유산으로만 멈춰있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의 도자기는 이제 옛 형식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I have an urge for colors. Long suppressed anger and cultural expectations emerged in the form of my ceramic works and became a "playground for glaze." I like to challenge the rules and roles of a subject, separated from its stereotyped or culturally accepted uses. I still apply the glaze to the surface of the works while I remove hot pieces from the kiln so that the glaze can be applied. Then, the haze rises with a sizzling sound. This is an intuitive process that appears with multiple times of firing and multiple layers of glaze. This work was born out of my natural falling, tumbling, running, climbing, and crawling. And such moves are my medium. By attaching fur on a surface overgrown with unusual and amazing materials, I broke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by deviating from the size of the form. I believe that modern pottery will serve as remains to our current perception on cultural identity. Though closely related to history, it is more than a legacy. Pottery in the new era will no longer be confined to the old form.



학력	2016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도자전공 석사, 로드아일랜드, 미국
전시	2012 시카고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학사, 일리노이, 미국 2021 <색의 질감>, 유택틱갤러리, 오리건, 미국 2020 <어포스트로피 S>, 메소드갤러리, 워싱턴, 미국
수상	2020 선정, NCECA 이머징 아티스트, NCECA 이머징 아티스트 펠로우십, 미국도자교육평의회, 콜로라도, 미국 2019 파이널리스트, Maylis Grand 젊은작가상 2019, Maylis and James 기금, 런던, 영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18-2020 아티스트 레지던시, 포터리 노스웨스트, 워싱턴, 미국 2016-2018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키 브레이 재단, 몬태나, 미국
Education	2016 M.F.A., Ceramics,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hode Island, USA 2012 B.F.A.,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inois, USA
Exhibitions	2021 <i>Texture of Color</i> , Eutectic Gallery, Oregon, USA 2020 <i>Apostrophe S</i> , Method Gallery, Washington, USA
Awards	2020 Selected, NCECA Emerging Artists, NCECA Emerging Artists Fellowships, National Council for the Education of the Ceramic, Colorado, USA
Residency / Workshop	2019 Finalist, Young Masters Maylis Grand Ceramics Prize 2019, Maylis and James Grand, London, UK 2018-2020 Artist-in-Residence, Pottery Northwest, Washington, USA 2016-2018 Artist-in-Residence, Archie Bray Foundation, Montana, USA

그녀가 기억하는 네온사인, 2020
도자, 나무, 머리털, 메탈, 네온, 털, 콘06 유약, 콘04 유약, 러스터, 콘4a (1160°C), 콘6a(1200°C), 콘018(1500°C)

The Neon She Remembered, 2020
ceramics, wood, hair, metal, neon, fur, cone 6 glazes, cone 04 glazes, luster, Cone 4a(1160°C), Cone 6a(1200°C), Cone 018(1500°C)
76.2 x 60.96 x 132.08

이도 페르베르 Ido Ferber (ידו פרבר)

이스라엘 Israel

〈테퍼〉는 현대 도예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것들로 그릇을 만들 고자 한 작업이다. 마치 공예가 유동적이고, 기술이 이 분야 저 분야로 옮겨갈 수 있는 세상 이 라고 상상해 보라! 이 작품은 가죽 제조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꿰매고, 접착하고, 서로 다른 조각을 합쳐서 완성한다. 먼저 만들어진 점토 시트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결합한다. 유약은 나중에 용기 안쪽에 바른 다. 소성 과정에서 유약이 녹으면서 작은 틈을 메우고 부분들을 접합 하고 합쳐 기물이 완성된다. 이 시리즈의 발상은 가마를 창조 과정에 있어서 불가분의 역할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유약이 결합제로 작용하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 되며, 일본의 *MA(間) 개념에서 더욱 영감을 얻었다. 작품을 통해 삶의 작은 디테일에 무대를 제공한다.

Tefer intends to make wares with the tools that are not commonly used by contemporary potters. Imagine a world where crafts are fluid, where technology can move from one field to another! This work imitates the way leather is manufactured. Stitching, gluing, and combining different pieces are used to complete the work. The clay sheet that was made first is combined with stainless steel. Glaze is applied to the inside of the container later. During the firing process, the glaze melts, filling in small gaps, gluing the parts and combining them to complete the article. The idea of this series began with the desire to incorporate a kiln into an inextricable role in the creation process, and the desire to use the ability of glaze to act as a conjugate, inspired by the concept of MA(間)* in Japan. Through this work, a stage for small details of life is provided.

*MA(間): 사이, 틈
*MA(間) refers to a space or a gap.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사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배회하며 보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생생한 현재로부터 영감을 끌어내면서 물질적 연구와 점토, 나무, 금속으로 일상적 사물을 창조한다. 지금은 아내와 고양이 와 함께 도쿄에 살면서 도쿄예술대학에서 도자 전공 석사학위를 마쳤다.

Born in a small town between Jerusalem and Tel Aviv, I spent most of my life wandering in the countryside. Drawing inspiration from childhood memories and vivid presentations, I create everyday objects with clay, wood, and metal, conducting material research. I live in Tokyo now with my wife and cat, and I completed my master's degree in ceramics at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학력	2020 도쿄예술대학교 도자전공 석사과정, 도쿄, 일본
	2018 브살렘예술학교 산업디자인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시	2020 《텔아비브 공예 비엔날레》, 에레츠 이스라엘 박물관, 텔아비브, 이스라엘
	2018 《오픈 필드》, 에라르타 현대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Education	2020 Master in Process, Ceramics,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Tokyo, Japan
	2018 B.A., Industrial Design,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Jerusalem, Israel
Exhibitions	2020 TLV Craft Biennale, Eretz Israel Museum, Tel Aviv, Israel
	2018 Open Fields, Erarta Museum, St. Petersburg, Russia

테퍼, 2019
 흑색점토, 무광유약, 스테인리스강, 1220°C
TEFER, 2019
 black clay, satin glaze, stainless steel, 1220°C
 80 x 15 x 40

페이메 헤이다리 Fahimeh Heydari

이란 Iran

나는 항상 물레로 형태를 만든다. 중앙 축을 중심으로 선을 회전시키면 그릇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 대칭적이고 반복적인 기하학적 패턴으로 표면 전체를 채우거나 때로는 일부만 채우기도 한다. 나는 유색 석기 점토를 노천 소성해서 매트한 표면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라쿠 소성으로 검게 탄 무광택의 표면을 만든다. 다양한 금속 산화물질과 소금유를 사용하여 광택으로 반짝이는 표면을 제작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작품마다 대조적인 표면을 가질 수 있었다.

I always shape a form with a spinning wheel. When I rotate the line around the center axis, a vessel-like form is created. Sometimes, I fill the entire surface with a symmetrical and repetitive geometric pattern, and other times I only fill a part. I get a matte surface by open firing the colored stoneware clay. Likewise, raku firing creates a matte black surface. Using various kinds of metal oxides and salt oils, I create shiny surfaces with gloss. In this way, each piece could have a contrasting surface.

이란의 전통 예술은 건축과 수공예에 대칭과 반복을 응용하는 예술이다. 수천 년 동안 이란 사람들의 생활에서 도자기의 존재는 대부분 기능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나는 현대인의 삶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늬가 없고 반짝이는 표면 옆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광택에 문양이 새겨진 표면의 조화와 대비는 파란만장한 현대인의 생활과도 같다.

Traditional Iranian art applies symmetry and repetition to architecture and handicrafts. For thousands of years, porcelain has had a functional identity in the life of Iranians. Currently, I'm exerting efforts to make works based on the life of modern people. The harmony and contrast of the matte and patterned surface without glaze next to the patternless and shiny surface is like an eventful life of modern people.



학력	2014	도쿠즈 에이올 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이즈미르, 터키
전시	2021	《조화와 대비》, 유리&도자 미술관, 테헤란, 이란
	2019	《파지르 수공예 축제》, 이란 예술가 포럼, 테헤란, 이란
수상	2017	선정, 우수 수공예 국가보조기금, 이란 문화유산관광부, 테헤란, 이란
	2016	선정, 타비즈 국제혁신과 창조공예 공모전, IRCICA 및 타비즈 이슬람예술 대학교, 파티흐, 터키
소장	-	오픈 에어 민속 미술관, 키프러스, 키프러스
Education	2014	M.A., Ceramic Design, Dojuz Eylul University, Izmir, Turkey
Exhibitions	2021	<i>Harmony and Contrast</i> , Glass and Ceramic Museum, Tehran, Iran
	2019	<i>Fajr Handcrafts Festival</i> , Iranian Artists Forum, Tehran, Iran
Awards	2017	Selected, Award of Excellence for Handicrafts National Program,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and Handicrafts, Tehran, Iran
	2016	Selected, Tabriz International Award for Innovation and Creativity in Crafts, IRCICA and Tabriz University for Islamic Arts, Fatih, Turkey
Collections	-	Open Air Traditional Folk Art Museum, Cyprus, Cyprus

기하학적 발라드, 2020
 석기 라쿠 점토, 갈색 석기점토, 산화 구리를 섞은 백옥유, 질산은, 1100°C(비스크), 1100°C(유약), 1030°C(라쿠), 1120°C(배대)

Geometrical Ballad, 2020
 stoneware raku clay, brown stoneware clay, frit mixed with copper oxide, silver nitrate, 1100°C(bisque), 1100°C(glaze), 1030°C(raku), 1100°C(bone) 70 x 50 x 89

지양 옌저 Yanze Jiang (蒋颜泽)

중국 China

버려진 벌집 모양의 도자기 필터는 중국 전통 풍경화인 산수화의 형태로 이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이 작품은 독립적인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 적층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소성하지 않고 버려진 것을 소성해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소성된 절단 조각들로 만들어져서 필터의 풍부한 단면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 이상과 현실, 낡음과 새로움을 연결하고 산업화, 자원, 자연과 문화와 같은 주제를 탐구한다.

Abandoned honeycomb pottery filters became the subject of this work in the form of traditional landscape, or Shan Shui paintings in China. This work consists of two independent types of stacked filters: one was made by burning the abandoned filters without burning, and the other was made of burned cuts to reveal a rich cross-section of the filter. It links the past and present, the ideal and reality, and the old and the new, exploring topics including industrialization, resources, nature, and culture.

10년 넘게, 나는 도자기 공장에서 미술 작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제작해왔다. 도자기 공장들은 제품의 품질 관리를 크게 강조한다. 제품에 사소한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버려진다. 하지만 나는 이 버려진 도자기 조각들이 특히 예술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했던 공장은 일상용 세라믹뿐만 아니라 산업용 필터도 생산한다. 이 버려진 산업 필터들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I have been designing, developing and producing art at a ceramic factory for more than a decade. Pottery factories place great emphasis on quality control. Even a minor defect in a product prohibits entry into the market and such products are discarded. But I think these discarded pieces of pottery can be useful, especially in the arts. The factory I work for produces industrial filters as well as ceramics for daily use. I was greatly inspired by these abandoned industrial filters.



학력	2017	난징예술대학교 디자인역사전공 박사, 장쑤, 중국
	2000	경덕진도자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장시, 중국
전시	2018	《프레미오 파엔자 수상작 전시》, MIC 세계도자미술관, 파엔자, 이탈리아
	2012	《자기와의 대화》, 투시티즈 갤러리, 상하이, 중국
수상	2017	1등, 제1회 덕화자기 국제도자아트, ICAA 조직위원회, 베이징, 중국
소장	-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런던, 영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04	2004 레지던시, 글레이고 국제도자연구센터, 스텔스포르, 덴마크
Education	2017	Ph.D., Design History, Nanjing University of the Arts, Jiangsu, China
	2000	M.A., Ceramics,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Jiangxi, China
Exhibitions	2018	Premio Faenza(MIC Faenza), MIC International Museum of Ceramic, Faenza, Italy
	2012	Speak with Porcelain, Two Cities Gallery, Shanghai, China
Awards	2017	First Prize, 1st BLANC DE CHINE International Ceramic Art Award, ICAA Organizing Committee, Beijing, China
Collections	-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Residency / Workshop	2004	Artist-in-Residence, Guldagergaard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Skælskør, Denmark

산수(山水), 2018
세라믹 허니컴, 1250°C

Mountains and Rivers, 2018
honeycomb ceramic, 1250°C
160 x 40 x 40

야이르 르비 Yair Levi (יאיר לוי)

이스라엘 Israel

〈기억의 흔적〉에서 나는 소재의 질감과 색상의 대비를 연출하여 완전하고 조화로운 느낌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은 매끄럽고 거친 질감처럼 서로 다른 질감을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에 섬세하게 도자기로 만든 종이와 같은 날장 조각 앞에 거친 질감들이 놓여 있다. 나는 회계사라는 내 직업의 분석적인 일과 추상예술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순에서 영감을 받아 이 종이와 같은 도자 조각을 만들었다. 과연 두 가지 측면이 나란히 공존할 수 있을까?

My work, *Memory Trail*, aims at creating a complete and harmonious mood by contrasting the texture and color of the material. This is achieved by combining two different textures: a smooth texture and a rough one. Here, rough textures are placed in front of a sheet of paper delicately made of porcelain. I was inspired by the contradiction between my analytical work as an accountant and abstract art, and I created this paper-like sheet of porcelain. Can these two aspects coexist in parallel?

나는 작품에 사용한 기법, 질감, 색감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대조에 대해 탐구한다. 내 작품에서, 나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바위가 가진 은유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레 작업부터 시작했다. 그것은 물레로 만든 도자기 페이지들이 가진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운 내부를 보호한다. 이 노동집약적인 작품은 개인과 공동체, 지질과 역사, 숨겨진 것과 노출된 것의 관계를 표현한다. 작품은 2D와 3D로 비율, 색상, 표면을 살펴보면 제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충동적이다.

I explore different types of contrasts generated from the techniques, textures, and colors used in the work. To express the metaphor that rough, rugged rocks have, I began the work with traditional spinning wheels first. It protects the delicate, brittle interior of the porcelain sheets made from the spinning wheel. This labor-intensive work exp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community, geology and history, and the hidden and the exposed. When you look at the ratio, colors, and surface in 2D and 3D, this work is limited but impulsive as well.



학력	2017	브살렐예술학교 도자&유리공예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2009	오픈대학교 사회과학전공 학사, 라아나나, 이스라엘
전시	2020	〈레이어〉, 베나미니 현대도자센터, 텔아비브, 이스라엘
	2019	〈이행적 오브제〉, B.Y5 갤러리,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상	2017	우수상, 엑셀런스 시니어 프로젝트: 도자, 브살렐예술학교, 예루살렘, 이스라엘
레지던시 / 워크샵	2017	어시스턴트, Shulamit Miller 워크샵, 가바타임, 이스라엘
Education	2017	B.F.A., Ceramics and Glass, Bezalel Academy of Arts and Design, Jerusalem, Israel
	2009	B.A., Social Science, Open University, Ra'anana, Israel
Exhibitions	2020	<i>Layers</i> , Benyamini Contemporary Ceramics Center, Tel-Aviv, Israel
	2019	<i>Transitional Object</i> , B.Y5 Gallery, Tel-Aviv, Israel
Awards	2017	Award of Excellence, Excellent Senior Project in Ceramics, Bezalel Academy of Arts and Design, Jerusalem, Israel
Residency / Workshop	2017	Assistant, Shulamit Miller Art Workshop, Givatayim, Israel

기억의 흔적, 2018
자기점토, 석기점토, 건조유약, 점토용액, 화산층, 1220°C

Memory Trail, 2018
porcelain, stoneware, dry glaze, liquid porcelain, volcanic slip, 1220°C
35 x 35 x 45

디아 레트노 Dyah Retno

인도네시아 Indonesia

식민주의, 굶주림, 낭비의 문제와 자본주의는 국가의 연대기를 볼 때 항상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바섬은 식민주의가 군도에 침입하기 전까지 과거 동남아시아 군도를 지배하던 왕국의 중심지였다. 투반은 과거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동 자바의 도시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식민주의와 흉작 때문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들은 '암포'라 불리는 흙을 먹어야만 했다. 암포는 구운 흙으로 만든 투반의 특산물이다. 과거 암포는 벵가와 솔로강이 말라붙어 강바닥이 갈라지면서 발견되었는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갈라진 흙을 먹었다. 그 후 차차 암포는 논의 진흙이나 황토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암포는 진흙을 눌러서 대나무로 굽어 불에 굽는다. 그 과정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 투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또한 암포는 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도 사용된다. 오늘날, 암포는 땅이 어떻게 모든 생명체, 식물, 인간과 동물에게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암포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토양은 식물을 위한 성장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암포라는 토양을 통해 인간에게 끊임없는 성장 매개체가 된다. 암포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투반 사람들의 믿음은 오늘날 흙이 세균, 박테리아,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매우 상반된다. 일부 지역에서 암포는 임신한 여성을 위한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임신부가 어릴수록 암포를 먹으면 신선한 맛이 난다고 한다. 암포와 같은 음식은 투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굶주림, 가난 그리고 가뭄과 유사한 배경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암포 덕분에 나는 땅이 삶의 세 가지 요소인 물, 불, 공기와는 또 다른 삶의 원천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도자기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작업으로 나는 암포를 투반과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나온 문화적 산물로 해석하여 생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배운다. 암포는 또한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이므로, 땅은 영원히 인류를 위한 삶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The issues of colonialism, hunger, waste, and capitalism are always on my mind when I look at the chronicles of the state. Historically, Java Island was the center of a kingdom that ruled the archipelago of Southeast Asia before colonialism invaded these islands. Tuban is one of the cities in East Java, formerly controlled by the Netherlands. Many people were hungry because of colonialism and bad harvests, so they had to eat Ampo, a specialty of Tuban made from baked soil. In the past, Ampo was found when the Bengawan Solo River dried up and the river bed split, and people ate the cracked soil to survive. Later, Ampo was made of clay or mud from rice paddies. Ampo is made from mud that is pressed and scratched with bamboo, and then baked with fire. This process is similar to making pottery. For Tuban people, this is a representative food that is believed to treat many kinds of diseases. Ampo is also used as a token of appreciation for the land. Today, although it symbolizes how land can be a source of life for all living things, plants, humans and animals, few people know about Ampo. Soil is

도자기를 다루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살고, 죽는지를 보는 것과 같다. 도자기를 다루면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실패를 축하하는 방법, 성공을 후회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2014년부터 도자기 관련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삶을 해석하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고, 실패를 경험했으며, 성공을 반복할 수 없었고 1,200도의 불에서 구운 뒤 무엇이 나타나는지도 충격이었다. 나는 도자기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도자기는 매일 새로운 실험으로부터 창조된 우주가 될 것이다.

Dealing with pottery is like seeing how humans are born, live, and die. As I handled pottery, I began to see the world differently. I learned how to celebrate failure, how to regret success. I started working on pottery in 2014, and I found it difficult to interpret life. Many experiments were conducted, I experienced failures, I could not repeat success, and what appeared after baking at over 1,200 degrees of heat was also shocking. I will not stop making pottery, so whatever the result is, pottery will become a universe created from new experiments every day.



not only a growth medium for plants, but also a constant growth medium for humans through the soil called Ampo. Tuban people believe that Ampo can cure all diseases, but this starkly conflicts with those today who think that soil has germs, bacteria, and chemicals. Ampo is also known as a food for pregnant women in some areas, and according to them, the younger pregnant women are, the fresher Ampo tastes. Foods such as Ampo are present not only in Tuban but also in Africa, and I think it comes from a similar background of hunger, poverty, and drought. Thanks to Ampo, I think land provides another source of life from the three elements of life: water, fire, and air. What is it like to be a real piece of pottery? In this work, I interpret Ampo as a cultural product from Tuban and Java, Indonesia, that tells me how life works. Ampo is also a food without an expiration date, which indicates that land can be a source of life for mankind forever.

학력	2016 욱야카르타 예술대학 도자전공 석사, 욱야카르타, 인도네시아 2012 욱야카르타 예술대학 도자전공 학사, 욱야카르타, 인도네시아
전시	2020 《대안을 고려하다》, 가자갤러리, 욱야카르타, 인도네시아 2017 《진화》, 판다파 아트스페이스, 욱야카르타, 인도네시아
수상	2016 입선, 도자작품상, 욱야카르타 예술대학, 욱야카르타, 인도네시아
Education	2016 M.A., Ceramics, Indonesia Institute of Art Yogyakarta, Yogyakarta, Indonesia 2012 B.A., Ceramics, Indonesia Institute of Art Yogyakarta, Yogyakarta, Indonesia
Exhibitions	2020 <i>Contemplating Alternative</i> , Gajah Gallery, Yogyakarta, Indonesia 2017 <i>Physis</i> , Pendhapa Art Space, Yogyakarta, Indonesia
Awards	2016 Selected, Best Ceramic Artwork, Indonesia Institute of Art Yogyakarta, Yogyakarta, Indonesia

암포: 나는 음식을 믿습니다. 2021
비디오, 도기점토 암포, 유리, 100°C

Ampo: In Food I Belief, 2021
video, earthenware Ampo, glass, 100°C
5' 00"

사카이 토모야 Tomoya Sakai

일본 Japan

물레 위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 나는 불필요한 정보에서 벗어나 명상을 하듯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나는 마음속에 잡생각들과 쓸데없는 정보들을 분류해가며 작품을 만든다. 흙의 가소성 덕분에, 작품들은 나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한다. 물레 기술과 점토라는 물질을 사용하면서, 나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이라는 공간과 완성된 작품들 속에 존재하는 숨겨진 이미지들을 찾으며 그 이미지들을 재구성한다.

When I make pottery on a spinning wheel, I can get away from unnecessary information and concentrate on my work as if I were meditating. I make works by sorting out miscellaneous thoughts and useless information in my mind. Thanks to the plasticity of the soil, the works I create reflect my unconscious movements. Using spinning wheel technology and clay as a material, I consciously reconstruct the images, searching for the space of unconsciousness and hidden images that exist in the finished work.

우리는 인터넷과 휴대폰 네트워크 같은 모든 종류의 IT 장치로부터 끝없는 정보에 매일 노출된다. 그것은 각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억조차도 많은 정보와 함께 무의식 영역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작품은 장면, 정보, 애니메이션, 옛날에 봤던 영화 이미지들이 중첩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으며, 내 작품을 통해 무의식 영역과의 연결 고리를 기억하고 잃어버린 중요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으면 한다.

We are exposed to endless information every day from all kinds of IT devices, such as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 networks. It means that even the important memories that shape each person's personality disappear into the unconscious realm with a lot of information. My work overlaps scenes, information, animation, and old movie images. Everyone in the world has these images, and I hope that my work will help me remember the connection to the unconscious area and revive the important memories I have lost.



학력	2019	타지미 시립 도예디자인과 기술센터, 세토, 일본
	2015	나고야예술대학교 도자전공 학사, 나고야, 일본
전시	2020	《파리 디자인위크 2020》, 분 파리, 파리, 프랑스
	2017	《타지미 시립 도예디자인과 기술센터 졸업전》, 타지미 시립 도예디자인과 기술센터, 기후, 일본
수상	2021	입선, 토야마 국제공예전, 토야마 국제공예전, 토야마, 일본
	2020	입선,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일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Education	2019	Tajimi City Pottery Design And Technical Center, Seto, Japan
	2015	B.A., Ceramics, Nagoya University of Arts, Nagoya, Japan
Exhibitions	2020	Paris Design Week 2020, Boon Paris, Paris, France
	2017	Graduation Show Tajimi City Pottery Design And Technical Center, Tajimi City Pottery Design and Technical Center, Gifu, Japan
Awards	2021	Selected, International KOGEI Award in TOYAMA, International KOGEI Award in TOYAMA, Toyama, Japan
	2020	Honorable Mentions,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재수집 "하구에키케로이", 2021
 석기점토, 안료, 흑매트유, 1230°C

ReCollection "HAGUEKIKEROI", 2021
 stoneware, pigment, matt black glaze, 1230°C
 80 x 30 x 24

크눔 KHNUM (암논 아모스 Amnon Amos, 로넨 야민 Ronen Yamin, 노아 알마고르 벤-도르 Noa Almagor Ben-dor, 힐라 드로 Hilla Dror) 이스라엘 Israel

이 영상작품은 오래된 올리브오일 공장을 보수해서 만든 텔아비브 에레츠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촬영되었다. 크눔 그룹은 인간의 몸과 물레에서 생성된 점토 물질을 연결시키고자 한다. 그들은 스튜디오 안에서 매일 수행하듯 실행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행동을 통해 고대 신화를 소생시키고, 현대의 도자 제작 방식에 여러 분야를 접목하는 반종교적 의식을 연출한다. 이 영상 작품은 2020년 텔아비브 비엔날레에서 전시되었던 설치와 공연의 일부이다.

Filmed at the Tel Aviv Eretz Israel Museum, an old and restored olive oil factory, the Khnum Group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human body and the clay material generated from a spinning wheel. They revive an ancient myth through the act of making porcelains as if cultivating themselves every day in the studio, and produce an anti-religious ritual that incorporates various fields into contemporary methods of making ceramics. This video work is part of the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exhibited at the 2020 Tel Aviv Biennale.

크레딧: 비디오 사진작가 및 감독: Avner Shahaf - 사진작가: Yan Finkelberg - 편집: Osher Abosh - 사운드 편집: Tom Heled - 데코 및 소품: Karren Frenkel - 게스트 아티스트: Doron Naama Gelfer
Credit: Video Photographer and Director: Avner Shahaf ; Photographer: Yan Finkelberg ; Edit: Oscar Abosh ; Sound Edit: Tom Heled ; Decoration and Props: Karren Frenkel ; Guest Artist: Doron Naama Gelfer

크눔 그룹(Noa Almagor Ben Dor, Hilla Dor, Ronen Yamin, Amnon Amos)은 나일강의 비옥한 진흙으로 물레를 돌려 인간을 만든 수양 머리 이집트의 신 크눔 '위대한 도공'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되었다. 크눔은 몸과 KA(영혼)의 연결을 관장한다. 그룹 멤버들은 숙련된 도공, 강사, 도자 교육자이다. 우리는 공연과 설치 행위를 하며 도자기를 만드는 기쁨과 소명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Khnum Group (Noa Almagor Ben Dor, Hilla Dor, Ronen Yamin, and Amnon Amos) was named after "the great potter," ram-headed Egyptian god Khnum who made humans by spinning a wheel with the fertile mud of the Nile. Khnum governs the connection between body and KA (spirit). Group members are skilled potters, instructors, and ceramic educators. We aim to let people know of the joy of making pottery and its calling of pottery with performances and installations.



학력	2000 1) 암논 아모스: 브살렐예술학교 도예디자인&유리공예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2009 2) 로넨 야민: 브살렐예술학교 도예디자인&유리공예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2009 3) 노아 알마고르 벤-도르: 브살렐예술학교 도예디자인&유리공예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시	2009 4) 힐라 드로: 브살렐예술학교 도예디자인&유리공예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2021 《예술은 필요하고, 도자기는 필수적이다》, 텔아비브 문화지자체, 텔아비브, 이스라엘 2020 《텔아비브 공예디자인비엔날레》, 에라즈 이스라엘 박물관, 텔아비브, 이스라엘
Education	2000 1) Amnon Amos: B.A., Ceramics Design and Glass,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Jerusalem, Israel 2009 2) Ronen Yamin: B.A., Ceramics Design and Glass,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Jerusalem, Israel 2009 3) Noa Almagor Ben - Dor: B.A., Ceramics Design and Glass,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Jerusalem, Israel 2009 4) Hilla Dror: B.A., Ceramics Design and Glass,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Jerusalem, Israel
Exhibitions	2021 ART IS NEEDED, POTTERY IS A MUST, Tel Aviv Municipality Department of Culture, Tel Aviv, Israel 2020 The Tel Aviv Biennale of Crafts & Design, Eretz Israel Museum Tel-Aviv, Tel Aviv, Israel

신체와 점토의 퍼포먼스, 2020
비디오, 혼합매체
Body and clay performance, 2020
video, mixed media
6' 37"

크눔 KHNUM (암논 아모스 Amnon Amos, 로넨 야민 Ronen Yamin, 노아 알마고르 벤-도르 Noa Almagor Ben-dor, 힐라 드로 Hilla Dror) 이스라엘 Israel

〈예술은 필요하고, 도자기는 필수적이다〉 크눔 프로테스트 행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이스라엘에 퍼졌다.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대유행을 막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격리되고 봉쇄되었다. 가장 먼저 닫은 곳은 박물관, 미술관, 극장, 그리고 모든 문화 센터와 학원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예술계에 대한 희망도 없이 나날이 흘러가자, 크눔 그룹은 행동을 취하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했다. 물레 앞에 앉아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텔아비브 시내 중심가에서 찍은 비디오에서 '텔아비브 러브 아트 위켄드'를 외치는 그룹 멤버들은 갓 만든 크눔 도자기들을 가득 들고 행진을 하고, 앞으로 더 나은 날들을 위한 희망과 세상의 원상 복귀를 희망하는 행동으로서 많은 이들이 모인 장소에서 도자기들을 나열시켰다. 크눔 그룹이 길을 행진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면서 즉흥적인 상호작용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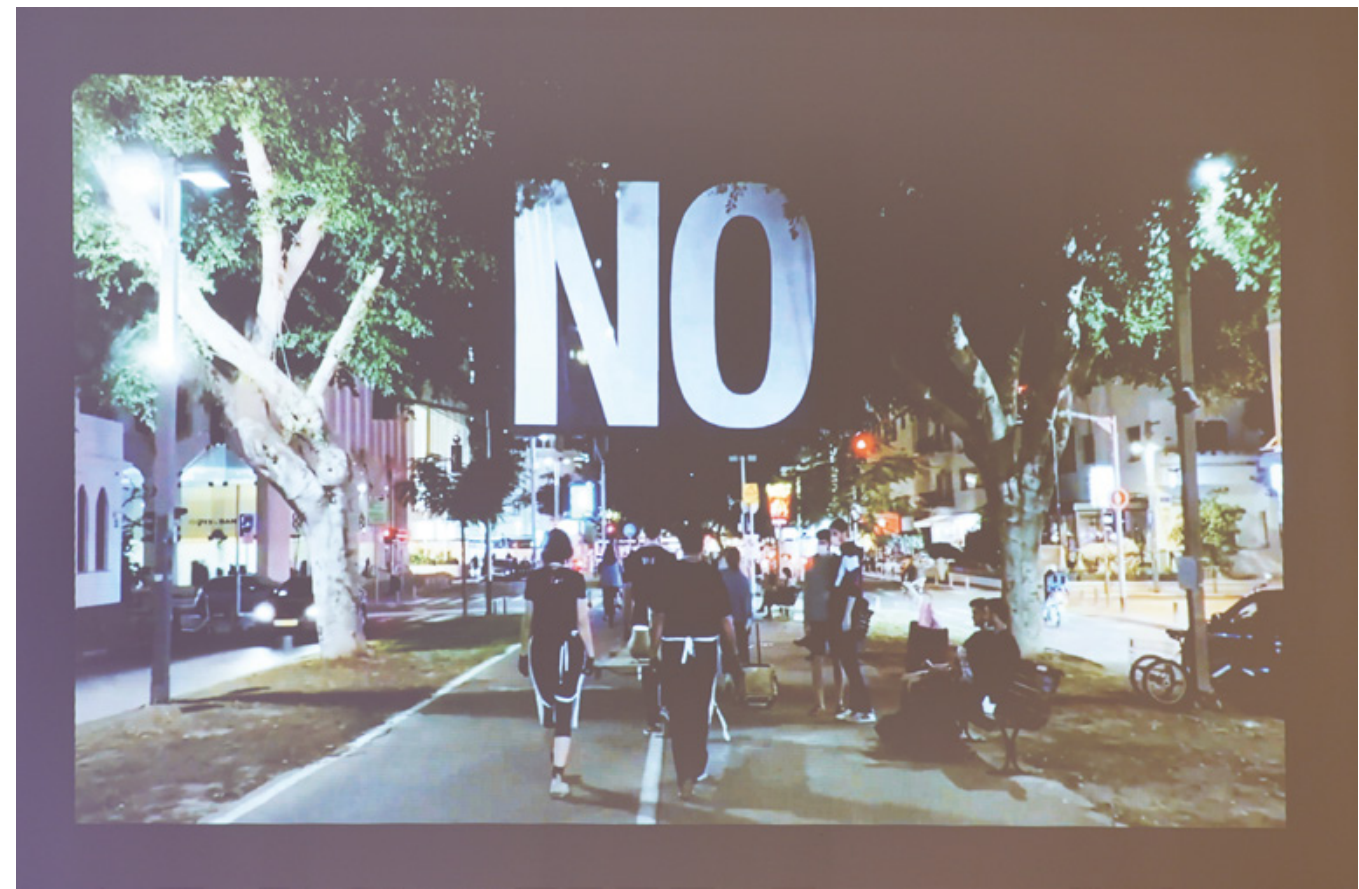
ART IS NEEDED, POTTERY IS A MUST, Khnum Protest - March
 COVID-19 has spread to Israel over the past year. Israel has been quarantined and locked down to stop the pandemic and save lives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Museums, art galleries, theaters, and all cultural centers and private academies were closed first, and reopened last. As the days went by without any hope for the artistic circles, the Khnum Group saw the need to take action and raise its voice. They chose the only way they knew: sitting at a spinning wheel and making pottery. In a video taken in downtown Tel Aviv, group members marched holding freshly baked Khnum pottery in their hands, and placed it where many gathered expressing their hope of returning to normal. While they were marching in the street, the Khnum Group met and mingled with people where improvised interactions occurred.



크레딧: 비디오: 도렐 시반 - 사진작가: Yair Meyu Has
 Credit: Video: Dorel Sivan ; Photographer: Yair Meyu Has

크눔 그룹(Noa Almagor Ben Dor, Hilla Dor, Ronen Yamin, Amnon Amos)은 나일강의 비옥한 진흙으로 물레를 돌려 인간을 만든 솜양 머리 이집트의 신 크눔 '위대한 도공'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되었다. 크눔은 몸과 KA(영혼)의 연결을 관장한다. 그룹 멤버들은 숙련된 도공, 강사, 도자 교육자이다. 우리는 공연과 설치 행위를 하며 도자기를 만드는 기쁨과 소명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Khnum Group (Noa Almagor Ben Dor, Hilla Dor, Ronen Yamin, and Amnon Amos) was named after "the great potter," ram-headed Egyptian god Khnum who made humans by spinning a wheel with the fertile mud of the Nile. Khnum governs the connection between body and KA (spirit). Group members are skilled potters, instructors, and ceramic educators. We aim to let people know of the joy of making pottery and its calling of pottery with performances and installations.



학력	2000	1) 암논 아모스: 브살렐예술학교 도메디자인&유리공예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2009	2) 로넨 야민: 브살렐예술학교 도메디자인&유리공예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2009	3) 노아 알마고르 벤-도르: 브살렐예술학교 도메디자인&유리공예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2009	4) 힐라 드로: 브살렐예술학교 도메디자인&유리공예전공 학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시	2021	《예술은 필요하고, 도자기는 필수적이다》, 텔아비브 문화지자체, 텔아비브, 이스라엘
	2020	《텔아비브 공예디자인비엔날레》, 에라즈 이스라엘 박물관, 텔아비브, 이스라엘
Education	2000	1) Amnon Amos: B.A., Ceramics Design and Glass,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Jerusalem, Israel
	2009	2) Ronen Yamin: B.A., Ceramics Design and Glass,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Jerusalem, Israel
	2009	3) Noa Almagor Ben - Dor: B.A., Ceramics Design and Glass,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Jerusalem, Israel
	2009	4) Hilla Dror: B.A., Ceramics Design and Glass,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Jerusalem, Israel
Exhibitions	2021	ART IS NEEDED, POTTERY IS A MUST, Tel Aviv Municipality Department of Culture, Tel Aviv, Israel
	2020	The Tel Aviv Biennale of Crafts & Design, Eretz Israel Museum Tel-Aviv, Tel Aviv, Israel

"예술은 필요하고, 도자기는 필수적이다": 크눔 프로테스트-행진, 2020
 비디오, 혼합매체

"ART IS NEEDED, POTTERY IS A MUST": KHNUM PROTEST- MARCH, 2020
 video, mixed media
 1' 36"

장카이 Kai Zhang (张凯)

중국 China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량품이 생산되고, 그렇게 버려진 도자기들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못한다. 불량품들이 자연으로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만든 물건 그리고 자연환경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버려진 도자기들을 모았고, 부서지고 금이 가고 결함이 있는 도자기들을 보며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Numerous defective products are produced in the course of making pottery, and such discarded ceramics do not decompose naturally. It would pose a great threat to our ecosystem if defective products returned directly to nature. I think it's time to deliberate on the relationship among humans, human-made object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ccordingly, I collected the discarded pottery, and came to think that it would be my job to give them life again when I was looking at the broken, cracked, and defective pottery.

나는 1990년 중국 타이위안 태생으로 Tangshan에 사는 현대 도예가 장카이이다. 2014년에 경덕진 도자기 학교에서 도예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8년에는 경덕진 도자기 대학교에서 도예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도예가 Vinod Daroz와 Cheng'Ou Yu의 조수로 레지던시 창작을 도왔다. 현재 나는 북중국과학기술대학교 예술대학 강사로 재직 중이다.

Born in Taiyuan, China in 1990, I am Kai Zhang, a modern potter living in Tangshan. I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ceramics from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in 2014 and earned a master's degree in ceramic design from Jingdezhen Ceramic University in 2018. In 2016 and 2017, I helped the residency work of the potters Vinod Daroz and Cheng'Ou Yu, respectively. Currently, I am a lecturer at the School of Art, North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력	2018 경덕진도자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장시, 중국
	2014 경덕진도자대학교 도자전공 학사, 장시, 중국
전시	2020 (제5회 중국현대도자아트-지에 상), 산둥박물관, 산둥, 중국
	2018 (제3회 광둥현대도자아트), 광저우 예술 아카데미 미술관, 광둥, 중국
수상	2019 동상, 지린시도자협회, 지린, 중국
	2016 우수상, 중국도자협회, 저장, 중국
소장	- 경덕진도자대학교, 지린, 중국
	- 허난박물관, 허난, 중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17 어시스턴트, 모드전(Vinod Daroz), 리링도자미술관, 후난, 중국
	2016 어시스턴트, 클래식 리컨스트럭션전(Cheng'Ou Yu), 리링도자미술관, 후난, 중국
Education	2018 M.A., Ceramics,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Jiangxi, China
	2014 B.A., Ceramics,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Jiangxi, China
Exhibitions	2020 5th China Contemporary Ceramic Art-Jie-Shang, Shandong, China
	2018 2018 The 3rd Guangdong Contemporary Ceramic Art, 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Art Museum, Guangdong, China
Awards	2019 Bronze Award, Jilin City Ceramic Industry Association, Jilin, China
	2016 Excellence Award, China Ceramic Industry Association, Zhejiang, China
Collections	-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Jilin, China
	- Henan Museum, Henan, China
Residency / Workshop	2017 Assistant, Mode Exhibition(Vinod Daroz), Liling Ceramic Valley Museum, Hunan, China
	2016 Assistant, Classic Reconstruction Exhibition(Cheng'Ou Yu), Liling Ceramics Valley Museum, Hunan, China

농장, 2020
Longquan Celadon, clinker, soil, 1250°C

Plantation, 2020
Longquan Celadon, clinker, soil, 1250°C
Dimensions variable

안중호 Jungho Ahn

한국 Korea

“가운데 중입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그녀는 관심 없는 듯 낮잠을 자려고 누웠다. 간발의 차이로 압사를 모면한 개미가 노란 장판 위에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외쳤다. 때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중심들에 걸려서 비틀 대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미묘한 균형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My name is Middle"

I said "I am the center of the world." She was next to me ready to take a nap wasn't interested a bit. Ant crawling up the yellow linoleum floor, saved it's life by a narrow margin. It was also shouting "I am the center of the world." There are so many centers in this world. I stumble over them. I fall down. I wish I had a solid and well balanced center, so I don't have to stumble and keep falling down.

길에서 길을 떠난다.

가볍게 조물락거릴 흙과 내가 애용하는 한 두 개의 도구만을 가지고.

이곳저곳 많이 다녀 갈 곳도 가고 싶은 곳도 없다.

어디로?

내 머릿속으로 떠난다. 나라는 존재 속으로, 그리고 너라는 존재

속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그 슬픔 속으로, 가끔씩

드러나는 환한 즐거움 속으로, 끈질기게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길을 떠날 때 내게는 몇 가지 롤이 있다. 되도록

1. 간결하며
2. 알기 쉽게
2. 구체적인 형태로
3. 온전한
3. 나와 너..우리의 이야기를
4. 시를 쓰듯 소설을 쓰듯 만들어간다

수 만 가지 녹색들이 그려내는 숲을 있는 그대로.

한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나 길로.

Leaving the road again.

With little bit of clay and one or two tools I like to use.

Have been to many places. Don't have much place to go.

Then.. where to?

I'm going inside.. inside me, inside you, into the time we spent together.. into that sadness, into that bright moment of joy, into the endless repetition of everyday life.

There are some words I keep in mind when I leave.

1. simple
2. easy
2. pecific form
3. whole
3. me and you
4. a poetry, a story

I see the forest colored with thousands and millions of greens.

With a light and pleasant heart.. back to the road again.



학력	2000	멧거스대학교 시각예술전공 석사, 뉴저지, 미국
전시	2010	《슈퍼마켓 아트페어2010》, 스톡홀름, 스웨덴
	2004	《리조이스 축제》, 더블린, 아일랜드
Education	2000	M.F.A., Visual Arts, Rutgers University, New Jersey, USA
Exhibitions	2010	Supermarket Art Fair 2010, Stockholm, Sweden
	2004	Rejoice Festival, Dublin, Ireland

"가운데 중입니다.", 2021
청자토, 아크릴, 900°C

"My name is Middle.", 2021
celadon clay, acrylic, 900°C
55 x 35 x 50

안중호 Jungho Ahn

한국 Korea

타잔과 원더우먼 2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가 슈퍼 히어로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살아가면서 희망을 품기도 하고, 때론 절망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소설 또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Tarzan and Wonder Woman, Part 2

I often think we all are superheroes living our uneasy daily life.

Sometimes we are optimistic sometimes we are pessimistic. We are all protagonists in our own books and films.

길에서 길을 떠난다.

가볍게 조물락거릴 흙과 내가 애용하는 한 두 개의 도구만을 가지고.

이곳저곳 많이 다녀 갈 곳도 가고 싶은 곳도 없다.

어디로?

내 머릿속으로 떠난다. 나라는 존재 속으로, 그리고 너라는 존재

속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그 슬픔 속으로, 가끔씩

드러나는 환한 즐거움 속으로, 끈질기게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길을 떠날 때 내게는 몇 가지 물이 있다. 되도록

1. 간결하며
2. 알기 쉽게
2. 구체적인 형태로
3. 온전한
3. 나와 너..우리의 이야기를
4. 시를 쓰듯 소설을 쓰듯 만들어간다

수 만 가지 녹색들이 그려내는 숲을 있는 그대로.

한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나 길로.

Leaving the road again.

With little bit of clay and one or two tools I like to use.

Have been to many places. Don't have much place to go.

Then.. where to?

I'm going inside.. inside me, inside you, into the time we

spent together.. into that sadness, into that bright moment

of joy, into the endless repetition of everyday life.

There are some words I keep in mind when I leave.

1. simple
2. easy
2. pecific form
3. whole
3. me and you
4. a poetry, a story

I see the forest colored with thousands and millions of greens.

With a light and pleasant heart.. back to the road again.



학력	2000	릿거스대학교 시각예술전공 석사, 뉴저지, 미국
전시	2010	《슈퍼마켓 아트페어2010》, 스톡홀름, 스웨덴
	2004	《리조이스 축제》, 더블린, 아일랜드
Education	2000	M.F.A., Visual Arts, Rutgers University, New Jersey, USA
Exhibitions	2010	Supermarket Art Fair 2010, Stockholm, Sweden
	2004	Rejoice Festival, Dublin, Ireland

타잔과 원더우먼 2, 2021
청자토, 아크릴, 테라코타, 점시, 900°C

Tarzan and Wonder Woman, Part 2, 2021
celadon clay, acrylic, terracotta, plate, 900°C
55 x 40 x 10

홍근영 Geunyoung Hong

한국 Korea

작가와 관객이 불행을 생각하며 만든 흙 조각을 종교적 오브제로 둘러싸인 좌대에 함께 전시하는 관객 참여형 작품이다. 특정한 종교 색채를 피하고자 다양한 종교 오브제를 좌대 주변에 배치한다. 관객은 안내문에 따라 각자의 불행을 흙으로 빚고, 자신이 만든 흙 조각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표시한 후, 그 조각을 좌대에 올리고 퇴장한다. 좌대 위에는 작가와 관객이 빚은 불행 조각이 모이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불행수집’이라고 칭한다. 불행수집가로서 작가의 이력은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기 보다, 그를 자신의 상황과 견주어 보며 위로를 받았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뿐 아니라 관객은 조각과 그것의 무게로 가시화된 타인의 불행을 스스로의 불행과 비교하며 아이러니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과 불행의 조건 자체를 재고하게 된다.

An audience participatory work, A Collector of Misfortunes engage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reative process. As participants in this project, the artist and the audience make earthen sculptures while thinking about misfortunes. Then, the sculptures are displayed on the pedestal surrounded by religious objects. The artist includes objects of various religions to avoid any specific religious affiliation. According to the guide note at the entrance, each viewer creates a small sculpture that embodies his or her own misfortune in clay and marks it after weighing it on the scale. The viewers then put them on the pedestal and make their exit from the venue. The sculptures of misfortunes that the artist and the audience have shaped come together on the pedestal. The artist refers to this process as “a collection of misfortunes.” The artist’s career as a collector of misfortunes derives from her experience of being solaced by others’ misfortunes rather than feeling sympathy from them. The viewer as well as the artist forms a bond of sympathy while comparing their misfortunes with others’ misfortunes visualized by the sculptures and their weight. And they come to reconsider what fortune and misfortune truly are.

나는 다수가 정해놓은 규칙과 배열, 그것을 수행해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 그 과정에서의 분노, 위태롭고 불안하고 긴장된 공포의 순간을 입체와 드로잉으로 표현한다. 삶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를 종교적 행위로 관객 참여를 유도하여 작품을 완성 시킨다. 합리적 해결책이 없을 경우 인간은 무엇에 의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며 ‘믿음’의 과정에 대한 이미지에 주목하였다. 세라믹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와 여러 가지 시각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 작품으로 표현한다.

I pay attention to the rules and arrangements adopted by majority of the society and my role in fulfilling them. Anger arising in this process and the anxious, tensioned moments of fear are represented in my three-dimensional works and drawings. My determination to escape from this darkness in life is represented by inducing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in kind of religious deeds. My work completes with audience participation. While making art, I have thought deeply about what humans should depend on when there is no reasonable solution and focused on images about the process of ‘belief.’ Centering on ceramics, I have also used non-ceramic materials and have sought various visual approaches to express my thoughts.



불행수집가, 2019
 조합토, 혼합유약, 모델링점토, 1250°C
A Collector of Misfortunes, 2019
 grogged clay, mixed glaze, modeling clay, 1250°C
 250 x 250 x 200

학력	2012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공공미술전공 석사, 서울, 한국
	2008	성신여자대학교 조소전공 학사, 서울, 한국
전시	2021	《정신과 육체를 잘 펼쳐서》, 프로젝트스페이스 영등포, 서울, 한국
	2020	《인도-한국 도자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덕시나지트러뮤지엄, 타밀나두, 인도
소장	-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한국
	-	백두강산, 서울, 한국
Education	2012	M.F.A., Public Art,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8	B.F.A.,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2021	After good experiment with the Mind and the Body, Project Space Yeongdeungpo, Seoul, Korea
	2020	An Indo-Korea Ceramic Residency and Exhibition, DakshinaChitra Museum, Tamil Nadu, India
Collections	-	Osan Museum of Art, Osan, Korea
	-	Backdugangsan, Seoul, Korea

황재원 Jae-Won Hwang

한국 Korea

황은 동시대 사회에서 겪어온 상대적 열등감과 박탈감을 잊을 수 있게 하는 '제 2의 자아'로 작용하며, 현재 본인의 모습을 대신해주는 아이콘으로써 승화된 결과물이다. 타자의 시선, 그리고 본인의 욕망 안에서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 황은 상상의 산물이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그곳에 존재하며, 타자의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부여 받는다. 타자를 통해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상의 자기애를 투자함으로써 황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다.

FFanG is 'an alter ego' that lets us forget our feelings of inferiority and relative deprivation we have suffered in modern society. FFanG is an icon that bespeaks of how I look now. We seek to discover 'our other selves' in the eyes of the others and in our own desires. Although it is an output of imagination, FFanG accepts reality and exists in it. FFanG acquires meaning through images of others. By accepting herself through others and projecting self-love, FFanG finds meaning intrinsic to it.

황스 월드(FFanG's World)'는 현실과 상상이 혼재되어 표현된 본인의 상상세계이며, '황(FFanG)'은 그 세계의 주인공이자 스토리텔러이다. 황스 월드는 순간의 백일몽도, 진정한 판타지도 아니다. 이는 자신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에 가까운 상상세계'이며,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정의되는 세계가 아닌 오로지 본인만의 관념이 담긴 곳이다. 따라서 황스 월드는 본인의 경험으로 얻어진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어 과거, 현재, 미래 등 여러 요소가 섞여 표현된다.

'FFanG's World' is one's imaginary world where reality and imagination come together. A storyteller, FFanG is the main character of that world. FFanG's World is neither a fleeting daydream nor a genuine fantasy. It is 'an imaginary world close to the reality' reflecting the reality of oneself. It is where only one's own ideas exist rather than a world defined by any specific concept. A diversity of elements that have been acquired through the artist's own experiences were applied to create FFanG's World where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are mixed and expressed all at the same time.



학력	2020	숙명여자대학교 조형예술전공 박사 수료, 서울, 한국
	2017	숙명여자대학교 조형예술전공 석사, 서울, 한국
전시	2020	《Side by Side》,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한국
	2018	《FFanG's World》, 클레이마크 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수상	2019	입선, 제10회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한국도자재단, 이천, 한국
	2010	동상, 2010인형공모대전, 크라운 해태, 서울, 한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한-일 세라믹스 워크샵 - '사색공존 四色共存', 한국도자재단, 이천, 한국
Education	2020	Ph.D., Visual Ar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7	M.F.A., Visual Ar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2020	Side by Side, Artside Gallery, Seoul, Korea
	2018	FFanG's World,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Korea
Awards	2019	Honorable Mentions, Korea International Ceramic Biennial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2010	Bronze Prize, 2010 Doll Contest 2010, Crown Haitai, Seoul, Korea
Residency / Workshop	2015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ial 2015, Korea-Japan CeraMIX Workshop-Spectrum of ceraMIX,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뉴-황 2 & 복순 : 나를 사랑해 줘., 2020
 백색 자기질도, 화장도, 안료, 투명유, 색유, 의류, 부자재(시퀸, 모조진주 등), 1200°C

NEW-FFanG 2 & Boksun : Love me., 2020
 white porcelain, engobe, color pigment, transparent glaze, colored glaze, clothing, sub-material(sequin, artificial pearl), 1200°C
 120 x 63 x 88

김지호 Ji Ho Kim

한국 Korea

동물은 사람과 같이 고통과 쾌락, 만족감을 느끼며, 일부 동물은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비슷하다. 나는 동물원에서 실제로 정형 행동을 하는 동물을 보았고, 사회라는 틀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떠올라 동질감이 생기기도 했다. '우리'에 갇힌 동물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이다. 동물원 속 환경 개선과 동물의 행동 개선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불어 사람들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Animals are similar to humans in that they feel pain, delight, and satisfaction. Some animals even have social relationships like those of humans. At the zoo, I've witnessed some animals actually show stereotypical behavior patterns. Seeing such animals conjured up for me peopl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caused by stress while locked in the framework called society. This led me to feel sympathy. Animals in 'cages' are living things like 'us.' I hope the environment inside the zoo and animals' behavior will be improved and that people will be free from stress.

어린 시절 기억 속 동물원은 나에게 새로움을 주는 곳이었다. 어른이 된 나에게 동물원은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을 볼 수 있는 곳,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장소이다. 동물은 사람과 같이 행동과 표정으로 소통하고 여러 감정을 지니며 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이 편안한 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동물원 속 동물들도 사람과 다를 것 없이 편안한 자연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을까.

In my childhood memory, the zoo was a place where I could see something new and interesting. Now, as a grown-up, I consider the zoo as a place where I can see human greed and selfishness, and I feel that humans and animals are all alike. Like humans, animals have various emotions and communicate with others through actions and expressions. This is a fact, but many of us have turned away from the truth. I wonder if animals in the zoo long for the comfort of nature like humans dreaming of a comfortable home?



학력	2021	동덕여자대학교 디지털공예전공 학사, 서울, 한국
전시	2020	(MULTIFARIOUS),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Education	2021	B.F.A., Digital Craft Art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2020	MULTIFARIOUS, Gallery Dongduk, Seoul, Korea

우리 Us,Cage, 2020
자기점토, 고화도 안료, 상화안료, 투명유, 백동판, 1250°C
Us,Cage, 2020
porcelain, high fired pigment, over fired pigment, transparent glaze, cupro-nickel sheet, 1250°C
60 x 60 x 30

김태은 Tea eun Kim

한국 Korea

차곡차곡 아래에서부터 흙벽을 쌓아 올린다. 완성된 벽에 하나하나 세로선을 그려 나간다. 소지의 성분과 백색의 유약이 만나 검은색 점을 피워내고, 손자국과 세로선이 만들어낸 골짜기에 유약이 고이면서 자연스러운 무늬를 만든다. 마음이 아릴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한 줄 한 줄씩 내 마음을 쌓아 올리고 그려본다. 한 줄 한 줄의 쌓아 올린 벽과 세로선은 내 모든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또한 반영하며 만들어낸 흔적의 결과물이다. 그 흔적들이 모여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낸다.

I build clay walls by laying slabs. When a wall has been built, I draw vertical lines on it one by one. The clay body and white glaze come together to create black dots. Grooves that appeared as traces of my hands and horizontal lines become filled with glaze and create a natural pattern. When I feel depressed, I build slabs in layers and draw lines on the wall to calm myself down. The wall built up layer upon layer is a product of traces that reflect all of my consciousness and subconsciousness. The traces altogether create a landscape.

살아가며 느낀 감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행위는 나에게 명상과도 같다. 종잇장에 연필로 무언가를 적어간다. 단어 하나하나를 적고 던져서 저만치 모인 글들은 내가 만들어 낸 회색빛 풍경이다. 흙으로 더듬더듬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 손으로 주물러 낸 흙덩이와 손자국으로 만들어진 저 흙무덤은 내가 그려낸 마음속의 풍경이다. 나는 내 모든 번뇌와 감정을, 물질을 매개로 형상화하고 그려내어 바라본다.

The act of recording emotions I have felt as I live my life is act of meditation to me. I write something down on a piece of paper with a pencil. All the words I wrote down and tossed out are gathered together there and create a grey landscape. I keep shaping something with my hands. The lump of clay I kneaded by hand and the clay mound bearing traces of my hands are landscapes in my mind. I embody all my sufferings and emotions into a wall using clay as a medium, draw on it, and look at it.



학력	2021	서울대학교 도자공예전공 졸업예정, 서울, 한국
전시	2020	《답다-감각》, 마롱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20	《서울대학교미술대학전기출업전》,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수상	2019	동상,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 한국도자재단, 이천, 한국
Education	2021	Cera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2020	Put-sense, malong art space, Seoul, Korea
	2020	SNU College of Arts Degree Show, SNU Museum of Art, Seoul, Korea
Awards	2019	Bronze, Kyeongki-Ceramic Tableware Contest,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명상록, 2020
혼합토, 안료, 제조유약, 백색유, 흑색유, 소지용철분, 1280°C

Meditations, 2020
mixed clay, pigment, manipulated glaze, white glaze, black glaze, iron powder, 1280°C
100 x 150 x 80

김연지 Yeonji Kim

한국 Korea

순백의 기(器)에 선으로 색을 입히는 반복된 행위는 그 자체로도 창조적 동기를 가지며 내재된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길고 유기적인 형태의 화병에 수직선을 상감하여 긴장감을 주고 감상하는 사람에게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선을 볼 수 있는 재미를 주었다. 기(器)에 표현된 선은 장식의 효과뿐만 아니라 외곽선과 더불어 형태의 이해를 돕고, 공간의 분할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율동감과 생동감을 표현해 낸다.

I repeatedly apply color to a pure white vessel with lines. This repeated act itself motivates me to create art. It is a process of seeking implicit meanings. I give my work tension by decorating the surface of a long, organically-shaped vase with vertical lines in inlay. The viewers will find it interesting to see lines that make the piece look different depending on angle of view. The lines on the vessels not only have decorative effect but help the viewers better understand their shapes. By dividing spaces and creating new spaces, the lines express rhythmic sense and a feeling of movement.

어릴 때 도화지에 처음 그린 것이 색연필로 선을 그어 그린 그림이듯이 나의 작업은 순백의 백자에 칼로 선을 긋고 색을 입힌다. 선은 가장 친숙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조형 요소이다. 선은 그 자체만으로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 순백의 백자에 선을 상감함으로써 백자의 새로운 모습을 제안하고 간결함, 냉정함, 따뜻함을 아우르는 신선하고 유니크한 작품을 하고 싶다.

The first drawing I did as a child was one in which I drew in lines with colored pencils. Like my first drawing, I draw lines with a knife on pure white porcelain and color them. For me, a line is figurative element with which I can express myself in the most familiar way. A line itself can have abstract and connotative meaning. By inlaying lines on pure white porcelain, I aspire to present a new look of white porcelain and create fresh and unique art that embraces simplicity, coolness, and warmth.



학력	2012 경희대학교 도예전공 석사, 서울, 한국
	2005 조지아주립대학교 도자전공 학사, 조지아, 미국
전시	2020 《나만의 도시樂-네번째》, 조은숙갤러리, 서울, 한국
	2016 《선이 있는 백자》, 조은숙갤러리, 서울, 한국
수상	2020 동상, 제4회 "china.CHINA" 도자예술디자인전시, 중국도자협회와 경덕진도자학교, 저장, 중국
	2011 입선, 청주공예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청주, 한국
Education	2012 M.F.A., Ceramic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5 B.F.A., Ceramics, Georgia State University, Georgia, USA
Exhibitions	2020 4th My City 樂, Choounsook Art&Lifestlye Gallery, Seoul, Korea
	2016 White Porcelain with a Line, Choounsook Art&Lifestlye Gallery, Seoul, Korea
Awards	2020 Bronze, 4th "china.CHINA" Ceramic Art Design Exhibition, Chinese Ceramic Society and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Zhejiang, China
	2011 Honorable Mentions, Cheongju Craft Biennale, Cheongju Craft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Cheongju, Korea

Vases, 2020
도기점토, 투명유, 1260°C

Vases, 2020
porcelain, transparent glaze, 1260°C
95 x 40 x 53

이진휘 Jinhwi Lee

한국 Korea

내 유약 표현은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며 얻은 기대치 않은 경험을 통해 시작 되었다. 처음에 나는 표면에 유약을 뿌리곤 했다. 그러다 우연히 석고판 위에 떨어져 굳어진 유약을 관찰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실험을 하였다. 이 현상은 아주 찰나에 이루어 졌고 내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유약을 석고판 위에 붓고 건조시킨다. 유약이 단단하게 굳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1080°C에 소성하여 더 단단한 유약 조각들을 만든다. 그다음 다채로운 유약 조각을 표면에 붙인 후 마지막으로 재벌 소성한다.

My work using glazing as a means of artistic expression started with something totally unexpected that happened to me at my studio. In my earlier days as a potter, I used to spray glaze on the surface of a piece. One day, the glaze for whatever reason had fallen on the plasterboard and completely dried out on it. The effect was interesting, so I began to experiment. I thought that I could recreate the same basic effect in my work. What I do now is pour the glaze on a plasterboard and let it dry. When the glaze is bone dry, I cut it into small pieces and bisque fire it at 1,080°C. Then, I impaste the bisque-fired glaze pieces on the surface of stoneware and fire it again.

나는 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나 실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관찰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상황들은 내가 이전에 배우고 습관화 된 틀을 벗어나 내 작업에 새로운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내 작품은 내가 살아가고 작업하는 공간에 대한 반응으로서 유약의 새로운 효과나 다양한 색들로 표현이 된다.

I try to accept and observe the unexpected results or mistakes that occur when creating works in this free-wheeling way because such circumstances give me new inspiration for my work and help me to think outside of the box. In other words, it helps me break away from what I have learned and become accustomed to a new way of thinking. My artwork is a response to the space in which I live and work, and I express it by new effects of glazes and diverse colors.



학력	2021	무테지우스 미술대학 순수미술 및 도예전공 석사,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독일
	2018	무테지우스 미술대학 순수미술 및 도예전공 학사 수료,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독일
전시	2021	《색의 흐름》, 올덴부르크박물관 올버툼, 올덴부르크, 독일
	2021	《제12회 미노국제도자비엔날레》, 미노도자재단, 기후, 일본
수상	2020	젊은작가상, 올덴부르크박물관, 니더작센, 독일
	2019	입선, 엑스비엔날레 엘 벤드렐, 타라고나, 스페인
소장	-	아르토크 올덴부르크, 올덴부르크, 독일
	-	란츠후트 미술관, 란츠후트, 독일
레지던시 / 워크샵	2018	도자워크샵(카린 바블록), 뮈테시우스 미술대학,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독일
	2015	아티스트 레지던시, 유라피안세라믹워크센터, 오이스터워, 네덜란드
Education	2021	M.F.A., Fine Art and Ceramic, Muthesius Kunsthochschule, Schleswig-Holstein, Germany
	2018	M.F.A., Fine Art and Ceramic, Muthesius Kunsthochschule, Schleswig-Holstein, Germany
Exhibitions	2021	Colourfall, Pulverturm, Oldenburg, Germany
	2021	12th MINO International Ceramics Biennale, Ceramic Park Mino, Gifu, Japan
Awards	2020	Young Artist Prize, Oldenburg Museum, Niedersachsen, Germany
	2019	Honourable Mentions, X Biennial de Ceràmica d'El Vendrell, Tarragona, Spain
Collections	-	Artothek Oldenburg, Oldenburg, Germany
	-	LANDSHUTmuseum, Landshut, Germany
Residency / Workshop	2018	Porcelain Workshop(Karin Bablok), Muthesius Kunsthochschule Kiel, Schleswig-Holstein, Germany
	2015	Artist-in-Residence, European Ceramics Work Centre, Oisterwijk, Netherlands

반사 WR, 2020
 석기점토, 투명유, 매트유, 색유, 1290°C

Reflection WR, 2020
 stoneware, transparent glaze, matt clear glaze, colored glaze, 1290°C
 33 x 53 x 7

이종민 Jong Min Lee

한국 Korea

빛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 눈을 감으면 그 순간 우린 빛의 존재를 잊거나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비치는 대단한 존재를 통해 아침에 눈을 뜨게 된다. 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산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잎사귀와 나뭇가지와 빛이 뒤엉켜 반짝거리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고 패턴으로 만들어 조각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성된 후 나의 작업실 가장 큰 창 아래서 시시각각 표정을 바꾸며 그 계절의 빛을 떠올리게 한다.

An absolute being, light controls our lives with its powerful energy. The moment we close our eyes, we forget or deny the existence of light. But in the morning, we open our eyes feeling the sunlight on our faces. Lying on my back in the mountain, I documented the beautiful moment when the morning and evening sun were shining through the leaves and twigs at the season between spring and summer. Then, I created a pattern inspired by such moment and engraved it on the vessel. When I completed this work, I put it under the biggest window in my studio. It reflects images of the sun constantly changing, bringing back the memories of the sunlight of that season.



나는 물레로 만든 표면에 바늘을 이용하여 굉장히 섬세한 문양을 조각한다. 그 문양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잔잔한 파도, 흐르는 강물 등 자연 속에서 찾아낸 이미지다. 나의 작업은 감상자가 관찰하는 거리에 따라 그 표정을 바꾼다. 멀리서 보면 조선백자가 가진 간결하고 은밀한 미감을 느끼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면 섬세하게 새겨진 조각들을 발견함으로써 여러 번의 감응을 유도한다. 나의 작업은 장인 정신과 전통 도자기 제작 기술을 최대한 보존하고 존중하며, 재료를 준비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만의 연구와 창의적 실천을 통한 새로운 시도이다.

After shaping a vessel on the wheel, I carved exquisite patterns on the surface with a needle. The patterns were inspired by images I found in nature, such as tree branches dancing in the breeze, gentle waves on the water, and a flowing river. My work appears different depending on viewing distance. When viewed from a distance, it conjures up the understated beauty of simplicity found in Joseon white porcelain. Come closer, and you will find patterns so delicately engraved, much to your surprise. When working with ceramics, I try to uphold traditional pottery-making techniques and artisanship as much as possible. In preparing materials and creating vessels, I try to be as creative as possible and experiment through my own research.



학력	2012	중앙대학교 도자공예전공 학사, 서울, 한국
전시	2019	《이종민 전》, 백해영 갤러리, 서울, 한국
	2019	《아시아위크 뉴욕 2019》, 뉴욕, 미국
수상	2016	올해의 작가상, 2016 공예 트랜드 페어, 한국 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 한국
	2017	입선, 미노 국제 도자 비엔날레, 미노국제도자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기후, 일본
소장	-	헤인즈 박물관, 뒤셀도르프, 독일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Education	2012	B.A., Craft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2019	Lee Jong Min, PHY gallery, Seoul, Korea
	2019	Asia Week New York 2019, New York, USA
Awards	2016	Best Artist, Craft Trend Fair 2016,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Seoul, Korea
	2017	Honorable Mentions, Mino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eramics Festival Mino Japan, Executive Committee, Gifu, Japan
Collections	-	Heijens Museum, Düsseldorf, Germany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빛의 질서, 2018
백토, 투명유, 1260°C

The order of light, 2018
white clay, transparent glaze, 1260°C
29 x 29 x 46

이준 June Lee

한국 Korea

도자기는 역사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발굴된 도자기를 토대로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 도자기의 모양과 무늬, 색을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어느 문화권인지 어느 시대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도자기 하나만 가지고도 지역과 문화 그리고 시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19년이 지나, 100년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도자기를 가지고 지역과 문화권 그리고 연대를 측정 할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인터넷과 책, 매체를 통해 내가 가보지 못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의 특정 문화권의 고유한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현재의 문화와 서서히 섞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작업에서 도자기를 사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미래의 역사가 되는 날, 과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과거 나라별 문화의 고유한 문양들을 찾아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양, 패턴, 현대 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부서진 도자기 파편들에 실과 도자 염료를 사용하여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내고 있다. 이 부서진 파편들을 다시 하나의 모양의 도자기 (항아리)로 완성시켜 미래의 역사가 될 오늘을 만든다.

Pottery is thought to tell stories about the past. We learn about history based on ancient pottery unearthed from archeological sites. The shapes and colors of pots and the decorations on them are indications of the region, civilization, and age of the pottery. Surely enough, we can determine the specific region, culture, and era of even the smallest pot. Today, however, can new pots similarly bespeak of their region, culture, and age? We can now fly anywhere in the world and indirectly experience civilizations we have never been exposed to through the internet, books, and media. Things unique to specific regions and civilizations are gradually fading and intermixing with others. Using ceramics, I aspire to create an object that can unmistakably be recognized in the future as a product of today. For this purpose, I do research on indigenous patterns of different regions used in the past and apply them to contemporary designs, patterns, and images of contemporary art widely used today, which I find on internet. I hand-draw these borrowed images on shards of pots using thread and ceramic pigments. I then assemble these shards into a complete jar, creating something of today that will be a piece of history tomorrow.

도자기 하나만 가지고 지역과 문화 그리고 시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있는 2019년을 지나, 100년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도자기를 통해 지역과 문화권 그리고 연대를 측정할 수 있을까? 과거처럼 지역 특수성과 고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인터넷과 책, 매체를 통해 내가 가보지 못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의 특정 문화권의 고유한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현재 문화와 서서히 섞여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작업에서 도자기를 사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미래의 역사가 되는 날, 과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과거 나라별 문화의 고유한 문양들을 찾고, 인터넷을 통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양, 패턴, 현대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부서진 도자기 파편들에 실과 도자 염료를 사용하여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낸다. 이 부서진 파편들을 다시 하나의 도자기(항아리) 형태로 완성시켜 미래의 역사가 될 오늘을 만든다.

Even a small pot unearthed can tell us about the region and culture from which it came and its age. But one hundred years later, will people be able to make such determination about a piece made today? Can we say that a pot made today will tell regional uniqueness like a pot made in olden days does today? We can now fly anywhere in the world and indirectly experience civilizations we have never been exposed to through the internet, books, and media. Things unique to specific regions and civilizations are gradually fading and intermixing with others. Using ceramics, I aspire to create an object that can unmistakably be recognized in the future as a product of today. For this purpose, I do research on indigenous patterns of different regions used in the past and apply them to contemporary designs, patterns, and images of contemporary art widely used today, which I find on internet. I hand-draw these borrowed images on shards of pots using thread and ceramic pigments. I then assemble these shards into a complete jar, creating something of today that will be a piece of history tomorrow.



현재는 미래의 역사, 2020
도자, 하회안료, 실, 1240°C

Today as History of Tomorrow, 2020
ceramics, under glaze, thread, 1240°C
24 x 20 x 23

학력	2012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직조전공 석사, 디트로이트, 미국
	2008	시카고예술대학(SAIC) 순수예술전공 학사, 일리노이, 미국
전시	2021	《직정거리》, 서울웨이브, 서울, 한국
	2020	《미래 시제》, 아팔래치안 공예센터, 테네시, 미국
소장	-	박이예술특구, 카오슝, 대만
	-	모리스 앤 그웬돌린 카프리즈 재단, 워싱턴DC, 미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매스 모카, 매사추세츠, 미국
	2018	아티스트 레지던시, 헬렌 울리처재단, 뉴멕시코, 미국
Education	2012	M.F.A., Fiber, Cranbrook Academy of Art, Detroit, USA
	2008	B.F.A., Fine Art,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inois, USA
Exhibitions	2021	<i>Adequate Distance</i> , Seoul Wave, Seoul, Korea
	2020	<i>Future Tense</i> , Appalachian Center for Craft, Tennessee, USA
Collections	-	Pier 2 Art Center, Kaohsiung, Taiwan
	-	Morris and Gwendolyn Cafritz Foundation, Washington DC, USA
Residency / Workshop	2019	Artist-in-Residence, MASS MoCA, Massachusetts, USA
	2018	Artist-in-Residence, Helene Wulzitzer Foundation, New Mexico, USA

이근우 Keun Woo Lee

한국 Korea

의도함과 의도되지 않은 힘의 조화. 이것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의 자의와 타의가 서로 관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반영해 준다. 이렇게 모아진 3~8센티미터 높이의 수백, 수천 개의 세라믹 조각들이 네모난 상자 속에 오밀조밀 맞붙어지면서 나의 숲은 완성 된다.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forces in balance. This reflects our lives where people around us are interconnected whether voluntarily or not. My forest is complete when hundreds or thousands of ceramic pieces 3-8 centimeters in height are interconnected in a square box.

독일의 검은 숲은 단일 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이며, 이러한 속성은 독일 사람의 도시 생활에서도 비슷하게 풍겨오는 감성이다. 나와 내 주변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문제, 이것은 독일 땅에서 이방인으로써 나의 삶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며 작품 활동의 과제가 되었다.

The Black Forest in Germany is dominated by a single tree species. I get somewhat the same feeling from Germans living in the cities. How can I understand others around me and communicate with them is a question I ponder over and over again living here in Germany as a foreigner. Finding an answer became a subject of my work.



학력	2018	무테지우스 미술대학 도자 마이스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독일
	2016	오슬로국립미술원 도자전공 석사 교환학생 과정, 오슬로, 노르웨이
전시	2020	《검은 숲》, 안사르파크 하우스,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독일
	2020	《한국 갤러리 아트 페어-갤러리 이베》, 코엑스, 서울, 한국
수상	2018	노미네이트드, 무테지우스 프라이즈, 무테지우스 협회,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독일
소장	-	드레스덴국립공과대학 도서관, 드레스덴, 독일
	-	킬 시의회,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독일
레지던시 / 워크샵	2002	아티스트 레지던시, 그라픽 스튜디오, 작센, 독일
	2002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틀리에 스티펜디엄 에베른부르크, 라인란트팔츠, 독일
Education	2018	M.F.A., Ceramics, Muthesius Kunsthochschule, Schleswig-Holstein, Germany
	2016	Ceramic Master Exchange Program, Oslo National Akademie of Art, Oslo, Norway
Exhibitions	2020	Black Forest, Atelierhaus Ansharpark, Schleswig-Holstein, Germany
	2020	Korean Gallery Artfair-Gallery Lee&Bae, Coex, Seoul, Korea
Awards	2018	Nominated, Muthesius Preis, Muthesius Society, Schleswig-Holstein, Germany
Collections	-	Sächsische Landesbibliothek Dresden, Dresden, Germany
	-	Landtag of Schleswig-Holstein, Schleswig-Holstein, Germany
Residency / Workshop	2002	Artist-in-Residence, Grafik Studio, Saxony, Germany
	2002	Artist-in-Residence, Atelier Stipendium Ebermburg, Rheinland-Pfalz, Germany

검은 숲, 2019
본자이나, 1240°C

Black Forest, 2019
bone china, 1240°C
43 x 63 x 12

박정민 Jung Min Park

한국 Korea

점토라는 재료는 자체의 리듬이 있으며 성형하는 사람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그 과정을 스스로 기록한다. 점토가 서서히 아래로 처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흙가래를 쌓아 올리고 그 과정 중 만들어진 유기적이고 우연적인 형태가 유지되도록 짧고 긴 기다림 뒤에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성형 과정 중 환경과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오며, 이는 사람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에 따라 영향 받고 변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점토가 지닌 성격과 리듬을 나의 의지가 들어간 행위와 여러 번의 기다림과 맞춰 나가며 우연한 결과물을 가져오고, 이는 마치 외부 세계와 나의 신체가 교류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 것과 같다. 여러 색의 석고물을 여러 겹 쌓아 만든 유기적인 형태의 플랫폼은 각 도자 조형물에 맞춰 제작된다. 표면을 사포로 다듬다 보면 표면 아래에 축적된 것들이 드러나며, 이는 신체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개인을 암시하고 시간의 경계가 사라진 순간을 비유한다. 또한 조형물과 함께 설치한 사운드는 심장박동 소리, 호흡 소리, 음식 씹는 소리 등 몸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녹음해 새로운 리듬으로 재구성한 작업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신체의 소리는 도자 조형물 안쪽에서 울려 퍼져, 결국 전시 공간까지 확장한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일상적 현상들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일은 삶의 방식에 깊게 작동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반복이라는 과정을 도자, 석고, 사운드 등 각기 다른 매체들을 통해 직접 재현하면서 존재의 원초적 원리를 탐구하며 작업을 풀어나간다.

The material called clay is itself rhythmical. Interacting closely with the maker, clay records the making process itself. I build up clay coils in layers repeatedly until the coiled clay gradually droops. In this process, an organic form comes into being in a natural way. Then, I stop coiling to ensure that the incidentally formed shape remains. After waiting for a while, I get back to work and repeat the process. During the shaping stage, the outcome depends o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method. We humans live life in this manner as we are influenced and changed by our experiences. I match the nature of clay and the rhythm of it with my pottery-making act directly by my will. And I wait for incidental outcomes over and over again. This process is like the outside world interacting with my body, affecting and changing to each other. Platforms in organic shapes are built by stacking many layers of plaster cast in multiple colors. Platforms that suit for each ceramic sculpture are produced. Finishing the surface by sandpaper reveals what has been accumulated beneath the surface, which alludes to individuals who are alive today as extensions of the past. It is also a metaphor of the moment when the boundary of time disappears. For the sound installed with the sculpture, I recorded the sound of the constant movement in our bodies, such as sounds of our heartbeat, breath, and eating and reedited such sounds into new rhythms. These bodily sounds constantly repeating resonate from

반복적 과정을 통해 신체가 세상과 교류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작업은 시작된다.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린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들을 관찰하면서 몸과 주변이 교류하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을 이해한다.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 재료인 점토를 사용해 흙가래를 만들고 쌓아 올리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재료와 몸의 리듬이 조율하는 순간을 조형물의 형태로 기록하며, 반복적 교류 속에서 파생되는 존재의 원리를 직접 재현한다. 몸은 외부와 개인의 경계에 존재하며 주변으로부터 받은 자극은 개인에 따라 독특한 양상으로 신체 감각을 통해 전달되고 해석된다.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세계관은 변화하며, 주변은 물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신체를 통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이러한 몸과 주변의 상호교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현상들을 생산해 낸다. 특히 수많은 반복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사소한 현상들에 대한 관심이 존재와 지속 그리고 생성 과정의 원리를 파고들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My work starts with exploration into how the human body interacts with the world through a repetitive process. Observing repetitive routine acts occurring subconsciously, which have become a part of existence, I come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our bodies and their surroundings and how they come to adjust to each other. Using clay, a material that is passive and yet active, I make coils and stack them in layers. In this process, I experience moments when the material clay and my body are in tune with each other. Recording such moments in the form of sculptures, I reproduce the principle of existence that has been derived from repeated interactions. The human body exists at the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the individual, and stimulus from the surroundings are delivered through senses of the body and interpreted uniquely by each individual. Depending on the way in which each person perceives the outside world, his or her world view will change. Surroundings are constantly affected and changed through human bodies, which can take physical actions. These interactions between the human body and surroundings occur constantly and produce diverse phenomena. I am especially interested in trivial phenomena that appear through numerous repeated acts, and my interest has led me to explore principles of existence and continuation, and creation process.

the inside of ceramic sculptures and extend into the exhibition space. To discover phenomena of everyday living and explore them suggests how we can understand basic principles of our way of life. These phenomena all have a repeating process in common. Reproducing this process called repetition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ceramics, plaster, and sound, I continue to make art in search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existence.



수직적 리듬의 틈새, 2020
산백토, 조형토, 브러쉬 유약, 석고, 스피커, 화장토, 수금, 1250°C

The Gap Between Vertical Rhythm, 2020
white clay, grogged clay, brush glaze, plaster, speaker, engobe, gold, 1250°C
250 x 250 x 181

학력	2019	철시예술대학교 순수예술전공 학사, 런던, 영국
	2016	CCW 아트 앤 디자인 파운데이션 과정 아트&디자인전공, 런던, 영국
전시	2021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 2020》, 사우스런던 갤러리, 런던, 영국
	2020	《클레이아크김혜미미술관 2020 세라믹창작센터 입주작가 보고전》, 클레이아크김혜미미술관, 김해, 한국
수상	2020	입선, 감마 젊은 작가 공모전, 글로벌지식마케팅경영학회, 서울, 한국
	2020	입선,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 2020, 뉴 컨템포러리, 런던, 영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21	아티스트 레지던시, 순천창작예술촌, 순천장안창작마당, 순천, 한국
	2020	아티스트 레지던시, 세라믹창작센터, 클레이아크 김해, 김해, 한국
Education	2019	B.F.A., Fine Art, Chelsea College of Art, London, UK
	2016	Foundation Diploma, Art & Design, ARTS AND DESIGN FOUNDATION CCW, London, UK
Exhibitions	2021	<i>Bloomberg New Contemporaries 2020</i> , South London Gallery, London, UK
	2020	<i>2020 Ceramic Creative Centre Residency Activities</i> ,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Korea
Awards	2020	Honorable Mentions, GAMMA YOUNG ARTIST COMPETITION/ Global Alliance of Marketing & Management Association, Seoul, Korea
	2020	Selected, Bloomberg New Contemporaries 2020, New Contemporaries, London, UK
Residency / Workshop	2021	Artist-in-Residence, Scart Village, Suncheon Jangan Creative Art Village, Suncheon, Korea
	2020	Artist-in-Residence, Ceramic Creative Center, Clayarch Gimhae, Gimhae, Korea

라기태 Kee-Tea Rha

한국 Korea

간결한 형태는 수직과 평행, 유연함과 강직함 등 상반되는 관계를 이루며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이 무대가 섬세한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적 구조 이기를 바란다. 정적인 이미지 안에 긴장감이 흐르고 가는 선 위를 스치는 바람은 침묵을 깬다.

The simple forms of conflicting relations - vertical and horizontal, and flexible and rigid – create balance and harmony. I intend to give this stage a poetic structure that demands extreme sensitivity. There is tension in quiet images. The breeze passing over the thin lines breaks the silence.

나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오브제의 반복과 매달음을 통해 얻는 운동감을 찾는다. 유기적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되고 진화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읽어나갈 시적 표현과 감정에 초점을 둔다.

I aspire to create movement by arranging series of objects and suspending an object in a given space.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the organic structure to be modified and to evolve over time, I focus on poetic expression and emotions to be read by the viewers.

학력	2017 유럽도예학교 도자전공, 게브빌러, 프랑스
	2004 프랑스국립미술학교 스트라스부르 예술전공 석사,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전시	2021 《현대 도자 살롱》, C-14파리, 파리, 프랑스
	2016 《도살장#2》, 르퐁포트 갤러리, 미텔라우스베르겐, 프랑스
레지던시 / 워크샵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웨호 도자박물관 창작센터, 웨호, 프랑스
Education	2017 Créateur en Arts Ceramique, Institut Européen des Arts Céramiques, Guebwiller, France
	2004 M.F.A., Arts, Haute école des arts du Rhin Strasbourg , Strasbourg, France
Exhibitions	2021 <i>Salon de la Céramique Contemporain</i> , Paris C-14, Paris, France
	2016 <i>Abattoir#2</i> , Gallery Le Point Fort, Mittelhausbergen, France
Residency / Workshop	2019 Artist-in-Residence, Centre de Création Musée de la Céramique Ger, Ger, France

무제, 2019
도자, 천, 와이어, 금속, 1280°C, 1000°C

Untitled, 2019
ceramics, fabric, wire, metal, 1280°C, 1000°C
70 x 200 x 250



서혜민 Hyemin Seo

한국 Korea

흙을 파면 그 파여진 모양대로 선이 생긴다. 흙을 특정한 도구를 이용해 각을 살려 파낼 수도 있고 둥그런 구멍이 모양으로도 파낼 수 있다. 하나의 흙 소지에 ‘파다’라는 영향을 가해 새로운 ‘선’이라는 요소가 생기는 것이다. 정육면체 모양을 유지한 반 건조 상태의 흙에 ‘파다’라는 요소를 이용해 흙을 파내면 그 파인 곳에 또 새로운 ‘선’이 생기고, 그 파인 부분은 ‘면’이라는 요소로 새롭게 등장한다. 그리고 새로 생긴 면에 유약을 발라 다양한 색상을 입히면 또 다른 새로운 요소가 생긴다. 이렇게 흙이라는 소지에 ‘파다’라는 성질을 가하면 여러 가지 요소, 즉 다양한 볼거리가 생긴다. 흙의 파이는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흙에 이러한 성질을 가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와 그 요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관람객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

If you dig a hole in the soil, lines form following the contours of the hole. Using a specific tool, you can dig a hole in an angular or round shape. ‘Digging’ into a clay body creates a new element called ‘lines.’ By ‘digging’ into half-dried clay, more new ‘lines’ are created at the excavated part and the excavated part appears anew as an element called ‘plane.’ When this newly formed plane is covered with glazes to show diverse colors, yet another new element is created. By ‘digging’ into the clay body, the potter creates diverse elements, that is, diverse things to see. This work shows the properties of clay that is so affected by digging. It provides visual effects by diverse elements that appear when clay is dug into, and this is the essence of my work.

4년이라는 대학 생활 동안 여러 조형 작품을 만들며 다양한 주제를 생각하고 기획했다. 여태까지 나는 사회적이고, 이론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어 보았지만, 이 작품에서는 4년 동안 함께한 흙 자체의 성질에 집중하고 싶었다. 흙은 가소성, 점성, 점착성, 내열성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 중, 흙의 파이는 성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 보았다. ‘파다’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구멍이나 구멍이를 만들다’이다. 흙은 도구를 이용하면 더욱 정교하게 팔 수 있고, 손을 이용해 흙의 점성을 살려 유기적인 모양으로 파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흙 소지를 파내려면 흙의 상태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 건조 상태여야 한다. 정육면체 모양을 유지한 반 건조 상태의 흙의 파이는 성질을 이용해 흙을 파내면, 파인 곳 가장자리에 유기적인 ‘선’이 생기며 ‘면’이라는 요소도 새롭게 등장한다. 이렇게 새로 생긴 면에 유약을 입힌다. 반 건조 상태의 흙 소지에 ‘파다’라는 성질만 가했을 뿐인데 다양한 요소가 생긴다. 도예가라면 흙을 파내는 기술은 당연한 행위이고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스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에 집중한 당연한 행동이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기초 소지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선택한 이유는 잘 쌓아진다는 일반적인 특징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상징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모양에 ‘파다’라는 영향을 가했을 때 그 느낌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During my four years in collage as a student, I thought about diverse subjects and planned while producing a number of sculptures. I have dealt mostly with social and theoretical subjects. But while working on this project, I decided to focus on the properties of clay itself, with which I spent so much time throughout four years of college. Clay is characterized by plasticity, viscosity, adhesiveness, and heat-resistance. Of these properties, I was interested in the nature of clay to be dug into and thought deeply about it as the subject of my work. The lexical meaning of ‘dig’ is ‘to make a hole.’ By using a tool, a potter can dig much more elaborately. With hands, the potter can dig out an organic shape by fully taking advantage of the viscosity of clay. To dig a clay body while maintaining shape, the clay should be leather dry. When cubic-shaped leather-dry clay is dug into, ‘lines’ are created along the edges of the area dug into and the element called ‘planes’ also appears. Then, the newly formed planes are covered with glazes. Adding only the action of ‘digging’ into the leather-dry clay body creates diverse elements. For any potter, digging into clay is a natural act. It is a basic skill of creating an artwork. I wanted to show through my work that such natural act focusing on the basic element can create interesting elements. I chose the cube as the basic unit because it symbolizes the most basic form, and I thought when the basic form was ‘dug,’ it should create even greater feeling about the form. I also considered the fact that cubes stack well.



학력	20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 및 산업디자인전공 재학, 서울, 한국
Education	2017	Ceramics & Industrial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Technology, Seoul, Korea

기형의, 2020
슈퍼대작도, 단컨IN유약, 1050°C

Deformed, 2020
ks150, duncan IN glaze, 1050°C
104 x 72 x 78

윤지용 Ji Yong Yoon

한국 Korea

게임의 구조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황은 오늘날의 사회구조와 닮아있기 때문에, 도시(사회)라는 거대한 체스보드에서 견제와 방어를 병행하며 체스맨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규격화된 사회 속에서 마치 게임을 하듯 치열하게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체스맨으로 상징화한 작업이다.

The social structure today is much like a chess game and the psychological situations involved in it. I intend to express the story of people in modern society, who have become like chessmen keeping the others in check and defending themselves on a huge chessboard called the city or society. Chessman is metaphor of modern people living in constant, fierce competition with each other in society.

체스는 중세시대부터 시작된 오락으로 흑과 백으로 나뉜 64칸의 격자무늬 체스보드에서 한 편에 16개씩 총 32개의 체스맨(chessman-체스에 쓰이는 말들을 지칭)을 움직여 전술을 겨루는 지적 게임이다. 놀이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즐거움을 전제로 하지만 게임에는 엄연히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공격과 방어를 하며 상대의 말을 잡아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게임의 법칙이고, 이러한 규칙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먹이사슬과 닮아있다.

Considered excellent practice for planning battle strategy, chess was popular during the Middle Ages. Involving competing tactics, it is an intellectual game played on a board made up of 64 individual squares consisting of 32 dark squares and 32 light squares and a total of 32 chessman, with 16 pieces on each side. Playing the game i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it is free, voluntary, and enjoyable, but there undoubtedly exist 'rules.' Taking the opponent's chessman by striking and defending oneself to survive is the rule of the game, and this formal rule is similar to the food chain of people living today.



학력	2012 단국대학교 조형예술전공 박사, 용인, 한국
200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전공 석사, 서울, 한국	
전시	2020 《CHESSMAN_도시in》, KCDF 갤러리, 서울, 한국
2017 《제9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지역: 삶을 돌아보다》, 경기도자박물관, 광주, 한국	
수상	2020 현대공예 디자인부문 우수상, 제3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사단법인한국미술협회, 서울, 한국
2012 특선, 제31회 서울현대도예공모전, 서울신문, 서울, 한국	
소장	- 고덕아이파크, 평택, 한국
- 고명리조트, 홍천, 한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20 남원국제도예캠프, 온라인워크샵, 한국
2016 국제조형물제작워크샵, 단국대학교, 용인, 한국	
Education	2012 Ph. D., Fine Arts, Dankook University, Youngin, Korea
2003 M.F.A., Cera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Technology, Seoul, Korea	
Exhibitions	2020 CHESSMAN_City in, KCDF Gallery, Seoul, Korea
2017 2017GICB_Narrative; Story, Memory, Pray, Gyeonggi Ceramic Museum, Gwangju, Korea	
Awards	2020 Excellence Prize, 39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Seoul, Korea
2012 Special Prize, 31st Seoul Contemporary Ceramic Arts Contest, Seoul Newspaper, Seoul, Korea	
Collections	- Godeock Ipark, Pyeongtaek, Korea
- Gomyeong Resort, Hongcheon, Korea	
Residency / Workshop	2020 Namwon International Ceramic Art Camp, Online Workshop, Korea
2016 International Sculpture Workshop,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체스맨, 2020
 석기점토, 자기점토, 투명유, 색유, 테라 시질라타, 리스터글드, 800°C-1250°C

Chessman, 2020
 stoneware, porcelain, transparent glaze, colored glaze, terra sigillata, luster gold, 800°C-1250°C

Dimensions variable

윤주철 Juchul Yoon

한국 Korea

우리는 옛것을 전통이라 이야기한다. 전통은 역사성과 시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정신을 이어오는 우리의 문화이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나는 미래의 옛것을 꿈꾸며 과거의 옛것을 모방(Imitation)하며 차용(Appropriation)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한 CHEOMJANG 201015는 첨장기법(尖裝技法)을 기반으로 한국적 항아리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We call things from the past tradition. Speaking of history and the trends of time, tradition carries on the spirit of Korea. Tradition is culture. We live today with the mission to succeed and build upon our tradition. Dreaming of making today's work tomorrow's heritage, I imitate things past and appropriate them. CHEOMJANG 201015 presented at this International Competition depicts the shape of a Korean jar using a decorative technique called cheomjang in Korean.

전통 분청사기의 귀얄 기법을 모티브로 한 '뽀족 할 첨(尖), 꾸밀 장(裝)'의 첨장(尖裝) 기법이라고 명명된 이 장식기법은 흙물을 붓으로 바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자기 표면을 뽀족하게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첨장 기법의 또 다른 표현은 화려한 색상이다. 안료를 섞은 흙물을 돌기에 바르면 또 다른 느낌의 돌기가 생성된다.

I named this decorative technique cheomjang, which was inspired by buncheong brushed with white slip dating back to the early Joseon period. 'Cheom' in cheomjang means 'pointed' or 'sharp' and 'jang' means 'to decorate or embellish.' This decorative technique starts with applying slip on the surface with a coarse brush, followed by making numerous small, sharp points rising on the surface. Another noteworthy expression made by this technique is gorgeous color. When slip mixed with pigments are applied to the protruding points, yet more points of deferential feelings are formed.



학력	2011	단국대학교 조형예술전공 박사, 용인, 한국
전시	2020	《미래의 전통》, 장수미술관, 장수, 한국
	2020	《현대 공예와 디자인 국제 아트페어 COLLECT 2020_사치 갤러리》, 런던공예원, 런던, 영국
수상	2020	입선, 대만 도자 비엔날레, 신베이시 잉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소장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 한국
Education	2011	Ph. D., Fine Arts, Dankook University, Youngin, Korea
Exhibitions	2020	<i>The Future of Tradition</i> , Jangsu Museum of Art, Jangsu, Korea
	2020	<i>International Art Fair for Modern Craft and Design: COLLECT 2020_Saatchi Gallery</i> , Somerset House in London, London, UK
Awards	2020	Honorable Mentions,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Collections	-	Seoul Craft & Design Museum, Seoul, Korea

첨장 201015, 2020
 백색 자기점토, 안료, 투명유, 수금, 1260°C
CHEOMJANG 201015, 2020
 white porcelain, pigment, transparent glaze, gold, 1260°C
 30 x 30 x 45

엘리시아 아타나토스 Elysia Athanatos (Ελύσια Αθάνατου)

키프로스 Cyprus

이 작품은 물레로 만들었다. 나는 점토를 다루기 위해 물레를 파트너로 활용했다. 나 자신, 물질, 힘, 요소. 물레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 조정되고 뒤엉켜진다. 물은 흙의 형태를 약화시킨다. 불은 단단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 속도와 중력은 무게와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모두 안과 밖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내부는 빈 공간, 빈 감각, 나중에 빛으로 채우는 빈 공간이며 천상적이고 영적인 본질이다. 외부는 몸체이며, 몸체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이 곧 몸체이다.

This work is made using a spinning wheel. I chose a spinning wheel as a partner to treat clay. Myself, matters, strength, elements... We are all turned and tangled while the spinning wheel is running. Water weakens the form of soil. Fire makes it stronger and harder. Speed and gravity affect the balance of weight and force. This is all about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e inside is an empty space, an empty sense, an empty space filled with light later, and an ethereal and spiritual essence. The outside is the body, and everything it contains is the body.

자신 스스로를 탐험할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탐험하고 연결한다. 예술가로서, 나의 존재는 감정을 물질로 바꾸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을 통해 비전과 감각이 살아나고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본질이다. 본질! 그것이 내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의 핵심이다! 이 모든 육체성은 나에게 필수적이다. 물질과 실제로 접촉하고 최대한 이해하고, 그것을 떼어내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이다. 이성을 넘어서 느껴지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Even when exploring ourselves, we also explore and connect with others. As an artist, I believe my existence is a means of turning emotions into matter. Through art, vision and sense revive, and what remains of us in the end is the essence. Essence! That is the key to how and for what I work! All this physicality is essential to me. It is to actually come into contact with a substance, to understand as much as possible, to tear it apart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It is to convey what I feel beyond reason.



빛의 형체, 2019
 흑색 석기점토, 골드 러스터, 980°C, 1175°C, 770°C

Body of Light, 2019
 black stoneware, gold luster, 980°C, 1175°C, 770°C
 90 x 86 x 67

학력	2011	파엔차 국립산업예술학교 도자전공 특수과정, 파엔차, 이탈리아
	2008	피렌체 국립 미술원 조각 전공 학사, 피렌체, 이탈리아
전시	2020	《소피리움, 지구의 숨결》, 테르조리오 갤러리, 임페리아, 이탈리아
	2020	《내면 공간》, 글레아고 국제도자센터, 스텔스피르, 덴마크
수상	2018	입선, 라르나카 비엔날레 2018 우수작품상, 라르나카 비엔날레 2018, 라르나카, 키프로스
소장	-	키프로스 현대 예술 갤러리, 니코시아, 키프로스
레지던시 / 워크샵	2020	워크샵, 글레아고 국제도자연구센터, 스텔스피르, 덴마크
	2009	워크샵, 산바오도예학교, 장시, 중국
Education	2011	Specialization, Ceramics, Istituto Statale d'Arte per la Ceramica Gaetano Ballardini, Faenza, Italy
	2008	B.A., Sculpture, Accademia di Belle Arti di Firenze, Firenze, Italy
Exhibitions	2020	<i>Spiritum, il Respiro della Terra</i> , Terzorio Gallery, Imperia, Italy
	2020	<i>Inner Space</i> , Guldagergaard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Skælskør, Denmark
Awards	2018	Selected, Award of Excellence Larnaca Biennale 2018, Larnaca Biennale 2018, Larnaca, Cyprus
Collections	-	State Gallery of Contemporary Cypriot Art, Nicosia, Cyprus
Residency / Workshop	2020	Workshop, Guldagergaard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Skælskør, Denmark
	2009	Workshop, Sanbao Ceramic Art Institute, Jianxi, China

헬미 브루그만 Helmie Brugman

네덜란드 Netherlands

나는 완전히 새로운 감정의 세계를 떠올리며 한 덩이의 흙을 성형한다.

이 과정은 나의 작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창조(창작)의 과정'이 작업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의 과정 안에 사용되는 몰드 또한 나의 작업의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다. 나는 몰드를 거쳐 창조된 어린이 형상의 작품을 통해,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작품을 제작한다. 몰드는 작품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짓는 모태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작품과 함께 드러나도록 작업을 한다.

I shape a clod of clay imagining a totally new world of feelings.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es for me as this process of creation is a part of my work. In this regard, the mold being used in the creation process is an important element for me. Through the ceramic piece depicting children, created as a sculpture through molding, I make a work which bluntly reveals vulnerability. As the mold is a decisive factor of the form and structure of a work, I focus on revealing it in my work.

나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았다. 나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명작을 축소하여 성별을 알 수 없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제작했다. 천국에서 쫓겨나기 전 아직 순수함을 간직한 여러 명의 어린아이로 말이다. 내 작품 '다비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데아는 세상 어딘가에는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데아를 지향하는 몰드가 만들어진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를 모방하는 주입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신들의 세계에 살아가는 힘없는 주입물에 불과하다. 물질적 구체성을 통해 조각상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지만, 동시에 이데아와 우리 존재의 능력에 대해 묻는다.

This work is inspired by Michelangelo's *David di Donatello*. I reduced this masterpiece of the Renaissance by creating androgynous children who still maintained their innocence from before they were kicked out of heaven. My David is related to Plato's Theory of Forms. An idea exists somewhere, and the orientation of the mold is created here. All the objects in the world are nothing but an infusion which imitates the idea. Hence, we are powerless infusions who live in the world of gods. This sculpture inspires us through its material concreteness and raises an ontological question, but at the same time, it asks a question about an idea and our existential capability.



테라코타 다비드상, 2020
테라코타 석기점토, 석고, 1220°C

Terracotta David, 2020
terracotta stoneware, plaster, 1220°C
35 x 35 x 100

학력	1984 폰티스예술학교 순수예술전공 석사, 틸부르프, 네덜란드
	1982 폰티스예술학교 순수예술전공 학사, 틸부르프, 네덜란드
전시	2021 《제61회 프레이미오 파엔차 수상작 온라인 전시》, MIC 국제도자미술관, 파엔차, 이탈리아
	2015 《베를린 갤러리 주간 2015: 누가 돌봐주나요》, 갤러리 볼름, 베를린, 독일
수상	2019 입선,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한국도자재단, 이천, 한국
	2018 입선, 라트비아 국제도자비엔날레 마르티손 어워드, 마크 로스코 아트센터, 다우가프필스, 라트비아
소장	- 한국도자재단, 이천, 한국
	- 마크 로스코 아트센터, 다우가우필스, 라트비아
레지던시 / 워크샵	2013 아티스트 레지던시, 유러피안세라믹워킹센터, 오이스터윅, 네덜란드
Education	1984 M.F.A., Visual Arts, Academy for Fine Arts Fontys, Tilburg, Netherlands
	1982 B.F.A., Visual Arts, Academy for Fine Arts Fontys, Tilburg, Netherlands
Exhibitions	2021 <i>61st Premio Faenza(MIC Faenza) Online</i> , MIC International Museum of Ceramic, Faenza, Italy
	2015 <i>Gallery Weekend Berlin 2015: Who Takes Cares</i> , Gallery Volume, Berlin, Germany
Awards	2019 Honorable Mentions,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2018 Honorable Mentions, Latvia International Ceramics Biennale Martinsons Award, Mark Rothko Art Centre, Daugavpils, Latvia
Collections	-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 Mark Rothko Art Center, Daugavpils, Latvia
Residency / Workshop	2013 Artist-in-Residence, European Ceramic Work Center, Oisterwijk, Netherlands

앤 버틀러 Anne Butler

영국 UK

푸른 상감 장식을 넣은 *파리안 도자 <횡단>은 <On the Edge> 시리즈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소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자기의 변화를 통해 시간, 재료 그리고 과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여러 번 소성하면 도자기 큐브는 주저앉고 상호작용을 하며 받침 부분과 붙게 된다. 이 작품은 유기적인 흐름, 견고성과 불완전성, 영구성과 상실, 변환점과 안정성이라는 대조되는 면들이 있다. 단단한 대리석 같은 질감과 유백색의 자기질이 보이는 우아함은 난해한 물질적 변화를 겪은 듯 하면서도 유사성을 드러낸다. 이 시리즈는 2020년 내내 다듬어왔고 과거에 일어난 개인적인 문제와, 감정적이고 환경적인 이슈들을 담고 있다.

Traverse, a Parian Ware* with blue inlay decorations, is a part of the *On the Edge* series. This work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materials, and processes through changes in porcelain that occur during the firing process. When burned multiple times, the ceramic cube collapses and adheres to the base undergoing an interaction. This work contrasts with organic flow, robustness and imperfection, permanence and loss, and tipping point and structure. The hard marble-like texture and the elegance of translucent white porcelain, which seems to experience material and metaphysical changes, reveal the similarity. The series was refined throughout 2020 and contains personal, emotion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occurred in the past.

*파리안(Parian Ware): 1850년경 영국 및 미국에 전해진 표면이 흰 경질도자기

*Parian Ware is a porcelain with white surface introduced to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around 1850.

나는 얼스터 대학교와 웨일스 대학교에서 도자기를 전공했으며 북아일랜드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작업한다. 작업 방법은 본질적으로 옛 방식과 현대 기법의 실험을 통해 재료와 과정의 불완전성을 연구하고 만들어보는 행위와 연결된다. 시간, 재료, 과정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나의 작업은 고고학, 지질학, 건축을 연상시키는 점이 있다. 나의 조각은 자연과 인공적 구조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물질문화, 공유된 문화적 의미와 개인의 기억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해 구축하고, 층을 쌓고, 해체하고, 융합하고, 붕괴하고, 구멍을 파고, 파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I majored in ceramics at the University of Ulster and the University of Wales and work in a studio in Northern Ireland. I usually work with clay, and my working method is essentially linked to the act of researching and practicing the imperfection of materials and process through experiments with outdated and modern techniques. My work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time, materials, and processes, which is reminiscent of archaeology, geology, and architecture. My sculptures are inspired by nature and artificial structures and go through the process of building, layering, dismantling, fusing, collapsing, drilling, and fragmenting to reveal the connection between material culture, shared cultural meaning, and individual memory.



횡단, 2021
백색 자기점토, 청색 안료, 1230°C

Traverse, 2021
parian porcelain, blue porcelain inlay, 1230°C
35 x 32 x 17

학력	2020 웨일스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카디프, 영국
	1985 얼스터대학교 도자전공 학사, 벨파스트, 아일랜드
전시	2021 《올렉트 아트 페어》, 영국공예창, 런던, 영국
	2020 《로얄 얼스터 아카데미 연례 전시》, 얼스터 미술관, 벨파스트, 영국
수상	2019 입선,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한국도자재단, 이천, 한국
	2018 선정, 로즈마리 제임스 메모리얼 기금, 노던아일랜드 예술협회, 얼스터, 영국
소장	- 창춘국제도자박물관, 지린, 중국
	- 북아일랜드 예술협회, 리즈번, 영국
Education	2020 M.A., Ceramics, University of Wales Cardiff, Cardiff, UK
	1985 B.A., Ceramics, University of Ulster Belfast, Belfast, Ireland
Exhibitions	2021 <i>Collect Art Fair</i> , Craft Council, London, UK
	2020 <i>Royal Ulster Academy Annual Show</i> , Ulster Museum, Belfast, UK
Awards	2019 Honourable Mentions,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2018 Selected, Rosemary James Memorial Fund,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Ulster, UK
Collections	- Changchung International Ceramic Museum, Jilin, China
	-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Lisburn, UK

세르주 두 Serge Dos

프랑스 France

〈낮과 밤〉은 990도에서 소성된 23개의 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흰색과 파란색은 슬립 화장토를 바른 것이고 검은색은 유광 유약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링은 오목한 모양과 볼록한 모양을 번갈아 가며 서로 다른 색을 띠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각 링은 1cm씩 줄어든다.

Night and Day consists of 23 rings fired at 990°C. While a slip engobe is applied to the white and blue rings, a satin glaze is used for the black rings. Each ring changes its color, and its shape alternately transforms from concave to convex. The size of each ring reduces by one centimeter as it moves upward.

낮과 밤의 초상

시간의 이중성과 흘러가는 시간 속 우리를 영원한 현재로 되돌리는 빛과 어둠의 창의적 표현.

Portrait of Nigh and Day

This work creatively expresses the light and darkness which turn us within the duality and flow of time back to the eternal present.



학력	2010 발로리스 시립 예술대학교 청년디자이너 과정, 발로리스, 프랑스
	2007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 도자전공, 캘리포니아, 미국
전시	2019 《조각과 정원》, 모나코 수목원, 모나코, 모나코
	2017 《NCECA 포트랜드 2017-산업의 마법》, 주피터 호텔, 오리건, 미국
수상	2019 입선, 심사위원 선정, 제25회 발로리스 국제도자비엔날레, 발로리스, 프랑스
	2019 입선, 모나코 어워드, AIAP 모나코, 모나코, 모나코
소장	- 비오토와즈 도자역사박물관, 비오토, 프랑스
	- 도자재단, 클루즈나포카, 루마니아
레지던시 / 워크숍	2014/2017 아티스트 레지던시, 시가라키 도예의 숲, 시가라키, 일본
	2010/2014 제17회 호드메죄바사르헤이 심포지엄, 와르타빈스도자재단, 촌그리드처너드, 헝가리
Education	2010 Young Designer, Ecole Municipal des Beaux Arts Vallauris, Vallauris, France
	2007 Ceramics, City College of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Exhibitions	2019 <i>Sculptures and Garden</i> , Botanical Garden of Monaco, Monaco, Monaco
	2017 <i>NCECA Portland 2017-Industrial Magic</i> , Jupiter Hotel, Oregon, USA
Awards	2019 Selected, Jury Choice Award, 25th International Biennale Contemporary Ceramics of Vallauris, Vallauris, France
	2019 Honorable Mentions, City of Monaco Award, AIAP Monaco, Monaco, Monaco
Collections	- Musée d'Histoire et de Céramique Biotoises, Biot, France
	- Ceramart Foundation, Cluj-Napoca, Romania
Residency / Workshop	2014/2017 Artist-in-Residence, Shigaraki Ceramic Cultural Art Park, Shigaraki, Japan
	2010/2014 XVII Hódmezővásárhely Symposium, Wartha Vince Ceramics Art Foundation, Csongrád-Csanád, Hungary

낮과 밤, 2020
 도기점토, 흑색 안료 유약, 화장토, 금속막대, 금속 스탠드, 슬립, 992°C

Night and Day, 2020
 earthenware, black satin glaze, engobe, metal rod, metal stand, slip, 992°C
 44 x 44 x 215

수잔 드럼멘 Suzan Drummen

네덜란드 Netherlands

〈흙과 함께한 노래〉 작품에 노래하는 두 명의 등장인물은 점토 코일로 덮여간다. 이것은 대조적인 장면으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나는 그들을 잠식해가는 '점토 이불'을 즐겁게 만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150kg이나 되는 점토 무게를 힘들게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이 장면은 마치 장례식의 '매장'을 연상하게 한다. 결국 점토가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자 나는 그들에게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점토를 떼어내고 나오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 괴상한 상태에서 벗어난다. 나는 이 '탈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거꾸로 돌려 편집하며, 일종의 소격효과(낯설게 하기)를 불러왔다. 영상 초반은 유희적이며, 그들은 거미줄 같은 점토 코일을 뒤집어쓰며 즐거워 보이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그들은 점토 더미에 완전히 묻히며 낯선 변화를 초래한다.

In *Song with Clay*, two singers are being covered by clay coils. This contrast scene implies two meanings: I joyfully create a “clay blanket” which is encroaching them while they have to bear the heavy clay which weighs 150kg. This scene reminds of a burial in funeral. When the clay has fully covered them, I tell them to get out singing and ripping off the clay. Then, they may escape from this strange status. I edited this escape scene by rewinding the recorded image, and increased the effect of alienation. At the initial stage, they seem joyful being covered by the web-like clay coils, but as time goes on, they are fully covered by the clay, leading to the stark contrast.

나는 2020년 네덜란드의 유러피안세라믹워크센터(Sundaymornig@EKWC)에서 12주 동안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참여 기간 동안 내 스스로 세웠던 목표 중 하나는 전에 하지 않았던 작업을 시도해 보는 것이었다. 이번 작품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움과 불쾌함 그리고 상반된 감정과 생각 사이를 넘나든다. 나는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자 하였다.

In 2020, I participated in a twelve-week residency program at the European Ceramics Workcentre (Sundaymornig@EKWC) in the Netherlands. One of my personal goals during this program was to create a type of work that I had never done. This work is ambivalent. It crosses between beauty and discomfort—conflicting thoughts and feelings. I cast doubt on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through this work.



학력	1991 리엑스 예술대학 석사,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988 안반에이크 아카데미 석사, 마스트리히트, 네덜란드
전시	2021 (Zalf), 루드6,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21 (거울아 거울아, 너를 보여줘), 쿤스트할게이드, 아메르스포르트, 네덜란드
수상	2019 최고미감상, 국제동전디자인콘테스트 2019, 국제동전디자인콘테스트 조직위원회,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1998 입선, 로얄 현대회화 어워드, 로얄 팔레스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소장	- 보이만스 판빙남언 미술관, 로테르담, 네덜란드
	- 예술박물관, 마스트리히트, 네덜란드
레지던시 / 워크샵	2020 아티스트 레지던시, 유러피안세라믹워크센터, 오이스터빅, 네덜란드
Education	1991 Master, Rijksacademiem, Amsterdam, Netherlands
	1988 Master, Jan van Eyck academie, Maastricht, Netherlands
Exhibitions	2021 Zalf, Loods 6, Amsterdam, Netherlands
	2021 MIRROR MIRROR, Reflect yourself!, Kunsthal KAdE, Amersfoort, Netherlands
Awards	2019 Best Artistic Solution, Coin Constellation-2019, Committee of the Coin Constellation Competition, St. Petersburg, Russia
	1998 Selected, Royal Award for Modern Painting, Royal Palace Amsterdam, Amsterdam, Netherlands
Collections	- Museum Boymans van Beuningen, Rotterdam, Netherlands
	- Bonnefantenmuseum, Maastricht, Netherlands
Residency / Workshop	2020 Artist-in-Residence, European Ceramic Work Center, Oosterwijk, Netherlands

흙과 함께한 노래, 2020
비디오, 150kg 젖은 점토

Song with clay, 2020
video, 150kg wet clay
2' 00"

파블로 벨롯 가르시아 Pablo Bellot Garcia
스페인 Spain

나는 작품을 통해 소통의 행위를 보여준다. 이 소통 행위는 도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고태치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해 구체화한 형태로 보여준다. 순간의 메시지는 발생하고 외침은 형체를 갖추어 우리는 실체가 없는 소리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비명소리를 구체화시킴으로서, 현대사회에서 개인 소통의 불가능함을 표현하며 도자를 통한 절망적인 비명을 포착하고 시각화한다. 도자는 양면적인 기능이 있는데, 도자기는 메시지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진동이 생기거나 소리가 울리거나 왜곡시켜 소통 기능을 막으며 메시지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주변의 소리를 증폭시키며, 자신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곧이어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준다. 관람객은, 우리가 정보와 메시지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과 전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My work shows the act of communication. Such communication is the connection between ceramics and sound, which embodies and captures the exact moment of shouting. The message of the moment occurs and the shout is shaped so that we can see the form of the sound without substance. This project embodies screams, expressing the impossibility of personal communication in modern society, capturing and visualizing the desperate screams through ceramics. Porcelain has a dual function: though it generates messages, it also blocks communication functions by creating vibrations, ringing or distorting sounds. This work amplifies the surrounding sounds, and makes it possible to publish your message and deny it right after. Visitors play an active role in this work and exhibition, which talks about our excessive exposure to information and messages.

나는 커뮤니케이션에 저항하는 작품을 만든다. 소통의 혼란이라는 주제의 연구에서 부재의 현실, 과도한 시각화, 미디어의 폭력, 현대사회에서 가치의 실패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나는 다양한 미디어, 설치, 회화, 조각, 액션과 비디오를 활용하여 언어적 행위를 구축하고 또 해체한다. 수십 년 동안 나의 작품은 단순화를 위한 정화 과정을 향해 진화해왔다. 빛과 소리, 도자기, 허물어지는 흰 벽의 촬영, 스페인 보스텔 미술관을 떠올리게 하는 성의 넓은 홀 중앙에 둔 허름한 낡은 차. 이것이 예술의 즐거움을 알기 위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세계이다.

I create a work that resists communication. Research on the theme of confusion in communication suggested the real world of absence, excessive visualization, media violence, and the failure of values in modern society. I use various types of media, installations, painting, sculpture, action and video to build and dismantle linguistic acts. Over the decades, my work has evolved towards the purification process for simplification. Light and sound, ceramics, photographing crumbling white walls, a shabby old car in the middle of a castle's spacious hall, reminiscent of the Bostel Museum in Spain. This is the world we have to experience to learn the joy of art.



형상화한 외침을 통한 대화법 No.35, 2019
흑색 석기점토, 메가폰, 1200°C
Materializing Shouts Communication Act No.35, 2019
black stoneware, megaphone, 1200°C
Dimensions variable

학력	2021 알리칸테 예술 대학교(EASD. A) 도자전공 고등과정, 알리칸테, 스페인
	2012 무르시아 대학교 경영 및 순수예술전공 석사, 무르시아, 스페인
전시	2019 《제14회 마니세스 국제도자비엔날레: 소리의 구체화 no.35》, 마니세스 도자미술관, 마니세스, 스페인
	2019 《현대도자 국제공모전》, 아라곤공예센터, 사라고사, 스페인
수상	2017 대상, 제13회 마니세스 국제도자비엔날레-발렌시아 시장상, 마니세스 도자미술관, 마니세스, 스페인
	2016 선정, Escletxes 예술가연구보조금, 발렌시아 컨소시움미술관, 발렌시아, 스페인
소장	- 발렌시아 자치공동체, 발렌시아, 스페인
	- 알헤메시 시의회, 발렌시아, 스페인
레지던시 / 워크샵	2015 아티스트 레지던시, --플러스, 알리칸테대학교 미술관, 알리칸테, 에스파냐
Education	2021 Higher Degree, Artistic Ceramics, Alicante School of Art(EASD. A), Alicante, Spain
	2012 M.A., Management and Artistic Production, University of Murcia, Murcia, Spain
Exhibitions	2019 XIV Internaional Biennial of Ceramics of in Manises-Materializing Shouts Communication Act No.35, Museu de Ceramica, Manises, Spain
	2019 Premio Internacional de Ceramica Contemporanea, Crafft Centre of Aragon, Zaragoza, Spain
Awards	2017 Winner, XIII International Biennial of Ceramics of Manises-President of the Generalitat Valenciana Award, Museu Ceramica Manises, Manises, Spain
	2016 Selected, Escletxes Convocatoria de producció artistica, Consorci de Museus de la Comunitat Valenciana, Valencia, Spain
Collections	- Generalitat Valenciana, Valencia, Spain
	- City Council of Algemesi, Valencia, Spain
Residency / Workshop	2015 Artist-in-Residence, --PLUS, Museum of the University of Alicante, Alicante, España

미할 그닥크 Michal Gdak

폴란드 Poland

몰드스케이프(Mouldscape)는 몰드(Moulds)와 랜드스케이프(Landscape)의 합성어로, 도자기 화분을 만들 때 쓰이는 석고 틀 모양에 영감을 받은 그 형태의 기물들이 나열되어 있다. 석고 틀을 만드는 장인들의 기술과 노력과 참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현실을 상징하는 형태도 풍경처럼 나타나 있다. 도자 타워는 미래형 도시 건축물 같지만, 도자기가 석고 틀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조된다. 이 작업의 시작점은 오직 수공예 방식으로만 제작하는 폴란드 볼레스와비에츠(Boleslawiec)에 위치한 석재 공장을 방문하면서이다.

Mouldscape is a combination of molds and landscapes. Inspired by the shape of plaster molds used to make ceramic pots, the articles in the shape are arranged in a row. Little is known about the techniques, efforts, and participation of the craftsmen who make the plaster frames, but the form symbolizing reality is also presented like a landscape. A ceramic tower seems like a futuristic urban building, but it is cast in the same way that ceramics are made of plaster frames. This work started when I visited a stone factory in Boleslawiec, Poland, where stones were made only by handcraft.



나는 내가 발견하는 현실에서 눈에 띄지 않고 과소평가된 가치를 추출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디자인하는 대상은 항상 특정한 장소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가 장소의 맥락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는 작품에서 예술과 건축의 가장자리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나를 위한 디자인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대 세계의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나에게 예술이란, 중요한 의문들에 질문하면서 미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다.

I try to extract unnoticed and underrated values from the reality I find. Focusing on the context of the place is very important as the object I design is always located in a particular place. I try to balance on the edges of art and architecture in my work. For me, a design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form the consciousness of the modern world. For me, art means working in the aesthetic field and asking important questions.



학력	2010 유제니우스 제퍼트 예술대학교 조각&회화전공 학사, 브로츠와프, 폴란드
	2008 발렌시아공과대학교 조각전공 교환학생과정, 발렌시아, 스페인
전시	2020 《2020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잉거 도자박물관, 신베이, 대만
	2019 《이른 봄 2019》, 키엘체 전시공간, 키엘체, 폴란드
수상	2020 파이널리스트,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잉거 도자박물관, 신베이, 대만
	2020 파이널리스트, 브로츠와프 국군 기념비, 브로츠와프, 폴란드
소장	- 볼레스와비에츠 문화센터, 볼레스와비에츠, 폴란드
레지던시 / 워크샵	2018 제54회 국제 도자&조각 심포지엄, 국제도자센터, 돌노śląskie, 폴란드
	2014 워크샵, 모듈로마스터, 이탈리아디자인학교, 파도바, 이탈리아

Education	2010 M.A., Sculpture, The Eugeniusz Geppert Academy of Art and Design, Wroclaw, Poland
	2008 Exchange Program, Sculpture, Universidad Politecnica de Valencia, Valencia, Spain
Exhibitions	2020 2020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19 Early Spring 2019, Bureau of Art Exhibitions Kielce, Kielce, Poland
Awards	2020 Finalist,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20 Finalist, Monument to the Cursed Soldiers in Wroclaw, Wroclaw, Poland
Collections	- Boleslawiecki Osrodek Kultury, Boleslawiecki, Poland
Residency / Workshop	2018 54th International Ceramics and Sculpture Symposium, International Center of Ceramics, Dolnośląskie, Poland
	2014 Workshop, ModuloMaster, Scuola Italiana Design, Padua, Italy

몰드스케이프 멜랑지, 2018
 석기점토, 도자, 투명유(내부), 1250°C
MOULDSCAPE MELANGE, 2018
 stoneware, ceramic, transparent glaze(inside), 1250°C
 150 x 100 x 30

피터 하임스트라 Peter Hiemstra

네덜란드 Netherlands

<더치 댄디>는 말쑥한 정장과 황금 부츠 그리고 값비싼 액세서리로 꼼꼼하게 치장했다. 그는 깔끔한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무심하게 품을 잡아본다. 하지만 오래된 법칙은 이 아름다운 소년에게도 적용된다.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 이 작품은 끈, 판, 점토 조각을 활용하여 손으로 만들었고 유약을 몇 차례 덧입혔다.

The *Dutch Dandy* has meticulously dressed up in a nice suit, golden boots, and expensive accessories. With his hair in a beautiful ponytail, he nonchalantly strikes a pose. But the old rule also applies to this beautiful boy. Memento mori (remember that you die). The sculpture was hand built with strings, plates, and pieces of clay and glazed several times.

나는 우리의 행동, 세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희화화하기도 한다. 내 작품은 인간의 광기와 도전, 해학을 3차원으로 표현한 카툰 같은 것이다. 나는 화장토와 유약을 사용해 작품을 장식하고, 1000도~1160도에서 소성했다. 그리고 전사지나 러스터를 입힌 후 750도에서 850도 사이에서 세 번째 소성을 거쳐 완성시켰다.

I question our behavior, our vision of the world and our beliefs, but sometimes I make fun of it. My works are sort of three-dimensional cartoons about human madness, challenge, and humor. The sculptures are painted with engobes and glazes, and fired at 1000–1160 degrees. Transfers and lusters are applied, and completed with a third burn between 750–850 degrees.



학력	1979	미네르바예술학교 예술전공 학사, 호로닝언, 네덜란드
전시	2021	<유럽도자트리엔날레>, 코다이슬관, 아펠도른, 네덜란드
	2020	<만남>, 빌더뷰어 갤러리, 드렌테, 네덜란드
Education	1979	B.F.A., Arts, Academy of Visual Art Minerva, Groningen, Netherlands
Exhibitions	2021	<i>European Ceramics Triennale</i> , CODA Museum, Apeldoorn, Netherlands
	2020	<i>The Meeting</i> , Wildevuur Gallery, Drenthe, Netherlands

더치 댄디, 2021
 점토, 유약, 하회안료, 전사, 붓 손잡이, 자켓에 석고 조형, 철 양초심지, 화장토, 러스터, 1160°C, 1000°C, 800°C

Dutch dandy, 2021
 clay, glaze, underglaze, transfers, paintbrush handle, plastic ornament on jacket, iron candle wick, engobes, lusters, 1160°C, 1000°C, 800°C
 19 x 13 x 52

세실 켈페링크 Cecil Kemperink

네덜란드 Netherlands

다양한 모습을 가진 조각

움직이는 도자기

'움직임'은 내 작품이 가진 표현력의 핵심이다.

둥근 고리는 '움직임'을 통해 각각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모든 고리는

다른 고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작품에서 고리들은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내며, 결합, 관계, 힘, 무한함, 영원한 움직임과 같은

원형의 상징성을 지닌다. 이러한 '움직이는 조각'은 여성/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며

여러 겹으로 된 의식의 층을 새로운 감각과 느낌으로 변화시켜 또 다른 에너지를 일깨운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하여금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다양한 관점이

생성되도록 하며 한껏 활성화된 의식을 경험하게 한다. '움직임'을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나는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모습을 관조한다.

A sculpture with many appearances

Ceramics in motion

Motion is the key expression of my work.

Round loops show the importance of each circle through

movements. Every ring is essential and influences the others; they are all

connected, they are all one. Every link wears the symbolism of a circle:

conjunction, connection, power, endlessness, and an eternally ongoing

movement. The interaction of sculpture and the human/woman opens several

layers of consciousness: each relation reveals new sensations, changes of

feelings, and a different energy. New perceptions are being shaped, multiple

points of view arise; consciousness is in full motion. Every time and every

place, I experience movements creating new beauty.

나는 자연의 리듬에 영감을 받는다. 매일 수

많은 변화를 포착하고 경험한다. 파도는 모래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새긴다. 해변은 그것을 잠시 간직하지만 바람과 바다가 곧이어 그림을

바꿔버리고, 이러한 반복이 계속된다. 나뭇가지 그림자가 바람 속에서

춤을 춘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쳐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고요하고 또렷하게 보이기도 한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움직임을 경험한다.

I am inspired by the rhythms of nature.

Every day I see and experience so many changes.

Beautiful drawings are carved with sand by the waves. The

beach holds them for a little while, before wind and water

change their designs; over and over again. Silhouettes of

branches are dancing in the wind. Sometimes stormy and

hard to see, sometimes calmly and clearly. Every time and

everywhere, I experience movements creating new beauty.



의식의 형상화, 2020

석기점토, 자기점토, 1240°C

Shaping Perception, 2020

stoneware, porcelain, 1240°C

120 x 80 x 30

학력 1990 폰티스응용전문대학교 섬유전공 학사,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전시 2020 《IAC 신입회원전》, 귀중도자미술관, 베이징, 중국

2019 《시각의 연결고리》, 델라도자미술관, 몬도비, 이탈리아

수상 2020 추천상,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스 잉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2019 파이널리스트, 오피치네 사피, 오피치네 사피, 밀라노, 이탈리아

소장 - 몬도비도자미술관, 몬도비, 이탈리아

- 티렌슈우르 세라믹센터, 테겔렌, 네덜란드

레지던시 /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몬도비도자미술관, 몬도비, 이탈리아

워크숍 2018 아티스트 레지던시, 무라노 글라스 아르테 라구나 프라이즈, 베니스, 이탈리아

Education 1990 B.F.A., Textile, 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Eindhoven, Netherlands

Exhibitions 2020 IAC New Members Exhibition, Guozhong Ceramic Art Museum, Beijing, China

2019 Rings of View, Museo Della Ceramica, Mondovi, Italy

Awards 2020 Recommendation Prize,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19 Finalist, Officine Saffi, Officine Saffi, Milano, Italy

Collections - Museo della Ceramica di Mondovi, Mondovi, Italy

- Keramiekcentrum Tiendschuur, Tegelen, Netherlands

Residency / 2019 Artist-in-Residence, Museo della Ceramica Mondovi, Mondovi, Italy

Workshop 2018 Artist-in-Residence, Murano Glass Arte Laguna Prize, Venice, Italy

나탈리아 흐레츠비치 Natalia Khlebtsevich (Наталья Хлебцевич)

러시아 Russia

12월이 되면 모스크바는 흑백의 도시로 변한다. 어찌할 수 없는 단색의 도시에서 컬러로 사진을 찍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축축한 검은 흙과 하얀 눈의 대비, 그리고 언제나 회색빛인 하늘과 자모스크보레체 지구의 산업적 풍광만이 어우러진다. 이런 러시아의 테마는 완전한 대칭 모양의 자기 위에 그려져 표현된다. 단편적 사진 조각들과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물감, 상회로 칠한 백금의 반짝임 등 작품에 표현된 12월의 모스크바의 모습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모스크바가 가진 여러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Moscow turns into a city of black and white in December. Taking a color photograph in a unicolor city is meaningless. The contrast between wet black soil and white snow reconciles the ever-gray sky and the industrial landscape of Zamoskvorechye District. This Russian theme is reflected in the painting on the porcelain vessels with completely symmetrical shapes. Pieces of photographs with naturally flowing paint along with the glitter of overglazed platinum... The figures of Moscow in December represented in the work provide various images of Moscow seen from various angles.

도자 예술가로서 나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을 결합하는 시도에 매력을 느낀다. 대조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섬세하거나 거친 것, 내구성이 강한 것과 연약한 것, 살아있는 것과 소성된 것을 병치하는 이런 시도들 말이다. 나는 샤모트와 자기토로 다양한 기법을 구사한다. 굵지 않은 도자기와 소성된 도자기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때로는 다른 물질이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유기체까지도 활용한다. 도자예술이 가진 매체로서의 다양성으로 나는 어떤 아이디어도 구현 해볼 수 있다. 소성은 예측 불가라는 특성이 있어서 자연스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 나는 자연이 주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

As a ceramic artist, I am attracted to combining seemingly incompatible things: juxtaposing the fine and the coarse, the durable and the fragile, and the living and the fired. I use various techniques with chamotte and porcelain. Raw and fired ceramics are combined, and sometimes, other substances and even living organisms are used in my work. With the versatility of ceramic art as a medium, I am capable of realizing any idea that I have. Since firing is unpredictable, I expect not a spontaneous result but a blessing from nature.



학력	1995	모스크바 주립 스트로가노프 산업 및 응용예술 학교 석사, 모스크바, 러시아
전시	2020	《2020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양거 도자박물관, 신베이, 대만
	2018	《공격성의 원형》, 국립다원박물관, 모스크바, 러시아
수상	2017	입선, 제11회 국제미노도자공모전, 미노도자공원, 기후, 일본
	2017	입선, 제39회 구알도 타디노 국제도자예술공모전, 프로 타디노, 페루자, 이탈리아
소장	-	올 러시아 수공예품 박물관, 모스크바, 러시아
	-	올리노오스트롭스키 공전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Education	1995	M.F.A., Stroganov Moscow Academy of Design and Applied Art, Moscow, Russia
Exhibitions	2020	2020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18	Archetypes of Aggression, State Darwin Museum, Moscow, Russia
Awards	2017	Honorable Mentions, 11th International Ceramics Competition Mino, Ceramics Park MINO, Gifu, Japan
	2017	Honorable Mentions, XXXIX Concorso Internazionale Della Ceramica D'arte Citta di Gualdo Tadino 2017, Pro Tadino, Perugia, Italy
Collections	-	All-Russian Museum of Decorative, Applied and Folk Art, Moscow, Russia
	-	Elaginoostrovsky Palace-Museum, St Petersburg, Russia

초겨울, 2020
자기점토, 투명유, 상회안료 채색, 디칼, 1300°C

Early winter, 2020
porcelain, transparent glaze, overglaze painting, decal, 1300°C
52 x 13 x 30

나탈리아 흐레츠비치 Natalia Khlebtsevich (Наталья Хлебцеви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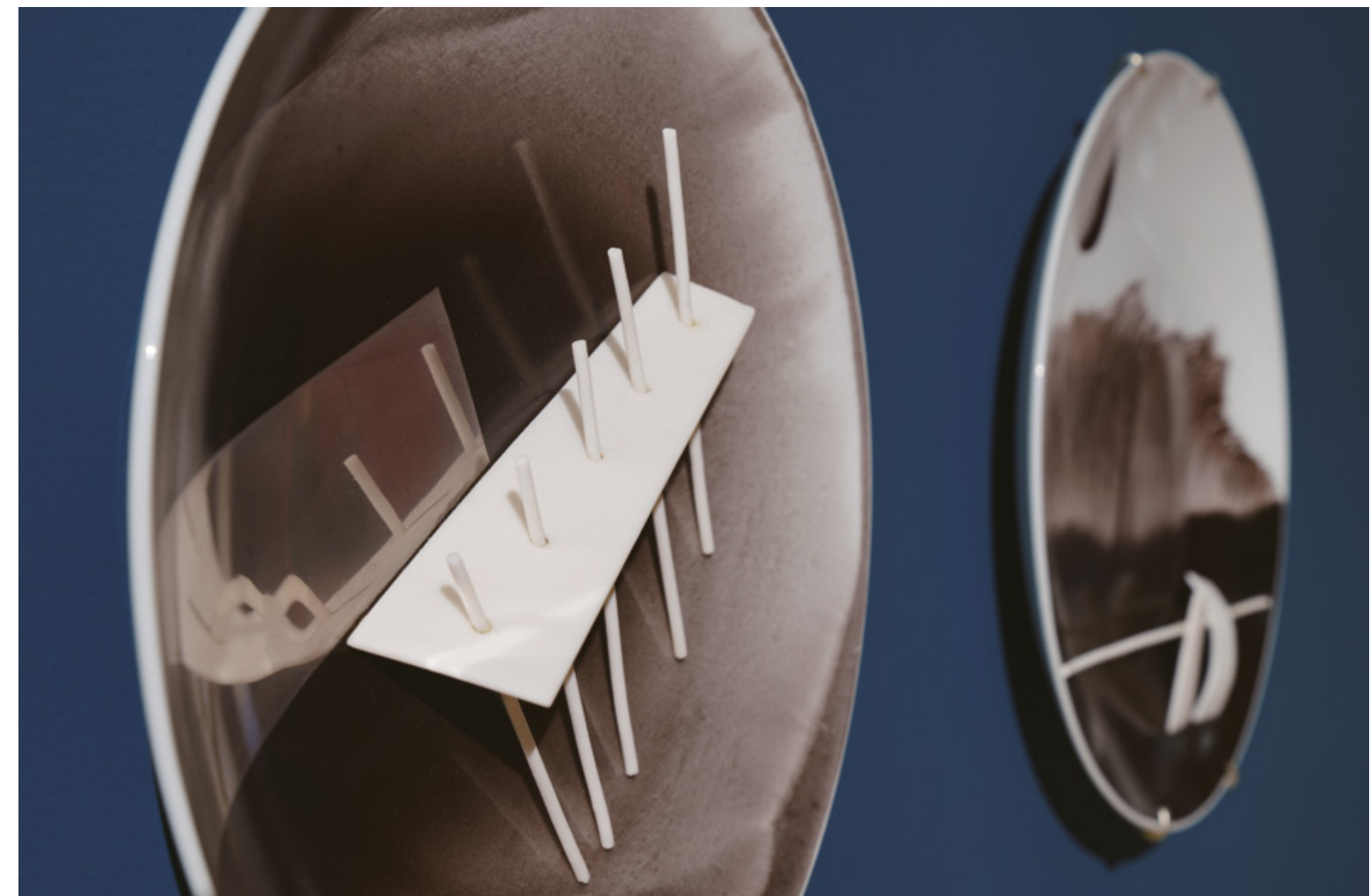
러시아 Russia

이 시리즈는 얇은 반투명 초벌도자기의 기하학적 요소와 회색, 검은색의 미묘한 느낌을 바탕으로 한 그래픽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다. 물감은 자연스럽게 퍼져 백금이 칠해진 거울 같은 표면의 경계선까지 흘러내린다.

This series is based on a combination of geometric elements from a thin translucent biscuit and graphics built on the subtle feelings of gray and black. Paints spontaneously flow and stop at the boundary of the mirror-like surface which is overlaid with platinum.

도자 예술가로서 나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을 결합하는 시도에 매력을 느낀다. 대조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섬세하거나 거친 것, 내구성이 강한 것과 연약한 것, 살아있는 것과 소성된 것을 병치하는 이런 시도들 말이다. 나는 샤모트와 자기토로 다양한 기법을 구사한다. 굵지 않은 도자기와 소성된 도자기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때로는 다른 물질이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유기체까지도 활용한다. 도자예술이 가진 매체로서의 다양성으로 나는 어떤 아이디어도 구현 해볼 수 있다. 소성은 예측 불가라는 특성이 있어서 자연스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 나는 자연이 주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

As a ceramic artist, I am attracted to combining seemingly incompatible things: juxtaposing the fine and the coarse, the durable and the fragile, and the living and the fired. I use various techniques with chamotte and porcelain. Raw and fired ceramics are combined, and sometimes, other substances and even living organisms are used in my work. With the versatility of ceramic art as a medium, I am capable of realizing any idea that I have. Since firing is unpredictable, I expect not a spontaneous result but a blessing from nature.



학력	1995	모스크바 주립 스트로가노프 산업 및 응용예술 학교 석사, 모스크바, 러시아
전시	2020	《2020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양거 도자박물관, 신베이, 대만
	2018	《공격성의 원형》, 국립다윈박물관, 모스크바, 러시아
수상	2017	입선, 제11회 국제미도자공모전, 미노도자공원, 기후, 일본
	2017	입선, 제39회 구알도 타디노 국제도자예술공모전, 프로 타디노, 페루자, 이탈리아
소장	-	올 러시아 수공예품 박물관, 모스크바, 러시아
	-	올리노오스트롭스키 공전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Education	1995	M.F.A., Stroganov Moscow Academy of Design and Applied Art, Moscow, Russia
Exhibitions	2020	2020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18	Archetypes of Aggression, State Darwin Museum, Moscow, Russia
Awards	2017	Honorable Mentions, 11th International Ceramics Competition Mino, Ceramics Park MINO, Gifu, Japan
	2017	Honorable Mentions, XXXIX Concorso Internazionale Della Ceramica D'arte Citta di Gualdo Tadino 2017, Pro Tadino, Perugia, Italy
Collections	-	All-Russian Museum of Decorative, Applied and Folk Art, Moscow, Russia
	-	Elaginoostrovsky Palace-Museum, St Petersburg, Russia

집중, 2019
자기점토, 투명유, 상화안료 채색, 디칼, 1300°C

In focus, 2019
porcelain, transparent glaze, overglaze painting, decal, 1300°C
50 x 50 x 3

안드리 키야니차 Andriy Kiyanitsa

우크라이나 Ukraine

이것은 파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두 번째 시도이다. 파괴(이전 감각의 소멸)는 물체의 생명이 다하는 최종 지점인가? 나의 작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파괴 과정은 물체의 형태와 새로운 본질을 통해 새로운 품질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부서진 벽돌이다. 부서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독립성과 독특한 형태를 얻은 실제로 파괴된 벽의 잔해이다. 새로운 형태의 모든 특징들(원래 구조의 잔재, 새로운 형태, 리듬, 내부 뼈대의 잔해)은 다양한 장식 기법에 의해 내가 강조했던 '과거의 삶'의 요소들로서, 벽돌의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스스로 탄생한 '파괴의 과정'이라는 현상을 거치며, 독립적인 예술 오브제가 되었다. 과거의 잔해에서 새로움이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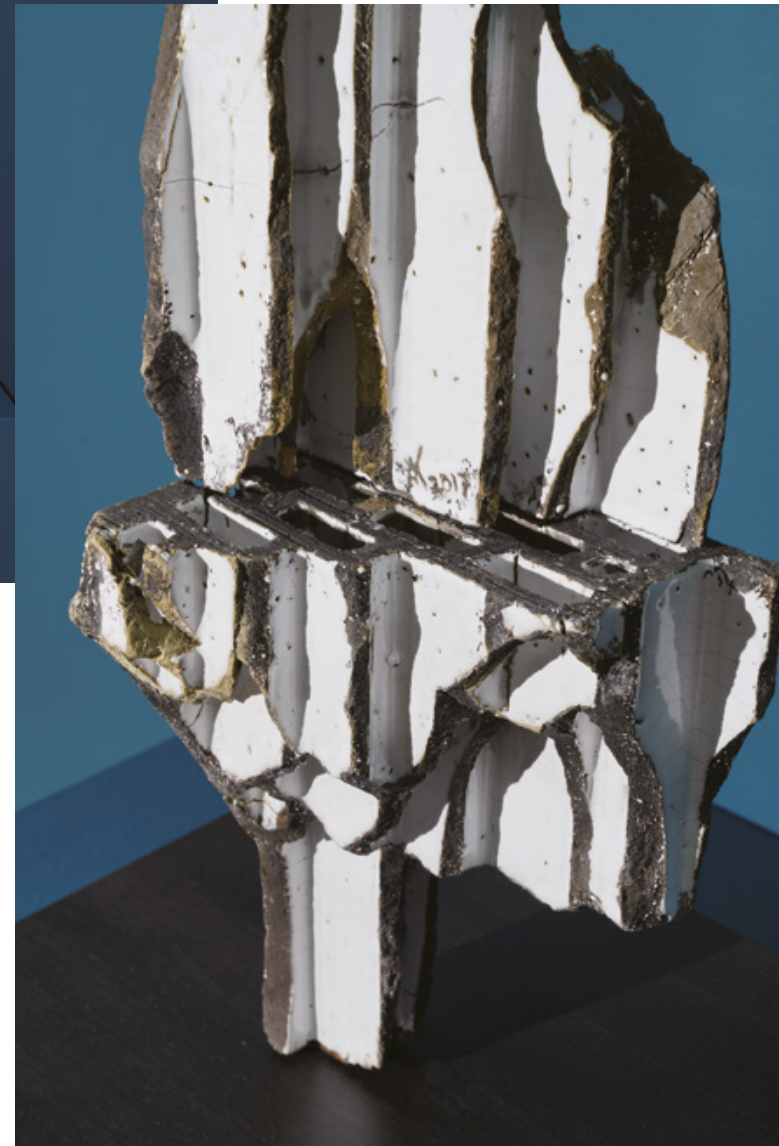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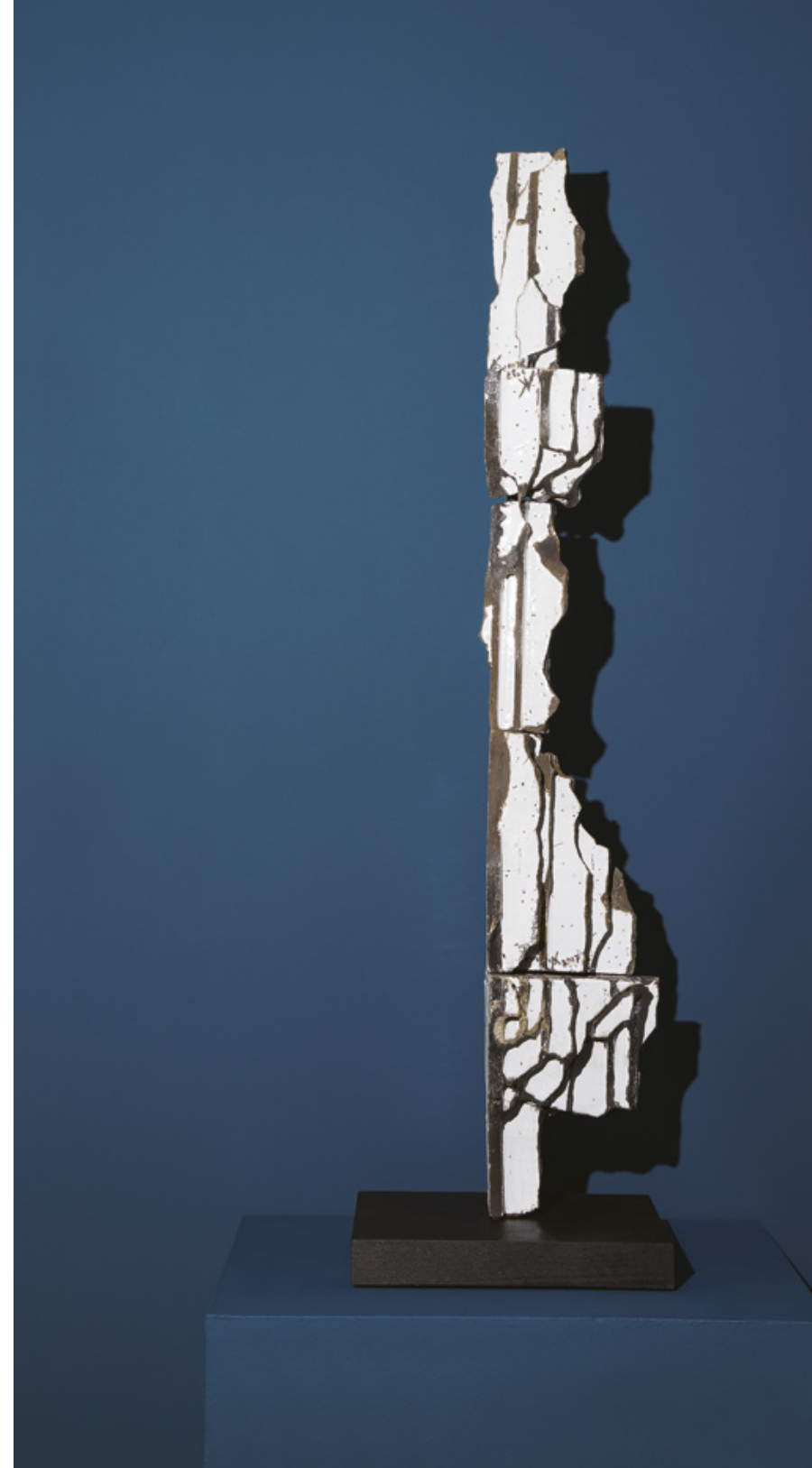
This is a second attempt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destruction. Is destruction (extinction of a previous sense) the final point where an object ends its life? My work proves that it is not. The destruction process can produce new quality through the form of the object and its new nature. This work consists of broken bricks. It is the remains of a wall that has actually been destroyed, and gained new independence and a unique form in its breaking process. All the features of the new form (remains of the original structure, new forms, rhythms, and remains of inner framework) are elements of the past life that I stressed with various decorative techniques, which create new properties of the bricks. It became an independent artistic object, passing through the phenomenon of “process of destruction,” born by itself. A newness was born from the ruins of the past.

창의성에 접근할 때 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1.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나에게 정말 가까운 것, 나를 격정시키는 것, 근심과 기쁨 등을 반영해야 한다. 나는 관람객의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 이미지로 나의 이해를 표현한다. 그 생각과 메시지는 수수께끼 같아서는 안되며, 생각과 메시지의 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생각과 메시지는 예술가의 감각적 충동이어서야 하며, 이는 관람객의 감각적 충동을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해석과 절제된 표현을 위한 공간을 남겨 놓아야 한다.
2. 재료: 재료는 그 자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점토로 작업을 한다. 점토는 도자기로 변화하는데, 놀랍도록 조형적이고 생생한 특징이 풍부하며, 고대 문명과 역사적 유산을 지니고 있어 외면할 수 없는 재료이다. 그러므로 도자기는 도자기로 남아야 하며, 절대 다른 재료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재료로서의 모든 독특한 특성은 이 생각에 기반해야 한다.
3. 기술: 제작 기법은 재료의 예술적 특성을 최대한 드러내야 한다. 이는 점토나 다른 재료로 잘 다듬어진 표준 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흥미롭다. 나는 자연스러우면서 독특한 텍스처를 얻기 위해 점토를 자연 재료와 결합하고, 전기가마에서 소성한 후 야외 노천 가마에서 다시 소성하여 연기를 입히고 환원 기법을 사용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자기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The following are the principles that I use in approaching creativity:

1. Idea: An idea should reflect what is really close to me, what worries me, anxiety and joy. I express what I understand with art images that appeal to the feelings of the audience. The interpretation of such thoughts and messages should not be enigmatic, but should be reasonable. The artist should reflect his or her sensual impulses in the thoughts and messages, leaving room for audience interpretation.
2. Material: Material must be able to speak for itself. For my work, I use clay which turns into porcelain. This material is surprisingly formative, rich in vivid characteristics along with the heritage from ancient civilizations and history, and accordingly, I can't look away. Therefore, porcelain should remain as porcelain, and shall not be seen as another material. All the unique features as a material should be based on this idea.
3. Technique: A production technique should reveal the artistic features of materials as much as possible. This can be achieved with well-crafted standardized techniques on clay or other materials. Both ways are interesting for me. I combine clay with natural materials to obtain a natural and unique texture, burn it in an electric kiln, then burn it again in an outdoor kiln to smoke it and use a reduction technique.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porcelain has infinite possibilities.



학력	2016	르비브 국립 예술 학교 학사, 르비브, 우크라이나
전시	2019	(CICA2019), 알코라도자미술관, 알코라, 스페인
	2017	(우크라이나 조각 트리엔날레), 국립 예술가 유니온 갤러리, 키이브, 우크라이나
수상	2019	우수상, 제1회 야타리 리안화산(亞泰 蓮花山) 프라이즈-국제도자공모전, 제8회 창춘국제도자전 조직위원회, 지린, 중국
소장	-	알코라도자미술관, 알코라, 스페인
	-	창춘국제도자미술관, 지린, 중국
Education	2016	Bachelor, Lviv National Academy of Arts, Lviv, Ukraine
Exhibitions	2019	CICA2019, Alcora Ceramic Museum, L'Alcora, Spain
	2017	Ukrainian Sculpture Triennale, National Artist Union Gallery, Kyiv, Ukraine
Awards	2019	Excellence Award, 1st Yatai Lotus Mountain-International Ceramics Contest, Organizing Committee of 8th Changchun International Ceramic Art, Jilin, China
Collections	-	Alcora Ceramic Museum, L'Alcora, Spain
	-	Changchun International Ceramics Gallery, Jilin, China

파괴의 창조, 2018
부서진 벽돌, 나무단상, 금속중추, 1100°C

Creativity of destruction, 2018
broken bricks, wooden podium, metal kernel, 1100°C
30 x 30 x 110

케이트 랭리쉬-스미스 Kate Langrish-Smith

영국 UK

이 작품은 영국 셰필드의 켈햄섬 산업 박물관 컬렉션에 있는 산업용 코담배 분쇄기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다. 은도금된 절긋공이는 1740년대에 국제 무역로를 설립하고 담배 회사로 전환하기 전까지 상인들이 운영하던 전기 도금 사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셰필드는 니켈을 은으로 전기 도금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오브제 컬렉션은 보다 더 촉감을 강조하고 가내 수공업 규모로 오브제들의 형태를 재현했다. 또한 귀중하고 화려한 공예의 개념을 담은 자극적인 형태는 대규모의 산업적 물품과는 다른 종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This work was inspired by an industrial snuff grinder from the Kelham Island Industrial Museum Collection in Sheffield, U.K. Silver-plated pestle had been made having in mind the electroplating business operated by merchants until an international trade route was established, and it was turned into a tobacco company in the 1740s. Sheffield is well known for electroplating nickel with silver. This object collection stresses tactility and reproduced the figure of objects on the scale of a cottage industry. In addition, the precious and splendid form creates a religious atmosphere that differs from large-scale industrial goods. Furthermore, its provocative figure, including the concept of precious and luxurious crafts, arouses a different type of religious mood, differentiated from mass-produced articles.

나의 작품은 질감과 촉감, 색채구성과 조화의 균형, 조화 그리고 결합에 대해 고찰한다. 나는 우연한 만남과 관찰에 서부터 역사적 발견에 이르기까지 나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신체 관련 오브제의 상징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연구해보려고 한다. 건강, 아름다움, 패션 분야에서는 놀랍고 흥미진진한 재료들, 물건들, 전통들이 파악된다. 그에 상응해서 그릇, 도구와 공예품들은 의식, 욕망, 매혹이라는 공통언어 아래 이질적인 장소들을 연결하는 오브제를 모을 수 있고 그 시작점이 된다.

I explore the harmony and fusion between texture and tactility, and balance in composition and combination of colors. I try to investigate the symbolic functions and values in various types of objects related to the body which intrigue my interests as well as the accidental encounter, observation, or historic discovery. Surprising and interesting materials, articles and traditions are found in the areas of health, beauty, and fashion. Correspondingly, vessels, tools, and crafts can collect the objects linking heterogeneous places under the common language of consciousness, desire, and attraction, and serve as starting points.



학력	2015 제네바예술대학교(HEAD) 도자전공 준석사과정, 제네바, 스위스
2014 런던예술대학교 패션 공예전공 석사, 런던, 영국	
전시	2020 《텍타일 텐션-시노 이탈리아인 디자인 온라인 전시》, 익스체이지 센터, 토스카나, 이탈리아
2020 《트랜스패셔널: 현대미술로서의 실험적 패션》, 델라 시타 미술관, 에밀리아로마냐, 이탈리아	
수상	2020 선정, 조각네트워크2020, 요크셔 조각, 요크셔, 영국
2019 선정, 영국예술의회 기금, 영국예술의회, 브라이튼, 영국	
소장	- 셰필드미술관, 셰필드, 영국
- 신베이시 잉거 도자박물관, 신베이, 대만	
레지던시 / 워크샵	2016 아티스트 레지던시, 신베이시 잉거 도자박물관, 신베이, 대만
Education	2015 Post-Graduate, Ceramics, Geneva University of Art and Design(HEAD), Geneva, Switzerland
2014 M.A., Fashion Artefact, London College of Fashion, London, UK	
Exhibitions	2020 Tactile Tensions-Online Exhibition Sino Italian Design, Exchange Centre, Toscana, Italy
2020 Transfashional-Experimental Fashion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Art, Museo Della Città, Emilia-Romagna, Italy	
Awards	2020 Selected, Sculpture Network 2020 Artists, Yorkshire Sculpture International, Yorkshire, UK
2019 Selected, Arts Council England Grant, Arts Council England, Brighton, UK	
Collections	- Museums Sheffield, Sheffield, UK
-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Residency / Workshop	2016 Artist-in-Residenc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전기 에티켓 - 젖을 때 가소성이 좋은 II, 2019
조형토, 매트투명유, 전기 은도금, 980°C~1180°C

Electric Etiquette - Plastic When Wet II, 2019
grogged clay, matt transparent glaze, electro formed silver, 980°C~1180°C
45 x 30 x 20

린다 얀손 로데 Linda Jansson Lo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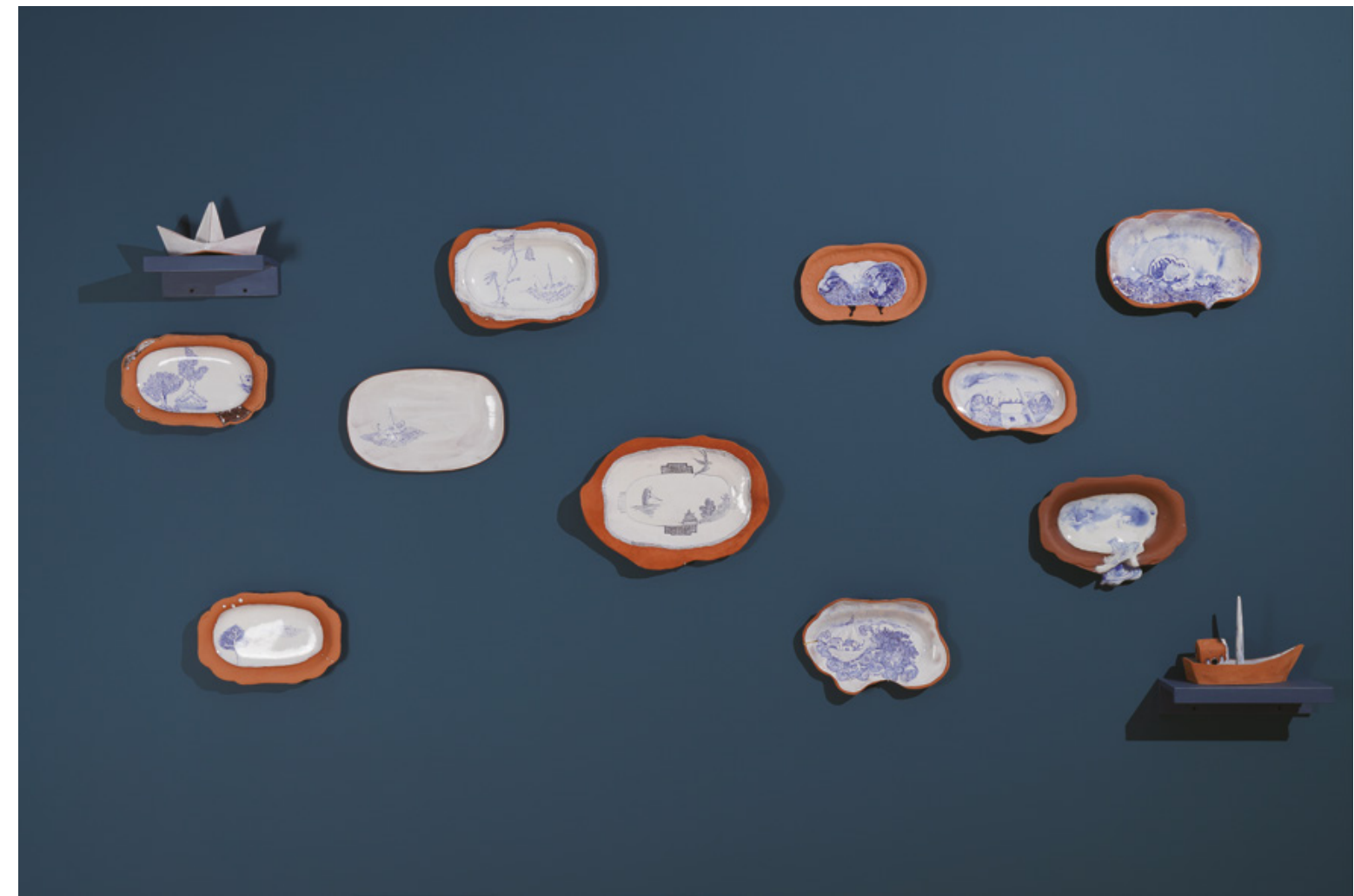
스웨덴/노르웨이 Sweden/Norway

나는 오랫동안 버드나무 문양이 지닌 보편적인 문화적 의미의 여러 양상에 관심을 가져왔다. 2020년에 제작한 <홀로 하는 항해> 프로젝트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테라코타에 백색 유약을 사용한 접시들로 구성됐는데, 각기 버드나무 문양에 영향받은 작품들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버드나무의 상징적인 요소를 세부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요소들을 본래의 맥락에서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한다. 접시를 가압성형하고 일률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종종 비뚤게 만들기도 하지만 품위 있는 18세기 부채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도자 유산을 다루고 있다.

For a long time, I have been interested in many aspects of the universal cultural meaning of willow patterns. Produced in 2020, the *Sailing on Your Own* project consisted of a series of hand painted and tin glazed terracotta dishes, each of which was motivated by willow patterns. In this work, the symbolic elements of willow trees are investigated in detail, and these elements are often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original context. It is often crooked, as if it is trying to escape from the press-molded uniformity, but deals with this ceramic heritage maintaining the classic 18th-century scallop shape.

나는 내러티브에 관심이 많다. 이야기는 사물 안에 집약되어 가득 차 있다. '아름다움/매력'과 '추함/혐오'와 같이 대조적인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는 항상 나를 매료시킨다. 그래서 나의 오브제는 순수하게 조형적이거나 일상 용품이거나 혹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내 작품은 아날로그와 수공예적이며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만드는 작업에 대한 헌사로 볼 수 있다. 도자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받아들이고 열려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옛것과 새것을 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너와 나를 위한 이야기를.

I am very interested in narratives. The story is concentrated within objects. The electric spark being generated from contrasts such as beauty/attraction and ugly/repulsive always fascinates me. So my object is either purely formative or everyday, or sometimes, a mixture of the two. My work can be seen as a tribute to analog, handcrafted, and time-consuming work. Accepting the variables that may occur during the ceramic manufacturing process and maintaining an open mind is the most important. I combine the old and the new to create a new story. A story for you and me.



학력	1993	오슬로국립예술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오슬로, 노르웨이
	1988	공예, 디자인 예술대학교 유리도예전공 학사, 스톡홀름, 스웨덴
전시	2021	《Moss and Thistle》, nåås 아트 & 크래프트 갤러리, 플로라, 스웨덴
	2022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갤러리포맷, 오슬로, 노르웨이
수상	2019	선정, 국외전시 국제지원금, 노르웨이 외교부 & 노르웨이공예청, 오슬로, 노르웨이
	2018	선정, 1년 특별기금, 노르웨이공예협회, 오슬로, 노르웨이
소장	-	응용미술관, 트론헤임, 노르웨이
	-	오슬로시립미술관, 오슬로, 노르웨이
레지던시 / 워크숍	2018	아티스트 레지던시, 골레야고 국제도자연구센터, 스텔스피르, 덴마크
	2012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메리칸-스칸디나비아 재단, 레이스텍 마운틴스쿨, 메인, 미국
Education	1993	M.F.A., Ceramics, Oslo National Academy of the arts, Oslo, Norway
	1988	B.F.A., Ceramics and Glass, University College of Arts, Crafts and Design, Stockholm, Sweden
Exhibitions	2021	<i>Moss and Thistle</i> , Naas Konsthantverk, Floda, Sweden
	2022	<i>Blue Collar, White Collar</i> , Galleri Format, Oslo, Norway
Awards	2019	Selected, International Support for Exhibition Abroad, Foreign Affairs Ministry of Norway & Norwegian Crafts, Oslo, Norway
	2018	Selected, 1 year Specialization Grant, Norwegian Crafts Association, Oslo, Norway
Collections	-	Museum of Applied Arts, Trondheim, Norway
	-	City of Oslo Art, Oslo, Norway
Residency / Workshop	2018	Artist-in-Residence, Guldagergaard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Skælskør, Denmark
	2012	Artist-in-Residence, American-Scandinavian Foundation, Haystack mountain school, Maine, USA

홀로 하는 항해, 2020
붉은 도기질토, 백색 주석유약, 코발트, 1060°C

Sailing on your own, 2020
red earthenware, white tinglaze, cobalt, 1060°C
120 x 240



나탈리아 만타 Natalia Manta

그리스 Gre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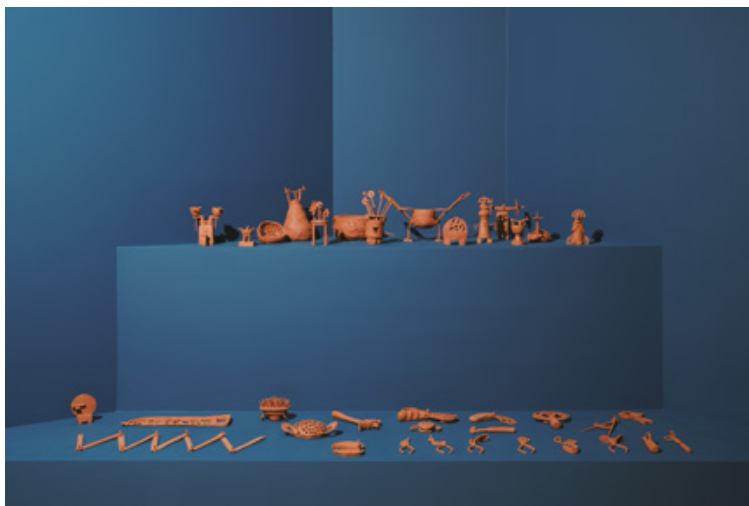
〈추억 도구〉는 용도가 있거나 또는 비실용적인 오브제 조형물들의 모음이다.

내 작품의 목표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발견되기 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던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점토를 주재료로 택해 일시적이고 빈약한 느낌을 주지만, 작품의 상징성은 보다 강화되었다. 이것이 내가 작품에 광택을 내거나 색을 칠하지 않고, 번조된 흙의 자연스러운 외양과 질감을 택한 이유다.

This work, *Memorial Tools*, is a collection of both useful and unpractical sculptures. I tried to make my work appear as if it had been buried under the ground for a long time before it was discovered in an archaeological dig. Using clay as the primary material may provoke a temporary weakness, but the symbolism was reinforced. This is why I opted for the rich, untampered appearance and texture of baked clay instead of polishing or colorizing the sculptures.

나는 기억과 시간이라는 개념에 강하게 끌린다. 내 연구의 핵심은 인간이 자극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해하려는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나는 잠재의식의 구조와 기억의 과정에 특히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점토, 금속, 감광면, 대리석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물질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의 작품을 만든다.

I am fascinated by the concept of memory and time. How a person understands his or her self through stimulus and experience is the core of my research. Through this process, I came to understand that I am particularly enticed by the structure of subconsciousness and the process of memory. Therefore, I create tacit works where the matter narrates itself employ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clay, metal, photosensitive surfaces, and marble.



학력	2020	아테네예술학교 시각예술전공 석사, 아테네, 그리스
	2016	아테네예술학교 조각전공 학석사 통합과정, 아테네, 그리스
전시	2020	《초현실 살롱 13》, 바통 루즈 갤러리, 캘리포니아, 미국
	2017	《E.S.A.E.P.》, 카파토스 갤러리, 아테네, 그리스
수상	2011	조각상, 쿠네오예술아카데미, 쿠네오, 이탈리아
Education	2020	M.F.A., Visual Arts, Athens School of Fine Arts, Athens, Greece
	2016	Integrated Master, Fine Arts, Athens School of Fine Arts, Athens, Greece
Exhibitions	2020	<i>Surreal Salon 13</i> , Baton Rouge Gallery, California, USA
	2017	<i>"E.S.A.E.P."</i> , Kappatos Gallery, Athens, Greece
Awards	2011	Sculpture Award, Accademia Di Belle Arti di Cuneo, Cuneo, Italy

추억 도구, 2020
점토, 980°C
Memorial Tools, 2020
clay, 980°C
Dimensions variable

알레산드로 네레티 Alessandro Neretti

이탈리아 Italy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벽한 공범들과 함께, 젊은 시절 예술가들의 신화가 되살아난다. 호주 윈드 서퍼 제이슨 폴라 코우와 스페인 화가이자 조각가인 파블로 피카소.

After a long wait, the myths of young artists are revived with perfect accomplices: Australian windsurfer Jason Polakow and Spanish painter and sculptor Pablo Picasso.

나는 시각 예술가, 연구자, 그리고 현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 관찰자이다. 나는 건축, 문화, 자연적 가치로 구성된 환경 연구에 계속해서 *오토픽션 방법을 사용한다. 민감한 기준의 자기 정의와 재구성 과정은 매우 상징적인 이미지로 엮여 있다. 동물과 신화적 주제, 기호와 코드도 다양한 기술에서 나온다. 최종 목표는 역사적, 문화적 붕괴에 대한 대안, 저항 그리고 자극이다.

I am a visual artist, researcher and critical observer of contemporary situations. I continue to use the autofiction* method in environmental research consisting of architecture, culture, and natural values. The self-definition and reconstruction process of sensitive criteria are woven into highly symbolic images. Animals and mythical themes, signs, and codes also come from a variety of techniques. My ultimate goal is to present alternatives, resistance, and stimulus toward historical and cultural collapse.

*오토픽션: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덧붙인 새로운 장르

*Autofiction refers to a new genre which adds imagination to historical facts.



은행털이 연작 [완벽함을 추구하면서(P. 피카소, J. 폴라코브와 나)], 2018
백색 도기점토, 백색유, 오브제 트루베(팬티스타킹, 석기), 980°C

bank robberies series [seeking the perfect ones (P. Picasso, J. Polakow and Me)], 2018
white earthenware, white glaze, object trouvé (pantyhose, stones), 980°C
123 x 56 x 33

학력	2003	주립도자기학교 도자전공 특수예술과정, 이탈리아
	2001	주립도자기학교 예술자격증과정, 이탈리아
전시	2020	《부서진 뼈, 부러진 뼈》, 팔라조 바친, 비첸차, 이탈리아
	2019	《제25회 발로리스 국제도자기비엔날레》, 마넬리 미술관, 발로리스, 프랑스
수상	2019	1등, 제26회 현대도자공모전, 그로탈리에미술관, 풀리아, 이탈리아
	2017	입선, 도시의 늑대들, 과학박물관, 트렌토, 이탈리아
소장	-	베일던 안 제이 박물관, 덴하그, 네덜란드
	-	도자기박물관, 타란토, 이탈리아
레지던시 / 워크샵	2018	워크샵, 가스트로피그림 에어비엔비 헤드쿼터스, 캘리포니아, 미국
	2017	아티스트 레지던시, 스파주 크레아티브: 유러피안 컬처 캐피탈, 발레타, 몰타
Education	2003	Specialization in Art, Stoneware, State Institute for Ceramics Art, Italy
	2001	Art Qualification, State Institute for Ceramics Art, Italy
Exhibitions	2020	Busted Bones and Broken Bones, Palazzo Baccin, Vicenza, Italy
	2019	25 th International Biennale Contemporary Ceramics of Vallauris, Musée Magnelli, Vallauris, France
Awards	2019	First prize, 26th Contemporary Ceramic Competition, Museo di Grottaglie, Puglia, Italy
	2017	Honorable Mentions, Lupi in città!, Museo delle Scienze, Trento, Italy
Collections	-	Museum Beelden aan Zee, Den Haag, Netherlands
	-	Ceramic Museum, Taranto, Italy
Residency / Workshop	2018	Workshop, GastroPilgrim Airbnb HQ, California, USA
	2017	Artist-in-Residence, Spazju Kreattiv: European Capital Of Culture, Valletta, Malta

밀란 피카 Milan Pekar

체코 Czech Republic

나는 고대의 폐허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탄생시켰다. 우리는 유적지에 파괴된 기둥을 보며 유럽 문명의 요람과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를 고도 문명의 가치와 연결 지으며 미학적 아름다움의 형태로 인지한다. 모든 박물관은 이러한 수집품을 가지고 있고, 종종 박물관의 건축에 활용하기도 한다. 나는 돌에 비해 가소성이 큰 점토를 활용하여 기둥 형태를 만들고 유약을 덧칠하였다. 이 똑바르지 않게 표현된 기둥 형태의 작품은 우아한 흰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이 기둥은 비틀어져 있으며, 여러 겹의 유약을 덧발라 다양한 색감을 지닌다. 이것들을 여러 개 설치하면 소설 속 풍경처럼 낭만적인 폐허 유적과 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는 그사이를 걷고, 관찰하고 기둥에 앉을 수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이 기둥들이 고고학적 형태에 영향을 받은 순수 예술의 오브제보다는 실용 예술이나 건축으로 이해되길 바란다. 이들의 기능은 명확하게 미리 결정되어있지 않고, 스톨이나 커피 테이블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이다.

I created this work inspired by ancient ruins. When we look at destroyed pillars at historic sites, we tend to think of beautiful structures in Europe, being called the cradle of civilization. Then, we link to the values of advanced civilization and recognize it as a form of aesthetic beauty. All museums possess such collections, which are often used in museum construction. I used clay, which has higher plasticity than stone, to make columns and overlay glaze. These non-straight pillars were not expressed in elegant white. These pillars are twisted and have a variety of colors as several layers of glaze were applied. When many are installed, the pillars would be seen as romantic ruins like in a novel. We can walk between, observe, and sit on the pillars. Through this process, I hope that these pillars will be understood as practical art or architecture rather than as objects of fine art influenced by archaeological forms, because the functions are not clearly predetermined but open for possible use as stools or coffee tables.

나의 작업은 유약이 녹아내리며 드러나는 다양한 형태의 결정유(crystal glaze) 효과에 집중한다. 결정유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실리카와 아연 결정 유약으로, 최대 몇 센티미터의 규칙적인 구조를 형성하며 다양한 금속 산화물과 함께 착색될 수 있다. 또한 나는 강한 환상 효과를 내는 결정분 아니라 철, 구리, 몰리브덴 금속 결정들이 그 표면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결정유를 개발했다. 미세한 결정을 작은 무광의 병 세트에 적용하면 유약이 녹아 흘러 내리면서 표면에 부드러운 스웨이드 같은 효과를 준다. 병 외에도 나는 부드럽게 압출한 도자 가구도 만들었다.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해 점차 완성해가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며, 정교한 병 작업과는 다르게 가변성 있는 점토로 만드는 다른 형태의 작업은 나에게 휴식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 기둥들이 고고학적 형태에 영향을 받은 순수 예술의 오브제라기보다 실용 예술이나 건축으로 이해되길 바란다. 이 기둥은 실제로 스톨이나 커피 테이블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기능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My work focuses on the various forms of crystal glaze effects where various forms are revealed when the glaze dissolves. The most well-known types are silica and zinc crystal glaze, which form a regular structure of up to a few centimeters and can be colored with various metal oxides. I also developed a new crystal glaze where iron, copper, and molybdenum crystals bloom on its surface, as well as crystals producing strong illusive effects. Applying a microscopic crystal to a small matte vase set gives a smooth suede-like effect on the surface as glaze melts down. In addition to the vase, I also made furniture with gently extruded ceramics. It requires a high degree of concentration as it is gradually completed through multiple rounds of modifications, and other forms of work with variable clay feel like taking a rest compared to making such a sophisticated vase. I hope these pillars are understood as practical art or architecture rather than as objects of fine art influenced by archaeological forms. These pillars can actually be used as stools or coffee tables, but their function is not clearly defined.



학력	2006	프라하 응용미술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프라하, 체코
전시	2021	《토야마 국제공예전》, 다카오카 미술관, 토야마, 일본
	2020	《표면으로》, UM 갤러리, 프라하, 체코
수상	2014	노미네이트드, 올해의 디자이너, 체코 그랜드 디자인 2014, 프라하, 체코
	2014	선정, 대중상, 체코 그랜드 디자인 2014, 프라하, 체코
소장	-	장식박물관, 프라하, 체코
	-	드레스덴 장식박물관, 드레스덴, 독일
레지던시 / 워크샵	2018	아티스트 레지던시, 국제도예스튜디오, 케치케메트, 헝가리
Education Exhibitions	2006	M.A., Ceramics and Porcelain, Academy of Arts, Architecture and Design, Prague, Czech
	2021	International KOGEI Award in TOYAMA, Takaoka Art Museum, Toyama, Japan
	2020	On the Surface, UM gallery, Prague, Czech
Awards	2014	Nominated, Grand Designer of the Year, Czech Grand Design 2014, Prague, Czech
	2014	Selected, Public's Award, Czech Grand Design 2014, Prague, Czech
Collections	-	The Museum of Decorative Arts, Prague, Czech
	-	Kunstgewerbemuseum Dresden, Dresden, Germany
Residency / Workshop	2018	Artist-in-Residence, International Ceramics Studio, Kecskemet, Hungary

기둥들, 2020
붉은 도기점토, 결정유, 구리유, 금홍석유, 1250°C

Columns, 2020
red earthenware, crystal glaze, cooper glaze, rutile glaze, 1250°C
200 x 160 x 60

파올로 포렐리 Paolo Porelli

이탈리아 Italy

설치작품 <벽에 봉납된 메탈>은 각각의 현대 인물들을 3D 스캔하고 3D 점토 프린트로 성형한 작업을 토대로 슬립 캐스팅 틀로 제작했기에 "조각적 주제"라 할 수 있다. 조각을 지속해서 부활시키려는 끊임없는 변수는 *스트로보스코프의 범주에서 인간의 본질을 수립하려는 시도이다. 조각들은 도상학적 모순을 만들면서 현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왜곡 효과를 보여준다. 그들은 창작 과정의 변형, 일시성 및 상대성에 대한 거창한 시도이며, 역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형태를 전형적인 형태로 완전히 바꿔놓는다.

The installation work *Metallic Votive Wall* can be thought of as following a sculptural theme as the work is made by 3D scanning and molding each modern figure with 3D clay prints. The constant variables that keep trying to revive sculptures are an attempt to establish human nature in the category of a Stroboscope*. The sculptures show a distortion effect that creates a new myth of modern times, creating iconological contradictions. These sculptures are a grandiose attempt at transformation, temporality, and relativity of the creative process, and they completely transform a general form into a typical one through the adversarial process.

*스트로보스코프: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빛을 쬐어, 정지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운동체를 관측·촬영하는 장치

*A stroboscope is a device that lights up an object that moves very fast, observing and photographing the motor in the same state as it stops.

나는 도자로 표현하는 기법을 선호한다.

도자라는 재료는 인류 조상의 뿌리와 연결되고, 도자 재료의 융통성은 나에게 현대적 개념을 나타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언제나 의인화된 형상을 현실에 대한 은유, 개인적인 경험, 인지적 측면, 미술사적 관용구의 융합으로 사용해 왔다. 나는 초현실주의자의 타락, 팝의 확산, 낡은 상징성을 응축하면서 현실의 원형적 차원에 접근하고자 한다. 나의 조각은 문화적 절충주의와 역사적 방향의 예가 되어, 양식 면에서 표현력 있는 창작의 세계화를 보여준다.

I prefer a technique using ceramics to express my intention. Ceramics are connected to the roots of human ancestors, and the flexibility of ceramic materials provides me with an opportunity to present modern concepts. I have always been using personified figures as a fusion of metaphors, personal experiences, cognitive aspects, and idioms in art history. I try to approach the archetypal dimension of reality, condensing surrealist depravity, pop proliferation and old symbolism. My sculptures exemplify cultural eclecticism and historical wandering, demonstrating the globalization of expressive creation in terms of style.



벽에 봉납된 메탈, 2019
식기점토, 자기점토, 망간 금속유, 1260°C

Metallic Votive Wall, 2019
stoneware, porcelain, manganese metallic glaze, 1260°C
200 x 200 x 14

학력	1988	로마 국립미술원 회화전공 학사, 로마, 이탈리아
전시	2021	<정형에서 원형까지>, 아크 컨템포러리 티버튼, 로드아일랜드, 미국
	2020	<현대도자비엔날레 2020>, BACC 갤러리, 라치오, 이탈리아
수상	2021	입선, 61 프레이오 파엔차, 국제도자미술관, 파엔차, 이탈리아
	2019	입선, 유럽 도자 베스터발트 프라이즈 2019, 베스터발트 도자미술관, 라인란트팔츠, 독일
소장	-	알코라도자미술관, 알코라, 스페인
	-	이슈-8 갤러리, 베이징, 중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크 컨템포러리 티버튼, 로드아일랜드, 미국
	2020	
	2018-	아티스트 레지던시, 유리피안세라믹워킹센터, 오이스터빅, 네덜란드
	2019	
Education Exhibitions	1988	B.F.A., Painting, Accademia di Belle Arti di Roma, Rome, Italy
	2021	From Stereotype to Archetype, Arch Contemporary Tiverton, Rhode Island, USA
	2020	Biennale Arte Ceramica Contemporanea 2020, BACC Gallery, Lazio, Italy
Awards	2021	Honorable Mentions, 61 Premio Faenza, Museo Internazionale delle Ceramiche, Faenza, Italy
	2019	Honorable Mentions, Ceramics of Europe Westerwald Prize 2019, Keramikmuseum Westerwald, Rheinland-Pfalz, Germany
Collections	-	Alcora Ceramic Museum, L'Alcora, Spain
	-	Yishu-8 Gallery, Beijing, China
Residency / Workshop	2019-	Artist-in-Residence, Arch Contemporary Tiverton, Rhode Island, USA
	2020	
	2018-	Artist-in-Residence, European Ceramic Work Centre, Oisterwijk, Netherlands
	2019	

이요나 로무레 Ilona Romule

라트비아 Latvia

개념: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내면과 외부의 실체를 폭로한다. 엑스레이는 빛과 공간의 대화를 성사시키기도 하지만 에너지의 흐름을 드러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노출한다.

CONCEPT: X-ray

X-ray reveals the internal and external reality. Though it realizes conversation between light and space, it also reveals the flow of energy. It exposes the invisible reality in a rational way.

언어로서의 도자기

내 작품은 색을 입혀 3차원으로 구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은 형태를 만들고 형태는 그림으로 이어지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나의 작품에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상상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상징과 신비로운 환상의 생명체들이 나오는 게임도 들어있다.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는 때로 동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내 작품의 한 가지 독특한 측면은 형상 자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친밀한 경험을 갖게 하고, 대중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있다.

Porcelain as Language

I define my art as three-dimensional stories in color. A painting makes a figure, the figure leads to the painting, and together they create a story. My work reflects the events and imaginations in my daily life. A game where present creatures combine with symbols and fantastic illusions is included as well. Images of men and women are described as animals sometimes. One peculiar aspect of my work is that it makes many people have an intimate experience and interpret it as a public expression, not the figure itself.



학력	2003 라트비아예술학교 도자전공 석사, 리가, 라트비아
	1985 라트비아예술학교 도자전공, 리가, 라트비아
전시	2020 《제9회 황후 국제 도자 공모전》, 창춘국제도자예술관, 지린, 중국
	2015 《마리오네트 & 실루엣》, 마크 로스코 아트센터, 다우가프피尔斯, 라트비아
수상	2019 금상, 제1회 세계 티팟 공모전, 국제도자협회, 장부, 중국
	2016 추천상, 2016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잉거 도자박물관, 신베이, 대만
소장	- 통취안청자박물관, 저장, 중국
	- 중국 이싱 도자박물관, 장부, 중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20 아트 이홀 국제레지던시, 마이하르, 인도
	2018-2019 국제도자레지던시, 경덕진도자대학교, 장시, 중국
Education	2003 M.F.A., Ceramics, Art Academy of Latvia, Riga, Latvia
	1985 Ceramics, Latvian Art Academy of Latvia, Riga, Latvia
Exhibitions	2020 9 th Changchun International Ceramics Competition, Changchun International Ceramics Gallery, Jilin, China
	2015 Marionettes & Silhouettes, Mark Rothko Art Center, Daugavpils, Latvia
Awards	2019 Gold, 1st World Teapot Art Competition, IAC, Jiangsu, China
	2016 Recommendation Prize,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Collections	- Longquan Celadon Museum, Zhejiang, China
	- China Yixing Ceramics Museum, Jiangsu, China
Residency / Workshop	2020 Art ICHOL International Artist Residence, Maihar, India
	2018-2019 International Ceramics Residency, Jingdezhen Ceramics Institute, Jiangxi, China

"엑스-레이", 2021
자기점토, 매트유, 상회안료, 은 도색, 플레티넘 러스터, 1320°C

"X-ray", 2021
porcelain, mat glaze, over glaze colors, silver varnish, platinum luster, 1320°C
30 x 30 x 17

카미유 사바티에 Camille Sabatier

프랑스 France

꽃이 뒤집혀서 줄기가 꼬이거나 봉오리가 덮여 있으면 똑바로 세우려고 흔들고 뒤집고 하는 놀이를 하게 된다. 시리즈의 첫 번째인 '꽃(Flour)'은 위, 아래, 상승, 하강 사이의 게임에서 고안되었다. 나는 얇은 줄기 위에서 서로 뒤따르는 요소들의 놀이를 통해 재료의 취약성, 접히는 성질, 불안정성에 대해 표현하고자 했다. 나는 그것을 부드럽게 보이려고 완전히 분홍색으로 채색했다. 장미들이 섞여서 때로는 이 땅의 색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처럼.

Flowers upside down, with a stem twisted around or wrapping the bud, are usually used as a game in which it must be straightened, shaken, or flipped to be held straight. The first in the series, *Flower (fleur)*, is designed for a game involving up and down, and rise and descent. I tried to express the vulnerability, folding properties, and instability of materials through the play of elements that follow each other on a thin stem. I painted it completely pink to make it look soft, just as roses mix and reveal the color of this land sometimes.

내 작품은 자연과 물리적 기호들에 이끌리며 여러 관계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욕망의 전사 같은 다기능 몸에서부터 인간으로 변할 것 같은 꽃에 이르기까지, 내 연구는 물질을 통해 이 세상을 포착하려는 것이다. 진정한 플레이어는 의미를 통합하고 전달하며 모든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런 유별난 감성은 일상적인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웃고 있지만 온갖 사정이 얽힌 원형 게임에서, 앙드레 말로가 말했듯이, 웃는 자는 게임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Attracted by nature and physical signs, my artistic work originates from a desire to analyze relations. From multiple bodies to warriors of desire to flowers that are likely to become human, my research is engraved with a desire to capture the world through matters and minerals. A true player acts to integrate, convey a meaning, and resist all gravity. This special feeling is achieved through a special interest in everyday objects. In a circular game filled with twists while laughing and smiling at everything, the "smile is built by the man watching it," as André Malraux said.



학력	2005	툴루즈 국립영상대학교 예술전공 석사, 툴루즈, 프랑스
전시	2020	《Humanimalismes》, 토포그래피드라트, 파리, 프랑스
	2006	《조각》, 갤러리 비코크, 툴루즈, 프랑스
	2006	입선, 국제비디오페스티벌, 비데오폼, 클레르몽페랑, 프랑스
수상	2004	입선, 레 시네마 디페르트, 영콜렉티브 시네마, 파리, 프랑스
	2004	입선, 레 시네마 디페르트, 영콜렉티브 시네마, 파리, 프랑스
Education	2005	M.A., Arts,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udiovisuel, Toulouse, France
Exhibitions	2020	Humanimalismes, Topographie de l'Art, Paris, France
	2006	Sculptures, Galerie Bicoq, Toulouse, France
	2006	Selected, Vidéoformes, Vidéoformes, Clermont-Ferrand, France
Awards	2006	Selected, Vidéoformes, Vidéoformes, Clermont-Ferrand, France
	2004	Selected, Les Cinémas Différents, Young Collective Cinema, Paris, France

꽃, 2019
모래점토, 핑크유약, 철, 1250°C

Flower, 2019
sandstone, pink glaze, steel, 1250°C
40 x 40 x 165

라나 티크베사 Lana Tikvesa

세르비아 Serbia

벽에 걸린 다섯 점의 도자는 백자토로 만들어진 것인데 맑은 청자 유약과 백금 러스터를 사용하고 표류목(漂流木)과 깃털을 조합했다. 백자 부분은 판 작업으로 손 성형하여 전기가마에서 1240°C로 산화 소성했다. 작품은 고대의 도구, 무기, 박물관 유물과 비슷해 보이는데 보석이나 마술 오브제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현대적 디자인 같기도 하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과 기묘하면서 새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The five porcelain pieces on the wall were made of white clay, which used clear celadon-like glaze and platinum luster, and combined driftwood and feathers. The white porcelain part was hand-built from slabs and fired at 1240°C in the electric kiln. The pieces look similar to ancient tools, weapons or museum artifacts, but also look like jewelry or magic objects, as well as modern designs. The work evokes mixed emotions and strange but new imaginations.

어떤 것도 첫인상 그대로인 것은 없고 원시와 미래, 아름다움과 혐오스러운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부드러움과 과격함, 매혹과 두려움 사이에는 사고의 경계선이 있다. 모든 해석과 모든 감정의 이면에는 아직 탐구되지 않은 잠재의식의 심연이 놓여있다. 이 작품은 익숙한 것과 기이한 것의 초현실적인 조합이며, 한 때 살아있던 유기체와 이제는 활기가 넘쳐 보이는 무기물의 혼합이다. 일상적인 사물과 우리의 관계, 살아있는 것과 생명은 없지만 여전히 필수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현실에 대해 지각하도록 자극한다.

Nothing remains the same as its first impression, and small differences lie between the primitive and futuristic, and beauty and disgust.

There is a boundary of thought between softness and extremity, and fascination and fear. Behind every interpretation and every emotion lies an abyss of subconsciousness that has yet to be explored. This work is a surreal combination of familiar and bizarre, a mixture of once-living organisms and now vibrant inorganic objects. Investigating our relationship with ordinary obj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nd non-living, but still essential, stimulates us to perceive everyday reality.



학력	2002 베오그라드예술대학교 응용도자전공 마이스터 과정,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1996 베오그라드예술대학교 응용도자전공 석사,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전시	2018 《SERES2018-올드 & 뉴》, 아나톨루대학교, 에스키세히르, 터키
	2017 《살의 형상》, 차차르 아트 살롱, 모라비차, 세르비아
수상	2017 2등, 베오그라드 비엔날레, RTS 갤러리,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2015 특별상, 국제비엔날레-미니아트 아트, 고르니밀라노바츠 문화센터, 모라비차, 세르비아
소장	- 마크 로스코 아트센터, 다우가프필스, 라트비아
	- 세르비아 도자 소사이아티,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레지던시 / 워크숍	2010 국제도자심포지엄, 아트 페어- 마블앤사운드, 슈마디야, 세르비아
	2009 아티스트 레지던시, 세토 국제 도자&유리공예 교환프로그램, 아이치, 일본
Education	2002 Magister, Applied Arts Ceramic, Belgrade University of Arts, Belgrade, Serbia
	1996 M.F.A., Applied Arts Ceramic, Belgrade University of Arts, Belgrade, Serbia
Exhibitions	2018 SERES2018-Old and New, Anadolu University, Eskisehir, Turkey
	2017 Life Forms, Cacak Art salon, Moravica, Serbia
Awards	2017 Second Prize, Belgrade Biennial of Ceramics, RTS Gallery, Beograd, Serbia
	2015 Special Award, International Biennial-Art of Miniatures, The Cultural Center Gorњи Milanovac, Moravica, Serbia
Collections	- Mark Rothko Art Center, Davgapolis, Latvia
	- Serbian Ceramic Society, Belgrade, Serbia
Residency / Workshop	2010 International Ceramics Symposium, Art Fair: Marble and Sounds, Sumadija, Serbia
	2009 Artist-in-Residence, Seto International Ceramics and Glass Art Exchange program, Aichi, Japan

"킬링 미 소프트리", 2019
자기점토, 나무, 깃털, 1240°C

"Killing Me Softly", 2019
porcelain, wood, feathers, 1240°C
140 x 6 x 72

안젤리카 투리미에로 Angelica Tulimiero

이탈리아 Italy

2019년 이탈리아 베네토의 도자기 마을 노브의 안토니오 보날디 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를 하던 중 만든 작품이다. 자연의 순환은 내면에서 느끼는 패턴을 따라 리듬감 있게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고, 나는 내 언어와 형식으로 이것을 번역하고 싶었다. 유기체의 집단지성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소통 방식과 언어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에 대한 내 감정을 표현하고 해석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커다란 스케일의 도자기를 만들기로 했다. 판 작업을 한 후에 변형시키려 했는데 이 특별한 형태는 보날디가 물레로 만든 것이다. 그다음에 나는 구멍을 뚫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울퉁불퉁하게 보이도록 했다. 표면에 구멍을 만들어서 구멍이 크고 많은 느낌을 주었다. 구멍 주위는 노란색 슬립으로 두르고 손으로 얇은 코일을 만들어 표면에 새로운 피부처럼 빙 둘러 붙였다. 자연에서 알려진 다른 어떤 표면과 마찬가지로 패턴화된 표면, 그리고 나와 관람객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패턴이다. 1,260°C에서 가스 소성 후 가죽으로 입구를 닫고 3차원 효과를 더하여 다공성과 표면의 대비를 강화하였다. 형태는 부드럽고 섬세한 방식으로 놓여 따스한 봄 햇살 아래에서 휴식하며 바람을 타고 여행하고 새로운 삶으로 힘을 낼 모습을 형상화했다.

This work was created in 2019 during a residency at Antonio Bonaldi Studios in the ceramics town of Nove in the Veneto region of Italy. The cycle of nature rhythmically leads us to life following the patterns we feel inside, and I wanted to translate this into my own language and form.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organisms has its own communication system and language that we do not know. I tried to express and interpret my feelings on this. So I decided to make a large scale pottery. I intended to transform it after working with slabs, and this unique form was made by Bonaldi with a spinning wheel. Then, I drilled a hole and pushed it from inside to outside to make it look bumpy. I made holes on the surface, so that these holes look large. The holes were wrapped with yellow slips, I made thin coils by hand, and glued them to the surface like a new skin. Like any other surface known in nature, it is a patterned surface, and a pattern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me and the audience. After conducting a gas burning at 1260°C, I closed the entrance with leather and added a 3D effect to enhance the contrast between porosity and surface. The shape was placed in a soft and delicate manner to materialize the idea of resting under the warm spring sunlight, traveling in the wind, and cheering up with a new life.

자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복잡한 표면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나는 내 욕심에 이끌려 더 많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된다. 물질은 그 자체의 내부 구조를 갖는데, 그 내부 구조는 반복적인 형태로 만들어진다. 나는 자연의 끝없이 다양한 구조와 질감을 따라가면서 *프랙탈 해부학에 나 자신을 투영한다. 나는 이러한 형태와 그들이 만들어 내는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해석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인다. 상상에서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창작품은 이 세계와 세계를 구성하는 원자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다.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까지 친숙한 형태와 기묘한 감각으로 작업하는 나의 언어는 자연의 언어와 같다. 이 어휘 안에서 감정, 인간성, 그리고 의사소통의 대안적인 방법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나만의 언어를 찾아가다.

Instinctively attracted to a complex surface that can be found anywhere in nature, I realize that the more I do research led by my greed, the more I realize that everything is made up of a certain pattern. A matter has its own internal structure, which is made of repetitive forms. I project myself on fractal* anatomy following nature's endless variety of structures and textures. I work hard to interpret these forms and the sense of movement they make. My creation, though not derived from imagination, is based on atoms that make up the world and the whole world at the same time. My language, working with familiar forms and odd senses from the smallest to the largest things, is similar to the language of nature. Within this vocabulary, I explore my own language to talk about emotions, humanity, and alternative ways of communication.

*프랙탈: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

*Fractal refers to small structures that repeat endlessly in a similar way to the entire structure.



봄이 꽃가루를 불러왔다 #2, 2019
자기점토, 가죽, 1260°C

Spring has Brought Pollen #2, 2019
porcelain, leather, 1260°C
29 x 25 x 22

학력	2001 물리 컬리지 런던 아트앤디자인 파운데이션 과정, 런던, 영국
	2000 물리 컬리지 런던 전문도자 과정, 런던, 영국
전시	2020 (tako tsubo), 노브호텔, 비첸차, 이탈리아
	2020 (아트세럼2020), 세브르 문화센터, 파리, 프랑스
수상	2019 입선,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한국도자재단, 이천, 한국
	2017 파이널리스트, 현대 도자 국제공모전, 세르코, 사라고사, 스페인
소장	- 알코라 도자 미술관, 알코라, 스페인
Education	2001 Art and Design foundation, Morley College London, London, UK
	2000 Advanced Ceramics, Morley College London, London, UK
Exhibitions	2020 tako tsubo, Le Nove Hotel, Vicenza, Italy
	2020 ArtCeram2020, Sel de Sevres, Paris, Franc
Awards	2019 Honorable Mentions, Korea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2017 Finalist, Premio Internacional de Ceramica Contemporanea, CERCO, Zaragoza, Spain
Collections	- Alcora Ceramic Museum, L'Alcora, Spain

산드라 발 Sandra Val

스페인 Spain

본래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이 미니멀한 공예품들은 정체성의 변화와 변형을 겪으며, 공간 사이의 한계, 접속과 상실의 장소, 이동과 일시적임과 같은 서로 다른 경계 상태를 맥락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각각의 작품들은 세밀하게 만들어진 직물 끈에 황동으로 마감하여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열린 경계의 오브제>는 긴 맥락 속에서 연속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하며, 반복과 변환의 본질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These minimalist artifacts, found in the realm of everyday life, undergo changes and transformation of identity, being enabled to contextualize different boundaries such as limits between spaces, places of access and loss, and movement and temporariness. Each piece shows that it can be connected by being finished with brass on a finely crafted fabric string. *Liminal Objects* is intended for continuous interpretation in a long context, and is presented in this way to convey the essential concepts of repetition and transformation.

나는 경계의 개념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데, 부분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 공간은 허구와 실제, 예술과 디자인 사이에 공존하는 다차원의 가능성을 조성한다. 나의 작업은 다양성이 고유성으로 변화하는 연결과 교차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낸다. 작품은 공간 사이의 한계, 접속과 상실의 장소, 이동과 일시적임과 같은 서로 다른 경계 상태를 맥락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작품을 전개하는 시작점으로, 나는 일상의 영역에 속하는 오브제와 연구 과정 중에 정체성의 변형과 변화를 치뤄내는 오브제를 선택하여 제시한다.

The concept of boundaries is the starting point of my research: the space mediating between parts creates a multidimensional possibility where fiction and reality and art and design coexist. My work creates a mechanism of connections and crossings in which diversity changes to uniqueness. The work will be capable of connecting different boundary states with context, such as limits between spaces, places of access and loss, and movement and temporariness. As a starting point of the work, I select and present objects that fall into the realm of everyday life and objects that undergo a transformation and change in identity in my research process.



학력	2017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학교 순수예술 전공 석사, 마드리드, 스페인
	2015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학교 순수예술 전공 학사, 마드리드, 스페인
전시	2021	《순환적-경계적 공간》, 코스타리카/콜롬비아, 스페인/미국
	2019	《경계적 화두》, 푸사 갤러리, 마드리드, 스페인
수상	2020	입선, MAV 비엔날레 기금, 여성예술가 시각예술 비엔날레와 마드리드 시의회, 마드리드, 스페인
	2018	선정, 포시즌호텔 마드리드를 위한 조형예술 콘테스트, 샌트로 카날레하스 마드리드, 마드리드, 스페인
소장	-	마리아 크리스티나 마사보 페테르손 재단, 마드리드, 스페인
	-	포시즌호텔 마드리드, 마드리드, 스페인
레지던시 / 워크샵	2020	오토콘피니미엔토 레지던시, 비엔날레 MAV, 마드리드, 스페인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YZ 예술창작센터, 산시, 중국
Education	2017	M.F.A., Fine Arts, University Complutense de Madrid, Madrid, Spain
	2015	B.F.A., Fine Arts, University Complutense de Madrid, Madrid, Spain
Exhibitions	2021	<i>Liminal Spaces</i> , Costa Rica, Colombia, Spain/USA
	2019	<i>Liminal Subjects</i> , Puxa Gallery, Madrid, Spain
Awards	2020	Selected, MAV Biennial Grants, Bienal de Mujeres en las Artes Visuales and Madrid City Council, Madrid, Spain
	2018	Selected, Concurso de Artes Plasticas Hotel Four Seasons Madrid, Centro Canalejas Madrid, Madrid, Spain
Collections	-	Fundación María Cristina Masaveu Peterson, Madrid, Spain
	-	Hotel Four Seasons Madrid, Madrid, Spain
Residency / Workshop	2020	Autoconfinamiento Residency, Bienal MAV, Madrid, Spain
	2019	Artist-in-Residence, YZ Creative Art Center, Shanxi, China

열린 경계의 오브제 II, 2020
 자기점토, 흑색 산화유, 직물, 황동, 콘크리트, 1260°C

Liminal objects II, 2020
 porcelain, black oxide glaze, textile, brass, concrete, 1260°C
 150 x 20 x 250

티나 블라스폴로스 Tina Vlassopoulos

영국 UK

석기토로 손 성형하고 매끈하게 윤을 내었다. 아랫부분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리본 같은 띠가 용기의 윗부분에 딱 맞게 끼워져 있으며 6개의 '비밀'이 있다. 아랫부분 중 하나는 회색으로 채워져 있다.

This work is hand built and burnished with stoneware. The lower part is in two forms, a ribbon-like band is fitted to the top of the vessel, and has six “secrets.” One of the base pieces is filled with gray.

나의 작품은 가장 오래된 친구의 초상화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작품은 그녀의 성격, 기질, 정신의 각기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데 6개의 작은 피스들은 우리가 알고 지내온 60년을 상징하며 각각 하나마다 우리가 공유했던 비밀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디지털 시대의 불협화음에 반발하고 일방적 소통의 확산에 저항하면서 우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This work abstractly represents the portrait of one of my oldest friends, and it was created to commemorate our soul and friendship. It represents different aspects of her personality, temperament, and spirit. The six small pieces symbolize the 60 years we have been acquainted, and each piece contains a secret we shared. This work was made to awaken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while defying discord in the digital age and resisting the spread of unilateral communication. It was also made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which makes this work more meaningful.



학력	1977	브리스톨 폴리테크닉 도자전공 학사, 브리스톨, 영국
전시	2020	《영국에서 시작된》, 마시코도자미술관, 도치기, 일본
	2019	《대화》, 카롤라인 피셔 프로젝트, 노퍽, 영국
수상	2009	입선, 제4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한국도자재단, 이천, 한국
	2006	선정, 시드니 마이어 도자 기금, 시드니 마이어 기금&마이어재단, 시드니, 호주
소장	-	마시코도자미술관, 도자기, 일본
	-	시플리 아트 갤러리, 게이츠헤드, 영국
Education	1977	B.A., Ceramics, Bristol Polytechnic, Bristol, UK
Exhibitions	2020	Started in England, Mashiko Museum of Ceramic Art, Tochigi, Japan
	2019	Conversations, Caroline Fisher Projects, Norfolk, UK
Awards	2009	Honorable Mentions,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2006	Selected, Sydney Myer Fund Ceramics Award, Sydney Myer Fund&The Myer Foundation, Sydney, Australia
Collections	-	Mashiko Museum of Ceramic Art, Tochigi, Japan
	-	Shipley Arts Gallery, Gateshead, UK

소피의 초상, 2019
 도자, 전질이 덮인 벽지, 960°C
Portrait of Sophie, 2019
 ceramic, flocking, 960°C
 50 x 50 x 34

로테 웨스트파엘 Lotte Westphael

덴마크 Denmark

나는 사라지는 기법을 탐구한다. 코랄색 스트라이프를 따라 색이 점점
 얼어지다 결국 없어지게 된다. 그 코랄색 스트라이프는 원통에 리본을 둘러 박음질을 한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는 사라지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색은 아랫부분부터 그라데이션으로
 점점 연하게 표현하였다. 이 용기는 색 자기토가 만들어내는 조직적인 구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직물의 반복적인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결과이다. 그 패턴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흙으로 패턴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수히 많은 '자르고',
 '합치는' 과정을 반복한다. 과정 속에서 상감기법으로 표현된 질은 색의 작은 스트라이프들이
 무한히 생성된다.

I explore a vanishing effect by which colors on the level lighten
 with coral stripes, and eventually fade into nothing. The coral stripes are
 made to look like sewing stitches by wrapping the cylinder with ribbons. To
 underline the vanishing effect, I applied a gradation from the bottom to make
 it paler. The vessel has a structural composition of colored porcelain, and it is
 inspired by the repetitive patterns of textiles. This pattern is created through
 a repetitive process. In making the pattern with clay, I repeat countless
 rounds of splitting and combining through which the small, dark-colored
 stripes represented in the inlay technique are indefinitely created.

나는 직조에 흥미가 있고 이것이 내 영감의
 원천이다. 나는 선과 색 영역에서 비례에 집중한 작업을 한다. 나는
 *애니 앨버스의 직물과 **아그네스 마틴의 격자무늬에 영향을 받아,
 단계적인 색채 배합법으로 색상을 조합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조각
 보처럼 각각의 색상 변화마다 새로운 점토층을 놓았고, 기물을 부서질
 듯 연약하게 표현해내었다. 나는 복잡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
 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 또한 기하학적인 패턴에 생생함을 주기
 위해 재료와 제작과정에 약간의 불완전함을 부여한다. 내 작품은
 강렬한 기하학적 표현이 담긴 반투명의 연약한 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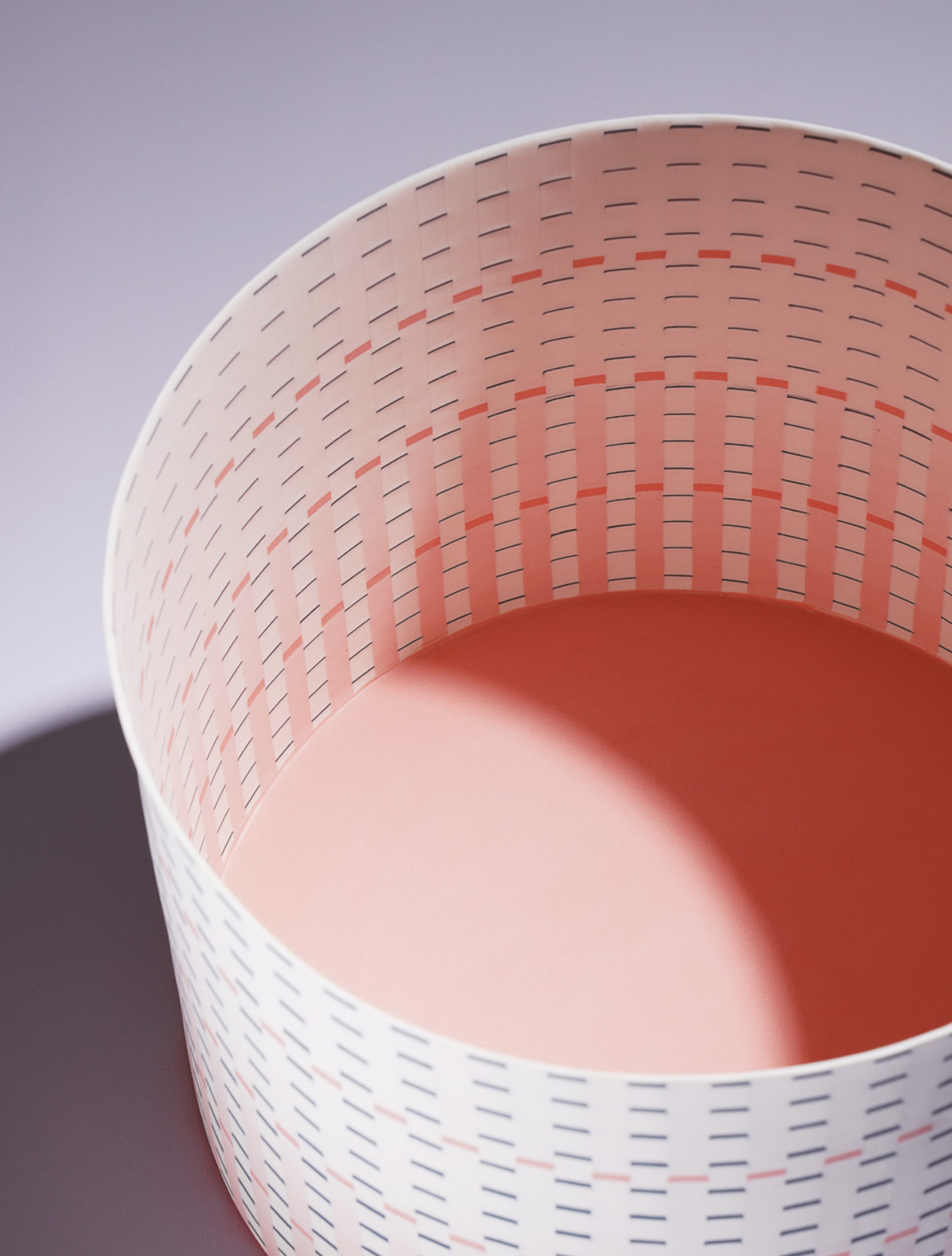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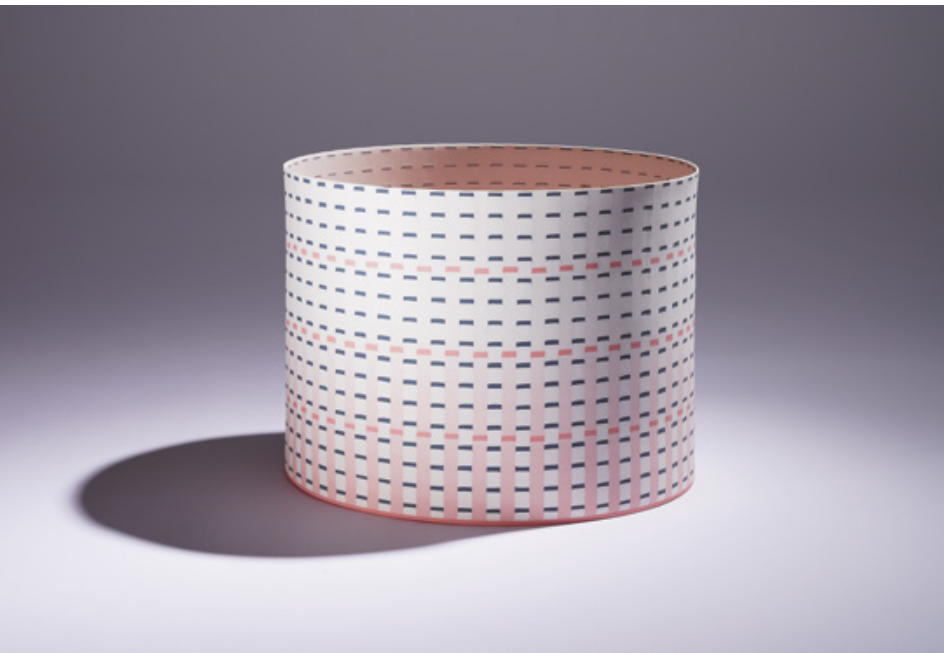
Weaving is one of my interests and
 a source of my inspiration. I work with proportionality
 with the area of lines and colors. Being influenced by the
 textiles of Anni Albers* and the grids of Agnes Martin**,
 I have developed a technique which mixes colors with a
 gradual color scheme. I put a new clay layer at each color
 change like patchwork, and express its crisp fragility as
 if it were about to be broken. I conduct systematic and
 repetitive work to create complicated patterns. Going
 further, I make it slightly imperfect during the material and
 creation process to make vivid geometric patterns. My
 works are translucent and fragile vessels with intensive
 geometric expressions.

*애니 앨버스: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관 모마 MoMA에서 최초로
 전시된 섬유 예술가로, 바우하우스가 개척한 현대 섬유
 미술이라는 텍스타일 아트의 독보적인 인물

**아그네스 마틴: 색면추상의 대표 예술가로, 마틴의 작품은 열게
 채색된 화면에 촘촘하게 반복되는 격자무늬가 특징

*Anni Albers, as an unrivaled artist in modern textile art
 created by Bauhaus, was the first textile designer who
 had an exhibitio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Agnes Martin is a representative color-field abstract
 artist, and repetitive close grids on a dimmed colored
 screen are characteristics of her work.



학력	1993	콜딩디자인학교 디자인전공 석사, 콜딩, 덴마크
	1992	콜딩디자인학교 도자&유리전공 학사, 콜딩, 덴마크
전시	2020	《누벨 바그》, 마리아 웨테르겐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9	《그리드》, 카오린 갤러리, 스톡홀름, 스웨덴
수상	2016	동상, 공예가 어워드, 쿤스텐.NU, 오르후스, 덴마크
소장	-	네비카 프로젝트, 일리노이, 미국
Education	1993	M.F.A., Unique Design, Design School Kolding, Kolding, Denmark
	1992	B.A., Ceramics and Glass, Design School Kolding, Kolding, Denmark
Exhibitions	2020	<i>Nouvelle Vague</i> , Galerie Maria Wettergren, Paris, France
	2019	<i>[In Grid]</i> , Kaolin Gallery, Stockholm, Sweden
Awards	2016	Bronze, Kunsthaandvaerkerprisen af 1879, KUNSTEN.NU, Aarhus, Denmark
Collections	-	Neveca Project, Illinois, USA

폴리리듬 그라데이션 - 붉은색, 2020
 자기점토, 무유, 1240°C

Polyrhythm Gradient - Rouge, 2020
 porcelain, unglazed, 1240°C
 27 x 27 x 20

제이슨 브릭스 Jason Briggs

미국 USA

내 작품은 자기토를 써서 몰레성형과 손 성형 기법으로 만들어진다. 몇 주 동안 점토를 누르고, 찌고, 깎고, 만지고, 꼬집고, 쥐어짜고, 변형하고, 모델링하고, 질감을 살리고, 부드럽게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만들어간다. 색을 입히고 화씨 2300°에서 소성한 후 표면을 사포와 힘으로 광택을 내고 다듬는다. 마지막으로 인모, 스테인레스 스틸, 고무, 때로는 매니큐어도 추가하여 완성한다.

I created my work using jiggering and hand built clay forms. To this end, the clay is pushed, poked, carved, caressed, pinched, squeezed, altered, modeled, textured, and smoothed. Once stained and fired at 2300°F, its surface is polished and refined with sandpaper and elbow grease. At the final stage, human hair, stainless steel, soft rubber, and nail polish from time to time, are added.

요즘 나의 작업은 원가를 발견하는 청춘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확장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내 작품은 강렬한 시각적 영감을 주는 요소가 있지만, 나는 작품의 촉각적 정서에 더 관심이 간다. 나를 흔드는 것은 만지고 싶은 충동이다. 나는 자기토를 다루면서 누르고, 찌르고, 쥐어짜고, 때리고, 쓰다듬고 꼬집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깨달았고 실행에 옮겼다. 나는 내 작품이 비슷한 유혹을 불러일으켰으면 한다. 관람객이 만져보려고 할 정도로. 뭐, 상상으로 만지는 것이 더 좋겠지만.

These days, I create work as an attempt to record and extend the moments of the youth that seek to discover something. Though my work has elements evoking an intensive visual inspiration, I am more attracted to the tactile emotions of the work. The impulse of touching shakes me. I came to realize my desire for pushing, poking, squeezing, hitting, stroking, and pinching, and I did it. I hope my work arouses similar enticement to viewers, even making them touch my work. One thing is certain, touching the imagination would be better.



학력	1999	네브래스카대학교 링컨캠퍼스 도자전공 석사, 네브래스카, 미국
전시	1995	위스콘신대학교 화이트워터캠퍼스 도자전공 학사, 위스콘신, 미국
	2019	《꿈, 오브제, 기타》, 크래프트 컨템포러리, 캘리포니아, 미국
수상	2017	《총체 해부학》, 애크런 미술관, 오키오, 미국
	2008	선정, NCECA 이머징 아티스트, NCECA 이머징 아티스트 펠로우십 & 미국도자교육평의회, 콜로라도, 미국
소장	2007	3등, 버지니아 A. 그루트 재단 펠로우십, 버지니아 A. 그루트 재단, 버지니아, 미국
	-	아리조나주립대학교 도자연구소, 아리조나, 미국
레지던시 / 워크숍	-	에반스빌미술관, 인디애나, 미국
	1999-2002	아티스트 레지던시, 애플래치아 도예센터, 테네시, 미국
1999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키브레이 재단, 몬태나, 미국	
Education	1999	M.F.A., Ceramics,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Nebraska, USA
Exhibitions	1995	B.F.A., Ceramics, University of Wisconsin-Whitewater, Wisconsin, USA
	2019	<i>The Body, The Object, The Other</i> , Craft Contemporary, California, USA
Awards	2017	<i>Gross Anatomies</i> , Akron Art Museum, Ohio, USA
	2008	Selected, NCECA Emerging Artists, NCECA Emerging Artists Fellowships & National Council for the Education of the Ceramic, Colorado, USA
Collections	2007	3rd Place Recipient, Virginia A. Groot Foundation Fellowship, Virginia A. Groot Foundation, Virginia, USA
	-	Arizona State University Ceramic Research Center, Arizona, USA
Residency / Workshop	-	Evansville Museum, Indiana, USA
	1999-2002	Artist-in-Residence, Ceramics Appalachian Center for Crafts, Tennessee, USA
1999	Artist-in-Residence, Archie Bray Foundation, Montana, USA	

"부드러움", 2020
자기점토, 머리카락, 철, 고무, 금홍석으로 정제, 1260°C

"Suave", 2020
porcelain, hair, steel, rubber, a light Rutile wash, 1260°C
18 x 13 x 10

제시카 에드가 Jessika Edgar

미국 USA

〈완전 멋짐〉은 2018년에 제작된 '너무한건 아니잖아?(It's Not Too Much, Is It?)'라는 TV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작품은 2017/2018년도 런웨이 패션 트렌드에서 선보인 패턴과 색상을 차용하여 제작되었다. 핀터레스트에 게시된 시각적 집적을 모방한 이 작품은 유약, 반짝이, 모조 다이아몬드, 인조 진주로 장식된 세라믹 조각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유튜브 문화에서 따온 이 제목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 완벽한 자질'을 뜻하는 속어로 어반 사전(Urban Dictoinary)에서 볼 수 있는데, 나의 작품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Pretty on Fleek is motivated by a TV series titled *It's Not Too Much, Is It?* produced in 2018. This work was created by directly adopting the patterns and colors presented in 2017/2018 runway fashion shows. Imitating the visual aggregation posted on Pinterest, this work piles up ceramic pieces decorated with glaze, glitter, rhinestones, and acrylic pearls. The title, adopted from YouTube culture, is slang which, according to the Urban Dictionary, means “a state of completeness and flawlessness, the quality of being perfect,” and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my work well.

나는 가치와 이분법에 대한 사회적 관념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구축되는 점을 탐구한다. 잠깐 반짝하는 대중문화와 특히 젠더, 아름다움, 물질적 욕망과 관련된 미디어 이미지에서 참고 자료를 얻는다. 나는 인지 부조화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인데, 나의 작품은 비판적인 측면과 방만함을 포용하는 심리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공예를 예술보다 아래에 두는 관습적 위계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상도자 조형의 형태로 이에 대해 발언한다. 나는 점토뿐만 아니라 가짜 모피, 아크릴 진주, 마드파지 접착제나 반짝이 같은 혼합 매체를 '공예' 재료로 사용한다. 상업적 영역에서 채택된 이 재료들과는 대조적으로, 나는 추상 조각의 오래된 역사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My research investigates the construction of individual identities as prescribed by societal notions of value and binaries. I pull reference material from popular culture ephemera and media imagery especially related to gender, beauty, and material desires. My sculptures aim to create a feeling of cognitive dissonance, a psychological space that is simultaneously critical and indulgent. This research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abstract ceramic sculptures that question the established hierarchy that places craft below art. I utilize not just clay, but also mixed media that includes faux fur, acrylic pearls, Mod Podge®, and glitter. In contrast to these commercially derived materials, I draw from a long history of sculptural abstraction.



학력	2011 크랜브룩예술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미시간, 미국
2009 노스리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예술전공 석사, 캘리포니아, 미국	
전시	2020 《국제현대공예 및 공모전-매체: 단단하거나 + 부드럽거나》, 패터슨-애플튼 아트센터, 텍사스, 미국
2018 《너무한건 아니잖아?》, 스포트라이트 갤러리, 오클라호마, 미국	
수상	2020 선정, 연구보조금, 웨인주립대학교, 미시간, 미국
2020 2등, 국제현대공예 및 공모전-매체: 단단하거나 + 부드럽거나, 그레이터 덴튼 예술협회, 텍사스, 미국	
소장	- 뉴멕시코주립대학교 미술관, 뉴멕시코, 미국
- 글레이고 국제도자연구센터, 스웨덴, 덴마크	
레지던시 / 워크샵	2021 레지던시, 글레이고 국제도자연구센터, 스웨덴, 덴마크
2021 아티스트 레지던시, A.I.R 발로리스, 발로리스, 프랑스	
Education	2011 M.F.A., Ceramics, Cranbrook Academy of Art, Michigan, USA
2009 M.A., Ar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California, USA	
Exhibitions	2020 <i>International Contemporary Craft Exhibition and Competition-Materials: Hard + Soft</i> , Patterson-Appleton Arts Center, Texas, USA
2018 <i>It's Not Too Much, Is It?</i> , Spotlight Gallery, Oklahoma, USA	
Awards	2020 Selected, University Research Grant, Wayne State University, Michigan, USA
2020 Second Place Award, Materials: Hard + Soft: International Contemporary Craft Exhibition and Competition, Greater Denton Arts Council, Texas, USA	
Collections	- Museum of New Mexico State University, New Mexico, USA
- Guldagergaard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Skælskør, Denmark	
Residency / Workshop	2021 Sabbatical Residency, Guldagergaard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Skælskør, Denmark
2021 Artist-in-Residence, A.I.R Vallauris, Vallauris, France	

완전 멋짐, 2018
적색 도기점토, 메이크 정글 gems™ 유약, 스프레이 고무,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 아크릴, 진주, 글리터, 옥공품(모드 퍼지), 이케아 스툴, 모조 금박, 1060°C

Pretty on Fleek, 2018
red earthenware, Mayco's Jungle Gems™ glaze, sprayed rubber, various Swarovski, crystals, acrylic, pearls, glitter, Mod Podge, Ikea stool, imitation gold leaf, 1060°C
40.5 x 38 x 138.5

레이첼 엔지 Rachel Eng

미국 USA

이 작품은 지질학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기둥 같은 형태는 어릴 때 주변에 있었던 현무암이나 낙엽수림, 그리고 주차 기둥에서 영향을 받았다. 양치식물 같은 모양은 고생대 데본기에 자랐던 선인장 꽃이나 식물을 연상시킨다. 층층이 줄무늬처럼 쌓인 색들은 땅속 퇴적층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느낌을 떠올리게도 한다. 이 작품은 장소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며 또한 그 장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야기한다. 기둥과 양치식물 같은 형태는 코일링, 초벌 굽기, 시유 하여 1200°C에서 소성했다.

This work reminds me of both geological and organic structure. The column-like form was influenced by basalt, deciduous forest, and parking bollards which were found nearby when I was young. The fern-like form conjures an image of cactus flowers and plants that would have grown during the Devonian period. Colors packed like stripes seem to form a sedimentary layer and enable us to feel my childhood. This piece reveals a memory of places and how such places continue to change. The bisque columns and fern-like forms were coil built, fired, and glazed at 1200°C.

나는 환경과 풍경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열린 체계라고 본다. 내 작업은 기후 변화, 토지 이용과 개발, 그리고 기억과의 연관성과 같은 주제들로 고심하고 있다. 체계의 아주 작은 면에 주목하여 그 부분들을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나의 최근 작업은 지구의 오랜 지질학적 역사와 현재 상태를 연결하고, 지구와 우리의 관계가 파괴가 아닌 상호주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I believe that the environment and its scenery are an open system which works by an external force, not just for ourselves. My work labors over themes like climate change, land use and development, and the relationship to memory. It focuses on one tiny aspect of a system to reveal the whole by analyzing its parts. My recent work links the long geological history of the Earth to the current state, and investigates how to return to a reciprocal relationship, rather than a destructive one, between the globe and us.



학력	2013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 도자 전공 석사, 콜로라도, 미국
	2010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도자 전공 학사, 펜실베이니아, 미국
전시	2020 《대체》, 플렉서 갤러리, 뉴욕, 미국
	2020 《더 클레이 스튜디오 내셔널2020》, 더 클레이 스튜디오, 펜실베이니아, 미국
수상	2021 선정, 퍼핀재단 보조금, 퍼핀재단, 뉴저지, 미국
	2018 선정, 큐레이토리얼 오퍼튜니티 프로그램, 뉴 아트센터, 매사추세츠, 미국
소장	- 로버트 J. 버포드 개인컬렉션, 일리노이, 미국
	- 앰허스트 대학교, 매사추세츠, 미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19 스튜디오 쿠라 레지던시, 규슈, 일본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에피드랄 클레이, 워터세드 도자센터, 메인, 미국
Education	2013 M.F.A., Ceramics,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Colorado, USA
	2010 B.F.A., Ceramic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USA
Exhibitions	2020 <i>To Displace Something</i> , Flecker Gallery, New York, USA
	2020 <i>The Clay Studio National2020</i> , The Clay Studio, Pennsylvania, USA
Awards	2021 Selected, Puffin Foundation Grant, Puffin Foundation, New Jersey, USA
	2021 Selected, Curatorial Opportunity Program, New Art Center, Massachusetts, USA
Collections	- Robert J. Buford Private Collection, Illinois, USA
	- Amherst College, Massachusetts, USA
Residency / Workshop	2019 Studio Kura Residency, Kyushu, Japan
	2019 Artist-in-Residence, Ephemeral Clay, Watershed Center for the Ceramic Arts, Maine, USA

단층(斷層)과 경계선, 2020
식기점토, 자기점토, 혼합유, 하회안료, 1200°C
Faults & Seams, 2020
stoneware, porcelain, assorted glazes, underglaze, 1200°C
228 x 182 x 106

존 가르가노 John Gargano

미국 USA

〈아셰투에 담긴 마음3〉은 카메룬의 지배층들이 쓰는 모자를 연구하던 일련의 작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니트 모자는 부족의 원로들이 쓰던 것이며, 문화적 상징성과 조형적 관점에서 나의 흥미를 돋우었다. 나는 부족의 원로들이 이렇게 다이내믹 하면서 섬세한 물건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시적인 아름다움을 느낀다. 또한 직물을 단단한 진흙 형태로 변형하는 작업은 나의 엔지니어적인 감각을 자극했고, 작품에 사용된 산업적인 요소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었다.

Ashetu Mind Three stems from a series of works investigating the Prestige Caps worn by the ruling class in Cameroon. The tribal elders wore these knit caps, which intrigued my interest for cultural symbolism and from a formative viewpoint. I found poetic beauty as the tribal elders wore such dynamic and detailed objects. Furthermore, transforming fabric into solid clay forms stimulated my senses as an engineer, and it formed an interesting contrast to the industrial elements used in the piece.

작품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내가 인체 형상과 공예품, 산업용 오브제의 형태와 매커니즘에 매료되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요소들을 직관적으로 혼합하여 친숙하거나 혹은 새롭지만 과거의 것과 연결고리가 있는 보편적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 신비함이 나를 사로잡고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이 작업은 종종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부위, 기계 팔 또는 부속품을 다룬다. 점토로 각 부위를 디자인해서 잘 맞도록 하는 것은 엔지니어로서의 성취감을 주고 소성한 점토의 부서지기 쉬운 속성과 미적 대비를 이룬다.

The idea behind this work began when I was fascinated by human figures, crafts, and the shapes and mechanisms of industrial objects. I intuitively mix elements to create a universal form that is familiar or new but connected to the past. This mystery captivates me and sets the stage for dialogue. This work often deals with mechanically connecting sites, machine arms, or accessories. Designing each part of clay to fit well provides a fulfilling experience as an engineer, and forms an aesthetic contrast with the brittle properties of fired clay.



학력	1997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자전공 석사, 오하이오, 미국
전시	1992 아트앤디자인스쿨(COS) 도예전공 학사, 미시간, 미국 2021 《국제현대공예 및 공모전-매체: 단단하거나 + 부드럽거나》, 패터슨-애플튼 아트센터, 텍사스, 미국
수상	2016 《모자로부터》, 아카디애나 아트센터, 캘리포니아, 미국 2020 2등, 클레이 인터네셔널 2020, 워크하우스 아트센터, 버지니아, 미국 2019 선정, SLEMCO/BORSF 교수 보조금, 루이지애나대학교 라파예트, 루이지애나, 미국
Education	1997 M.F.A., Ceramics, The Ohio State University, Ohio, USA 1992 B.F.A., Ceramics, College for Creative Studies, Michigan, USA
Exhibitions	2021 <i>International Contemporary Craft Exhibition and Competition-Materials: Hard + Soft</i> , Patterson-Appleton Arts Center, Texas, USA 2016 <i>From the Hat</i> , Acadiana Center for the Arts, California, USA
Awards	2020 Second Prize, Clay International 2020, Workhouse Arts Center, Virginia, USA 2019 Selected, SLEMCO/BORSF Professorship in Arts II, University of Louisiana at Lafayette, Louisiana, USA

아셰투에 담긴 마음3, 2018
식기점토, 고무마개, 잠금장치, 1222°C

Ashetu Mind Three, 2018
stoneware, rubber gaskets, fasteners, 1222°C
63.5 x 76 x 30.5

마크 가우디 Mark Goudy

미국 USA

이 프로젝트는 팬데믹 봉쇄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팬데믹의 경험은 전혀 다른 일상생활의 종합판이었다. 도자기를 만들어 온 10년의 시간이 3D 그래픽 하드웨어 디자인 엔지니어로서의 관록과 결합되었다. 이 과정은 3D 소프트웨어로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직접 구축할 수 없는 알고리즘 개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었다. 드디어, 나는 오랫동안 머리에 담고 있던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석고 몰드를 만들기 위해 '원형 몰드'를 3D 프린터로 인쇄했다.

This project began under the pandemic lockdown. This experience was totally different from normal daily life in every aspect. A decade-long experience in making porcelains was combined with my career as a 3D graphic hardware design engineer. This process began with designing the form with 3D software, and it allowed me to explore the algorithmic concept and shape which would not be possible to construct directly by hand. At last, I was able to materialize the ideas that I had in mind for a long time. Then, I printed the mother mold with a 3D printer to create a plaster mold.

예술가로서 나의 과제는 일관성 있는 시각 언어를 창조하고, 그다음 그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자연의 형상을 반영한 미니멀한 원형적 형태에 끌린다. 내가 선택한 재료는 종이처럼 얇은 불투명 자기로, 종종 섬세한 용해성 금속 수채화로 채색한다. 나는 빛과 분위기를 담은 용기를 만든다. 나의 도자 작업은 모두 형태를 디자인하고 오브제를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런 물리적 오브제가 세상을 표현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My task as an artist is creating a coherent visual language followed by learning how to speak with this language. I am attracted to the minimized prototypes which reflect natural phenomena. I chose paper-thin translucent porcelain as a material, on which I occasionally paint with delicate soluble metal watercolors. I make vessels that contain light and mood. All of my ceramic works design shapes and create objects. What I find rewarding is that I am experiencing these physical objects representing the world.



학력	1986 산호세주립대학교 전기공학 전공 석사, 캘리포니아, 미국
전시	1979 오리건대학교 생물전공 학사, 오리건, 미국 2021 《투명의 유화》, 갤러리 드 폰, 르 펠, 프랑스
수상	2020 《2020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영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2018 우승, ICAN 메리트 어워드, 미국도자협회, 오하이오, 미국
소장	2016 도자부분 선정, 심사위원 메리트 어워드, 베스터발트도자박물관, 라인란트팔츠, 독일 - 마크 로스코 아트센터, 다우가프필스, 라트비아 - 스크립스대학, 캘리포니아, 미국
Education	1986 M.S., Electrical Engineering, San Jose State University, California, USA 1979 B.S., Biology, University of Oregon, Oregon, USA
Exhibitions	2021 <i>Jeux de Transparence</i> , Galerie du Don, Le Fel, France 2020 <i>Taiwan Ceramics Biennale</i> ,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Awards	2018 1st Prize, ICAN Merit Award,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Ohio, USA 2016 Vessel, Juror Merit Award, Keramikmuseum Westerwald, Rheinland-Pfalz, Germany
Collections	- Mark Rothko Art Center, Daugavpils, Latvia - Scripps College, California, USA

카운터포인트, 2021
도기점도, 수용성 코발트, 1186°C
Counterpoint, 2021
porcelain, soluble cobalt, 1186°C
40 x 19 x 19

제니 저지 Jenny Judge

캐나다 Canada

현대적 몰드 제작방식과 전통 도자기, 빈티지 소재를 접목하여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도록 한 설치 작품이다. 3D 프린터로 몰드의 형태를 만들고 종이 점토로 주조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이 종이 점토는 우리 피부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소재이다. 점토의 빈 곳은 내 어머니의 단추들로 채워지거나 금색 러스터로 칠하고 벽에 핀으로 부드럽게 고정한다. 오브제의 가벼움과 일시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그림자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표현한다.

This piece combines modern methods of mold making with traditional ceramics and vintage materials to create an installation that is a blend of the past and the present. 3D rendered shapes were printed and vacuum-formed to create the molds, which are cast in paper clay- a material that reminds me of the fragile nature of our skin as we age. Negative spaces in the clay are filled with my mother's buttons or highlighted with golden lustre, and the forms are gently pinned to the wall, floating above their shadows to emphasize their lightness and temporary nature.

〈우리 엄마의 단추 컬렉션〉은 기억의 힘과 취약함을 표현하고, 관람객을 몰입시키며 기억에 투입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나에게 이 작품은 어머니가 치매와 싸우면서 그녀 인생의 후반기를 돌봤던 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전시의 어느 한 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한 순간들을 보여주고 단추같이 집에서 사용했던 용품과 함께 잊혀진 시간들로 가는 길을 만든다. 다른 면들은 배경에 섞여서 눈에 띄지 않게 되고,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벽에 드리운 그림자 또는 번쩍이는 금빛 러스터를 빼고 말이다.

My Mother's Button Collection represents the power and fragility of memory, immersing viewers and causing them to reflect on their own time spent in recollection. To me, this piece evokes feelings of caring for my mother in her later stages of life as she battled dementia: some aspects of the installation show moments of incredible clarity and create pathways to forgotten times with domestic items such as buttons; other aspects blend into the background and slip out of sight, barely there at all except for a shadow on the wall or a flash of golden lustre.



학력	1995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예술교육전공 학사,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
	1992	미네소타대학교 조각전공 석사, 미네소타, 미국
전시	2019	《경이와 물질성》, 브리티시컬럼비아 공예협회, 브리티시컬럼비아, 캐나다
	2019	《아일랜드 유리 비엔날레》, 더블린 성, 더블린, 아일랜드
수상	2019	추천상, UK 유리 전시, 볼스아이 글라스, 브리스톨, 영국
	2006	선정, 큐레이터 초이스 어워드, 유리공예협회,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레지던시 / 워크숍	2021	레지던시, 메달타, 앨버타, 캐나다
	1983/1984	레지던시, 밴프아트센터, 앨버타, 캐나다
Education	1995	B.Ed., Art Educ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ritish Columbia, Canada
	1992	M.F.A., Sculpture,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USA
Exhibitions	2019	<i>Wonderments and Materiality</i> , Craft Council of BC, British Columbia, Canada
	2019	<i>Ireland Glass Biennale</i> , Dublin Castle, Dublin, Ireland
Awards	2019	Highly Commended, UK Warm Glass Exhibition, Bullseye Glass, Bristol, UK
	2006	Selected, Curator's Choice Award, Glass Art Association, British Columbia, Canada
Residency / Workshop	2021	Ceramics residency, Medalta, Alberta, Canada
	1983/1984	Residency, Banff Centre for the Arts, Alberta, Canada

우리 엄마의 단추 컬렉션, 2021
 페이퍼 클레이, 백색투명유, 골드 러스터, 단추, 실, 핀, 901°C~1100°C

My Mother's Button Collection, 2021
 paper clay, clear white glaze, gold lustre, found buttons, thread, pins, 901°C~1100°C
 244 x 244 x 10

산드라 레딩햄 Sandra Ledingham

캐나다 Canada

고대 썰기문자판이나 기념비, 항아리와 같은 점토의 소박한 실용성의 역사를 탐구한 작품이다. '공간 속 오브제'의 작업자로서 나는 건축에 대해 매료되어 형식주의의 순수한 요소들에서 빛어지는 형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건축적 벽〉시리즈는 형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태에 대해서도 탐구하며, 이진법, 점자, 모스 부호 등 코드화 된 구멍이 있는 벽을 통해 관람객을 내부 공간으로 안내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This work explores the simple practicality of clay, such as ancient wedge plates, monuments, and jars. As a worker of “objects in space,” I was fascinated by architecture and became interested in the forms created by pure elements of formalism. This series of Architectural Walls explores human ecology as well as forms, guides visitors to internal spaces, and delivers messages through walls with coded holes such as binary, Braille, and Morse codes.

'인간성'은 음성으로, 메시지로, 벽 위에 글씨로 말한다. 그것은 종종 모든 소외된 목소리를 위한 기회를 말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말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 문명과 그 기원의 요람이 같등으로 소용돌이치면서, 점토라는 소박한 재료와 그 실용성에 대한 나의 관심은 더욱 의미가 있다. 점토를 사용하는 작업자로서 우리는 거칠고 중요한 물질에서 비롯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Humanity is spoken by voice, message, and letters written on the wall. It often refers to opportunities for all alienated voices. It speaks to people who find a way to speak their own voice. As this civilization and its cradle of such origin are swirling with conflict, my interest in the simple material of clay and its practicality becomes more meaningful. We, the clay artists, should be proud of the fact that we came from rough and important materials.



학력	1973	리자이나대학교 도자전공 보조과정, 서스캐처원, 캐나다
전시	1970	리자이나대학교 사회과학&순수예술진흥 학사, 서스캐처원, 캐나다
	2021	《2021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영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수상	2018	《출발-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찰》, 생강행도자지구 케이브 갤러리, 님, 프랑스
	2019	금상, 제3회 컬러스 국제 온라인심사 전시, 퓨전 아트, 캘리포니아, 미국
	2016	입선, 메리트 어워드, 웨어러블 아트쇼, 서스캐처원, 캐나다
소장	-	유타오 판 갤러리, 타이페이, 대만
	-	아트 플레이스먼트 갤러리, 서스캐처원, 캐나다
레지던시 / 워크샵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생강행도자지구 레지던시, 님, 프랑스
	2017	워크샵, CollaboratioNZ, 노스랜드, 뉴질랜드
Education	1973	Ceramics, University of Regina, Saskatchewan, Canada
	1970	B.A., Social Science & Fine Arts, University of Regina, Saskatchewan, Canada
Exhibitions	2021	2021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18	Departures-Examining A Paradigm Shift, Cave Gallery of the La Office Cultural de Saint Quentin la Poterie, Nimes, France
Awards	2019	Gold, 3rd Annual Colors International Online Juried Art Exhibition, Fusion Art, California, USA
	2016	Honorable Mentions, Merit Award, Wearable Art Show, Saskatchewan, Canada
Collections	-	Yu Tao Fun Gallery, Taipei, Taiwan
	-	Art Placement Gallery, Saskatchewan, Canada
Residency / Workshop	2019	Artist-in-Residence, Saint Quentin Ceramic Residency, Nimes, France
	2017	Workshop, CollaboratioNZ, Northland, New Zealand

청동 벽 - 인류애(브라유 점자), 2020
판자기, 청동 메탈유, 금속 핀, 콘04(1071°C)

Bronze wall - Humanity(Braille coded), 2020
slab-built clay, bronze metallic glaze, metal pins, Cone 04(1071°C)
56 x 18 x 40

니콜라스 렌커 Nicholas Lenker

미국 USA

나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기류와 분열에 대해 고민하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카인과 아벨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인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비디오 게임과 같은 3차원 형태의 가상 디지털 방식에서 출발했다. 이 방식에서 더 나아가, 나는 공예적 관점으로 온라인 소셜 미디어 안에서 보이는 우리의 존재와 반응에 대한 흥미로운 점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는 판 성형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을 통해 보여 지는데, 콘 6의 온도에서 소성된 작품에 포토샵으로 제작한 전사지를 디지털 프린트하여 작품의 표면에 장식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한다.

Laboring the political trends and divisions commonly witnessed in the United States, I completed my work citing the biblical narrative of Cain and Abel, the world's first murder case. This work began from a three-dimensional virtual and digital mechanism as seen in a videogame. The works go further to investigate interesting points regarding our existence and responses observed on social media from the perspective of crafts. Such investigations are shown through the works created through a plate molding technique: by adorning digital printing with decalcomania paper made with Photoshop on the surface of the work fired at a temperature of cone 6.

나는 온라인상의 경험을 개념화한다. 소셜 미디어와 비디오 게임은 우리가 아바타를 만들고 구현해내는 가상의 세계를 창조한다. 우리가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인 온라인공간에서, 육체이탈과 형상화는 지속적인 자의식 상태를 만들어낸다. 실제의 우리와 가상 공간 안에서의 자신을 대표하는 존재 사이에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내 작업의 뼈대가 된다. 나의 작품은 수작업과 아날로그 과정을 통해 제작되며 복잡한 가상 디지털 제작 과정을 거친다. 대상은 물리적 실제 공간과 가상의 공간 내에서 '실체'가 되려고 한다. 나는 대상이 디지털 삶과 물리적 삶의 동시성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나는 기본 다각형 형태를 만든 뒤, 온라인에서 구한 이미지들로 조합된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다.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이 되고자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기만하여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우리는 각각 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I conceptualize the online experience. Social media and videogames create virtual worlds where we create and embody the avatar. We are both a subject and an object online where disembodiment and embodiment continuously create a state of self-consciousness. A duality exists between us in reality and the representative self in virtual space. This forms the framework of my work. The object was created with handmade and analog processes accompanied by a complicated virtual and digital production process. The object attempts to be a reality within both physical and virtual spaces. I hope that the object can show the synchronicity of our digital and physical lives. Hence, I endow a new identity combined with online images after creating a basic polygonal form. Then, it will seek to become more than that. It deceives us to achieve what it wants. Each of us is its object.



학력	2012 테일러예술학교 도자전공 석사, 펜실베이니아, 미국
전시	2005 필라델피아예술대학교(Uarts) 도자전공 학사, 펜실베이니아, 미국 2021 《슬립: 현대도자》, 펜사콜라미술관, 마이애미, 미국
수상	2020 《인벤토리》, 알프레드 도자미술관, 뉴욕, 미국 2021 노미네이티드, 미국예술가협회 펠로우십, 미국예술가협회, 일리노이, 미국
소장	2020 노미네이티드, 미국예술가협회 펠로우십, 미국예술가협회, 일리노이, 미국 - 보스턴미술관, 매사추세츠, 미국 - 알프레드 도자미술관, 뉴욕, 미국
Education	2012 M.F.A., Ceramics, Tyler School of Art Ceramics, Pennsylvania, USA 2005 B.F.A., Ceramics, The University of the Arts, Pennsylvania, USA
Exhibitions	2021 SLIP: Contemporary Ceramics, Pensacola Museum of Art, Miami, USA 2020 Inventory, Alfred Ceramic Art Museum, New York, USA
Awards	2021 Nominated, United States Artist Fellowship, United States Artists, Illinois, USA 2021 Nominated, United States Artist Fellowship, United States Artists, Illinois, USA
Collections	2020 Boston Museum of Fine Arts, Massachusetts, USA - Alfred Ceramic Art Museum, New York, USA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2020
 도자, 유화, 에폭시, 금박, 나무, 콘6(1222°C)

NOT MY BROTHER'S KEEPER, 2020
 ceramic, oil paint, epoxy, gold leaf, wood, Cone 6(1222°C)
 43 x 51.5 x 43

팅 곽 리영 Ting Kwok Leung

캐나다 Canada

이 작품은 예전 한 의사와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당신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양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마치 결혼 서약처럼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 대신 병과 약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겠지..... 내 서약은 다음과 같았다. "앞으로 내 병을 내 생명으로 삼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작품 제목을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로 붙인 이유이다. 이 유머러스한 나의 은유라니.....

This work is inspired by a conversation with a doctor in the past. "The only way you can live longer is to get your tumor treated." The moment came to me as a big shock like a wedding pledge. Instead of marrying someone, I am marrying disease and medicine. I pledged as follows: "From now on, I will use my disease as my life and be with you until I die." This is the reason for titling this work *Just Married*. How humorous my metaphor is.

인생의 우여곡절은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은 내 작품 형성의 영감과 미학적 측면이 되었다. 개념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연약함, 무력감, 당김, 찢김, 알 수 없는 통제 불가능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점토 슬립을 발라서 예측 불가능한 균열 효과를 만들어 흙의 특성을 활용하려고 하였다. 일상용품과 결합해 갈등과 모호함을 만들고, 블랙 유머를 사용해 삶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The vicissitudes of life are unpredictable, which formed the inspiration and aesthetic aspects of my work. In order to express conceptual and visual weakness, helplessness, pulling, tearing, and unknown uncontrollability, I applied clay slip in several stages to create unpredictable cracking effects to use the characteristics of soil. Combined with everyday goods, this work creates conflict and ambiguity, and uses black humor to show the helplessness of life.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2019
식기점토, 자기점토, 알루미늄, 끈, 육각형의 철조망, 플라스틱 튜브, 자물쇠, 콘8(1263°C)

Just Married. 2019
stoneware clay, porcelain, aluminum, strips, chicken wire, plastic tubing, lock, Cone 8(1263°C)
140 x 157 x 202

학력	2003	퀀틀렌대학교 순수예술전공 학사,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
	2000	밴쿠버필름스쿨 3D애니메이션전공 고등교육 과정, 밴쿠버, 캐나다
전시	2020	《2020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스 잉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2012	《도자조각》, 갤러리 취안, 타이페이, 대만
수상	2020	파이널리스트,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스 잉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2018	파이널리스트, 라트비아 국제도자비엔날레 마르티스 어워드, 마크 로스코 아트센터, 다우가프필스, 라트비아
소장	-	신베이스 잉거 도자박물관, 신베이, 대만
	-	도자재단 및 세라믹 나무 협회, 클루즈나포카, 루마니아
Education	2003	B.A., Fine Arts, Kwantlen University, British Columbia, Canada
	2000	Post-Secondary, 3D Animation, Vancouver Film School, Vancouver, Canada
Exhibitions	2020	2020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12	Ceramic Sculpture, Gallery Chuan, Taipei, Taiwan
Awards	2020	Finalist,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18	Finalist, Latvia International Ceramics Biennale Martinsons Award, Mark Rothko Art Centre, Daugavpils, Latvia
Collections	-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	Ceramart Foundation and Ceramics Now Association, Cluj-Napoca, Romania

존 알버트 머피 John Albert Murphy

미국 USA

〈유황〉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과 같은 시대의 어두운 면을 다룬 도예작품이다. 이것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전등의 플러그가 빠지거나 스위치가 꺼져서 각자의 선택과 적응이 필요한 상태를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점토 모형과 석고 몰드로 만들어낸 캐스팅 조각들을 모아 결합한 형태로, 유약 스텐실링과 금속 러스터 유약을 도포하여 완성되었다.

Brimstone, a ceramic work, deals with the dark side of modern times, such as the global pandemic that we are suffering through. It is believed that each individual needs to select and adapt when the plug or switch of a light is turned off out of the blue. This work combines slip cast pieces created from the original clay models and plaster molds, and it was completed through masking tape stenciling and applying metallic luster glaze.

슬립 캐스팅 도자는 내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다. 점토로 원형 틀을 만들고 나서 슬립 캐스팅을 할 석고 몰드를 제작한다. 도자기의 반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물의 벽을 얇게 성형한다. 최근에는 더 양질의 백색과 반투명성을 위해 태토에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하는 패턴으로 스텐실을 하기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칫솔로 컬러 슬립을 바른다. '추상 표현 주의', 즉 '점묘법'을 참조하여 내가 원하는 그림을 연출하기 위해 더욱 강렬한 팔레트를 만들어낸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나는 먼저 마음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영감을 찾아내고..... 그다음에는 단지 실행에 옮길 뿐이다."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 디자인을 정하는 것부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나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배운다. 작업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진화 하며, 변하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작업에는 때때로 영감이나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 개인적 사정 이런 것이 참고가 된다. 아니면 그냥 꿈을 즐기면 되고.

Slip cast porcelain is a current area of focus for me. After making a round shape with clay, I build a plaster mold for the slip cast. I cast thin the wall of the article to stress the translucency of porcelain. Recently, I started to use new material in the clay for a better whiteness and translucency. To stencil the pattern that I want, I attach masking tape and apply the colored slip with a toothbrush. To express the painting in my mind, I create a more intense pallet referring to a type of abstract expressionism known as pointillism. I tell my students, "First, I work out the ideas or inspirations in my mind and in my heart...then, I merely execute it." Sometimes, it takes a couple of weeks or even months in deciding upon the design before I initiate my work. I continue to learn in doing my work. The work continues to evolve, sometimes with changes or accidents. From time to time, inspirations, current events, and personal situations become references. If not, just enjoy your dreams.



학력	1985 웨인주립대학교 예술전공 석사, 미시간, 미국
전시	1975 동부미시간대학교 예술전공 학사, 미시간, 미국 2020 《2020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잉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2005 《스트레튼 이야기 속에서》, 프와빅 포터리 갤러리, 미시간, 미국
수상	2020 추천상, 대만도자비엔날레, 신베이시 잉거 도자 박물관, 신베이, 대만 2020 입선, 미시간 세라믹스 2020, 미시간 도자예술협회, 미시간, 미국
소장	- 신베이시 잉거 도자박물관, 신베이, 대만 - 한국도자재단, 인천, 한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17 제6회 창춘국제도자 심포지엄, 창춘갤러리, 장수성, 중국 2016 제5회 창춘국제도자 심포지엄, 창춘갤러리, 장수성, 중국
Education	1985 M.F.A., Arts, Wayne State University Art, Michigan, USA 1975 B.F.A., Arts, Eastern Michigan University, Michigan, USA
Exhibitions	2020 2020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05 In The Stratton, Gallery Pewabic Pottery, Michigan, USA
Awards	2020 Recommendation Prize, Taiwan Ceramics Biennale,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2020 Honorable Mentions, Michigan Ceramics 2020, Michigan Ceramics Art Association, Michigan, USA
Collections	-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Taiwan -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Korea
Residency / Workshop	2017 The 6th China Changchun International Ceramics Symposium, Changchun Art Gallery, Jiangsu, China 2016 The 5th China Changchun International Ceramics Symposium, Changchun Art Gallery, Jiangsu, China

"유황", 2020
자기점토, 콘6 유약, 메탈 러스터 유약, 1221°C

"Brimstone", 2020
porcelain, cone 6 glaze, metallic luster glaze, 1221°C
23 x 23 x 12

아만다 살로프 Amanda Salov

미국 USA

순간이란 일시적이며, 사라지고 흘러가는 것이다. 이 작품은 순간이 가진 특성 또는 순간에 대한 생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치환하여 표현한다. 점토는 이러한 순간들처럼 형태를 바꾸기가 쉽다. 그것들은 반투명하고 기늘게 늘어나서 강도와 성질에 변화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어떤 이유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이 빛이 침대 벽에 반사되어 들어왔다. 그 빛은 부드러운 복숭아빛의 기다란 사각형 모양이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곧 흐트러졌다. 이 순간 나는 세상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품은 그 순간을 옮겨놓은 것이다.

A moment is temporal: it disappears and flows. This work alters the characteristics or thoughts of a moment to a visible form. Clay is easy to shape, like a moment. As clays are translucent and stretched thin, these materials seem to change the strength as well as the quality. One morning, I was feeling sad for some reason, but this light was reflected on the wall in my bedroom and came to me. The light had a soft peach color in the shape of a long rectangle, but it was scattered as a train passed by. In that moment, I realized that the world kept moving. This work caught that very moment.

변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움이 된다. 나는 이 이분법에서 위안을 찾는다. 바다와 하늘에는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것들이 비춰진다. 나는 도자 조각과 설치작품에 이러한 것을 반영하려고 한다. 자연현상을 은유로 사용하고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변화에 중심을 잡는 닻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나는 내 작품이 요란하게 주장하기 보단 귀를 기울이는 작품이 되면 좋겠다. 안정감을 주지만 바다와 하늘처럼ダイナ믹한 작품이기를 바란다.

Some things change, others do not. It is helpful when we realize this. I find relief in this dichotomy. Though sea and sky keep changing, they reflect something lasting and stable. I intend to reflect such things in my ceramic pieces and installation work. I use natural phenomena as a metaphor as well as an anchor which keeps balance against the changes we face. I hope my work can listen rather than loudly insist. Though it evokes a stable feeling, I hope it can be seen as dynamic like the sea and sky.



아침 햇살 2020
자기점토, 안료, 황동, 케이블, 콘06a(1222°C)

Morning Light, 2020
porcelain, pigment, brass, cable, Cone 6a(1222°C)
91.45 x 9 x variable

학력	2007	미주리대학교 순수예술 전공 석사, 미주리, 미국
	2003	위스콘신대학교-화이트워터 캠퍼스 순수예술 전공 학사, 위스콘신, 미국
전시	2021	《프랙티스 & 웨이브-페이퍼클레이 일루미네이트드》, 풀러 크래프트 미술관, 매사추세츠, 미국
	2020	《연속체》, 포터리 노스웨스트, 워싱턴, 미국
수상	2018	선정, 예술가 프로젝트 보조금, 아티스트 트러스트, 워싱턴, 미국
	2018	선정, 월리 보조금, 포터리 노스웨스트, 워싱턴, 미국
소장	-	레이카비크 시각 예술학교, 레이카비크, 아이슬란드
	-	제인스빌 미술관, 오하이오, 미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17-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포터리 노스웨스트, 워싱턴, 미국
	2019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틀란틱 익스체인지, 레이카비크 시각 예술학교, 레이카비크, 아이슬란드
Education	2007	M.F.A., Fine Arts, University of Missouri, Missouri, USA
	2003	B.F.A., Fine Arts, University of Wisconsin-Whitewater, Wisconsin, USA
Exhibitions	2021	<i>Practice and Wave-Paperclay Illuminated</i> , Fuller Craft Museum, Massachusetts, USA
	2020	<i>A Continuum</i> , Pottery Northwest, Washington, USA
Awards	2018	Selected, Grant for Artist's Project, Artist Trust, Washington, USA
	2018	Selected, Wally Grant, Pottery Northwest, Washington, USA
Collections	-	Reykjavik School of Visual Arts, Reykjavik, Iceland
	-	Zanesville Museum of Art, Ohio, USA
Residency / Workshop	2017-	
	2019	Artist-in-Residence, Pottery Northwest, Washington, USA
	2019	Artist-in-Residence, Mid-Atlantic Keramik Exchange, Reykjavik School of Visual Arts, Reykjavik, Iceland

토마스 슈미트 Thomas Schmidt

미국 USA

이 작품은 추상적 *아상블라주로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도자예술의 복잡한 상황을 표현한다. 중국 징더전(경덕진)에서 레지던시에 참여할 때, 석고 뜨기로 만든 도자 모듈을 3D 프린트로 인쇄한 주형틀로 찍어낸 후 조립하여 복잡하게 뒤얽힌 네트워크를 제작했다. 이 '물질의 구름'에는 본체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자 조각들, 산업용 도자, 3D로 인쇄한 부분, 여러 곳에서 발견된 유물 오브제들이 붙어있다. 중국 도자기 역사 속 꽃장식을 변형한 듯, 표면은 징더전 숲의 이끼와 식물 사진을 디지털로 작업하여 만들었다.

This work expresses the complex situation of ceramic art in the post-digital era with abstract assemblage*. When the artist participated in a residency in Jingdezhen, China, he stamped the ceramic module made by plastering with a mold frame printed in a 3D printer, and assembled it to create an entangled complicated network. This “material cloud” has historically important porcelain pieces, industrial ceramics, 3D-printed parts, and artifacts found in various places on the main body. The surface was digitally made of moss and plant photographs of Jingdezhen Forest, as if it were a variation of the flower decorations found in Chinese ceramic history.

*아상블라주: 프랑스어로 '모으기, 집합, 조립'이라는 뜻으로 폐품이나 일상적인 용품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여 미술작품을 만드는 기법이다. 콜라주는 평면적인 회화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아상블라주는 3차원의 입체 작품적 성격이 강하다.

*Assemblage: In French, it means “collecting, gathering, assembling” and is a technique for creating artwork by combin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waste goods and everyday items. While collage is based on flat paintings, assemblage has a three-dimensional aspect.

나는 물질과 그 속성을 연구하면서 생기는 발견이라는 감각에 끌린다. 나는 몰드나 3D 스캐닝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물질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사진을 활용한다. 인쇄하고, 석고를 뜨고, 층을 만들고, 이미지를 왜곡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은 나를 매료시키는데, 우리가 쌓아온 역사처럼 오브제란 원래의 순간을 상기 시키거나 모호하게 하는 물질적 기억의 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경험이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변형이란 본래의 사건에서 좀 벗어 나지만 그 변형은 또 다른 새로운 진실을 담고 있기 마련이다.

I am attracted to the sense of discovery that comes from investigating materials and their properties. I use molding and 3D scanning methods and photographs to capture the moment of material. Printing, plastering, making layers, and distorting images are used. This process fascinates me because, like the history we have been building, the object is filled with layers of material memory that remind us of or obscure the original moment. Just as experience turns into memory, transformation deviates a little bit from the original event, but the transformation tends to contain another new truth.



학력	2009	알프레드대학교 뉴욕주립도예대학 도예전공 석사, 뉴욕, 미국
전시	2006	시카고예술대학교 도예전공 비칼로레아 과정, 일리노이, 미국
	2020	《미래 공예품》, 프로젝트브 아이 갤러리, 노스 캐롤라이나, 미국
수상	2019	《무형의 공예품》, 클레몬 비주얼 아트-리 갤러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국
	2017	선정, 미국 예술기부재단 기금, 볼튼 힐 건축 테라코타 코랩, 메릴랜드, 미국
소장	2016	선정, 노스캐롤라이나 예술 협회 펠로우십 기금, 노스캐롤라이나예술협회,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	디자인 소사이어티, 광둥, 중국
레지던시 / 워크샵	-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런던, 영국
	2018	디자인 레지던시, Na스페이스, 장시, 중국
	2015	아시아네라 본자이나 팩토리 레지던시, 후베이, 중국
Education	2009	M.F.A., Ceramics, New York State College of Ceramics at Alfred University, New York, USA
Exhibitions	2006	Baccalaureate Certificate, Ceramics,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inois, USA
	2020	<i>Future Artifacts</i> , Projective Eye Gallery, North Carolina, USA
Awards	2019	<i>Immaterial Artifacts</i> , Clemon Visual Arts- Lee Gallery, South Carolina, USA
	2017	Selecte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Grant, The Bolton Hill Architectural Terracotta CoLab, Maryland, USA
Collections	2016	Selected, North Carolina Arts Council Fellowship Grant, North Carolina Arts Council, North Carolina, USA
	-	Design Society, Guangdong, China
Residency / Workshop	-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2018	Design Residency, Na Space, Jiangxi, China
	2015	Asianera Bone China Factory Residency, Hubei, China

미래의 꽃, 2019
자기점토, 백유안료, 도자 디캘, 도자기 조각, 3D 프린터 된 석고, 혼합매체, 콘10(1330°C)

Future Flora, 2019
porcelain, satin white glaze, ceramic decals, pottery shards, 3D printed plastic, mixed media, Cone 10(1330°C)
48 x 40 x 46

토마스 슈미트 Thomas Schmidt

미국 USA

이 작품은 구겨진 종이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기존의 도자 타일 방식을 벗어난 요소들을 사용했다. 지형을 이루고 있는 15개의 백자 패넬은 5개의 석고 몰드로 찍어낸 것으로, 그대로 놓거나 바꿔 배치하면서 연속된 패턴이 되거나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 각 패넬은 흑연 파우더를 여러 겹 칠해서 만들었다. 이 샘플링 과정을 통해 종이와 펜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물질 현상에 대한 명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Inspired by crumpled paper, the work uses elements that deviate from traditional ceramic tiles. The fifteen white porcelain panels forming the topography are printed on five plaster molds, which are placed as they are or replaced, resulting in a continuous pattern or different pattern. Each panel was made by coating several layers of graphite powder. I hope that the memories we share about paper and pens will lead to meditation on material phenomena through this sampling process,.

나는 물질과 그 속성을 연구하면서 생기는 발견이라는 감각에 끌린다. 나는 몰드나 3D 스캐닝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물질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사진을 활용한다. 인쇄하고, 석고를 뜨고, 층을 만들고, 이미지를 왜곡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은 나를 매료시키는데, 우리가 쌓아온 역사처럼 오브제란 원래의 순간을 상기 시키거나 모호하게 하는 물질적 기억의 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경험이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변형이란 본래의 사건에서 좀 벗어 나지만 그 변형은 또 다른 새로운 진실을 담고 있기 마련이다.

I am attracted to the sense of discovery that comes from investigating materials and their properties. I use molding and 3D scanning methods and photographs to capture the moment of material. Printing, plastering, making layers, and distorting images are used. This process fascinates me because, like the history we have been building, the object is filled with layers of material memory that remind us of or obscure the original moment. Just as experience turns into memory, transformation deviates a little bit from the original event, but the transformation tends to contain another new truth.



학력	2009	알프레드대학교 뉴욕주립도에대학 도예전공 석사, 뉴욕, 미국
전시	2006	시카고예술대학교 도예전공 비칼로레아 과정, 일리노이, 미국
	2020	《미래 공예품》, 프로젝트브 아이 갤러리, 노스 캐롤라이나, 미국
수상	2019	《무형의 공예품》, 클레몬 비주얼 아트-리갤러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국
	2017	선정, 미국 예술기부재단 기금, 볼튼 힐 건축 테라코타 코랩, 메릴랜드, 미국
소장	2016	선정, 노스캐롤라이나 예술 협회 펠로우십 기금, 노스캐롤라이나예술협회,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	디자인 소사이어티, 광둥, 중국
레지던시 / 워크샵	-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런던, 영국
	2018	디자인 레지던시, Na스페이스, 장시, 중국
	2015	아시아네라 본자이나 팩토리 레지던시, 후베이, 중국
Education	2009	M.F.A., Ceramics, New York State College of Ceramics at Alfred University, New York, USA
Exhibitions	2006	Baccalaureate Certificate, Ceramics,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inois, USA
	2020	<i>Future Artifacts</i> , Projective Eye Gallery, North Carolina, USA
Awards	2019	<i>Immaterial Artifacts</i> , Clemon Visual Arts- Lee Gallery, South Carolina, USA
	2017	Selecte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Grant, The Bolton Hill Architectural Terracotta CoLab, Maryland, USA
Collections	2016	Selected, North Carolina Arts Council Fellowship Grant, North Carolina Arts Council, North Carolina, USA
	-	Design Society, Guangdong, China
Residency / Workshop	-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2018	Design Residency, Na Space, Jiangxi, China
	2015	Asianera Bone China Factory Residency, Hubei, China

공간 표본 연작, 2020
자기점토, 가루 흑연, 콘04(1060°C)
Sampled Spaces Series, 2020
porcelain, powdered graphite, Cone 04(1060°C)
184 x 110 x 9

데이지 퀘자다 우레냐 Daisy Quezada Ureña
미국 USA

〈브로탄테 나무숲〉은 *리오그란데, 나무숲,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대화를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생겨난 상호작용과 도자 작업을 담은 기록이다. 이 기록적 작품은 밀접하게 연관된 생태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협업자들(Tewa Women United, Cochiti Pueblo, and San Agustín, Chihuahua)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이 프로젝트는 생태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협업자들을 감정과 지성으로 단단하게 결속시키며, 대화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첫 단계였다. 다음 단계로 참여자들은 각각 그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의류를 내놓았다. 이 옷들은 제작 과정을 거쳐 아몬드처럼 생긴 도자기 씨앗으로 탈바꿈했다. 이 씨앗은 참여자들의 지역에서 자란 토종식물을 의미한다.

Bosque Brotante is a record of the interaction and ceramic works generated as a result of the sharing and exchange of dialogues regarding the Rio Grande*, the forest (or bosque in Spanish), and its surrounding region. This work recorded the voices of the collaborators (Tewa Women United, Cochiti Pueblo, San Agustine, and Chihuahua) who discussed the closely-linked ecological relations. This project firmly unites these collaborators with emotions and intelligence, and it was the first step to sharing their knowledge through conversation. In the following step, the participants presented clothing that expressed their respective understandings of the region. This clothing was changed into almond-shaped ceramic seeds, which symbolize the native plants in the region.

*리오그란데(Rio Grande):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흐르는 강

*Rio Grande is a river which flow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멕시코와 미국에서 문화적 배경을 쌓은 나는 쉽게 논의 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외면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목소리를 실체화하고자 한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이슈들-이민, 성 불평등, 노동, 계급 문제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속한 문화권에서 소외되게 만든다. 도자기 제작기법을 빌어 자기토를 사용해서 옷을 변형시켰다. 각각의 도자 부분들이 지니는 취약한 내부는 과거의 상태를 각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표면화되고 정리된 정체성의 정점이다.

Understanding both Mexican and American culture, I deal with social issues that are not frequently discussed and materialize the voices of the identity which are most important but which are being ignored.

Issues linking individuals to society such as immigration, gender inequality, labor, and class cause people to become intimidated and alienated from their own culture. I transformed the clothes using porcelain with ceramic manufacturing techniques. The fragile interior of each porcelain stamps the past, which is the peak of the revealed and organized identity.



학력	2014 델라웨어대학교 순수예술전공 석사, 델라웨어, 미국
	2012 산타페예술조형대학교 스튜디오아트전공 학사, 산타페, 미국
전시	2021 《Daisy Quezada Ureña》, No Land, 뉴멕시코, 미국
	2021 《토착민 여성: 경계의 문제》, 윌라이트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 뉴멕시코, 미국
수상	2020 CHARLA 보조금, 마조르카, 미국 라틴 아트 포럼, 매사추세츠, 미국
소장	- 에밀리 카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 후베이 예술학교, 후베이, 중국
레지던시 / 워크샵	2016 워크샵, 이민/이주,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뉴멕시코, 미국
	2016 국제 도자네트워크, 이천도자축제, 이천, 한국
Education	2014 M.F.A., Fine Arts, University of Delaware, Delaware, USA
	2012 B.F.A., Studio Arts, Santa F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Santa Fe, USA
Exhibitions	2021 Daisy Quezada Ureña, No Land, New Mexico, USA
	2021 Indigenous Women: Border Matters, Wheelwright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New Mexico, USA
Awards	2020 CHARLA Fund, Mazorca, US Latin Art Forum, Massachusetts, USA
Collections	- Emily Carr University, British Columbia, Canada
	- Hubei Institute of Fine Arts, Hubei, China
Residency / Workshop	2016 Workshop, Immigration/Migration, Santa Fe Art Institute, New Mexico, USA
	2016 Ceramics Interlocal Network, Icheon Ceramics Festival, Icheon, Korea

브로탄테 나무숲, 2020
프린트, 도자, 콘6(1222°C)

bosque brotante, 2020
print, ceramics, Cone 6(1222°C)
152.4 x 304.8 x 74.93

데이지 퀘자다 우레냐 Daisy Quezada Ureña

미국 USA

투광조명 아래 도자기 재킷이 박힌 콘크리트판이 놓여 있다. 그 옆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흙을 담은 포대가 쌓여있다. 병렬로 놓인 이 구조는 소외를 지속시키는 분리주의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주자들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매스컴과 뉴스 리포터에 주목하여 작품 <팝니다>는 사람에 대한 그들의 시선을 비판한다. 매스컴과 뉴스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인식은 부재하다. 인식의 부재는 모니터나 인쇄물의 마지막 수신처에 있는 일반 대중들이 사고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 상호주의 행동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A concrete slab embedded with a porcelain jacket sits below a flood light. Beside the slab, sacks to put in soil from the US-Mexican border are piled up. This parallel structure tells about the separatism that sustains alienation. Focusing on influential media and news reports which talk about the migrants, *Se Vende* ("It Sells" in English) criticizes the media's view on the migrants. Though the media is aware of the situation, it lacks self awareness. This lack of awareness leads the public, who are at the end tip of the monitors or printed materials, to not think. Reciprocal behavior by which people do not pursue their own interests or think only about themselves is inherent.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person can be set free from what they see.

멕시코와 미국에서 문화적 배경을 쌓은 나는 쉽게 논의 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외면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목소리를 실체화하고자 한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이슈들-이민, 성 불평등, 노동, 계급 문제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속한 문화권에서 소외 되게 만든다. 도자기 제작기법을 빌어 자기토를 사용해서 옷을 변형 시켰다. 각각의 도자 부분들이 지니는 취약한 내부는 과거의 상태를 각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표면화되고 정리된 정체성의 정점이다.

Understanding both Mexican and American culture, I deal with social issues that are not frequently discussed and materialize the voices of the identity which are most important but which are being ignored.

Issues linking individuals to society such as immigration, gender inequality, labor, and class cause people to become intimidated and alienated from their own culture. I transformed the clothes using porcelain with ceramic manufacturing techniques. The fragile interior of each porcelain stamps the past, which is the peak of the revealed and organized identity.



학력	2014 델라웨어대학교 순수예술전공 석사, 델라웨어, 미국
	2012 산타페예술조형대학교 스튜디오아트전공 학사, 산타페, 미국
전시	2021 <Daisy Quezada Ureña>, No Land, 뉴멕시코, 미국
	2021 <토착민 여성: 경계의 문제>, 윌라이트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 뉴멕시코, 미국
수상	2020 CHARLA 보조금, 마조르카, 미국 라틴 아트 포럼, 매사추세츠, 미국
소장	- 에밀리 카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 후베이 예술학교, 후베이, 중국
레지던시 / 워크숍	2016 워크샵, 이민/이주,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뉴멕시코, 미국
	2016 국제 도자네트워크, 이천도자축제, 이천, 한국
Education	2014 M.F.A., Fine Arts, University of Delaware, Delaware, USA
	2012 B.F.A., Studio Arts, Santa F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Santa Fe, USA
Exhibitions	2021 Daisy Quezada Ureña, No Land, New Mexico, USA
	2021 Indigenous Women: Border Matters, Wheelwright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New Mexico, USA
Awards	2020 CHARLA Fund, Mazorca, US Latinx Art Forum, Massachusetts, USA
Collections	- Emily Carr University, British Columbia, Canada
	- Hubei Institute of Fine Arts, Hubei, China
Residency / Workshop	2016 Workshop, Immigration/Migration, Santa Fe Art Institute, New Mexico, USA
	2016 Ceramics Interlocal Network, Icheon Ceramics Festival, Icheon, Korea

팝니다, 2019
자기점토, 흙, 콘6(1222°C)

Se Vende, 2019
porcelain, earth, Cone 6(1222°C)
243 x 101 x 122





Commentary by Jurors

1st Online Jurors

강재영 (한국)

- 맹그로브아트웍스(주) 대표
- 前 예술감독 (2021 밀라노한국공예전)
- 前 총감독 (F1963 문화재생사업)
- 《중국 난징트리엔날레 아시아》(2008), 《Wire Connected World》(2013) 기획
- 경기도지사 표창(200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1995)

박남희 (한국)

- 홍익대학교 MR Media Lab 연구교수, 도시예술공동체 대표
- 前 교육사업본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 2019 예술감독 (2019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 2013 전시감독 (2013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아시아의 손과 색_쪽빛의 세계』(2016), 『한국 미술과 여성』(2015) 등 저술

애나벨 캠벨 (영국)

- 영국공예청 전시기획 및 소장품 관리팀 팀장
- 현 국제위원 (박물관협회, SSN영국세라믹)
- 《콜렉트오픈》(2015-2020), 《여성공예상》(2017), 《HClub100인상》(2017-2019) 등 심사위원 역임

엘리자베스 아그로 (미국)

- 필라델피아미술관 큐레이터, 공예비평포럼 공동설립자
- 前 어소시에이트 큐레이터 (카네기미술관)
- 2015 국제자문위원 (201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심사위원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뤄핀창 (중국)

- 경덕진도자대학교 총장
- 현 총장 (중국예술인협회)
- 현 부회장 (중국조각기관)
- 현 국제도자아카데미(IAC) 회원
- 심사위원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 심사위원 (제12회 중국조각예술전)

피파 딕슨 (호주)

- 멜버른대학교 아시아링크 아트 디렉터
- 前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아일랜드)
- 前 디렉터 (아트&컬처 컨설턴트)
- 2012-2015 글레노키예술조각공원 설립
- 2017-2019 국제자문위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2015-2018 위원 (시각예술협회)

Jaeyoung Kang (Korea)

- Chair of Mangrove Artworks
- 2020-2021 Artistic Director, Milan Design Week 2021 Korean Craft
- 2015-2017 Director, F1963
- Curated 3rd *Nanjing Triennial Asia*(2008), *Wire Connected World*(2013)
- Gyeonggi Province Governor’s Commendation(2001),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endation(1995)

Namhee Park (Korea)

- Research Professor of MR Media Lab at Hongik University, Chair of City Arts Community
- 2016-2020 Director, Education Business Division in Asian Cultural Center at the National Asia Culture Center
- 2019 Director, 2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Arts
- 2013 General Curator,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2013
- Authored *Hands and Colors of Asia_The World of Indigo*(2016), *Korean Art and Women*(2015)

Annabell Campbell (UK)

- Head of Exhibitions and Collections at Craft Council
- International Committee, Museums Association and SSN British Ceramics
- Juror, Collect Open(2015-2020), Woman’s Hour Craft Prize(2017), HClub 100 Awards(2017-209)

Elisabeth Agro (USA)

- Curator at Philadelphia Museum of Art, Co-Founder of Critical Craft Forum
- 1996-2006 Associate Curator, Carnegie Museum of Art
- 2015 International Advisor,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2015*
- Juror, 8th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omeptition

Lv Pinchang (China)

- President of Jingdezhen Ceramic University
- Director, China Artists Association
- Vice President of China Sculpture Institute
- Member,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
- Juror, 8th *Gyeonggi International Cermaic Biennale* International Competition
- Juror, 12th *National Art Exhibition Sculpture Exhibition*

Pippa Dickson (Australia)

- Director of Asialink Arts from University of Melbourne
- 2017-2018 Director, Creative Island
- 2016-2018 Director, Arts & Cultural Consultancy
- 2012-2015 Founding CEO, Glenorchy Art and Sculpture Park
- 2017-2019 International Advisor,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 2015-2018 Board Member,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Visual Arts(NAVA)

강재영
Jaeyoung Kang

코로나19 라는 인류의 위기 앞에서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 출품한 전세계 참여 도예인들의 열정과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응모한 도예가들의 출품작을 통해 현대도자예술의 현재성과 창조적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된다. 특히, 지구의 껍데기인 흙을 매개로 한 도자 예술은 흙과 불과 도예가들의 창조적 조형이 결합된 인류의 오랜 전통과 혁신을 고민해 온 장르이자, 지구 온난화와 환경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물질문명에 대한 반성과 정신적 치유의 도구로 각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디지털 기계 문명과 상반되는 자연의 소재와 손이라는 창조적 원천은 그 원초적인 힘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응집체로서의 매력을 발산한다.

2021년 제11회 국제공모전 온라인 심사는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28개국 69명 76점을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하였다. 작품의 예술성, 제작기법의 완성도, 창의성을 중심으로 작품 심사 기준을 삼아 온라인 심사에 임하였다. 실재 작품을 보기 전, 이미지와 테크닉, 해설만으로 작품의 우수함을 가리는 일은 어렵다. 또한 비대면으로 직업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심사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과정이기에 정교하고 미세한 차이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감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온라인 심사의 다득표수를 얻은 작품들로 실물 심사와 전시를 거쳐 다양하고 풍부한 현대도자의 세계를 만나는 단초를 세운 것이 의미 있는 시작 단계로 여겨진다.

이번 국제공모전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도자보다 조형도자가 양적으로 앞선 편이고, 도자와 타장르의 융합과 실험적 형식의 작품들이 많은 편이다. 이는 현대예술에 있어서 도자라는 매체의 물성을 잘 드러내면서도 사회적, 문화적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품의 내용면에서 보면 코로나의 위기에서 야기된 정신적 치유라든지, 흙의 물성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발현,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진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이는 작가들의 창작 의도가 단순히 테크닉의 연마와 제작 프로세스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흙을 매개로 한 도자예술의 전통과 실험,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의 경향을 보면, 도자의 전통적 기의 형태를 띤 단독 작품에서부터 그 작품들의 조화를 이루며 군집한 설치작품들, 도구로서의 쓰임과 도자를 둘러싼 고유의 문화적 맥락을 보여주는 작품들, 꽃, 나무 등 자연의 형상 및 인물을 묘사한 작품들, 도자와 타 재료의 융합과 소리와 퍼포먼스, 영상 등 이질적인 요소들의 융합을 통한 극적인 미장센을 연출 하는 작품들까지 다양하다. 또한, 도자예술에서 없어서는 안될 불의 힘이 자아내는 창조와 파괴, 우연의 효과가 만들어내는 도자예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은 도자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이렇듯 이번 공모전의 작품 성격을 정의한다면 대략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단히 도자 고유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가진 도자의 정체성이 강화된 작품군, 도자의 기능과 형태를 벗어나면서 도자의 한계를 실험하려는 작품군, 흙 본연의 물성과 문화적 토양과 민속적 메시지

를 담은 영상 작품군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온라인 심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주최국의 작가들의 지원률이 높아 한국 작가들이 약 30%를 차지하고, 아시아, 유럽, 미주 순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도자 기법이나 테크닉은 대륙별로 전통기법에서 실험적 현대기법까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흙의 소지, 색소지의 사용, 흙과 타 재료와의 융합, 불의 온도에 따른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한 소성 방법 등이 그것이다.

주제나 표현 면에서는 세계적 보편성을 띠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번 공모전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설치와 영상 작업들인데, 문화적, 역사적 토양과 배경을 반영한 서사적 스토리 위주의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이제 작가주의와 작품주의에서 벗어나 도자예술의 맥락적 흐름과 사회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다루려는 작가들이 증가한다는 것이 새롭게 발견되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물성과 매체를 넘어 소리와 빛, 냄새 등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측면을 다룬다거나, 인간의 내면과 의식의 흐름을 반영한 실험작들도 주목할 만하다.

이제 더 이상 도자예술을 공예의 범주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닌 세계의 전반적인 문화와 현대미술의 맥락 속에서 흙을 매체로 한 작업들의 의미와 가치, 그 가능성을 통해 다양한 이슈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제공모전을 통해 도자예술의 현 흐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21세기 현대 도예가들의 미술사적 맥락과 위치를 가능하고, 도예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이 소개되길 바란다.

I applaud the ceramic artists who enter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2021 for their passion and for taking up the challenge in the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worst global crisis of our time. Through the entries by ceramic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be that Asia, the Americas, Europe, or Africa, not to mention Korea—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ssesses contemporary ceramics and looks into the future of creative ceramics. Noteworthy, ceramic art using clay, the skin of planet earth, as a medium is a genre of art that has involved conflict between time-honored tradition and innovation incorporating clay, fire, and creativity for formative arts. I think that now is an important time for ceramics because it can be showcased as means to reflect on material civilization and to heal the mental trauma amid the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crisis facing all of us worldwide. The material from nature and hands of potters, the source of creation, make a striking contrast with digital civilization and attract our interest as an aggregate of energy created by fundamental force.

After three rounds of preliminary online screening, 76 works by 69 artists from 28 countries were selected. The jury considered artistry, production techniques, and creativity in their assessments. Choosing winners is always a challenge when there are so many fine works, especially when it must be done with only images and statements by the artists. The situation was all the more challenging in that the voting process had to be conducted remotely by jurors hailing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different professions. This naturally rendered close consideration of the elaborate and delicate differences of works much more difficult. However,

I think that those works that won the most votes in the online screening will indeed present to the audience the true diversity and dynamism of contemporary ceramics.

Most of the entries to the competition were sculptural, as opposed to ceramics for use,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works crossed genres and involved great experimentation. This clearly shows that artists all around the world today want to communicate social and cultural messages through their works while revealing the properties of the medium called ceramics. A greater number of works submitted deliver serious messages about healing the mental trauma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respect for the properties of clay and cultural manifestation, and attitude towards matter. This shows that artists today intend to do much more than merely perfect their techniques and production processes and that they are simultaneously exploring tradition and innovation and contents and forms of ceramic art using clay as a medium.

Looking at the entries, we can see that there was an extremely wide range of works, from single pieces of typical traditional vessel shapes to installations consisting of groups of single pieces harmoniously arranged, to works showing the purpose of ceramics as a tool and works showing the cultural background unique to ceramics, works depicting shapes from nature such as flowers and trees as well as human figures, and to works producing dramatic mise-en-scène by combining ceramics with other elements such as sound, performance, and films. Also presented were works that reveal the identity of ceramic art through creation, destruction, and accidental effects brought by the power of fire, thereby answering the question about the true nature of ceramic art.

The entries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is year can b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those with the intensified identity of ceramics incessantly seeking to discover the inherent nature of ceramics and returning to it; those experimenting with the limit of ceramics while breaking away from the function and shape of ceramics; and those with films showing the inherent properties of clay and the cultural soil communicating folk messages.

Korean artists account for about 30% of the total entries, the largest percentage from any single country. The entries from other regions were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in the order of Asia, Europe, and the Americas. The wide diversity of pottery making techniques and skills of different continents is evident, from traditional techniques to experimental contemporary techniques to use of clay bodies and colored clay bodies, combinations of clay with other materials, and firing methods that involve diverse techniques according to temperature.

Global universality is the most salient feature. Particularly noteworthy in this competition are installations and films, and those with narratives that reflect cultural and historical soils and backgrounds stand out the most of all. Interestingly, artists today are increasingly willing to address the contextual flow of ceramic art and the issue of social and

ethical practice, breaking away from auteurism and artwork itself. Also noteworthy are experimental works dealing with the non-visible and nonmaterial, such as sound, light, and smell, and those that reflect the human mind and flow of consciousness far beyond properties and media.

Ceramic artists today no longer see ceramic art as something to be interpreted within the category of crafts. They are dealing with diverse issues as they are exploring meanings, values, and potentials of works using clay as a medium in the context of global culture and in the currents of contemporary art. I hope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is year presents the current trends of ceramic art and suggests its direction for the future, assesses the context and position of contemporary ceramic artists of the 21st century in the history of art, and introduces new attempts and experimentation of ceramic artists.

<div><div></div>박남희</div>
Namhee Park

개인적 아픔과 통제된 일상을 넘어, 다시 예술의 풍경으로

21세기로 접어들어 인류 최대의 위기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공격일 것이다. 오존층, 빙하, 지형, 기후 등의 변화로 예고되었던 지구환경의 이상 징후는 익숙해졌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대면 위주의 삶의 패턴을 비대면으로 혹은 일시 중단으로 전환하면서 당연시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했다. 역사가 기록하고 동시대인이 기억할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생태계의 균열은 인류의 생존과 예술의 가치를 다시 묻게 한다. 코로나19 발발 전 자본과 문화의 위력을 무너뜨리며 자연의 섬세한 지층과 물질 그리고 이와 협력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류의 생태적 각성이 보다 확산되어 가고 있다.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이 같은 대전환의 시기, 예술가들의 시대적 불안과 혼란을 드러낸 작업들이 선보였다. 개인적 아픔과 통제된 일상의 시대상이 아름다운 불편함의 메타포로 표출된 Ting Kwok Leung, Canada)의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Just Married〉는 무엇보다 공감을 불러 일으킨 작업이다.

이를 필두로 출품작 총 2,503점은 갑작스런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스런 세계에서의 인류 생존과 환경에 대한 자각과 불투명한 미래에서의 예술적 자의식의 표출인 것이다. 도자의 담론만이 아니라 생존의 고민이 컸던 시대에 따른 결과로 도자 자체의 깊은 사유나 실천보다는 인류공통의 환경 변화와 삶의 치열함, 그리고 새로운 예술적 시도가 구현된 상황으로 독해 되었다. 여기에 공모전 출품작들 간의 작품성과 완성도의 편차가 컸던 것도 불안한 동시대의 단절적 상황의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전은 동시대적 감각이 다소 불안한 시대적 심리 양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전통에 대한 표현적 변형과 응용’, ‘제작 중심의 오브제로부터 메시지 환기의 퍼포먼스와 영상의 등장’, ‘메타포와 서사적 설치 경향’, ‘물질(질료)과 기법의 다각적 실험’ 정도 등의 양상으로 주를 이루었다.

먼저, ‘전통에 대한 표현적 변형과 응용’의 양상은 현대 도자 전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장면이 아닐수 없다. 기법이나 양식적 특징에서 변화가 아니라, 감각적 표정과 이질적 재료를 결합하거나 리서치에 기반한 형태 연구를 통해 제작과정의 고정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으로 이행되는측면에서 단순한 소재주의나 양식적 변화에 대한 강박이 소거된 것으로 읽힌다. 이는 전통적인 기형, 예를 들어 ‘달항아리’와 같은 모티브의 동시대적 의미와 양식의 재맥락화로 압축할 수 있다. 물론 기(器)에 충실하던 서도 이를 변형해가는 작업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질료나 이질적 결합에 대한 시도가 분명히 많아졌다. 다만 전통적 형식의 소재를 활용한 변형이라 했을 때 주제의식이나 관점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새로운 질료나 기법을 시도한 작업들 역시 3D프린트 기법의 1차원적 사용에 그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광섬유나 새로운 디지털 결합 방식 등도 대체로 가벼운 터치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통에 대한 다각적 접근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통이 전승이 아닌 새로운 시간성과 표현성의 시도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충분히 의미있다.

다음으로, ‘제작 중심의 오브제로부터 메시지 환기의

퍼포먼스와 영상의 등장’은 다른 차원의 관점과 태도로 읽힌다. 이번 공모전에 영상 작업이 다수 있었는데, 대체로 퍼포먼스 기반이었다. 퍼포먼스와 영상 기록은 필연적인 소통과 저장 방식이다. 이는 질료를 토대로한 형상 작업에 비해 사건이나 장면 기반의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선택되거나, 최근 코비드19로 인한 대면의 일상이 중지된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자 한 방법일 수 있다. 어떤 관점이거나 간에 도자 영역에서 영상은 퍼포먼스의 기록이라는 맥락이 아니라 작업의 일상에 대한 심리적 이해나 사건성의 형태로 드러난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몇몇 작업이 도자의 원천적 물질인 마른 흙과 물을 이용한 인간의 행위라는 의미를 환기시키며 소재와 태도 면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열린 형식의 구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다. 또한 영상의 시도가 보다 밀도 있는 본연의 작업으로서 드러나기 보다는 작가의 작업세계와 무관하거나, 도자의 물질성과 행위를 상기시키는 것에 그친다면, 영상이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표현 형식으로서 사용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런 퍼포먼스 토대 위의 영상만큼이나 설치의 사례들이 많이 등장한 것도 이번 공모전의 특별한 상황이다.

‘메타포와 서사적 설치 경향’으로 드러나는 세 번째 양상은 하나의 대상 자체에 대한 집요함 보다 작업의 맥락과 메타포를 부각시키는 동시대 도자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작가의 메시지를 리서치와 서사 맥락의 구조를 통해 드러내는 일군의 작업과, 형상의 차이와 반복에 의한 강조의 작업으로 드러나는 이 같은 양상은 상황성의 제시와 물성의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시대 예술 전반에 걸쳐 있는 상황성과 물성의 담론 가능성이 도자를 질료를 통해 보다 명중한 사건성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 가운데 주제의식과 재현의 조밀하고 효과적인 설치로 이어지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단편적인 효과에 그치는 작업들도 없지 않다. 즉 설치는 작가의 예술철학이 열린 독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업을 공간에 복수적으로 놓는 것으로 설치 효과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설치의 상황성이나 확장 가능한 담론으로의 이행은 가장 철저한 개념과 형식 이 마련되어야 하며, 만약 이 같은 철학적이고 구조적인 메타포의 설치로 부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질료와 기법에 보다 방점을 두는 것이 더 솔직하고 근본적인 일임은 지극히 실질적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물질(질료)과 기법의 다각적 실험’은 도자의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접근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두드러졌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통의 기 형태이든지 현대적 감각의 오브제이던지 간에 태토와 유약 그리고 표현의 다양성은 여전히 현대 도자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들로 이어져오고 있다. 형상과 질료는 작가의 오랜 수행적 숙련의 시간을 예비하게 하고, 이를 첨예한 혹은 탁월한 자신의 예술언어로 구현하는 데는 다각적 실험은 필연적이다. 어느 작품도 완성이란 순간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작가의 경험적 눈과 손에 의해 선택된 그 때인 것이다. 이미 많은 작업의 경험을 가진 작가들도 언제나 결정의 순간에 망설임은 있다. 이는 오직 수행성의 시간과 시행착오의 경험 그리고 미적 판단을 이끄는 안목에 의해서만 이끌릴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집요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질 실질적인 작업의 여정인데, 신진과 중견의 작가들 모두 스스로의 독창성과 실험성을 보다 첨예하게 연마하는 과정에서 여러 작업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경향의 공모작업들의 편차나 다각성이 큰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는 도자 공모전의 경험세계와 표현양상의

현주소를 보여준 국면이라 하겠다.

이들 양상들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말했던 ‘세계상’으로서, 도자 예술가들이 바라보고 재현가능한 하나의 상(Bild, 像)’으로 드러난 것으로 독해된다. 즉 작금의 세계상은 시간과 공간의 좌표축이 변수를 예견한 함수를 그린다는 사실과 함께, 동시대 매우 불안정한 2년의 사건성과 예술의 불편한 호흡 가운데서도 숨 고르기를 하는 작업들이 만들어낸 함축적 풍경으로 요약할 수 있다.

Back to the Landscape of Art, Overcoming Personal Pain and Restrictions on Everyday Life

Humanity has been attacked on all side by the coronavirus. The COVID-19 pandemic is the worst public-health crisis in a century. The global environment has shown symptoms of the disaster, which was forewarned by ozone depletion, the melting of glaciers, variations in topography, and climate change. Face-to-face interaction gave way to non-face-to-face interaction or to complete sever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we could no longer freely move around as we were so accustomed previously. All of this caused us to look back yearningly for what we once took for granted. The enormous loss of life caused by the coronavirus will be recorded in history and remembered by contemporaries, and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wrench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nge are causing us to ask again about the survival of humanity and value of art. The COVID-19 pandemic has awakened us more and more to the need for the protection of geological strata and substances and humans living with nature in cooperation, while destroying the power of capital and culture. Not surprisingly, the entries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 2021 revealed the anxiety and chaos suffered by the artists this past year, a time of great transformation. Many works like *Just Married* by Ting Kwok Leung from Canada, which is a metaphor of the personal pain and the tightly controlled everyday living of today presented as beautiful inconvenience, resonated with us very strongly.

The 2,503 works entered to this competition are expressions of realization of human survival and the environment in the chaos caused by sudden attack of the pandemic and the artistic sense of identity in an uncertain future. This is a result of us living in a time where survival is a great issue. We understand many of the entries as works that embody the environmental change that affects all of us and the fierce competitiveness of life and as new artistic attempts at something new, rather than deeply thinking about ceramics itself or practicing it. There was a readily apparent change among entries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erms of artistic presentation and degree of perfection, which bespeaks of the great anxiety caused by the social isolation. Even so, many of the works were about ‘expressive trans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radition,’ ‘shifting away from production-oriented objects to emergence of performance and video works with important messages,’ ‘trend of metaphoric and narrative installation,’ and ‘wide-ranging experimentation with materials and techniques.’

'Expressive trans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radition' are very important in contemporary ceramics. Together, they are understood as a break from the obsession with simple subject matters and change in forms and a shift toward free expression while finding the way out of rigid production methods. They combine sensuous expression and different materials or explore new forms, rather than changes in techniques or styles. This aspect can be summarized as re-contextualization of contemporary meaning and tradition form including, for example, a motif like dal-hangari (moon jar). Of course, there are works that transform vessels while remaining faithful to the concept of the vessel. Even so, it is evident that many of the artists used new materials and crossed over into other genres. However, it would be better if transformation based on traditional subject matters revealed themes and viewpoints more explicitly. Some works, however, though made of new materials or by new techniques, were little more than banal, uninteresting products of 3D printing or light touches of optical fiber or digital technology. Nevertheless, it was clear that expressive trans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radition can lead to new approaches to tradition from various angles. The fact that tradition was connected to attempts for new temporality and expressiveness, rather than merely holding up tradition, is very meaningful in itself.

Next is ‘the shift from production-oriented objects to emergence of performance and video works’ with important messages. We understood this as a set of different standpoints and attitudes. There are number of video works in this competition, most of which are performance-based. Performance and filming are effective means of communication and storage. This type of work is chosen as scene-based or event-based and is more convincing than material shaped work. This can be an alternative way to continue communication amid the disruption in face-to-face communic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atever the standpoint is, video works in the field of ceramics express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r the form of an event about everyday practice of work rather than recording of performance. This can be clearly understood as new attempts. Several works invoked ceramics as human activity using dry earth and water, the source materials for ceramics, showing a similar aspect in terms of materials and attitudes, which feels somewhat unsatisfying in that they did not fully use the structure of open form. Also, if video work does not address the artistry of the artist or only recalls the materiality and movement of ceramics and is not substantial work of the artist, there is no need to use video work as an absolute and aggressive form of expression. As any installations as performance-based video works were submitted to the competition this year, which is very unusual.

The third aspect, 'metaphor and narration of installations', highlights the context and metaphor of work rather than obsession with certain objects, which is a prominent feature of ceramics today. The communication of messages of the artist by series of works done through

research and structure of narrative context, and works emphasizing differences and repetition of shapes, can be summarized as suggestions of the situational context and expansion of properties. Works that reveal clearly proven cases through ceramics dealing with situational context, which applies to all genres of art today, and the possibility for discussion on properties caught my eyes. Among these works are those that connected thematic consciousness and reproduction to dense and effective installations, and others that yielded fragmentary effect. That is, the premise of installations is that the artist’s philosophy of art is composed of open comprehension structure, and that effect to be created by placing a multiple number of works in a space is not the goal of the artist. In order to proceed to situational context or expandable discussions, the artist should be extremely thorough in conceiving the concept and form. If the installation constructed with such philosophical and structural metaphor fails to become prominent, the artist should focus on materials and techniques.

Lastly, there is ‘wide-ranging experimentation with materials and techniques.’ This involves the artists making practical approaches to the fundamentals of ceramics. Whether it is about the shapes of traditional vessels or objects of contemporary touch, the clay body and glaze and diversity of expression are still challenged by creative and experimental attempts of contemporary ceramics. Shapes and materials require artists to spend long periods of time developing mastery, and an artist will inevitably experiment from different angles to realize hard-acquired skills in his own prominent artistic language. Although the moment of perfection is not fixed for any artwork, it occurs at the very moment determined by the discerning, experienced artist. Even artists who have already done so many works hesitate at the moment of decision. The moment of perfection depends only on endless hours of practice and trial and error, and aesthetical discernment. In this regard, this is a journey of practical work that artists must continue without relenting for a long time. All artists, new and established, presented diverse works in the course of perfecting their own originality and experimentation. Accordingly, it is a fact that there were tremendous deviation and diversity among the entries in this last aspect, which can be said to have shown the current state of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ceramics competition.

These aspects discussed above are what Heidegger calls ‘the world picture’ or ‘the world view,’ and they comprehend what are revealed as a picture seen and reproducible by ceramic artists. That is, the world picture today is where the coordinate axis of time and space determines the function that predicts variables. It can also be summarized as a connotative landscape created by works taking a breather in the midst of eruption of events in the tumultuous past two years and uncomfortable breathing of art.

애나벨 캠벨 Annabell Campbell

테마와 트렌드

금년 출품작들은 도자 예술이 품고 있는 방대한 예술적 범위와 잠재력을 잘 보여주었다: 판형을 활용하거나 손으로 혹은 틀 주입 성형으로 빚어낸 작품, 표면 유약 처리 또는 무유(無釉) 처리된 작품, 화려하게 장식된 혹은 옛 것의 느낌을 주도록 가공된 작품, 생소지(生素地)를 활용하거나 소성/무소성 과정을 통해 제작된 작품, 다양한 재료를 결합하고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 섬유, 플라스틱 등을 이용한 작품들이 정교하게 빚어진 도자기로 탄생한 것이다. 참가 작가들은 기능적인 형태를 구현하고, 도자기의 개념적 탐구를 모색하며, 조각, 설치미술, 수행적(performative) 예술의 성격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출품했다.

한 입선작의 작품 설명에서는 ‘도자기는 역사의 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021년의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표현은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온다. 국제 심사위원단이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76점의 입선작은 여러 측면에서 도자기가 역사의 지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도자기의 재료와 연관된 수많은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술적/가정용 활용, 기능적 유용성/무용성을 막론하고 점토(clay)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간과 형태를 조성하는 무한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카타르시스와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입선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은 도자 예술을 그 역사, 그리고 역사와의 연관성에 따라 명확히 분류할 수 없다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 도자 예술가들은 오랜 세월 예술계에 지속적인 공헌을 해 왔다. 선사시대의 도자기부터 고대 그리스의 암포라(amphora), 아시아와 유럽 도자예술의 부상,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에 이르기까지 도자 예술의 전통은 산업적 생산과 가정용 생산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점토라는 매체는 수많은 예술가를 매혹하였고 그들의 작품 활동에 스며들었다. 최근 10년 간 도자 예술가들은 국제 저명 예술 박람회와 공모전에서 점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14년 휘트니 비엔날레에서는 스티링 루비와 시오 쿠사카의 작품이 주목을 받았으며, 프리즈(Frieze) 예술 박람회에서는 니콜라스 포프, 단 맥카티, 레이첼 니븐, 클라라 크리스타로바, 해스 브라더스의 작품과 더불어 타구라 쿠와타의 기념비적인 역작이 프리즈 조각전에 전시되었다. 다양한 예술분야를 망라하는 저명한 시상식에서도 여러 저명한 도자 예술가들이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로에베(Loewe) 공예상에서는 제니퍼 리, 우먼스 아워(Woman’s Hour) 공예상에서는 포에베 커닝햄이 각각 대상을 받기도 했다. 켄 프라이스, 베티 우드만, 제시 와인, 마그달레나 오돈도, 제니퍼 리와 같은 기성/신진 도자 예술가의 작품은 상업 갤러리와 공공 갤러리의 러브콜을 받았으며,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에서 열린 예술가 아론 안겔의 《That Continuous Thing》, 예일대학교 영국 예술센터에서 열린 《Things of Beauty Growing》 전시회는 도자 예술에 관한 인식과 도자 예술 관람객의 변화에 일조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분야에서 확장되어 가는 도자 예술의 지평 속에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매회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특별한, 그리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며 집과

좁아진 생활 반경 속에서 현재의 일상을 살아가는 필자 자신에게도 이번 심사는 2,000점이 넘는 풍성한 현대 도자예술 작품 속으로 빠져들어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금년 공모전에 지원하고 출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작품이 입상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년 마다 열리는 저명한 국제 도자 행사인 금번 비엔날레 출품을 위해 새로이 빚어낸 작품들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고 싶다.

출품작의 면면을 보면, 규모 면에서도 손바닥 크기부터 건축물/조각품 규모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이 있었으며, 수행적/기능적, 추상적/구상적 성격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폭넓게 출품되었다. 금년 출품작은 현대 도자 예술의 모든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광범위한 작가들이 보여준 다양한 작품 속에서 몇 가지의 테마와 패턴, 그리고 현대 도자 예술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나타났다.

전세계적인 이슈, 인간과 자연세계 간의 관계, 개인적 범위부터 세계적인 차원의 콘텍스트(context)를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으며, 생태적 고민을 바탕으로 도자기와 합성/자연 재료를 정교하게 결합하여 개념적, 미학적 성취를 이뤄낸 작품들도 있었다.

이근우의 작품은 ‘자연과 자연계’를 표현하였으며, 김지호의 작품은 인간-동물 관계에 대해 조각적인 형태로 표현한 논문이라고 할 만하다. 작가들은 점토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감정과 집단/개인/인류의 상황을 고찰하고 명징하게 빚어내었다. 주세균의 작품은 항아리 설치물을 통해 전통과 근대성 간의 긴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았으며, 참여예술의 성격을 띤 홍근영의 작품은 설치물과 공동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점토라는 재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공유, 결합, 형성을 표현했다. 티나 블라스폴로스는 우정에 대한 찬사, 개인의 정신, 사랑받는 개인의 정수를 추상적 초상 속에 구현했다.

금년 출품작들은 구상적 형태 면에서 강점을 나타냈으며, 표현적, 추상적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은 규모와 형태 면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보였다. 제이슨 브릭스의 초현실적인 출품작은 초현실을 통해 미에 관한 의문을 탐구했고, 안중호의 하이퍼리얼(hyper real) 작품은 공간과 관계, 그리고 존재의 이야기를 창조해 냈다. 헬미 브루그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결함 flaw)은 형태와 재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노출된 것으로서, 강인함과 연약함 모두를 표상한다.

여러 출품작에서 등장하는 테마 중 하나는 바로 매체(재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다. 이도 페르베르의 출품작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던 점토라는 재료, 그리고 작품 제작과정의 본질을 규명하고 웨멘 듯한 흔적과 결합을 노출하고 있다.

도자기의 규범과 역할에 도전하며 색상과 유약활용, 규모 면에서 즉흥성을 표현한 춘 링의 출품작, 파괴 후 재건설된 형태를 구현한 이준의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세계가 처한 상황, 즉 정서와 정치, 사회 변화, (사회적 변동,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팬데믹 등) 현 시대의 이슈에 대한 예술적 대응을 표현하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한 작품들이 두드러졌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지용의 출품작은 거대한 규모의 조각과 건축 요소를 담은 과감한 시도를 하였으며, 매체의 전연성(malleability)와 강인함을 시험하는 조각적 작품을 빚어내고 거대한 체스 말을 현대 사회의 은유로 삼았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호소력 있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조성한 크롬의 작품이 지닌 세련되면서도 유약한 모습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의 영향을 잘 드러낸다. 환자용 들것이 가득한 항아리가 여정을 거치며 차츰 흩어져 가는 놀라운 이미지를 통해 현재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대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적 교류를 담아내고 있다.

도자기를 통해 출품 작가들은 모두 수백, 수천 년 간 이어 내려온 전통,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드러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의 모든 출품작이 ‘오늘이란 내일의 역사’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mes and trends

The submissions this year demonstrated the vast range and potential within the ceramic field: expertly thrown ceramic vessels – slab built, hand sculpted, cast moulded, glazed, unglazed surfaces, decorated, distressed, painted, raw, fired and unfired and combined mixed media, incorporating found objects, textiles, plastics and more. Artists submitted functional vessel forms, conceptual explorations of the vessel, sculptural, installation and performative work.

One supporting statement, by a selected maker states ‘pottery as an indicator of history’. Here in 2021, this phase takes on a new resonance. These 76 works selected via three rounds of selection by an international panel, are in many ways testament to this.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the many histories associated with the material allows for engagement wit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From sculptural to domestic, functional to frivolous, clay is both cathartic and prolific in potential allowing boundless interpretation that gives space and form to the world we inhabit.

The selected makers and their work are testament to the belief that ceramic practice cannot be pigeonholed according to its history and associations. Artists working with ceramics have steadily contributed to the art world for centuries. From prehistoric pottery to ancient Greek amphoras, from the rise of porcelain in Asia and Europe to the Arts and Crafts movement in England and the U.S., ceramic traditions have mediated industry, domestic making. The clay medium has fascinated artists and infiltrated their practices. Over the last 10 years, ceramic artists have become an increasingly visible internationally in significant exhibitions art fairs and competitions; 2014 Whitney Biennial prominently featured work by Sterling Ruby, Shio Kusaka; Frieze Art Fair featured Nicholas Pope, Dan McCarty, Rachel Kneebone and Klara Kristalova, The Haas Brothers, and monumental works by Takura Kuwata displayed in Frieze Sculpture. High profile cross discipline Awards and Prizes featured a number of outstanding artists working in ceramics; further, the top prize for Loewe, and Woman’s Hour Craft Prize going to ceramicists: Phoebe Cummings and Jennifer Lee. Commercial and public galleries celebrated works by emerging and established artists such as Ken Price, Betty Woodman, Jesse Wine, Magdalene Odundo, Jennifer Lee, and artist Aaron Angell’s *That Continuous Thing* with Tate St Ives, and Yale Centre for British Arts landmark

Things of Beauty Growing each serve to shift perceptions of and audiences for ceramic art. These are but a few examples of the expanding field each of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operate within.

In an extraordinary and challenging year for the world, it was a welcome distraction from the now quotidian routine of home and reduced compass of my world, to immerse oneself in a rich wealth of contemporary ceramics; infact over 2,000 submissions. The prize this year for all is the achievement of submitting and application, and for many, making new work for this esteemed world-renowned highlight in the ceramic art calendar that comes around only once every two years.

When reviewing the submissions; works – which spanned scale; from small, hand held, to large scale architectural in scale and sculptural; performative to functional; abstract to figurative: this year the applications covered all aspects of contemporary ceramic practice. Within this breadth of making and makers, a number for themes and patterns were visible, along with wider trends in contemporary practice.

Global issu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natural world, from personal to world-wide context, makers are driven my ecological concerns, creating works which see deftly combined ceramic, synthetic and natural materials intermingle, to conceptual and aesthetic ends.

Keun Woo Lee - nature and natural world, Jiho Kim's treatise on human and animal relationships with his sculptural forms. Artists use the clay medium to consider and articulate emotions, collective, personal and the human condition. Sekyun Ju's vessel forms, in a jar installation that critiques the tension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Geunyoung Hong's participatory work, sharing authorship for the installation, using the material qualities of clay to create an outlet for sharing, bonding and creating community. Tina Vlassopoulos presents a celebration of friendship and the spirit of the individual, the essence of a loved individual in an abstract portrait.

This year saw a strength in figurative forms, recognisable and abstracted seeing artists play with scale and form; the surreal works of Jason Briggs exploring questions of beauty through surreal, to Jungho Ahn's hyper real figures, creating narratives of space, relationships and being. Helmie Brugman's figures have flaws which are exposed as flaws in form and material process, displaying both strength and fragility.

A recurrent theme is the critique of the medium. Material unpicking and unpacking the nature of the clay and processes assumed, with stitch and flaws exposed, illustrated in the work of Ido Ferber,

There are spontaneous celebrations of colour, glaze, and scale – challenging the rules and roles of ceramics – illustrated by the work of Ling Chun, and the broken and reconstructed forms by June Lee.

It is no surprise that artistic responses to and

materialisation of current world situations: to emotions and politics, social change and contemporary issues – such as social change and justice and of course, the world changing global pandemic are prominent. This is manifest in a number of ways: large scale, sculptural and architectural bold statements creating sculptural work that tests the malleability and strength of the medium, Jiyong Yoon, giant chess pieces as metaphor for contemporary society. The pandemic is present in sophisticated, fragility of work by the powerful moving image mixed media works by KHNUM with the startling image of a stretcher packed pots, dispersed throughout a journey, capturing the spontaneous human interactions in this time of uncertainty and dislocation.

In working in clay, these artists each commune traditional and history that has exist over hundreds and thousands of years, and it is clear, the works here all 'signify today as a history of tomorrow'.

엘리자베스 아그로

Elisabeth Agro

어둠 속에 빛이 있다.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 출품된 전 세계 수천 점의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작품 속에 녹여낸 독특한 패턴과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 특별한 소지(clay body)나 제작 방식, 유약의 종류 혹은 사용법, 혹은 표면 장식의 새로운 활용 양식과 같은 – 가 분명히 드러났다. 큐레이터이자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수백 년 간 이어져 온 제작과정으로 회귀한 작품도 있었고, 과거의 제작과정을 재발견하여 현대화한 작품도 있었으며, 전혀 새로운 제작과정을 거친 출품작도 있었다. 또한 한 지역에서 싹튼 아이디어와 영향력이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황홀한 경험이 된다. 이번 2021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출품작들이 품고 있는 정신은 그 이전과는 아마도 전혀 다를 것 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과 그 전지구적 함의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작품의 원천이자 초점이 되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계획된 행사였기에, 주최 측은 2021년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가 2020년의 시대정신을 말 그대로 지배했던 불안, 혼란, 유례없는 전세계적 경험의 연대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리라.

수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에 2020년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인류 전체가 거리두기, 억압, 분열, 왜곡, 죄책감, 정치적 갈등, 고독, 죽음, 애도를 경험했다.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해 예리해진 감각과 높아진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계절, 자연과 같은 소박한 일에 감사하게 되었고, 건강과 생명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총 2,503점의 출품작이 품은 다양성과 무한한 상상력, 표현성, 높은 기술적 성취는 인류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의 스냅샷(snapshot)을 만들어 냈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각 출품작이 표상하는 뚜렷한 정서와 메시지는 커다란 감명을 주었으며 필자 자신의 경험과도 깊이 공명하는 것을 느꼈다. 각 출품 작가들이 지닌 트라우마를 생생하게 살피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비록 각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지만, 모두가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어휘들, 즉, 고립,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마스크 착용, 고독, 죽음 등이 출품작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여러 출품작에서 조각적 표현, 혹은 표면 장식의 모티프(motif)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인류가 가진 취약함과 감정적 요소가 비통함, 덧없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 민낯을 드러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 작품의 주제가 되어 점토로 빚어진 여러 표상으로 구현되었다. 일상 탈출의 깊은 욕망을 드러내거나 삶 그 자체에 천착한 출품작도 있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반에 있었던 화장실 휴지 사재기 사태, 인류의 삶을 장악한 화상통화 프로그램 Zoom을 꼬집는 작품도 있었다. 또한 작가들은 자연, 계절의 변화에 대한 (꼭 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제로 삼기도 했다. 자연 자체에 대해 새롭게 높아진 인식을 놀라움으로 받아들인 출품작도 있었다.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선언적으로 표현 하고, 기후 변화에 주목하며, 환경에 미치는 우리의 발자국(footprint)의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도록 촉구하는 작품도 있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억압과 정의, 편견, 권리, 포용, 정치적 갈등 문제를 주제로 한 출품작들이 가장 두드러졌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일상에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사람들의 일상과 국가가 셧다운(shutdown) 되면서 불의(injustice)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식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그에 따라 '진정으로 자유로운 이는 누구인가'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세계에 만연한 편견에 대한 시각을 넓히게 되었다. 봉쇄조치로 인해 우리는 혼자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반복적인 일상의 소음이 없어진 삶 속에서 바깥으로 눈을 돌려 타인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어 불의와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올해 공모전에 출품된 여러 작품에서 표현되었다. 잔혹함과 저열한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심사위원으로서 필자는 출품작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주제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2020년을 생각할 때 누구나 '격동, 피로, 혼란, 비현실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끈질기게 버텨 나가는 팬데믹의 속성, 그로 인해 발생한 전세계적인 타격은 인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 이었고,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이 심사평을 쓰고 있는 2021년, 우리는 벚꽃이 다시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다시 찾고 있다. 백신을 구하기도 점점 쉬워지고 있으며, 인류는 함께 지금의 고난을 천천히 헤쳐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2020년을 되돌아볼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던 한 해라고 믿고 싶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인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다시 찾았고, 오감을 새롭게 했으며,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되었다. 2021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는 어쩌면 2020년의 어두운 나날에 대한 연대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세계의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이 빚어낸 작품을 통해 인류가 품은 가장 밝은 면을 조명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모든 출품 작가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신중한 심사를 거쳐 국제 공모전에 입선한 도예 작가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대한민국 이천 경기도자미술관의 장엄한 홀에 열릴 입선작 전시회가 무척 기대된다.

In Darkness, There Is Light

Distinct patterns and emerging trends that artists incorporate into their artwork—whether a particular clay body or method of making, type or application of glaze, or new use of a surface decoration—become apparent when considering thousands of entries from around the world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21. As a curator and juror, it is always curious to see what these preferences are, a return to centuries-old processes, others are re-invented and modernized, and some are newly invented. It is also fascinating to see how transmission of ideas or influence disseminate from one place to another. I can say with certainty that that the spirit of KICB 2021 submissions were probably like no other in the history of this prestigious biennale. The outbreak and declaration of the COVID-19 virus pandemic and its global implications became the source and

focus for many artists. Planned many years prior, organizers could not have foreseen KICB 2021 as a chronicle of unrest, upheaval, and unprecedented global experience, authentically capturing the zeitgeist of 2020.

For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2020 loomed large on our psyches. We collectively experienced distancing, oppression, division, distortion, guilt, politics, loneliness, death, and mourning. Lockdown sharpened our senses and heightened our awareness, made us grateful for simple things, the seasons, nature, and gave us a new appreciation for health and life. We collectively dwelled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simultaneously; uncertainty and precarity drove us to the edge. We all yearned for distraction, yet we cowered in fear. Despite that, from our Zoom and Google Hangout gatherings, we pushed for inclusiveness, stood up for the marginalized, and many took to the streets to further raise our voices for freedom, against violence and separation, oppression, demanding equity and justice, and an end to prejudice. With the world coming to a standstill, its dire effects, and deadly outcomes, how could this not be at the forefront and subject to our investigation? With the world literally blowing up and imploding socially,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otherwise, how could our experiences not seep into our collective psyche and be a source of urgent expression?

The wide variety, infinite imagination, expressiveness, and level of skill captured in the 2,503 works of art submitted created a snapshot of our universal experience. As a juror, I was struck by the palpable mood and messaging conveyed by each entry, which resonated greatly with my own experience. I bared witness to each applicant’s trauma, which confirmed that although we are isolated and alone, our anguish is collective. Using a newly codified 2020 pandemic vocabulary, themes ranged from isolation, social distancing, quarantine, to mask wearing, solitude, and death. The corona virus, itself, became a source of inspiration both sculpturally or as a decorative motif on the surfaces of many submissions. Vulnerabilities and emotions were laid bare as grief, fragility, and the subject of our mere existence were explored in clay in many manifestations. Several works of art took up the deep desire for distraction or dwelled deeply on life; others poked fun at the commodification of toilet paper during the pandemic or how Zoom took over our lives. Artists also zeroed in on, if not celebrated, their new appreciation of nature and change of seasons. In some instances, it was their new heightened awareness of nature itself that came as a surprise. Some works of art declared a newfound commitment to ecological issues, doubling down on climate change, urging the viewer to reckon with the impact of our footprint on the environment.

The most potent submissions dealt with the issues of oppression, justice, prejudice, rights, inclusiveness, and politics. Although the pandemic loomed large over our daily existence, the shutdown of our lives and our nations caused a seismic shift in our view of injustice, causing us to question

who exactly is free, and widened our eyes on prejudice in the world. Lockdown caused us to sit still with ourselves; without the noise of our daily routines, we collectively turned our attention outward, placed our power in the service of others to raise them up, giving over our voices, and stood by their side in the face of injustice and need. These subjects ran rampant throughout many of the entries in this competition. Given the brutality, abject racism, and need for reform, calling out these injustices is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he significance of these entries is not lost on me as a juror. They ranked high in my evaluation for this preliminary screening.

It is hard to think of 2020 as anything but turbulent, exhausting, chaotic and surreal. The relentless nature of the pandemic and its global reckoning was too much to bear, as each day blended with the next. As I write this, it is 2021. We are gladly welcome blossoms blooming again, restoring our faith for better days ahead. Vaccines are being made available, and we beginning to slowly climb out of this shared turmoil. In reflecting upon the past year, I want to believe that in the darkness we experienced light. In solitude, we recalled our compassion for humanity, reset our senses, and adjusted our view to remind us of what is truly essential, important, and valued in this world. KICB 2021 may indeed chronicle the darkest days of 2020, but it shines a light on the best of our humanity as expressed in clay by the most distinguished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Please accept my deepfelt thank you to all who submitted their work for consideration.

Congratulations to all artists who were carefully selected in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t will be exciting for all to see your work exhibited in the hallowed halls of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in Icheon, South Korea.

뤼핀창 Lv Pinchang

동서양 문화 충돌 속 자주와 자유- 아시아 현대 도예의 발전 전략 분석

경제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현대 예술에는 서양의 가치관과 문화 사조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트렌드가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중국과 전체 아시아의 예술 발전 구도에 ‘침략적’, ‘전복적’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현대 도예에서 중국, 아시아 도예는 줄곧 변방의, 수동적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는 이 지역의 찬란한 문명 역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도예 분야에서는 서구와 진정으로 평등한 대화가 불가능하기에 이르렀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젊은이들의 서양 예술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사실이다. 아시아 현대 도예는 과연 어떻게 동양의 정신을 파악할지, 전통과 외래 문화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지역 문화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다원적 문화 예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인지와 같은 우리 앞에 놓인 일련의 문제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아시아 도예는 서양 예술 가치 지향의 영향으로 아시아 도자 문화 전통의 계승을 간과한 나머지 우리의 현대 도예에 서양 현대 도예의 낙인을 찍어 아시아 도예가 마땅히 지녀야 할 문화적 함의와 예술적 수준이 결핍되기에 이르렀다.

서양 도예로의 동질화가 아시아 도예 발전의 방향과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독특한 문화적 품격을 지녔다. 아시아 도예는 이 풍부한 문화 역사적 축적물들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민족 정신, 심미적 취향과 예술적 품격을 수호하고 고양시켜 자신의 문화 전통과 지역적 특징을 충분히 부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예술가들은 먼저 자신의 도자 문화 전통을 정리 및 재인식하고 자신의 전통이라는 맥락과 가치 지향 아래 오늘날의 형태를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는 형식뿐 아니라 정신, 품격, 함의까지도 포함된다. 아시아 현대 도예가 아시아의 문화 품격과 지역적 특징을 지닌 현대 예술로 변모할 때 아시아 현대 도예에 진정한 세계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세계 도예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아시아 현대 도예와 다원화 트렌드

우리는 이미 범세계적 교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세계화가 가져온 민족 문화간 교류와 융합의 추세를 직시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문화 발전은 반드시 다원화를 강조하고 유지해야 한다. 일본, 한국의 현대 도예는 이미 스스로의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세계 도예 문화 다원화 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이미 다원적 구도를 형성해 중국 현대 예술 발전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았던 중국 현대도예는 전통적인 테크닉과 실용적인 품격의 ‘변이’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했으며, 예술적 표현을 더욱 강조하여 심미적 형식과 언어 매개체로서 도예의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과 비교할 때 일본, 한국 및 중국, 대만의 도예 창작은 현대 예술과 사회 생활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빨랐다. 반 세기 동안의

현대 도예 발전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과 지역의 도예는 활발히 발전해 왔다. 일본은 동아시아 도예 창작의 대표 주자로서 세계 도예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1950년대 가쓰오 야기(八木一夫)를 중심으로 한 일본 현대 도예가들은 거의 서양 현대 도예가들과 동시에 도예 영역 안에서 혁명적 실천을 전개했다. 이어 쇼데이사(走泥社)그룹은 일본 현대 도예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국제 도예 분야에서 일본의 지위와 영향력의 기초를 다졌다. 한국과 중국, 대만의 현대 도예 발전은 마찬가지로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창작자와 비평가 규모, 교육 보급 수준, 전시 횟수 및 시장과 소장 메커니즘의 작동이 여타의 예술 분야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도 나타났으며 국제 도예 공모전에서 수차례 수상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성과는 세계 문화와의 자유로운 교류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동아시아의 현대 도예 창작은 다원적 발전의 구도를 이미 어느 정도 형성하였다. 폭넓은 접점, 각기 다른 유파, 예술적 주장 및 층위의 심미 취향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원적 발전 뒤에는 여전히 동양 ‘본토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 관념’의 대립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2. 본토 의식의 강화, 동아시아 정신과 문화 품격의 구현

‘세계화’는 ‘지역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종종 간과된다. 아시아 문화와 예술은 본토 의식을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정신과 문화 품격을 충분히 구현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가치를 전파하고 세계에 기여하여 세계 문화 교류에서 자신의 영향과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 일본, 한국은 유구한 역사동안 긴밀히 연결되어 왔다. 삼국 모두 유교, 불교, 도교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일찍이 도자를 통해 세계 문화에 공헌하였고 도자 창작을 통해 동아시아인들의 지혜와 문화 정신을 담아냈다.

아시아 현대 도예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전통 문화에 대한 연구로 문화 정신과 심미적 전통을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서양 문화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한 연구, 셋째, 현대 사회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시작할 때 현대 도예가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발 디딜 곳을 찾아 자신의 도예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기물을 중심으로 한 현대 문화 형식 제창

서구 도예 가치관의 영향이 날로 커지면서 현대 도예의 계승에서 기물은 간과되고 조소, 설치작품이 주목받고 있다. 쇼데이사그룹 이래로 90년대 중후반까지 일본 도예계에서는 이미 초형 작품을 중시하고 기물을 간과하는 문제가 관찰되었으며 유사한 상황은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에도 나타났다.

흙으로 빚어 구워낸 그릇을 우리는 ‘도자기’라고 부른다. 그릇을 만들어낸 과정이 바로 문명의 발전이자 문명이 창조된 과정이며 동양인들의 인식 속에서 기물은 신성성을 지닌다. 공자는 ‘맛있는 음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더 낫다’고 하였다. 기물의 창조에서 중국 전통 도예는 ‘도(道)와 기물이 모두 중요하다(道器並重)’며 그릇을 실용적인 형식으로

존재하는 정신으로 간주해 심미적 인격의 완성을 촉진시키는 인문적 용도를 강조했다. 물질적으로 도자기는 비록 정태적 용기지만 정신적으로 기물은 유한한 공간 속에 무한한 수용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 같은 관점은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서구식 가치관의 심미 추구 및 표현 정신과는 다르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기물을 중심으로 한 창작을 강조하는 것이 아시아 도예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자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그릇을 중심으로 한 도예 전시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로 배우는 가운데 독특하고 실용적 가치를 지닌 기물 도예를 창조하여 아시아인들이 충분히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기물에 도를 담은(以器載道)’ 아시아의 문화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해야 한다.

4. 소통과 교류 강화 및 소통과 교류의 플랫폼 건설

아시아 도자 예술 전통은 정신적, 심미적으로 공동의 이상을 지닌다. 현대 도예의 풍부한 표현성과 형식적 다양성은 많은 국가와 민족 사이의 접근, 이해와 교류에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아시아 현대 도예가 세계 도예계에서의 영향력과 명성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기초 교육, 정보, 학술전시 등 도자 문화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한 플랫폼과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먼저 도예 교육 분야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일본,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의 초기 유학으로 미국 현대 도예 교육(극소수의 유럽)을 받은 청년 학자들이 가져온 미국식 교육 모델과 창작 교육 이념은 극단적으로 개인의 표현, 기괴함을 추앙하는 창작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이로 인해 간과되어 도예 교육 발전의 길이 더 협소해지게 되었다. 이제 아시아 각국의 교류와 논의를 강화해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 입각한 도예 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 간 청년, 학생들의 교류, 상호 방문 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을 조직해 도자 역사 문화 전통을 지닌 국가를 방문하고 답사하여 청년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 수준과 자부심을 제고시킨다.

2. 동양의 심미관에 기반한 새로운 도예 가치 체계를 제창하고 수립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자신이 가진 도자 유산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과 가치관을 찾아야 한다. 대규모 국제 전시를 계획적으로 기획해 스스로의 학술 방향을 밝히고 새로운 동양 도예의 가치 체계와 자신의 비평 기준을 수립하도록 한다.

3. 국경을 넘어서는 도예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잡지를 창간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아시아의 활발한 도예 문화 교류와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소통의 메커니즘을 구축 한다.

우리의 사상은 종종 동서 문화의 충돌 안에서, 전통과 현대의

양 극단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며 나아간다. 모순과 충돌은 황망함, 곤혹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유구한 동양의 도자 문명 역사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답을 가져다줄 것이다. 인류 예술 실천의 물질적 표현으로서 도예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의미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해 우리로 하여금 현대 도예의 진정한 본질적 의미를 사고하게 만들 것이다.

Autonomy and Freedom amid the Collision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 Analysis of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Asian Contemporary Ceramics

Economic globalization has brought contemporary art into a single world where Western values and cultural thought prevail. This trend has exerted ‘aggressive’ and ‘subvers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rt in China and all of Asia.

In the realm of contemporary ceramics,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have always been passive and marginalized. This is in sharp contrast with the long history of glorious civilization of the Asian region. So much so that it seems almost impossible for the East to communicate with the West on truly equal footing. What is more regrettable is that young Asians understand and evaluate Western art far better than they understand their own art. We should, therefore, clearly recognize several questions confronting us: How can Asian contemporary ceramics identify the spirit of the East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sian tradition and foreign culture? How can we facilitate and develop international pluralistic art and culture while maintain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culture?

Influenced by the values of Western art, inheritance of the tradition of Asian ceramic culture has been overlooked. As a result, Asian contemporary ceramics has been branded by Western contemporary ceramics and has lost much of its cultural meaning and artistic quality.

Development of Asian ceramics should not aspire to blend into Western ceramics. Asia has a long history and rich tradition, and unique cultural dignity. Based on its rich art and cultural heritage accumulated through such a long history, Asian ceramics should protect and extol its national spirit, aesthetics, and artistic quality to make and fully highlight its cultural tradition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o this end, Asian artists should reassess and rebuild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own cultural tradition of ceramics and then create contemporary art forms in the context of their own tradition and values. To create a contemporary art form means to create not only the form but also the spiritual values, dignity, and connotations. Only when Asian contemporary ceramics evolves into contemporary art imbued with the dignity and quality of Asian cultur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ill it have truly global significance and become an exemplar of world ceramics once again.

1. Contemporary Asian ceramics and diversification

Already in the era of global exchange, we must confront the trends of exchange and integration between

civilizations brought by globalization. Cultural development must emphasize and maintain diversity. Japanese and Korean contemporary ceramics are already very characteristic and exert a certain influence on the diversification of world ceramic culture.

In China (including Taiwan), contemporary ceramics had already become diverse in the 1990s and established itself as an important factor in developing contemporary art in China. Chinese contemporary ceramics has pursued new ideas through the ‘variation’ of traditional techniques and practical style, and it has strived to fully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ceramics as a medium of an aesthetic form and artistic language by emphasizing artistic expression all the more.

Compared with China, artists of contemporary ceramics in Korea, Japan and Taiwan have much more aggressively attempted to make themselves part of contemporary art and social life. Looking at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eramics over the last half century, the ceramics in East Asian countries has developed vigorously. As a leading producer of ceramics in East Asia, Japan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world ceramics. In the 1950s, Japanese contemporary ceramic artists led by Yagi Kazuo(八木一夫) revolutionized ceramics nearly concurrently with contemporary ceramic artists in the West. Subsequently, artists of the Sodeisha(走泥社) movement led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contemporary ceramics in Japan and established the ground for the status and power Japan now enjoys in the international ceramics world.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eramics in Korea, China, and Taiwan has also attracted widespread international interest, as has been the case with Japan. The numbers of artists and critics, the level and availability of education, the number of exhibitions held, and the vigorousness of the market and collectors are no less than those of other genres of art. Artists who are active internationally and have won prizes at international ceramics competitions many times have emerged. Such achievements as we see today are very much attributable to free exchange with other cultures and substantial support from government. However, behind this development towards diversification remains a conflict between ‘indigenous tradition’ of the East and ‘contemporary concept’ of the west.

2. Raising regional awareness and manifesting East Asian spirit and culture

‘Globalization’ engenders ‘regionalization.’ But this is often overlooked in East Asia, and in individual Asian countries. Asian art and culture should enhance regional awareness to fully manifest the spirit and culture of East Asia so as to spread its own unique values and contribute to the world. This would increase East Asia’s influence and role in cultural exchange of the world.

China, Japan, and Korea have long been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The three countries were influenced by the philosophie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Since ancient times, they contributed to the culture of the world through ceramics and expressed the wisdom and culture of East Asia through pottery-making with creative minds.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eramics in Asia, we should focus on research in three respects: first, research on East Asia’s own traditional culture, pursuing innovation on the basis of maintaining the spirit of culture and traditional beauty; second, research on cultural tradition and contemporary culture of the West; and third, in-depth research on contemporary social life. Starting from these three respects, artists of contemporary ceramics can truly find where they would be engaged and establish and improve their own value system of ceramics.

3. Proposing contemporary cultural forms centering on vessels

Because the values of ceramics of the West prevail worldwide today, vessels have been ignored while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have received the greatest attention. By the mid to late 1990s, when Sodeisha was active, ceramic sculpture was particularly emphasized and functional vessels were ignored in Japan. The situation in Korea and China (including Taiwan) was similar.

We call vessels made of clay and fired “ceramics.” The process of making ceramic vessels bespeaks of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the process of creation of civilization. Asians perceive vessels as sacred. Confucius said, "Beautiful vessels are better than delicious food!" Traditional Chinese potters regarded vessels as spirits that exist in functional form, saying “Taoist philosophy and vessels are equally important,” and they emphasized humanistic use that should facilitate completion of aesthetic personality. Although ceramics is physically a static container, from a spiritual perspective, it contains infinite energy in its limited space. This kind of aesthetic pursuit and expressive consciousness, which is different from Western values, is the same in Korea and Japan.

Therefore, consciously emphasizing pottery-making with a focus on vessels is the bes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Asian ceramics, and it is a specific way of practicing feasible ceramics. We should actively promote exhibitions on ceramics and exchange with a focus on vessels; on the basis of mutual learning, create unique and practical ceramics, establish a cultural space where Asians can fully communicate and share, and truly inherit the idea that they should "Contain Taoist philosophy in vessels," Asian cultural spirit.

4. Strengthening and establishing a platform for communication and exchange

The traditions of ceramics in Asian countries share common ideals both spiritually and aesthetically. The rich expression and diversity in forms of contemporary ceramics provide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for many countries and ethnic groups to meet,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order for contemporary Asian ceramics to become more influential in the international ceramic world, it should establish a platform and effective system. The platform help to increase communication and exchange of ceramic culture and cooperation, in such ways as providing basic education and information, hosting symposium and exhibitions, and by strengthe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in regions in East Asia.

1. Reforms should start with education of ceramics. In Japan, Korea, China, Taiwan, and Hong Kong, young scholars who returned home after studying contemporary ceramics in America (a few in Europe) in earlier years brought about a comprehensive American educational model and creative teaching philosophy to a large extent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ainstream thinking of extreme pursuit of personal expression and pursuit of weirdness. This, in turn, caused many valuable things to be ignored, and the road for the development of ceramics education has become narrower and narrower. Now, there is a pressing need to strengthen exchange and encourage discuss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and to establish a ceramics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ir respective cultural backgrounds.

At the same time, opportunities for students for exchange among Asian countries and to visit other countries for education on a reciprocal basis should be increased. Groups of students should be organized, and they should be sent to countries with long experience in ceramics and rich cultural tradition to help them broaden their knowledge and pride about traditional culture.

2. We should make a proposal and establish a new ceramics value system based on the aesthetic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should look back on their ceramics heritage and find a new development direction and values in their ceramics heritage. Asian countries should carefully plan and arrange large-scale international exhibitions by themselves to reveal the direction they will take and establish a new value system for Asian ceramics and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ir own.

3. We should build a cross-border ceramic culture network and publish a magazine on ceramics that aims at establishing a mechanism for substantial ceramic culture exchange and realistic and practical communications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 the truest sense.

Our thoughts often move forward in interplay in the collision between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in the two extremes of tradition and modernity. Contradiction and collision inevitably accompany frustration and confusion.

Nonetheless, the long history of Asian ceramic civilization can answer our doubts. In addition, as physical expression of human artistic practice, ceramics brings us the spiritual meaning that changes with social changes, prompting us to think deeply about the true essential meaning of contemporary ceramics.

피파 디슨
Pippa Dickson

에세이

코로나19 유행 시작 후 12개월이 지난 올해 초, 2021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 출품작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세계의 상호연결성을 증명하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과 경험을 겪고 있음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세계 2,503점의 출품작 중 많은 작품이 공통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수의 작품이 고립, 대격변, 연결, 변형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제작되었으며, 여러 글로벌한 사태가 발생하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분야의 긴장이 높아감에 따라 당연하게도 이러한 이슈가 예술창작의 주제로 부상하였다. 2020년 이전에 제작되어, 세계 기후변화, 사회적 불의, 인간관계 분야의 위기를 다룬 몇몇 작품도 깊고 감동적인 정서를 표현했다.

많은 출품작이 공통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제작 기법, 규모, 기능 면에서는 작품 간 특별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 현재, 도자기가 지닌 경이로운 본원적 잠재성과 폭넓은 기법을 활용한 다채로운 형태의 제작 가능성은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각 예술의 재료로서 점토가 지니는 잠재성은 야생적 의미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으며, 점토의 놀라운 활용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이 크게 활용된 일부 출품작은 어쩌면 이러한 신기술이 21세기의 트렌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특히 절묘한 개념화를 통해 조성된 마크 가우디의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완벽한 비율로 공들여 손으로 빚어낸 이종민의 화병과 같은 수제 제작품을 접하면 우리의 견해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형태 면에서도 지배적인 트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 언급한 두 점의 출품작은 2021년 도자 예술의 규범적 사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례적인 작품에 가깝다. 76점의 입선작을 살펴 보면, 특정한 제작 기법이나 과정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수제 제작 또는 기계 활용 제작을 시각적으로 직접 드러내려는 뚜렷한 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능적 작품보다는 조각적 작품을 선호,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제작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도 불확실성, 리스크, 실험적 시도의 가능성을 용인하기 보다는 절제, 통제된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 또는 의식 용도로 제작된 기능적/실용적 오브제보다 조각적 작품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경향으로 인해 어쩌면 본 비엔날레가 공예작가보다는 예술 작가를 위한 무대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최종 입선작은 기성/신진 작가들이 도자기라는 재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표현을 숙련된 방식으로 빚어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21년 비엔날레에서는 북반구, 특히 유럽, 북미, 그리고 한국의 도예 작가/제작자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반면, 남반구 작가들의 탁월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어쩌면 입선작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도자 예술의 트렌드가 아니라, 심사위원단 각자의 관심과 우려, 그리고 작가들이 2020년 (이 현 시대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한 해가 아니었더라면) 누려야 했던 기회와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눈길을 사로잡았던 출품작은

불편함(discomfort)을 수용하고 불안정성이라는 관념을 재료와 물리적 구성으로 표현한 작품들이었다. 이는 필자의 관심사/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과 불안정성은 비대칭적 균형(제시카 에드거),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는 표현과 형태로 구현된 추상화(화)(니콜라스 렌커), 파편화(제니 저지), 뒤틀림(다리엔 아리코스키 존슨), 물방울(이진휘), 붕괴(박정민), 섬세한 유약함을 부각시킨 표현(아오키 타케후미)을 통해 전면에 드러난다. 이러한 개념 중 일부는 심각한 궁핍에 시달리는 이들에 식량으로 사용되는 점토(진홍)의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사회적 고발을 표현하거나(디아 레트노), 개념적 탐구를 통해 조각 설치물을 조성함으로써 이민자/난민 공동체가 겪는 고난에 대한 인상을 오래도록 남기는(데이비드 퀘자다 우레나) 작품들을 통해 명징하게 드러난다.

기억은 2021년의 여러 입선작에서 다루지는 주제이나, 이는 노스텔지어의 키치(kitsch)스러운 전시가 아닌, 장소와 기억의 긴장과 이원성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 구현되었다. 홍콩의 기억을 그려낸 춘 링의 출품작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항구도시에 대한 익숙한 비유 – 어두운 거리에 드리운 네온 불빛, 강렬한 대조적 색상과 그 물질성 – 를 통해 그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의 연결, 그리고 동시에 그 정체성의 상실 혹은 사라져 가는 모습에 대한 공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통제와 혼란, 기억과 상실, 결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유년 시기 홍콩의 경험을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덧없음, 무상함의 관념은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 수잔 드림멘의 영상 작품 <흙과 함께한 노래>는 덧없음을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그려내면서 개인적인,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의 편안함과 불편함을 표현한다. 즉, 커뮤니케이션 상의 부조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미끄러짐(slippage)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근우의 <검은 숲>은 둥글게 말린 점토의 반복적인 패턴을 완벽하게 구성하여 독일에 있는 작가 자신의 단일 문화 가정을 이미지로 그려냈다. 작가가 창조한 어둡고 고정된 공간으로 빛이 스며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관람자는 작가의 크나큰 슬픔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중심, 그리고 중심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작품의 주제로 표현되고 있다. 중심은 정체를 거부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며 마찰, 그리고 금방이라도 나타날 듯한 불균형과 불화를 조성한다. 이러한 주제는 라기태, 세실 켐페링크, 안중호의 출품작에서 대단히 다른 방식으로 다루지고 있다. 완벽한 대칭, 간결한 균형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동시에, 상존하는 전복의 위험,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부유하는 허울뿐인 고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정과 불안정, 영원함과 덧없음이라는 보편적, 이원적 관념이 2021년 입선작 전반을 관통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틀에 박힌 기능주의, 규모 면의 천편일률성에서 탈피한 도자기의 풍부한 활용성과 조각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출품작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점이 현재의 트렌드가 보이는 특성이다.

Essay

Selecting works for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KICB) at the beginning of 2021, after 12 months of the COVID-19 pandemic, provided a welcome invitation and celebration of our global interconnectivity, yet at the same time it illuminated the vastly different circumstances

and experience across the world. Spanning across hemispheres, common themes abounded in the original 2,503 submissions. A large number of entries dealt with notions of isolation, transformation, connection and metamorphosis, and as global events unravelled, and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tensions arose, not surprisingly, these issues too emerged in creative practices. Some moving and deeply felt entries were created prior to 2020 and dealt with the enduring crises of global climate change, social injustices and human relations.

While there were commonalities in thematic there were no clear connections in techniques employed nor scale nor function. In 2021, the phenomenal visceral potential of ceramics and its capacity to be shaped by a multitude of techniques and in multifarious form is lauded. There is a wild sense of freedom in the potential of clay as a sculptural material and its incredible versatility comes to the fore. In some works, computer technology prevails and we are reminded that this could well be the twenty first century trend, highlighted in the sublimely conceptualised and modelled vessels by Mark Goudy. However, this idea only lingers briefly before we are brought back to handmade objects such as the perfect proportioned and painstakingly hand carved vase by Jong Min Lee.

There is no overall trend in form either and it's worth noting that these two vessels are somewhat of an anomaly rather than the norm in 2021. Of the 76 works on display there is no predominant technique nor process and there is no over-riding attempt to make a direct visual statement of either the hand of the maker nor the machine. In the final selection we see preference and exploration of the sculptural over functional and for restraint and control over processes and outcomes that favoured or allowed uncertainty, risk and experimentation to prevail. The tendency towards more sculptural work rather than functional or utilitarian objects created for daily life and rituals may raise questions of the perception of the Biennale as a platform for artists rather than craftspeople. The final exhibition presents both emerging and established artists with a mastery of ceramic as a material no matter their intention and expression.

Worth noting too, in 2021 the predominant trend is to represent artists and makers from the northern hemisphere and particularly centred on European countries, North America and of course South Korea. There is a notable absence of the enormous talent located in the global south. The final exhibition may not show us current trends in ceramics, instead, it might more readily reveal the interests and concerns of the individuals of the judging committee, and the opportunity and access that artists may have had during 2020 - one of the most turbulent and uncertain periods in contemporary times.

Because of my own interests and prejudices the works that lit my imagination and made me pause were those that embraced discomfort and made material and physical notions of insecurity. These ideas came to the fore through asymmetrical balancing (Jessika Edgar), abstraction between

2 and 3 dimensional surfaces and forms (Nicholas Lenker), fragmentation (Jenny Judge), warping (Darien Arikoski-Johnson), drips (Jinhwi Lee), collapse (Jung Min Park) and expressions that put forward delicate fragility (Takefumi Aoki). Some of these concepts were made explicit through social commentaries on capitalism and colonialism presenting clay as a food source for those in desperate need (Dyah Retno) or conceptual investigations resulting in sculptural installations that leave haunting impressions of the plight of migrant and refugee communities (Daisy Quezada).

Memory was a recurrent theme in the 2021 selection, yet this topic avoided kitsch displays of nostalgia and instead focused on the tensions and dualism in place and memory, as seen in Ling Chun's work depicting memories of Hong Kong. Employing familiar tropes of the harbourside city – neon laced across dark streets and vibrant contrasting colours and materiality - she effectively communicates a connection to and simultaneous loss or fear of losing aspects of her cultural identity. Her work eloquently points to control and chaos, memory and loss and embodiment of her experience of the city of her youth which may never be the same again.

Notions of transience and impermanence arise in varying ways. In Suzan Drummen's video work *Song with Clay*, a disconcerting display of temporality, comfort and discomfort both individual and shared is manifested. In other works, related notions of dissonance in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slippages are emphasized. Keun Woo Lee's, *Black Forest* creates an image of her largely mono-cultural home in Germany through the perfectly formed repetitive patterns of rolled clay. She creates a dark, static place where light struggles to permeate, we feel her grief. Questions of the centre and our relationships to it are explored too. Countering stasis, the centre is a dynamic place, constantly shifting and creating friction and impending imbalance and discord. This is explored in radically divergent ways in Kee-Tea Rha's, Cecil Kemperink's and Junggho Ahn's submissions, at once presenting an image of perfect symmetry, concise balance and conversely the ever-present risk of toppling and only a semblance of fleeting stillness in perpetual motion.

While binary and universal ideas of stability and instability and permanence and impermanence echo throughout the 2021 selection what we are left with is the impression of the abundant versatility of ceramic and its sculptural potential breaking from its pigeon-holed functionalism and plinth-like scale. The submissions in 2021 are not easily defined as one thing, and that's precisely the trend we are seeing.

Commentary by Jurors

2nd On-site Jurors

란티 찬(네덜란드)

- 선데이모닝@EKWC(유로피안세라믹워크센터) 관장
- 현 단스브라반트 회장 겸임
- 前 전시디렉터 (우레히트 중앙박물관)
- 前 디렉터 (고다미술관)
- 2011-2013 심사위원 (제6회, 제7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김복기(한국)

- 아트인컬처 대표,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2017- 운영자문위원 (국립현대미술관)
- 2016- 이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 세종상(2020), 이인성미술상(2019) 심사위원 활동
- 《AAA》(2021), 《팡따먹기》(2019) 등 기획

김진엽(한국)

- 수원시립미술관 관장
- 2020- 회장 (한국미술평론가협회)
- 前 학예연구사 (경남도립미술관)
- 前 전시기획부장 (성남아트센터)
- 前 겸임교수 (수원대학교)

심상용(한국)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 2021 예술감독 (2021대구사진비엔날레)
- 前 회장 (현대미술사학회, 한국미술이론학회)
- 前 이사 (광주비엔날레)
- 前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이준(한국)

- 삼성미술관 리움 부관장
- 2018- 운영자문위원 (백남준아트센터)
- 2014- 운영심의위원 (국립현대미술관)
- 前 운영자문위원 (부산시립미술관)
- 前 운영위원 (문화역서울284)
- 前 학예연구실장 (삼성미술관 리움)

김지혜(한국)

- 이화여자대학교 도자예술전공 교수
- 2020-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 前 편집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학술분과 위원장/학술지)
- 前 기획 (프로젝트 스페이스 인큐베이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2020)

Ranti Tjan(Netherlands)

- Director of Sundaymorning@EKWC(European Ceramic Work Centre)
- Chair of Dans Brabannt
- 1996-2004 Director, Central Museum of Utrecht
- 2004-2010 Director, Museum of Gouda
- 2011-2013 Juror, 6th and 7th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ompetition

Boggi Kim(Korea)

- Editorial Director of Art in Culture, Professor at Kyonggi University
- 2017- Board Membe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 2016- Board Member, Goam Arts and Culture Foundation
- Juror, Sejong Award(2020), Leeinsung Art Prize(2019)
- Curated AAA(2021), *Memory*(2019)

Jin-Yup Kim(Korea)

- Director of Suwon Museum of Art
- 2020- President, Korean Art Critics Association
- Former Curator, Gyeongnam Art Museum
- Former Head, Seongnam Art Center Exhibition Team
- Former Adjunct Professor, Suwon University

Sang Yong Sim(Korea)

- Professor in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 2021 Artistic Director, 2021 *Daegu Photo Biennale*
- Former Chair, Korea Association for History of Modern Art, Korean Society of Art Theories
- Former Board Member, Gwangju Biennale
- Former Professor, Curatorial Study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Joon Lee(Korea)

- Deputy Director of Samsung Museum of Art Leeum
- 2018- Operation Committee, Nam June Paik Art Center
- 2014- Operation Committe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 2016-2017 Operation Advisory Committee, Busan Museum of Art
- 2013-2014 Operation Committee, Cultural Station Seoul 284
- 1995-2005 Head, Samsung Museum of Art Curatorial Team

Jihye Kim(Korea)

- Professor in Ceramics at Ewha Womans University
- 2020- Board Member, The Korea Association of Art&Design
- 2018-2020 Editorial Committee, The research Institute of Ceramics at Ewha Womans University
- 2016-2017 Curated *Project Space Incubator 52*
-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endation(2020)

다리엔 아리코스키 존슨, 금상
Darien Arikoski-Johnson, Gold Prize

김복기
Boggi Kim

이번 국제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도에는 ‘형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유의 장르 개념을 가차 없이 뛰어넘는다. 작품의 재료, 크기, 형태, 색채, 구성, 구조 등 형식 자체를 교란하는 메타-형식주의가 도예 분야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다른 장르와의 혼성(hybrid)이 보편화되었다. 현대도에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

다리엔 아리코스키 존슨의 <파편화된 틀>은 비교적 전통적인 외형을 견지하는 도자오브제 혹은 도자조각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전통’보다 ‘동시대성’을 중시한다. 그는 멀티미디어 도예작가다.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오늘날 급변하는 시각 환경을 자신의 작품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성형 및 표면 처리에서 디지털 공정을 끌어들이고 있다. 작품 표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작가의 손(신체)으로 점토를 직접 조형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컴퓨터로 조성한 이미지다. 후자는 손으로 그리거나 디지털로 변형한 이미지를 스캔한 후 인쇄한 것이다. 이 인쇄 이미지를 기물에 붙여 소성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정을 거쳐 생성된 작품의 피부이지만, 표현의 뉘앙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결국, 그의 작품은 물질과 비물질, 실재와 가상, 자연과 인공,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한 세계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그(digilog, digital+analogue)’의 조형이다.

다리엔 아리코스키 존슨은 인간의 지각과 디지털 프로세스의 복잡한 관계를 묻는다. 최근 카메라 폰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경험한 순간순간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소비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억은 흩어지고 파편화되어, 이차원 디지털 이미지의 블랙홀로 빠져버린다. 그는 이 ‘파편화’를 오늘날의 시지각, 경험과 기억의 변화를 추동하는 키워드로 삼고 있다. 실제 작품의 구성 또한 파편화한 넓적한 점토를 겹겹이 이상블라주한 것이다. 파편의 인식, 파편의 분석, 파편의 구축이 이 작가의 문체의식이다.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이유는, 단지 디지털 기법을 구사하는 ‘첨단’ 형식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다. 재료와 기법의 차원을 차치하더라도, 이 작품은 조형 자체로 탄탄한 힘을 보여준다. 작품의 상부는 화려한 디지털 이미지와 상대적으로 조용한 아날로그 이미지가 한데 어울려 있다. 중요한 볼거리가 이 윗부분, 머리에 집중되어 있다. 중간 부분은 아래위를 연결하는 이음새 역할을 맡고 있다. 긴장과 이완의 완충 지대라고 할까. 그 아래부분은 밋밋한 나무동치 같은 형상이 몸통이나 다리처럼 머리를 받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람이나 동물, 아니면 어떤 토렘(totem) 같은 형상이 떠오른다.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기묘한 형상이다. 작품의 크기와 별개로 기념비적인 자태를 당당히 내뿜고 있다. 파편의 구축, 형상의 아우라, 주술성의 마력….

인터넷과 리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별되지 않는 시각 환경. 우리는 이른바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술이 지각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표현을 좇는다. 다리엔 아리코스키 존슨의 도예도 이 변화의 숲을 걷고 있다.

The entries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is year show that contemporary ceramics far transcends the concept of the genre inherent to ceramics. So much so that the word ‘form’ seems almost insignificant. Meta-formalism, which is disturbing form itself in every respect including the materials used, size, shape, color, composition, and structure, is spreading throughout the entire realm of ceramics. Hybridization with other genres has become commonplace; this is what contemporary ceramics is now. Contemporary ceramics has truly gone this far.

Darien Arikoski-Johnson’s Fragmented Framing is a ceramic object or ceramic sculpture that looks relatively traditional. Nonetheless, this piece values ‘contemporaneity’ rather than ‘tradition.’ A-Johnson is a multimedia ceramic artist. He strongly represents today’s rapidly changing visual environment through his work. Most noteworthy is that this piece integrates digital processes by traditional forming and surface treatments. It has digitally manipulated images on a clay body shaped by hand. The images were created by scanning hand-painted or digitally drawn images, which are then printed and applied to the ceramic form and fused to the clay body in the kiln. Although the skin of his work was created by different processes, the nuance of expression creates harmony very naturally. In conclusion, his work can be said to be a fusion of the material and immaterial, the real and virtual, nature and the man-made, and analogue and digital. A-Johnson’s work is a sculpture of so-called ‘digilog,’ digital+analogue.

A-Johnson poses a question about the current entanglement of human cognition and digital processing. With the camera-phone becoming an everyday thing, anyone can record, store, and consume any moment he or she experiences with ease. With the passage of time, all the memories are dispersed and fragmented, and we fall into a black hole of the two-dimensional digital image. A-Johnson takes this ‘fragmentation’ as a key concept driving the continually altered state of visual consciousness and shift in experience and memory. The composition of his work is actually an assemblage of fragmented, flat clay slabs in layers. He addresses the issues of awareness of fragments, analysis of fragments, and construction of fragments.

The jury selected Fragmented Framing as the Gold Prize winner. In so deciding, the jury focused not only on the ‘state-of-the-art’ style of manipulating digital technology. Materials and techniques aside, this piece is outstanding as a sculpture itself. The upper part shows lavish digital imagery and relatively staid analogue imagery together in harmony. This top part is the most eye-catching. The middle part connects the top and the bottom. This part can be said to be the buffer zone between tension and relaxation. Below this part, the piece is shaped like a tree trunk, which supports the head like a body or leg. Overall, this piece conjures up a figure that looks like a man, an animal, or a totem. This is an oddly-shaped piece where the past and the future intersect. It may be rather large, but this piece very proudly shows off its monumental

form. The construction of fragments, aura of shape, magical spell....

The visual environment today is where the internet and reality, and the online and offline are indistinguishable. We are now living in the so-called ‘post internet’ era. Art is seeking new means of expression cor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ways of awareness. Darien Arikoski-Johnson’s ceramics addresses this change very directly.

쭈오 밉쑤, 금상
Ming-Shun Cho, Gold Prize

심상용
Sang Yong Sim

공예예술로서의 공예: 공예는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어디 공예뿐이겠는가? 조각도, 회화도, 사진도 ‘어떤’ 과정을 거쳐 예술이라는 범주에 편입되었다. 굳이 공예예술로 진술하지 않더라도, 공예와 예술을 구분했던 근대주의 미학의 칸막이는, 그 의미있는 유산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시대의 작동을 멈추어가는 중이다. 공예는 다른 예술 장르들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다음의 세 개의 관문을 거치면서 공예예술이 되었다. 첫째, ‘공예란 무엇인가’라는 자기성찰을 통해 역사적, 철학적 공명을 획득하는 것. 둘째, ‘세계 내 존재’이자 ‘세계 앞에 선 존재’로서 ‘주체적이고 진실된 태도’를 취하는 것. 셋째, 자기성찰과 주체적 인식의 심오한 반영체로서 형식과 기능을 추론하고 구현하는 것. 요약하자면, 이에 따른 세 가지 질문의 계열에 진지하게 답해나가는 것이다.

<p>첫째 계열의 질문들: ‘공예란 무엇인가’, ‘공예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공예는 무엇이어 왔으며 무엇이어야 하는가’.</p>
<p>둘째 계열의 질문들: ‘공예하는 나는 누구인가’, ‘공예하는 나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 ‘공예하는 나는 내가 속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응답하고, 도전하는가’.</p>
<p>셋째 계열의 질문들: 첫째와 둘째 계열의 질문들이 어떻게 흙과 불의 한 가운데로 관류하도록 할 것인가’, ‘불과 흙, 곧 자연과 문명이 조우하는 차원과의 심오한 절합을 성취할 것인가’.</p>

새삼 공예예술, 예술로서 공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국제공모전>의 취지가 “도자예술의 다양성과 미래가치의 고취”와 그런 맥락에서 “신진작가의 발굴”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굳이 공예예술의 의미를 소환하지 않더라도 도자비엔날레라는 전시형식에 이미 화급한 시대정신의 담지체로서의 공예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서론이 길어졌지만, 이런 질문들에 주안점을 두고 출품작들 가운데 수작을 선별하는 과정은 그리 길지 않아도 되었다. 단연 돋보였던 작품은 12x12x15cm 자그마한 크기의 몸을 지닌 <호문쿨러스-LR(teapot)>(2020)이었다. 마치 이 작은 찻주전자에 위에서 언급했던 질문들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이 빼곡하게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따라 마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공예를 ‘기능적인 대상(it)’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상대(ou)’로 이동시키는 방식, 그럼으로써 스스로 단번에 공예사와 예술로서 현대공예 사이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획이 되는 방식이 매력적이다. 이것은 단지 기능으로 환원된 공예를 극복하는 문제 이상이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Martin Buber)에 의하면, 이 상호성, 상호관계의 상실, 즉 자연을 수평적 관계인 ‘당신(ou)’에서 권력적이고 종속적 관계인 ‘그것(it)으로 전락-또는

타락-시킨 것이야말로 서구 근대문명이 저지른 치명적인 오류이자 지구촌의 현재를 인류세의 비극으로 몰아온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전하는 말에 올림이 없을 수 없는 이유다. “나는 인간과 공예품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별히 감정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기물과 무기물로 대변되는 인간과 공예의 관계성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이는 ‘공생체’의 찻주전자로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계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의 완숙한 수준, 기법적 정교함은 방해 없이 이러한 사유와 인식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출중함이다.

Crafts as Crafts Art: How Does Crafts Become Art?

Is it only crafts? Surely not. Sculpture, painting, and photography are all now considered forms of art, after undergoing a ‘certain’ process. Even if we do not insist that crafts is being art, the way in which the modern aesthetic sense defined and separated crafts and art is disappearing despite its meaningful legacy. Thus, the era where crafts and art are categorized differently is coming to an end. As the other genres of art, crafts has become crafts art after passing through three gateways: First, obtaining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resonance through self-examination on ‘what is crafts?’; second, taking a ‘subjective and sincere attitude’ as ‘a being facing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a being within the world;’ and third, deducing form and function as a profound reflection of introspection and subjective perception, and giving shape to the ideas deduced. In short, for crafts to be crafts art, questions about each of the three groups below need to be answered.

First group of questions: ‘what is crafts?’ ‘what should crafts be?’ ‘what has crafts been and what should crafts be?’

Second group of questions: ‘who am I to be working in crafts?’ ‘what world do I belong to as a craftsperson?’ ‘how do I as a craftsperson perceive, respond to, and make a challenge to the world to which I belong?’

Third group of questions: ‘how do I make the first and second group of questions flow through the heart of clay and fire?’ ‘how do I achieve profound connection with dimension where fire and clay, that is, nature and civilization, meet each other?’

I ruminate on the meaning of crafts as crafts art or art, not merely because the inten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s the main program of the KICB is “encouraging diversity and future value of ceramic art” and “discovering emerging artists” in such context. In fact, even if without recalling the meaning of crafts art, the formal exhibition called “ceramics biennale” already contains the perception of crafts as connotative of the urgent zeitgeist.

Emphasizing the questions mentioned above, I selected outstanding pieces among those which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And the process did not take much time for me. The most striking piece to me was Ming-Shun Cho’s small-scale *Homunculus-LR (teapot)* (2020) at 12x12x15cm. This small teapot densely contains persuasive answers to the questions mentioned above. It seems that all we need to do is drink what is in the teapot. What is most fascinating about this teapot is the way the artist shifts crafts from ‘it’ to ‘you,’ that is, a ‘functional object’ to an ‘object that is interactive with humans.’ By doing so, this teapot itself makes a stroke crossing modern crafts as it is a work of crafts and art at once. This is much more than the matter of overcoming crafts that are only functional. According to Martin Buber, a German philosopher, the loss of this reciprocity, the loss of interrelationship, that is, the reduction or degradation into ‘it,’ the authority and subjective relation, from ‘you,’ and apposite relationship are fatal fallacies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and crucial factors that have degraded the global village into a tragedy of the Anthropocene era. This is the reason the message delivered by the artist cannot but resonate so widely. “I believe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artifacts may trigger particular emotions. In this con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craft represented between organic and inorganic matter further enriches the mutual existence. This symbiont teapot implies a new relationship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people.” The perfect skill and exquisite technique executed by the maker are yet other assets that help him concentrate on such reasoning and awareness without being interrupted as he can be immersed in his idea and philosophy when making pottery.

주세균, 은상
Sekyun Ju, Silver Prize

김진엽 Jin-Yup Kim

경기도 이천에서 개최된 2021년도 KICB2021 국제 공모전은,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각국에서 도자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전통적인 도자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현대미술의 다양한 시각을 담은 작품들까지, 흙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개성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이번 공모전의 특징은 각 대륙의 작품들이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 및 아메리카 대륙들의 작품들은 현대 미술의 방향성을 따르는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으며, 그 특성을 살리고 있었다. 아시아권은 전통적인 도자를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요소를 결합시키는 방식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특히 한국 도자 작가들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미술의 조형적인 실험성을 결합시키려는 노력들이 엿보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주세균의 작업은 전통적인 한국 도자예술과 현대미술의 설치적 개념을 결합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은 민무늬 도자기를 만든 후 도기 표면에 연필(검정)이나 분필(분필)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국보급 도자기의 외관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일 도자 작품들이 아니라 선반에서 도자기들은 서로 연결되거나 뒤엎키는 등 기존 도자 예술에서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시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주세균의 작업은 도자의 일상성과 예술성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모전의 특성상 작품배치와 구성의 단순함이 지적을 받았으나, 향후 작가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모전이다 보니 운송 등의 한계로 작가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 공모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KICB 공모전이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과, 기존의 국내에서 개최된 예술행사의 성격이 모호한 점에 비해, KICB 공모전은 도자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향후 운영방식에 따라 바뀌겠지만, 기존 공모전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Despite the COVID-19 crisis,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2021 received a great number of entries, and they show essence of ceramic art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Many of the works evince individual characteristics, from traditional ceramics to ceramics reflecting diverse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art.

Noteworthy of this competition is that works from each continent clearly show regional characteristics. Most of the entries from the West and Americas are experimental works of contemporary art, and they are very expressive. Many of those from Asia combine elements of contemporary art with traditional ceramics. Works by Korean ceramists, in particular, reveal efforts to combine traditional technique and

수잔 베이너, 동상
Susan Beiner, Bronze Prize

이 준
Joon Lee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도시에서 다양한 성격의 국제비엔날레가 눈에 띄게 증가해왔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진흥이 목적이든 도시 마케팅 차원이든 혹은 문화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이든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에 따른 비엔날레 피로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20년 역사를 지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역시 비엔날레 명칭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예술감독제도, 공모전이나 특별전 운영방식에 있어서 변화와 부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제공모의 심사에 참여하면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경기도의 이천, 광주, 여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자산업과 도자예술의 진흥과 더불어 세계도자예술의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많은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연 소재인 흙을 매개로 한 도자예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작가들의 열린 태도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식지 않은 열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 운송비의 상승과 비엔날레의 비용 지원의 한계로 인하여, 참여작가들의 출품작 규모가 축소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이어서 밀도 있고, 창의성이 있는 작품들이 제법 많았다. 다만 본선 수상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작은 규모의 소품들이 적지 않게 출품되어 작가의 시각적, 공간적 연출 역량을 평가 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단한 작품설명이나 작가 노트 이외에는 오직 출품된 작품만을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잔 베이너는 작품의 규모, 시각적 확장성, 몰입성 뿐만 아니라 문제적 담론을 다루는 작가적 역량이 주목할 만 하였다.

출품작은 무한 증식하는 자연생태계를 반영하듯 아티초크(Artichoke)라는 식용식물과 새들을 소재로 하여 반복과 생성, 파생과 분열, 유기물과 무기물이 혼성화된 작은 정원을 연출하였다. 여기에다 노란색과 황금빛 유약으로 전면 도색하여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그녀가 만든 정원이 다분히 인공적인 자연이라는 사실을 역설한다. <취약함의 한계>라는 작품 제목은 이른바 포스트 휴먼, 인류세 시대의 지구촌 환경변화와 멸종위기의 생물, 유전자 변이 등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력과 욕망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암시한다.

사실 수잔 베이너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개인전과 다양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며, 뉴욕 타임즈의 개인전 호평을 비롯하여 2020년 타이완 도자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이미 그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기회에 동상을 수상하면서 수잔 베이너는 또 한번 인정받게 된 셈이지만, 이 작가 이외에도 많은 입선작 중에도 수상작에 버금가는 뛰어난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The number of international biennales of diverse character has noticeably increased in cities all around the worl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Be they aimed at promotion of art and culture or city marketing or establishing

a cultural platform, the proliferation of biennales has given rise to fierce competition,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w significant “biennale fatigue” today. It is true that the KICB, which has been running for 20 years, has experienced its share of change and ups and downs, as can be seen in the changes in its name, the composition of KICB International Committee, the system of art directors, and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special exhibitions.

Nevertheless, after I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s a juror, I understood that the KICB has still tremendous potential to promote the ceramics industry and ceramic art, not only of Icheon, Gwangju, and Yeosu in Gyeonggi-do province but in Korea more generally, as well as a cultural platform of world ceramic culture. Above all, the open attitudes of artists toward the sustainability of ceramic art with clay as a medium, a material from nature, and the great number of artists deciding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demonstrate to me their never dying passion. I am duly impressed with them.

Although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shipping costs and limits on funding for the artists discouraged some artists from participating, many of the works that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were of high caliber and creative. However, a considerable number of small-scale works were among the 76 that had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making it difficult to evaluate the visual and spatial abilities of artists when selecting prize-winning works. Despite the fact that the jury had to do its evaluations with only the works presented, except for a brief description of each of the works and the artist’s statement, the ceramics piece *Bounded Fragility* by Susan Beiner was noteworthy not only in terms of scale, visual expandability, and immersion, but also in terms of the artist’s capability to deal with the prevailing discourse on the issues of the time.

As if reflecting an ecosystem that is expanding without limit, Susan Beiner used the artichoke, an edible plant, and birds as subject to create a small hybrid garden with elements of repetition and formation, derivation and division, and organic and inorganic matter. By painting the whole surface with yellow and gold glaze, she creates a powerful visual impression to reveal an obviously artificial man-made reality. The title *Bounded Fragility* implies concern and criticism over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global village in the so-called Anthropocene Period, and the endangerment of species, genetic mutation, and the like caused by humans’ control of and desire for nature brought by advancement in technology.

Susan Beiner has been presented at many solo exhibitions in the US and overseas, and at many different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s. The New York Times gave a favorable review of her solo exhibition. S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Taiwan Ceramics Biennale in 2020. Her winning the Bronze Prize at this exhibition will bring her global recognition once again. Howe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among the 76 artists, there are quite a few who are equally as deserving of recognition as the prize winners. The jury agonized to no end

when selecting the winners of prizes: there were just so many deserving candidates.

오제성, KICB레지던시상
Jeisung Oh, KICB Residency Prize

김지혜
Jihye Kim

2021 국제공모전은 총 2503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76점의 입선작 중에서 최종 수상작 6점이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입선작들은 오브제, 피겨, 설치, 영상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매체에 내재하는 성질에 주목하여 도자 고유의 재료와 표현기법을 탐구하거나, 도자와 다른 매체의 혼합을 시도함으로써 매체의 확장을 시도한 작품 등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지금까지의 공모전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차이는 작품의 크기나 스케일이 작아지고 실험적 시도를 한 작품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모전 운영방식이 변화되면서 작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운송비에 대한 부담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작업환경과 작업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전시 플랫폼이 대거 등장하면서 실제 전시 현장보다 컴퓨터 화면에서 효과적인 작업들을 선호하는 현 추세와도 연관될 것이다. 여러 상황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비엔날레 공모전이 도자 매체에 대한 새로운 시도나 도예의 장르적 범위를 넘어 폭넓은 조형실험을 하면서 발전되어 온 발자취에 비하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공모전이었다.

디지털 프린트, 3D프린터 등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작업들이 많아졌다는 점 또한 이번 공모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새로운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도자작업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종전의 작품들에서는 그 효과가 시각적 결과로서 드러났다면, 이번 출품작들에서는 테크놀러지가 작품의 개념이나 제작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점토와 유약 등 도자 매체의 물질적 특성을 강조한 작업들이 많이 선보였는데, 제작의도나 주제, 내용이 모호한 채 물성이나 기법적 탐구에 머무는 경향이 조금은 아쉬웠다. 내용적으로는 개인적 서사에서부터 인종문제, 이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 동시대적 이슈를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으나 표현방식이나 매체의 사용이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지 않아 소통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는 매체특정적 작업을 하는 도예작가들에게는 고민할 지점으로 남는다.

수상작 중 레지던시 작가상을 수상한 오제성 작가의 <다보각경도>는 분류학과 박물관의 원형이 된 호기심 캐비닛 안에 종교적 신앙과 민간 신들을 모아놓은 설치작품이다. 작가는 서양의 호기심 캐비닛이 중국에 도입되면서 다보각경도로 변화되고, 조선시대의 책가도로 변용된 현상을 통해 이질적 문화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에 침투, 흡수되는 지점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였다고 말한다. 작가의 말대로 작품은 책꽂이 같은 선반 위에 족두리, 원앙, 물고기, 해태 상, 탑 등 민간 신앙적인 형상들에서부터 불상, 성모상 등 종교적 아이콘까지 한 자리에 수집되어 있다. 한쪽에는 장작가마소성으로 마치 금방 출토된 고대 유물로 보이는 신상들을 배열하고, 다른 한쪽에는 현란한 색을 입혀 고대 유물의 현대적 버전으로 보이는 신상들을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였다. 작품의 형상과 색상, 설치방식 등에서 작가가 말하는 민간신앙과 공존하는 외래신앙의 토속화과정을 읽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신들을 물질화시켜 놓음으로써

작가는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 관객들은 팬데믹 상황으로 불안한 이 시기에 여러 위기상황을 헤쳐 온 인간의 역사를 반추하며 현 상황을 위로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본질이 왜곡되어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종교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제성의 작품은 물질로서의 도자와 범주로서의 도자 두 측면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지금까지 도자분야가 천착해왔던 매체에 대한 비범한 통제력이나 기술, 정교함 등은 찾아볼 수 없지만 점토 특유의 원초적 끈끈함 같은 것이 느껴진다. 투박하게 손으로 빚어 만든 형상들에서 누구나 한번쯤 어린 시절 손으로 주물러 보았던 점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점토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권이 공유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흔한 일상의 물질이다. 감각적이고 가변적이며,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물질이며,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원초적 본능에 즉각 반응하는 물질 이다. 또한 작품의 내용과 설치방식이 수집이라는 점에서 오랜 시간 박물관 컬렉션의 주요 부분을 담당해 왔던 도자의 역사를 환기시킨다. 더 나아가 도자의 발전과정과 현대도예의 토착화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이번 공모전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이기 이전에 도예작가로서 지금 이 시대에 도예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이해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10회 비엔날레 제목인 Re-Start가 시사하듯이 이번 비엔날레를 계기로 풍부한 문화적 어휘를 지닌 도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돌파적(breakthrough)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난 20년 간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가 한국 현대도예의 발전과 확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도자예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Of the 2,503 entries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76 pieces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Of these 76, six pieces were selected as prize winners. The 76 pieces include objects, figures, installations, and video works, and show balanced distribution. Works of diverse tendencies, such as those exploring materials and expressive techniques unique to ceramics with a focus on the properties of clay and others experimenting with mixture of ceramics with other media, were presented to the competition.

Compared with previous editions of the competition, noteworthy this year is that the works tend be smaller in size or scale and there are fewer experimental works than in previous years. Such changes seem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shipping costs borne by individual entrants, which itself was a result of changes in how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 is being hosted and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methods wrought by the COVID-19 pandemic. Also, with proliferation of online platforms, the preference now is to produce works that will look greater on computer screens than at onsite exhibitions. This may be another factor in the changes we have witnessed in the competition this year. Even with all present conditions consider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is year remains frustrated somehow, when compared with previous competitions, which had steadily developed through wide-ranging experimentation on medium ceramics and ceramics

as expression beyond the limitations of ceramics as a genre of art.

Another notable feature of this competition is the greater number of works that use technology such as digital printing and 3D printing. More and more ceramic artists have applied new technology to their works over the last decade. If works of previous competitions showed the effect of such technologies as visual outcomes, the works presented to this competition have technologies embedded in the concepts or production processes. This can be seen as meaningful change. There are also many works which emphasize the physical properties of ceramics as material such as clay and glaze. However, it is somewhat regrettable that the artists explored properties of the material and technical perfection while leaving their intention or the subject or contents vague. Although many works dealing with the issues of this time, including personal narratives, racial problems, migrati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presented, there are some where the means of expression or use of the medium are not closely connected to the subject due to lack of communication as pointed out by the jury. Ceramic artists engaged in medium-specific work need to consider this very seriously.

The KICB Residency Award was given to *Cabinet of Curiosities* by Jeisung Oh, an installation gathering of religious figures and ancient civilian gods in a cabinet of curiosities, which became the prototype of taxonomy and museums. The artists is interested in the interface between two disparate cultures and the process of absorption and merging into each culture, in observance of the Western Cabinet of Curiosities, referred to as private storage, being imported into the Qing Dynasty, transformed into Dabogakgyeongdo, and introduced as a new wind of Korean folk paintings in the form of a Checkgado. As the artist stated, folk religious figures such as jokduri (bride’s headdress), wonang (lovebird), fish, an image of haetae (imaginary unicorn-lion), a pagoda, as well as religious icons are collected and displayed on shelves, like books displayed on a bookshelf. On one side are wood-fired deity statues which look like ancient relics just recently excavated from tombs, and on the other side are modernized versions of ancient relics coated in colorful paints. From the shapes and colors of objects and the means of display, we can read the localization process of foreign religions coexisting with folk religions, as the artist stated. What did the artist intend to do say by materializing invisible gods? In this uncertain times of the pandemic, the audience can find comfort as they ruminate on the history of humans who have overcome many crises, or they may think about religion, which has degraded to nothing more than faith for blessing and become distorted in essence.

Oh’s work addresses both aspects of ceramics, ceramics as physical material and ceramics as a category of art. I cannot find extraordinary control of the medium, techniques, and exquisiteness, which have been pursued by ceramic artists in his work. But I can feel a kind of primitive viscousness unique to clay. Figures coarsely shaped by

hand let the audience fall into nostalgia of clay, which they played with in childhood. Clay is an everyday material with a long history shared by all civilizations the world over. Clay is sensuous, variable, and material, and we all played with it in childhood. Clay is a material that immediately responds to our primitive instincts of shaping something with hands. Also, in that the contents and display method are collection, this piece reminds us of the history of ceramics, which has long been an important part of museum collections. Furthermore, this piece induces us to think about the development process of ceramics and localization process of contemporary ceramics.

Serving as a juror of this competition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rethink the meaning of my working on ceramics as a ceramic artist before being a juror, and how ceramic works are read and understood by the audience. As Re-Start, the title of the 10th Biennale, implies, I hope that this Biennale will provide impetus for many more breakthrough researches that suggest diverse views about ceramics, which has a rich cultural vocabulary. I expect that the KICB will lead the development of ceramic art, just as it has played a great role i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Korean contemporary ceramics over the past twenty years,

장 카이, KICB젊은작가상
Kai Zhang, KICB Emerging Artist Prize

란티 찬
Ranti Tjan

2001년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창립과 함께 개관한 경기도자 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와 국제공모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인정받아왔다. 수천 명의 작가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 명의 작가들은 공모전을 계기로 종진작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공모전 당선 작가들은 작품 전시와 수상 덕분에 직업상의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고 전세계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국제공모전 심사를 맡게 되어 영광이었고 즐거웠다. 1차 온라인 이미지 심사를 통과한 76점의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일부 작가들은 코로나19, 기후변화, 사회정치적 문제 등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메시지를 작품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인하여 대학이나 작업실의 공동 가마 사용이 힘들었던 기간 중에 제작된 작품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번 공모전 선정작 중 공포, 외로움, 보호 등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때로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작품 에 담긴 메시지를 해독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작품 속 유머 감각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작품에 내포된 메시지가 역설적이건 혹은 과장됐건, 미묘하건 혹은 직설적이건 간에 관객들이 즐길 거리는 풍부 하다. 나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현상은 페이스북, 위챗,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도예작가들의 등장이다. 마지막으로 전통 도자 분야보다는 학계에서 볼 수 있는 양상으로 몰드 형성에 CNC 밀링 머신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법을 디지털 기법과 함께 활용한 작품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 모두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의 성과로 기억될 것이며 현대도자의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KICB젊은작가상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 1806-1852)가 점자를 창안한 이후 시각 장애인들은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는 문자체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점자 표기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점자는 군대에서 야간 에도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개발된 문자체계이다. 브라유 점자가 시각 장애인들만을 위한 언어라면 그 반대편에는 영어라는 언어가 있다. 국제 항공업계의 상용어로 사용되던 영어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공용어로 부상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 분야에서는 영어가 세계 표준이 되었다. 장 카이(중국, 1990)는 손바닥 두께와 지름 15 cm의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한 24개 원형 판 위에 점자와 영어를 새겨 넣었다. 이 원형 판들은 바이엘 사에서 개발한 기적의 알약인 해열진통제 아스피린을 차용한 것이다. 실패한 불량 복제품을 상징하는 찌그리진 도자기 서너 점을 중앙에 두고 좌우로 각각 12개의 원형 판을 두 줄로 단단히 매달아 놓았다. 제작 과정에서 부서지기 쉬운 도자기의 성질을 엄격한 형식에 따라 배치된 원형 판과 병치시켰다. 원형 판 위에는 점자와 영어로 짧은 단어를 새겨 놓았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추측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 작품

이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이라 해도 이 판들을 손으로 더듬어 읽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여라도 시각예술을 다루는 미술관 관람객 중 소수의 시각장애인은 읽기 마련이다. 심사위원단은 이 젊은 중국작가에게 KICB 젊은작가상을 수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 젊은 작가의 다음 작품들을 기대하며 국제 무대에서 그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Since its inception in 2001 with the World Ceramic Biennale, the exhibitio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presented at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have been among the most interesting in the world. Thousands of artists had participated and over the years dozens of artists have been able to establish their name. Thanks to the exhibition and the prizes, the participated artists have been able to establish professional contacts and their works have been able to reach an international audience.

Judging for the KICB2021 International Competition was an honor and a pleasure to do. The 76 works that made it through the first selection were collectively excellent quality. Obviously, some of the artists are influenced by the current world problems, Covid 19, the climate crisis and social and political issues. Making the artworks during a lockdown, with difficult access to public kiln at universities and workshops, has a different signature than works from the pre-covid 19 period. Subjects such as fear, loneliness, and protection are visible in the works selected for the 2021 Biennale. Fortunately, humor is not lacking, althoug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decipher in an international context. Irony or exaggeration, subtle or in the face, there is much to enjoy for the good listener. What also strikes me is the emergence of ceramics that are doing well on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wechat and instagram, something the maker is usually well aware of. A final aspect that I do mention is the use of new techniques, from other disciplines than traditional ceramics as well as digital techniques, such as the use of the CNC milling machine to make molds. Both approaches provide a fresh boost i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eramics, developments that have left their mark in the KICB2021 International Competition.

Emerging Artist Prize

Since the invention of Louis Braille (1806 - 1852), anyone who is blind can use a tactile writing system, which differs in every country. It is a writing system that was developed from the army, so that messages could also be read at night. While Braille is a language that only blind people can read, and it's opposite to English. Universally used in aviation and in the 20th century increasingly spread as a universal world language, it became the world standard in the cultural sector for example. These two languages are used by Kai Zhang (China, 1990) on his fist-thick round tablets, each of the same size, with a diameter of 15 cm. The tablets refer to aspirin, Bayer's miracle drug that nips every pain in the bud. The 24 tablets are hung tightly in two rows, twelve next to each other, with a number of failed copies exactly in the middle. It combines a strict formal arrangement with the fragility of

the ceramic process. There are short words on the tablets, in braille and in English, and its meaning is a guesswork. I'm sure a blind person is not allowed to touch them as they are artworks in a museum, but in any case there are few blind persons in a museum with visual art. The jury is delighted to award this young Chinese artist as the KICB Emerging Artist Prize. We look forward to his next works of art and hope to meet him regularly on the international stage!



아시아 Asia
아시아의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아시아의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2021국제공모전 소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이천, 여주, 광주 세 지역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국제 도예 행사이다. 비엔날레의 주요 행사인 국제공모전은 제1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세계도자기엑스포 2001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대 도예의 경향을 파악하고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공모전의 공모방식은 꾸준히 변화하였다. 2001년부터 10년간 국제공모전은 생활도자와 조형도자로 나누어 다양한 작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비엔날레 10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제6회 공모전에서는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시의적 추세에 부합하여 공모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도자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물었다. 2013년에는 6회를 이어온 국제공모전을 계승한 《국제지명공모전》을 마련하였다. 세계현대도에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명도 있는 국내외 작가들 간의 우호적인 경쟁을 통해 동시대 현대 도예의 흐름을 조망하고, 비평적 담론 생성 및 이슈를 제기하는 시도였다. 이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이 국제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다. 이후 2019년, 제10회 비엔날레를 기념하며 국제공모전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경쟁을 통해 이 시대가 주목해야 할 작가를 선정하는 작가 중심의 비엔날레를 기획하였다. 작품만 접수 하였던 기존 방식이 아닌 작가별 작품과 포트폴리오를 받아 작가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공정한 심사를 위해 생활과 조형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심사기준을 달리하였으며, 운송비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부담을 줄여 전시를 풍성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국제공모전은 기존의 작품공모형식으로 돌아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도자예술의 정신, 형식을 보여주는 작품뿐 아니라 편벽된 장르 구분이나 차별적인 예술 관념이 없는 혁신적인 예술 표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신진작가 등용문을 담당했던 국제공모전의 기능을 되돌아보는 취지에서 입선작가 중 만 39세 이하 대상으로 젊은 작가상을 신설하였고, 레지던시 초대 부상이 주어지는 KICB 레지던시상을 마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작가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도 변화된 시도를 통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국제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단일 분야 공모전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2021년 국제공모전은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도자재단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 세계적인 홍보를 시작하였고, 2021년 1월 한 달 동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www.kicb.or.kr)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였다. 총 70개국에서 1,184명의 작가가 2,503점을 접수했고, 이는 코로나 19라는 위기에도 국제공모전의 명성과 20년의 견고한 역사를 입증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본 공모전의 심사는 온라인심사와 실물심사로 나뉘어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차 온라인심사는 심사위원이 심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17일간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은 총 6명(강재영, 박남희, 류핀창, 애나벨 캠벨, 피파 디슨, 엘리자베스 아그로)으로, 모든 심사위원의 개인정보가 차단된 상태로 논의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각 심사위원은 2,503점을 총 3라운드에 걸쳐 선별하였으며, 최종 입선작 76점이 경기도자미술관에 전시되었다. 이후 2차 실물심사를 위하여 별도로 선정된 6명의 심사위원(란티 찬, 김복기, 이준, 심상용, 김진엽, 김지혜)은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1차 온라인심사와 마찬가지로 3부로 나누어 진행한 2차 실물심사 동안 심사위원은 각자의 견해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최종수상작 6점을 선정하였다. 한편 이번 국제공모전은 심사위원의 걱정적인 토론 끝에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금상을 2점 수여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은 주요수상작으로 금상 2점, 은상 1점, 동상 1점, KICB 젊은작가상 1점과 KICB 레지던시상 1점을 발표하였다.

2019년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자, 몇몇 국가는 국경을 폐쇄하거나 지역을 봉쇄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위기는 작가들의 눈에 고스란히 담겨 작품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국제공모전에 참여한 작가들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정치적 상황을 관통하는 주제를 선보였다. 참여작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멈춰버린 삶,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문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사회적 현실을 고발하는 작업을 통해 그 어떤 공모전보다 비판적 시선을 담아내었다.

시기적으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503점이 출품된 국제공모전은 현시대를 직관한 작가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들의 태도처럼, 이번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온라인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였다. 어려운 시기에 참여한 작가들의 노력을 위하여 국제공모전은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전시 연계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Abou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2021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KICB is the most prestigious international ceramics event in the world. It is held every odd numbered year in Icheon, Yeosu, and Gwangju, Gyeonggi-do Province, Korea. The main event of KICB,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ulfills its mission of comprehending the trends of contemporary ceramics and discovering emerging artists to help them grow and establish their names.

Over these past 20 year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all for entries' have changed multiple times. In the first ten years since its incepti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received entries for two separate categories, Ceramics for Expression and Ceramics for Use, in order to give an opportunity to artists working in diverse fields. In the 6th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2011, the year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of KICB, the two separate categories were integrated into one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blurring of the boundaries between genres of art around the world. The 7th edition in 2013 introduced the International Prize of GICB 2013 in an attempt to project the future of contemporary ceramics and to induce critical discussions and suggest issues through friendly competition among active globally recognized artists in contemporary ceramics. This further consolidated the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10th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2019 arranged an artist-focused competition for the first time. An open call was made to artists instead of asking for the submission of artworks. This was a major change from the previous competitions, which had selected artworks. Each entrant to the 10th International Competition was required to submit his or her artworks and portfolio. Also noteworthy was that the entries were received in two separate categories - Ceramics for Use and Ceramics as Expression - and different screening criteria were applied to each category. What is more, the KOCEF covered the shipping expenses for the artists, which made the exhibition richer and more colorful.

Now, the competition for 2021 reverts back to an open call for artworks. The competition this year does not require classification of artworks as either ceramics for use or ceramics as expression. Instead, focuses on attempts by artists with innovative minds, from works showing the spirit

and formality of ceramics to innovative expression without boundaries between genres or discrimination against any specific art form. To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nefits emerging artists, it introduced the KICB Emerging Artist Prize this year to be awarded to an artist aged 39 years or younger who made it through the preliminary online selection. Also established this year is the KICB Residency Prize, by which the selected artist will be invited to a residency program. By introducing these awards in its efforts to support artists in diverse ways even as we are confronting the global crisis of COVID-19, the KICB intends to establish itself as the forum of exchange for ceramic artists the world over and consolidate the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one single field of art: ceramics.

Leveraging its network, the KOCEF started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2021 worldwide in the latter half of 2020. The KOCEF received entries to the competition through its official website (www.kicb.or.kr) throughout January 2021. A total of 2,503 entries by 1,184 artists from 70 countries were received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2021, even despite the global COVID-19 situation, which testifies to its great prestige and solid 20-year history.

Entries were screened over two phases: the preliminary screening done online and the final screening done with the actual works onsite. The preliminary screening was done by six jurors (Jaeyoung Kang, Namhee Park, Annabell Campbell, Elisabeth Agro, Lv Pinchang, and Pippa Dickson), who accessed the screening website over 17 days from the 8th to 24th of February this year. The screening was done with complete impartiality, without discussion among the jurors. Each juror screened the 2,503 entries over three rounds of screening online, and the 76 works that made it through the preliminary screening were displayed at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Afterwards, six jurors (Ranti Tjan, Boggi Kim, Jin-Yup Kim, Sang Yong Sim, Joon Lee, and Jihye Kim) visited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in person to do the final screening with the actual works, which lasted from the 4th through 6th of August. As in the preliminary screening, the final screening was done over three phases, during which each juror presented his or her own opinions. After extensive discussion, six prize-winning works were selected. However, the jury decided not to select a Grand Prize Winner. This matter led to heated debate among the jurors, and they instead announced two Gold Prizes, one Silver Prize,

2021 국제공모전 접수현황 접수기간: 2021년 1월 1일 – 1월 31일 총 70개국 1,184인 2,503점 접수	대륙	전체	아시아(한국)	아메리카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Continents	Total	Asia(Korea)	Americas	Europe	Middle East	Oceania	Africa	
KICB2021 International Competition Reports on Entries in 2021 Entry Period: January 1 – January 31, 2021 Total 2,503 entries by 1,184 artists from 70 countries	국가수	Countries	70	15	9	36	6	2	
	작품수	Artworks	2,503	859(481)	520	922	126	30	46
	작가수	Artists	1,184	456(274)	206	422	55	13	23

2021 1차 온라인심사 결과 심사기간: 2021년 2월 8일 – 2월 24일 심사대상: 70개국 2,503점 최종선정: 76점	대륙	전체	아시아(한국)	아메리카	유럽	중동	
	Continents	Total	Asia(Korea)	Americas	Europe	Middle East	
Reseut of the 1st Online Screening Period: February 8 – February 24, 2021 Entries for Screening: 2,503 artworks from 70 countries Numbers to be selected by jurors: 76 artworks	국가수	Countries	25	6(1)	2	15	2
	작품수	Artworks	76	28(17)	17	26	5
	작가수	Artists	69	25(16)	15	25	4

one Bronze Prize, one Emerging Artist Prize, and one KICB Residency Prize.

In response to the worldwide spread of COVID-19 all over the world in 2019, some countries prohibited people from moving. They took extreme measures including closure of borders or imposition of lockdowns in some regions. This global crisis was captured by artists in ways that were revealed in their works.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2021 show the reality we face and address the political situation. Through works revealing the stoppage of life due to the pandemic, criticizing the rapid digitalization of civilization, and criticizing the political opportunism afforded by the national crisis to grab power, the artists show a more critical perspective this year than any other competitions in the past.

Despite the terrible situation brought about by the global crisis,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received 2,503 entries, which shows how strongly artists felt about the issues of our time. The KICB responded to the prevailing sentiment expressed by the artists by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the Online Platform with a view to suggesting a new paradigm of culture appropriate for the new era. In recognition of the great efforts of the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competition in such a difficult tim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will continue to conduct PR and offer exhibition programs online.

2021 2차 실물심사 결과
 심사기간: 2021년 8월 4일 – 8월 6일
 심사대상: 25개국 76점
 최종선정: 6점

Result of the On-site Screening
 Period: August 4 – August 6, 2021
 Entries for Screening: 76 artworks from 25 countries
 Final Selection: 6 artworks

대륙	전체	아시아	한국	아메리카
Continents	Total	Asia	Korea	Americas
작품수	6	2	2	2
작가수	6	2	2	2

참가안내
모집대상
흙(도자)을 이용해 창작한 현대예술작품 (조각, 공예, 회화, 사진, 비디오아트) 및 실용도자작품
접수기간
접수대상
※ 음향매체가 포함된 작품인 경우, 온라인 접수에서 반드시 음향작품임을 명기하고 원본파일을 Vimeo(비메오) 또는 YouTube(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링크주소를 제출해야 함

발표 및 시상식
● 심사발표: ① 1차 심사결과 발표: 2021.3.2. <p>② 2차 심사결과 발표: 2021.9.17.</p>
※ 비엔날레 홈페이지 공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시상식: 2021.9.24.

<작품포장 및 운송>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작가 본인 책임아래 미술전문 운송사를 통하여 작품 운송을 진행하여야하며, 작품의 포장 및 반입에 대한 운송경비는 작가가 부담합니다.
● 작품을 인수받은 시점부터의 모든 운송(전시 디스플레이, 작품의 재포장 및 반출에 대한 운송)은 한국도자재단 책임 아래 진행되며 운송경비는 재단이 부담합니다.
● 출품자는 작품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출품작을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작품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입운송 전의 작품 상태를 확인·증명 해야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반입 이전까지 발생한 작품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외운송의 경우, 작품은 반드시 'Nail to Nail' 방식 (발송처 에서 경기현대도자미술관까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및 인보이스 제출은 필수이며 미술품 전문운송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수수료 및 운송료(세관으로 부터 작품접수처까지)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도자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작품반출은 전시 폐막 이후(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가의 부재로 작품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도자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
접수방법
○ 제1차 작품사진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2021. 1. 1.~2021. 1. 31.
● 온라인접수: www.kicb.or.kr
● 제출자료
① 참여 신청서
② 작품 당 사진 5장 (정면, 측면 및 세부/총 15장)
※ 작품사진 제출형식: JPG형식, 1200 x 1600 px, 최소 300dpi, 2.0MB 용량 미만
※ 영상작품 제출형식: 5분 내외의 동영상 링크주소 (비메오 또는 유튜브) 및 스틸컷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2차 실물작품 현장접수
● 접수기간: 국내) 2021. 6. 7.(월)~6. 18.(금) <p>국외) 2021. 6. 7.(월)~6. 25.(금)</p>
● 접수장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p>경기도자미술관</p>
● 제출자료
① 1차 심사에서 통과한 실물작품
② 세관신고서 및 인보이스
※ 해외운송에 한함.
(작가가 직접 방문·접수하는작품 포함)
③ 작품상태보고서
④ 그 외 추가 요청자료(작품설치설명서, 전시참가동의서, 작가노트 등)

<주의사항>
※ 1차 접수 시, 전시 가능한 작품이 1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영상작품 및 미디어아트의 경우, Vimeo(비메오) 또는 YouTube(유튜브)에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고 링크주소와 대표 스틸컷을 제출해야함

접수자격 및 출품조건
● 연령, 국적 제한 없음
● 1인 또는 1팀 (단, 1팀은 1인으로 간주)
● 3점 이내로 응모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 포트폴리오
※ 전시 가능한 작품 1점 이상 포함
※ (필수)작품설치 시, 250×250×250cm (가로×세로×높이) 이하로 제한
※ 전시 가능한 작품은 국내외 타 공모전 수상 이력이 없어야 함
※ 전시 가능한 작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어야 함
※ 국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출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의 결격 사유가 됨.
수상작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도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접수자격 및 출품조건
● 연령, 국적 제한 없음
● 1인 또는 1팀 (단, 1팀은 1인으로 간주)
● 3점 이내로 응모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 포트폴리오
※ 전시 가능한 작품 1점 이상 포함
※ (필수)작품설치 시, 250×250×250cm (가로×세로×높이) 이하로 제한
※ 전시 가능한 작품은 국내외 타 공모전 수상 이력이 없어야 함
※ 전시 가능한 작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어야 함
※ 국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출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의 결격 사유가 됨.
수상작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도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
접수방법
○ 제1차 작품사진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2021. 1. 1.~2021. 1. 31.
● 온라인접수: www.kicb.or.kr
● 제출자료
① 참여 신청서
② 작품 당 사진 5장 (정면, 측면 및 세부/총 15장)
※ 작품사진 제출형식: JPG형식, 1200 x 1600 px, 최소 300dpi, 2.0MB 용량 미만
※ 영상작품 제출형식: 5분 내외의 동영상 링크주소 (비메오 또는 유튜브) 및 스틸컷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2차 실물작품 현장접수
● 접수기간: 국내) 2021. 6. 7.(월)~6. 18.(금) <p>국외) 2021. 6. 7.(월)~6. 25.(금)</p>
● 접수장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p>경기도자미술관</p>
● 제출자료
① 1차 심사에서 통과한 실물작품
② 세관신고서 및 인보이스
※ 해외운송에 한함.
(작가가 직접 방문·접수하는작품 포함)
③ 작품상태보고서
④ 그 외 추가 요청자료(작품설치설명서, 전시참가동의서, 작가노트 등)

<주의사항>
※ 1차 접수 시, 전시 가능한 작품이 1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영상작품 및 미디어아트의 경우, Vimeo(비메오) 또는 YouTube(유튜브)에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고 링크주소와 대표 스틸컷을 제출해야함

접수자격 및 출품조건
● 연령, 국적 제한 없음
● 1인 또는 1팀 (단, 1팀은 1인으로 간주)
● 3점 이내로 응모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 포트폴리오
※ 전시 가능한 작품 1점 이상 포함
※ (필수)작품설치 시, 250×250×250cm (가로×세로×높이) 이하로 제한
※ 전시 가능한 작품은 국내외 타 공모전 수상 이력이 없어야 함
※ 전시 가능한 작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어야 함
※ 국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출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의 결격 사유가 됨.
수상작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도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발표 및 시상식
● 심사발표: ① 1차 심사결과 발표: 2021.3.2. <p>② 2차 심사결과 발표: 2021.9.17.</p>
※ 비엔날레 홈페이지 공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시상식: 2021.9.24.

<작품포장 및 운송>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작가 본인 책임아래 미술전문 운송사를 통하여 작품 운송을 진행하여야하며, 작품의 포장 및 반입에 대한 운송경비는 작가가 부담합니다.
● 작품을 인수받은 시점부터의 모든 운송(전시 디스플레이, 작품의 재포장 및 반출에 대한 운송)은 한국도자재단 책임 아래 진행되며 운송경비는 재단이 부담합니다.
● 출품자는 작품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출품작을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작품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입운송 전의 작품 상태를 확인·증명 해야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반입 이전까지 발생한 작품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외운송의 경우, 작품은 반드시 'Nail to Nail' 방식 (발송처 에서 경기현대도자미술관까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및 인보이스 제출은 필수이며 미술품 전문운송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수수료 및 운송료(세관으로 부터 작품접수처까지)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도자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작품반출은 전시 폐막 이후(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가의 부재로 작품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도자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포장 및 운송>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작가 본인 책임아래 미술전문 운송사를 통하여 작품 운송을 진행하여야하며, 작품의 포장 및 반입에 대한 운송경비는 작가가 부담합니다.
● 작품을 인수받은 시점부터의 모든 운송(전시 디스플레이, 작품의 재포장 및 반출에 대한 운송)은 한국도자재단 책임 아래 진행되며 운송경비는 재단이 부담합니다.
● 출품자는 작품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출품작을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작품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입운송 전의 작품 상태를 확인·증명 해야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반입 이전까지 발생한 작품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외운송의 경우, 작품은 반드시 'Nail to Nail' 방식 (발송처 에서 경기현대도자미술관까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및 인보이스 제출은 필수이며 미술품 전문운송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수수료 및 운송료(세관으로 부터 작품접수처까지)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도자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작품반출은 전시 폐막 이후(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가의 부재로 작품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도자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1차 접수 시, 전시 가능한 작품이 1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영상작품 및 미디어아트의 경우, Vimeo(비메오) 또는 YouTube(유튜브)에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고 링크주소와 대표 스틸컷을 제출해야함

<작품포장 및 운송>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작가 본인 책임아래 미술전문 운송사를 통하여 작품 운송을 진행하여야하며, 작품의 포장 및 반입에 대한 운송경비는 작가가 부담합니다.
● 작품을 인수받은 시점부터의 모든 운송(전시 디스플레이, 작품의 재포장 및 반출에 대한 운송)은 한국도자재단 책임 아래 진행되며 운송경비는 재단이 부담합니다.
● 출품자는 작품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출품작을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작품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입운송 전의 작품 상태를 확인·증명 해야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반입 이전까지 발생한 작품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외운송의 경우, 작품은 반드시 'Nail to Nail' 방식 (발송처 에서 경기현대도자미술관까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및 인보이스 제출은 필수이며 미술품 전문운송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수수료 및 운송료(세관으로 부터 작품접수처까지)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도자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작품반출은 전시 폐막 이후(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가의 부재로 작품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도자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포장 및 운송>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재단이 작품을 인수 받은 이후 파손이 발생할 경우, 파손작품의 처리는 한국 도자재단과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유의사항>
● 한국도자재단에서 통보한 접수기간 이후에 도착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입상작(전시작)은 제2차 실물작품 심사에서 최종적 으로 결정되며, 예심에서 통과한 작품 이미지와 실물작품이 다른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2차 실물작품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탈락된 작품은 한국도자재단에 의해 반출됩니다.
● 심사 이후 표절 시비가 발생할 경우, 재심의 처리에 의거 하여 수상을 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작품의 디스플레이는 한국도자재단의 책임아래 수행되며, 전시기간 중 작품 반출은 불가능합니다.
●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홈페이지 (www.kicb.or.kr)에 공지됩니다.

접수자격 및 출품조건
● 연령, 국적 제한 없음
● 1인 또는 1팀 (단, 1팀은 1인으로 간주)
● 3점 이내로 응모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 포트폴리오
※ 전시 가능한 작품 1점 이상 포함
※ (필수)작품설치 시, 250×250×250cm (가로×세로×높이) 이하로 제한
※ 전시 가능한 작품은 국내외 타 공모전 수상 이력이 없어야 함
※ 전시 가능한 작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어야 함
※ 국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출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의 결격 사유가 됨.
수상작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도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참가안내
모집대상
흙(도자)을 이용해 창작한 현대예술작품 (조각, 공예, 회화, 사진, 비디오아트) 및 실용도자작품
접수기간
접수대상
※ 음향매체가 포함된 작품인 경우, 온라인 접수에서 반드시 음향작품임을 명기하고 원본파일을 Vimeo(비메오) 또는 YouTube(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링크주소를 제출해야 함

발표 및 시상식
● 심사발표: ① 1차 심사결과 발표: 2021.3.2. <p>② 2차 심사결과 발표: 2021.9.17.</p>
※ 비엔날레 홈페이지 공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시상식: 2021.9.24.

<작품포장 및 운송>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작가 본인 책임아래 미술전문 운송사를 통하여 작품 운송을 진행하여야하며, 작품의 포장 및 반입에 대한 운송경비는 작가가 부담합니다.
● 작품을 인수받은 시점부터의 모든 운송(전시 디스플레이, 작품의 재포장 및 반출에 대한 운송)은 한국도자재단 책임 아래 진행되며 운송경비는 재단이 부담합니다.
● 출품자는 작품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출품작을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작품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입운송 전의 작품 상태를 확인·증명 해야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반입 이전까지 발생한 작품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외운송의 경우, 작품은 반드시 'Nail to Nail' 방식 (발송처 에서 경기현대도자미술관까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및 인보이스 제출은 필수이며 미술품 전문운송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수수료 및 운송료(세관으로 부터 작품접수처까지)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도자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작품반출은 전시 폐막 이후(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가의 부재로 작품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도자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포장 및 운송>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작가 본인 책임아래 미술전문 운송사를 통하여 작품 운송을 진행하여야하며, 작품의 포장 및 반입에 대한 운송경비는 작가가 부담합니다.
● 작품을 인수받은 시점부터의 모든 운송(전시 디스플레이, 작품의 재포장 및 반출에 대한 운송)은 한국도자재단 책임 아래 진행되며 운송경비는 재단이 부담합니다.
● 출품자는 작품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출품작을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작품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입운송 전의 작품 상태를 확인·증명 해야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반입 이전까지 발생한 작품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외운송의 경우, 작품은 반드시 'Nail to Nail' 방식 (발송처 에서 경기현대도자미술관까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및 인보이스 제출은 필수이며 미술품 전문운송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수수료 및 운송료(세관으로 부터 작품접수처까지)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도자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작품반출은 전시 폐막 이후(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가의 부재로 작품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도자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1차 접수 시, 전시 가능한 작품이 1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영상작품 및 미디어아트의 경우, Vimeo(비메오) 또는 YouTube(유튜브)에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고 링크주소와 대표 스틸컷을 제출해야함

<작품포장 및 운송>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작가 본인 책임아래 미술전문 운송사를 통하여 작품 운송을 진행하여야하며, 작품의 포장 및 반입에 대한 운송경비는 작가가 부담합니다.
● 작품을 인수받은 시점부터의 모든 운송(전시 디스플레이, 작품의 재포장 및 반출에 대한 운송)은 한국도자재단 책임 아래 진행되며 운송경비는 재단이 부담합니다.
● 출품자는 작품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출품작을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작품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입운송 전의 작품 상태를 확인·증명 해야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반입 이전까지 발생한 작품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외운송의 경우, 작품은 반드시 'Nail to Nail' 방식 (발송처 에서 경기현대도자미술관까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및 인보이스 제출은 필수이며 미술품 전문운송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수수료 및 운송료(세관으로 부터 작품접수처까지)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도자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작품반출은 전시 폐막 이후(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가의 부재로 작품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도자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1차 접수 시, 전시 가능한 작품이 1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영상작품 및 미디어아트의 경우, Vimeo(비메오) 또는 YouTube(유튜브)에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고 링크주소와 대표 스틸컷을 제출해야함

접수자격 및 출품조건
● 연령, 국적 제한 없음
● 1인 또는 1팀 (단, 1팀은 1인으로 간주)
● 3점 이내로 응모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 포트폴리오
※ 전시 가능한 작품 1점 이상 포함
※ (필수)작품설치 시, 250×250×250cm (가로×세로×높이) 이하로 제한
※ 전시 가능한 작품은 국내외 타 공모전 수상 이력이 없어야 함
※ 전시 가능한 작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어야 함
※ 국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출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의 결격 사유가 됨.
수상작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도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
접수방법
○ 제1차 작품사진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2021. 1. 1.~2021. 1. 31.
● 온라인접수: www.kicb.or.kr
● 제출자료
① 참여 신청서
② 작품 당 사진 5장 (정면, 측면 및 세부/총 15장)
※ 작품사진 제출형식: JPG형식, 1200 x 1600 px, 최소 300dpi, 2.0MB 용량 미만
※ 영상작품 제출형식: 5분 내외의 동영상 링크주소 (비메오 또는 유튜브) 및 스틸컷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2차 실물작품 현장접수
● 접수기간: 국내) 2021. 6. 7.(월)~6. 18.(금) <p>국외) 2021. 6. 7.(월)~6. 25.(금)</p>
● 접수장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p>경기도자미술관</p>
● 제출자료
① 1차 심사에서 통과한 실물작품
② 세관신고서 및 인보이스
※ 해외운송에 한함.
(작가가 직접 방문·접수하는작품 포함)
③ 작품상태보고서
④ 그 외 추가 요청자료(작품설치설명서, 전시참가동의서, 작가노트 등)

<주의사항>
※ 1차 접수 시, 전시 가능한 작품이 1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영상작품 및 미디어아트의 경우, Vimeo(비메오) 또는 YouTube(유튜브)에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고 링크주소와 대표 스틸컷을 제출해야함

Guideline for Participation
Eligibility
Artworks that use clay/ceramics as the main material or subject matter are eligible to be submitted.
Condition for Application
● There are neither age nor nationality restrictions.
● Applicants may apply as an individual or as a team(One (1) team is equivalent to one (1) individual applicant).
● A maximum of 3 artwork entries is allowed.
● Applicants must submit a portfolio with works created within the past three (3) years.
※ Portfolio must include at least one (1) entry available for exhibition.
※ A single entry must be, when displayed, under the specific dimension: 250(W)×250(D)×250(H) cm.
※ This one (1) entry shall not have previously received an award in another competition, ei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 Artist must have the ownership of the work that can be displayed.
※ Applicant with no reasons for domestic and foreign travel disqualification.
※ Failure to meet any of the above requirements will result in disqualification in the screening process. In the event that an award-winning entry is subsequently revealed to have failed to meet the above requirements, prizes may be retroactively reclaimed.

Official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How to Apply
○ Submission of Images for Semifinal Selection
● Date: January 1. – 31, 2021
● Online Application: www.kicb.or.kr
● Submission Requirements
① Application form
② 5 images per 1 work(front, side, and detailed shots/15 images in total)
※ Work image: JPG format, above 1200×1600px and 300DPI(max. 2.0MB)
※ Video Work: link of the max. 5 minute video (Vimeo or Youtube) and still-cut images
③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 Submission of Actual works for Final Selection
● Date: Domestic) June 7(Mon.) – 18(Fri.), 2021 <p>Overseas) June 7(Mon.) – 25(Fri.), 2021</p>
● Venue: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Art, 263, Gyeongchung-daero 2697beon-gil, Icheon-si, Gyeonggi-do, Korea
● Submission Requirements
① Actual work that passed semifinal screening
② Customs declaration form and an invoice
※ Only for the overseas shipments(also applies to artworks submitted in person by the artists)
③ Condition report
④ Additional requested data(Exhibition participation agreement, Artists’ notes, Display instruction, etc.)

<Submission Guideline>
※ A video and media art entry must be submitted to the online application with Vimeo or YouTube link and still-cut images.
※ Entry involving sound media must be marked to the online application and submitted with Vimeo or Youtube link.

Announcement & Award Ceremony
● Announcement of results
① Semifinal Selection: March 2, 2021
② Final Selection: September 17, 2021
※ Will be announced individually and noticed on our webpage.
● Award Ceremony: September 24, 2021

<TRANSPORTATION & PACKING>
● The artwork that have passed the semifinal screening must be shipped through an art shipping company for submission of the final selection, and the expenses incurred by shipping and packing the artwork should be managed by the artist.
● The KOCEF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he transportation needs(i.e. exhibition display, repacking, and return of the artwork) and manage the shipping expenses from the time the artwork was received.
● The artist should pack the artwork safely to prevent any damage that may occur while shipping, and prepare a status report to verify and prove the condition of the work before the transportation. The KOCEF is not responsible for any damage of the artwork that occurred while shipping.
● For the overseas transportation, the artwork must be shipped under a "Nail to Nail" coverage from the place of shipment to the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Submission of customs declaration form and an invoice is mandatory. If it is not transported through a professional art shipping company, additional expenses such as customs fees and transportation fees(from customs to the artwork reception place) may occur,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KOCEF.
● Returning of all the artworks will proceed after the exhibition is closed (from December 1, 2021 to February 28, 2022). KOCEF wi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transfer of the work if it is not possible to receive the work due to the absence of the artist.

<INSURANCE>
● The KOCEF is responsible for the safe handling of the artwork from the time of its receipt to the time the artwork is returned to the artist. In order to enable the KOCEF to procure insurance for the artwork for the duration of this period, the artist must specify the artwork’s selling value and the ‘insurance value’ in the artwork description form.
● If any damage occurs to an artwork after it has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and been received by the KOCEF, the loss shall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s of the KOCEF and the insurance company.

<NOTE>
● Works that arrive after the notified reception period will be excluded from the screening.
● All the prize-winning artworks(works for the onsite exhibition) will be selected through the final screening, and if the actual work selected through the semifinal screening differs from the work image that was submitted by the online application, the artwork may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KICB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s. In this case, disqualified artworks will be returned to the artists by the KOCEF.
● If a plagiarism dispute occurs after screening, the award can be cancelled according to the reconsideration.

Announcement & Award Ceremony
● Announcement of results
① Semifinal Selection: March 2, 2021
② Final Selection: September 17, 2021
※ Will be announced individually and noticed on our webpage.
● Award Ceremony: September 24, 2021

<TRANSPORTATION & PACKING>
● The artwork that have passed the semifinal screening must be shipped through an art shipping company for submission of the final selection, and the expenses incurred by shipping and packing the artwork should be managed by the artist.
● The KOCEF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he transportation needs(i.e. exhibition display, repacking, and return of the artwork) and manage the shipping expenses from the time the artwork was received.
● The artist should pack the artwork safely to prevent any damage that may occur while shipping, and prepare a status report to verify and prove the condition of the work before the transportation. The KOCEF is not responsible for any damage of the artwork that occurred while shipping.
● For the overseas transportation, the artwork must be shipped under a "Nail to Nail" coverage from the place of shipment to the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Submission of customs declaration form and an invoice is mandatory. If it is not transported through a professional art shipping company, additional expenses such as customs fees and transportation fees(from customs to the artwork reception place) may occur,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KOCEF.
● Returning of all the artworks will proceed after the exhibition is closed (from December 1, 2021 to February 28, 2022). KOCEF wi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transfer of the work if it is not possible to receive the work due to the absence of the artist.

<INSURANCE>
● The KOCEF is responsible for the safe handling of the artwork from the time of its receipt to the time the artwork is returned to the artist. In order to enable the KOCEF to procure insurance for the artwork for the duration of this period, the artist must specify the artwork’s selling value and the ‘insurance value’ in the artwork description form.
● If any damage occurs to an artwork after it has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and been received by the KOCEF, the loss shall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s of the KOCEF and the insurance company.

<NOTE>
● Works that arrive after the notified reception period will be excluded from the screening.
● All the prize-winning artworks(works for the onsite exhibition) will be selected through the final screening, and if the actual work selected through the semifinal screening differs from the work image that was submitted by the online application, the artwork may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KICB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s. In this case, disqualified artworks will be returned to the artists by the KOCEF.
● If a plagiarism dispute occurs after screening, the award can be cancelled according to the reconsideration.

Matters related to the display of works will be handled by KOCEF and works displayed may not be removed from the exhibition hall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 The above is subject to change and if there is any change, it will be posted on the KICB website, (www.kicb.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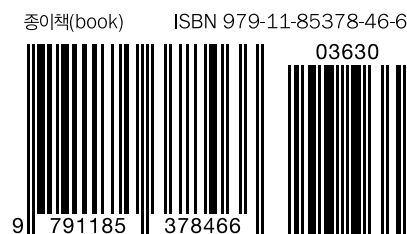




한국도자재단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발행인 최연
발행처 한국도자재단
주최 경기도
주관 한국도자재단, KICB2021 국제위원회
전시기간 2021년 10월 1일 ~ 11월 28일
전시장소 경기도자미술관
온라인플랫폼(www.kicb.or.kr)

비엔날레 추진단장 장동광
경기도자미술관 관장 장기훈
전시교류팀장 최영무
큐레이터 박민혜 김한별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황선규 신주영 노현지
소장품 보존 및 관리 이소연
홍보 김지희 이후성
전시지원 최리지 표지수 이경 김서울 김지수
한정운 노수진 장수빈 이인욱
이은호 한보미 한누리 한민우
전시 디자인 넥스디자인플래닝(주)
전시 시공 (주)티앤드비토달건설
작품운송설치 동부아트
그래픽 및 도록 디자인 신재호
사진촬영 이좌규 김태은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문수열
이지샘 에이전시
상패 에이케이 세라믹 센터 안성만



Korea Ceramic Foundation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ompetition 2021

First published on October 1, 2021
Publisher Yun CHOI
Publish Korea Ceramic Foundation(KOCEF)
Organizer Gyeonggi-do Province
Host Korea Ceramic Foundation(KOCEF), KICB2021 International Committee
Period October 1, 2021 ~ November 28, 2021
Venue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Online Platform(www.kicb.or.kr)

General Director Dong Kwang CHANG
Director,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Kihoon CHANG
Leader, Exhibition Team Youngmoo CHOI
Curator Minhye PARK Hanbyul KIM
Assistant Curators Sunkyu HWANG Juyoung SHIN Hyeonji RHO
Registrar Soyeon LEE
PR Jihee KIM Hoosung LEE
Exhibition Team Leeji CHOI Jisu PYO Kyeong YI Seoyul KIM Jisu KIM
Joungoun HAN Sujin RHO Subin JANG Inwook LEE
Eunho LEE Bomi HAN Noori HAN Minwoo HAN
Space Designed by Nex Design Planning
Space Constructed by T&B Total Construction
Transported by Dongbu Art
Graphic & Catalogue Designed by Jaeho SHIN
Photo Jwa Kyu LEE Tae Eun KIM
Translator Sooyul MO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zizam Interpretation & Translation agency
Trophy Seongman AHN, AK Ceramic Center

